인쇄 326 쪽

왕께서는 배들 앞에 나아가 축원한 뒤, 왕실 배들에 내릴 상금을 마련해 공양물로 삼고 승려들에게 공양하였다. 왕실 배와 경주에 참가한 배들이 모두 절을 올린 뒤, 노를 저어 정해진 차례에 따라 올라가 나란히 대열을 이루었다. 그곳에서는 왕이 앉은 자리 앞의 아수라야차 깃발을 신호로 삼았다.

시리삼마라차이끄라이수묵호를 선두로 왕실 배들이 경주하여 내려오고, 이어 다른 경주용 배들도 차례로 내려왔다. 모든 경주가 끝나자 신하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우승자들에게 상을 내려 행사를 마쳤다.

그 뒤 국왕께서는 곧 왕궁으로 돌아가셨다. 그때 국왕께서 라따나반에게 명하여 선정에 든 부처님 형상 다섯 구를 만들게 하셨다. 그중 한 구는 왕을 위한 불상으로, 다른 한 구는 금으로 만들고 왕관과 아홉 가지 보석으로 장식하였다. 또 하나는 금으로 만들어 보석으로 장식하고, 나머지 한 구는 순금으로 만든 불상이었다. 아울러 금으로 만든 불상 두 구와 은으로 만든 불상 두 구, 그리고 온몸을 조각한 은제 받침대도 마련하게 하셨다.

받침대에는 아홉 가지 보석을 박아 장식하고, 그 위에는 나가사왓 불상을 모셨다. 은으로 만든 선정불 두 구와 온몸을 조각한 은제 받침대도 갖추었다.

준비가 끝나자 국왕께서는 왕실 배를 꾸미고 불상을 모셔 배에 안치하도록 하셨다. 열세 번째 달의 밝은 날, 새벽 두 시가 되자 승리의 배와 수판낭(황금 백조) 왕실 배를 마련하고, 라차차이끄라이삼무크완차이카랏 배도 곁에 세워 두었다. 다른 배들도 차례로 배치하고, 군신들을 모두 태워 행렬을 갖추었다.

금으로 만든 불상과 보석으로 장식한 불상은 마하 우파랏에게 맡겨 배에 모시게 하고, 왕실의 두 불상은 대신들에게 맡겼다. 두 불상은 장엄한 장식과 전쟁용 장비로 꾸몄다. 왕께서는 먼저 가이 배를 타고 나아가셨고, 수판낭 배는 왕실 불상 두 구를 모시고 뒤따라 출발하였다. 두 배는 차례로 행렬에 합류해 강을 따라 나아갔다.

국왕께서는 승리의 배인 수판낭 왕실 배에 오르셨다.

물이 차오르자 승리의 배는 나아가 강을 따라 내려갔다. 왕실 불상을 모신 수판낭 배가 앞장섰고, 그 뒤로 큰 돛을 단 배들이 행렬을 이루었다. 국왕께서는 여러 대신에게 명하여 왕실 배를 이끌게 하셨다. 왕실 불상을 모신 행렬이 왕 앞에 이르자, 국왕께서는 배 위에서 불상을 맞이하셨다.

해가 저물 무렵, 국왕께서는 왕실 예복과 장신구를 갖추고 수판낭 왕실 배 한가운데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행렬은 질서 있게 나아갔다. 국왕께서는 타남타와수크리 선착장에 이르러 불상을 모신 행렬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셨다. 그곳에서 왕실 불상을 맞이해 배에 모시고 함께 나아가셨다.

왕실 불상을 **스리사뺏다라람**에 모신 뒤에는 큰 잔치를 열고 7 일 동안 각종 공연을 베풀었다.



일요일, 이익월 초닷새에 뚜난툿 마을과 란창 마을의 두 촌장이 왕께 나아와 문안을 드렸다. 왕께서는 두 촌장에게 큰 상을 내리셨다. 각지에서 온 촌장들은 영예롭게 고향으로 돌아갔다. 나라 안팎의 모든 지역이 크게 평안했고, 아유타야 왕국도 번성하였다.

나라가 평안해지자 왕께서는 왕실의 시종과 관리들을 심사하셨다. 뚜난툿과 란창의 촌장들에게도 상을 내리셨다. 두 촌장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고, 온 나라가 큰 평화를 누렸다.

국왕께서는 왕실 시종에 관한 법률을 정하고, 시장의 관리들과 세금 징수관들을 임명하셨다. 또 라차카나와시리랏와시부라나라는 승려들을 왕실에 모셔 공양을 올리게 하셨다.

국왕께는 두 왕자가 계셨다. 한 분은 차오파 수탄이라 불렸고, 다른 한 분은 차오파 시사왓팍쁘라차워라파야엇이었다. 왕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나자, 국왕께서는 왕실의 옛 관례에 따라 장례를 치르게 하셨다. 마하 우파랏은 궁으로 나와 문상하였다. 저녁 무렵 독약을 먹고 세상을 떠났다. 국왕께서는 사랑하는 왕자가 죽은 것을 몹시 슬퍼하셨다. 장례는 마하 우파랏의 예에 따라 성대하게 치르도록 하셨다. 국왕께서는 여러 가지 선행과 보시를 행하셨다.

차오파 시리사왓팍의 치세

서기 1601 년, 불기 2144 년, 소의 해
사카라트 963 년, 소의 해 트리삭에 국왕께서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재위 기간은 7 년 반이었다. 대신과 고위 관리들, 그리고 촌락과 숲속의 승가를 대표하는 승려들이 의논을

마친 뒤, 한쪽 눈을 잃은 왕자 차오파 시리사왓팍을 왕위에 올려 전통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국왕께서는 선왕의 장례를 예전 왕들의 관례에 따라 치르도록 하셨다.

프라짜오 쏭탐의 치세

사카라트 964 년, 호랑이 해 짯와삭에 프라 시신은 왓 라캉에서 승려가 되었다. 그는 삼장에 정통하여 높은 승직을 받았고, '프라 피몬탐 안낫쁘리차'라 불렸다. 삼베다와 여러 종교 경전에 능통했으며, 제자와 재가 신도도 많았다. 그를 양자로 삼으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무렵 프라 시신은 지민 시리사락과 비밀리에 모의했다. 그들은 뜻을 같이하는 무리를 많이 모은 뒤, 해 질 무렵 반란을 일으켰다. 왓 프라 시 랏타나마하탓의 쁘랑 앞에 집결했다가 길한 시각에 군사를 일으켰다. 몽콘순톤 문을 지나 왕궁 안 뜰까지 들어왔다.

밤 당번을 서던 관리들이 이 일을 국왕께 아뢰었다. 국왕께서는 놀라 잠에서 깨어 한동안 계시다가 말씀하셨다.

"이미 정해진 일이니 그대로 두어라. 다만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는 말라."

프라 피몬탐은 왕궁에 들어가 왕을 붙잡아 단단히 결박하게 했다. 이튿날에는 승려들이 왕에게 향과 초를 올리게 한 뒤, 백단나무 곤봉으로 처형했다. 시신은 왓 코크프라야에 묻었다. 프라 시리사왓팍의 재위 기간은 1 년 2 개월이었다.

프라 피몬탐은 왕위에 올라 아유타야의 국왕이 되었고, '프라짜오 쏭탐'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국왕께서는 지민 시리사락을 우파랏으로 삼으셨다. 우파랏은 재위한 지 7 일 만에 병이 들었고, 사흘 뒤 세상을 떠났다. 국왕께서는 마하 우파랏의 예에 따라 장례를 치르게 하셨다.

그 뒤 일본인들이 여러 척의 배를 타고 와서 무역을 했다. 일본인들은 대신들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화를 냈다. 프라짜오 쏭탐을 죽이고 마하까사뜨리야를 폐위한 뒤, 일본인들이 왕위를 차지하려 한다는 소문도 돌았다. 일본인들은 약 500 명을 이끌고 왕궁 안으로 들어와 국왕을 붙잡으려 했다.

국왕께서는 왓 쁘라두롱탐에 계셨다. 군사들이 와서 일본인들이 왕을 붙잡으려 한다고 알렸다. 승려들이 이미 떠난 뒤였으므로 일본인들은 왕을 붙잡지 못했다. 그들은 한동안 난동을 부렸다. 프라 마하 아무맛이 군사를 이끌고 일본인들을 제압하자, 일본인들은 크게 패하고 왕궁에서 달아났다. 일부는 배를 타고 도망쳤다.




옛 일본인 거주지는 차오프라야강 동쪽 강변, 아유타야 도성 남쪽의 코리안(เกาะแก้ว) 일대 *였다.*
*지금은 그 자리에 **일본인 마을 기념관·박물관(Japanese Village)**이 조성돼 있다.*

그 뒤에도 일본인들이 방콕으로 와서 무역을 했다. 프라 마하 아무맛은 국왕을 알현하게 하고, 아침에 왕궁의 회의 장소로 나와 대신들과 여러 고관들을 함께 만나도록 했다.

국왕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이번 일에서 프라 마하 아무맛의 충성심이 매우 컸다.”

그에게 짜오프라야 까론호마수리웡이라는 관직을 내리고, 많은 물품을 하사하셨다. 또 국왕께서는 승려에게 명하여 왓 쁘라두롱탐을 수리하고 불상을 모셔 오게 하셨다. 불상을 모신 행렬이 나아가자 국왕께서는 불상을 맞이해 모셨다.

사카라트 965 년, 토끼 해 벤짜삭에 국왕께서는 프라 몽콘 밧타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 모시게 하셨다. 그리고 불상을 안치할 몬돕을 세우게 하셨다.

그해 따나오씨리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버마 군대가 도시를 포위했으니 원군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었다. 국왕께서는 프라야 피차이송크람을 지휘관으로 삼아 군대를 이끌고 씽콘까지 나아가게 하셨다. 그러나 지휘관들이 따나오씨리가 이미 적에게 함락되었다고 보고했다. 국왕께서는 군대를 돌아오게 하셨다.

사카라트 968 년, 말의 해 앗타삭에 국왕께서는 프라위한 끌랩 앞의 땅을 돋우어 왕실 화장 장소로 삼게 하셨다. 그해 사라부리에서 사냥꾼 분이 산등성이에서 매우 큰 발자국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국왕께서는 그 발자국을 살펴보러 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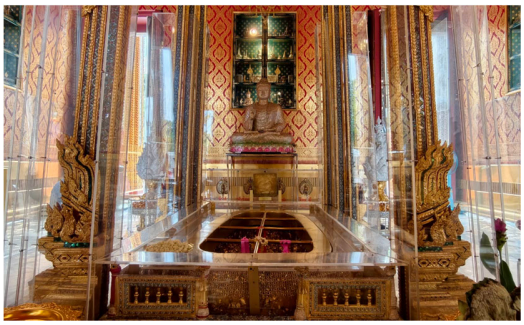
국왕께서는 승리의 왕실 배를 타고 대신과 고관들의 배를 거느려 나아가셨다. 나루에 배를 대고 이튿날 수완납팍삭이라는 왕실 코끼리에 오르셨다. 많은 관리와 수행원이 뒤따랐다. 길을 안내하는 분이 일행을 산기슭까지 이끌었다.

국왕께서 직접 살펴보시니 그것은 틀림없는 부처님의 발자국이었다. 발자국에는 법륜을 비롯해 108 가지 상서로운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국왕께서는 신하와 관리들을 거느리고

향과 초를 바쳐 예를 올리셨다. 발자국 둘레에 제단을 마련해 공양을 올리고, 그 주변에 사찰을 세우게 하셨다. 불당과 승려들의 거처도 여러 곳에 지었다.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서양인들에게 망원경으로 발자국이 있는 산을 바라보게 하셨다. 강가에서 발자국까지 이르는 길도 넓게 닦아 큰길로 만들었다.





현재도 왓 프라풋타밧 라차워라마하위한의 몬돕 안에 모셔져 있어 참배할 수 있다.
사라부리 관광 안내는 부처님 발자국이 수완반폿산의 바위판에 있으며, 솜뎃 프라짜오 쏭탐 왕 때 발견돼 몬돕으로 덮였다고 설명한다.

국왕께서는 배를 타고 돌아오셨다. 동쪽에 왕실 별궁을 세우도록 명하시고, 그곳을 '타짜오사눅'이라 부르게 하셨다.

그때 노를 젓는 사람들이 갈대꽃을 따서 승리의 왕실 배 앞머리에 묶었다. 국왕께서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셨다. 아유타야로 돌아오신 뒤에는 승리의 배를 왕실의 작은 배로 바꾸도록 명하셨다.

또 장인들에게 부처님 발자국을 모실 몬돕을 세우고, 주변에 사찰과 여러 건물을 짓게 하셨다. 공사가 끝나자 국왕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성대한 의식과 잔치를 열고 7 일 동안 머무셨다. 행사를 마친 뒤 방콕으로 돌아오셨다. 그해 왓 프라 마하탓의 쁘랑이 무너져 크룻푸나스 층까지 내려앉았다.

사카라트 968 년에 국왕께서는 『마하찻 캄루앙』을 편찬하게 하고, 불교 경전을 위한 삼장도 완성하도록 하셨다.

음력 9 월 초엿새 목요일, 국왕께서는 재위 25 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프라짜오 쏭탐께는 왕실의 후사가 있었다.

왕자 세 분이 계셨다. 첫째 왕자의 이름은 프라 쳇타티랏 쿠마라였고, 둘째는 프라 판삐시신, 셋째는 프라 아팃타웡이었다.

프라 쳇타티랏의 치세

사카라트 988 년, 토끼 해 놉삭에 대신들과 고관들이 의논한 뒤,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에게 프라 쳇타티랏 왕자를 모셔 오게 하여 아유타야의 왕위에 올리기로 했다. 당시 왕자는 일곱 살이었다.

프라 판삐 시신은 왕위를 빼앗겼다는 데 분노하여 무리를 이끌고 펫차부리로 달아났다. 무리를 모아 다시 쳐들어오려 하자 국왕께서는 군사를 보내셨다. 프라 판삐 시신은 곧 붙잡혔고, 국왕께서는 그를 왓 코크프라야에서 처형하게 하셨다. 프라 판삐 시신을 도왔던 펫차부리 사람들은 모두 코끼리 먹이를 베는 노역에 처해졌다.

한 달 남짓 지난 뒤, 프라야 깔라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마치자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은 왓 몽꿋으로 가서 장례 의식을 치렀다. 군인과 관리, 하급 관리들이 많이 나와 장례를 도왔다.

선왕 때부터 국왕을 모셔 온 관리들이 국왕께 아뢰었다.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이 이번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장례를 빌미로 군사를 모으는 것은 분명 전하께 해를 끼치려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국왕께서는 신하들의 말을 들으시고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의 일을 살펴보셨다. 왕궁을 지키도록 명하시고, 군사들을 준비시켜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을 불러오게 하셨다.

그때 지민 산펫팍디가 미리 비밀 편지를 보내 알렸다.

"국왕께서 부르시는 것은 붙잡으려는 뜻입니다. 준비를 갖추어 두십시오. 그대가 들어갈 때에는 한꺼번에 무장을 갖추고 들어가십시오."

대신들이 나가 국왕의 명령을 전했다.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은 지민 산펫팍디가 이미 알려준 일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이신 국왕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면 대신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대신들이 대답했다.

"국왕께서 왕위를 물려주실 분이 계시지 않으니,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왕위를 잇는다면, 대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따르겠습니까?”

대신들이 대답했다.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신다면 신하들이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은 대신들이 모두 자신을 따를 뜻을 보인 것을 보고, 함께 모의한 이들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국왕께서 돌아가신 뒤를 대비해야 합니다. 대신들이 모두 우리를 따르겠다고 하니, 거사를 일으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본생담』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했다. 옛날 보살이 상인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장사를 하러 갔다. 큰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난파할 지경이 되자 보살은 사람들을 구할 방도를 생각했다.

상인들은 배에 실은 물건을 붙들고 바다 한가운데서 떠다녔다. 배가 크게 기울어 침몰하려 하자 보살은 함께 있으면 모두 죽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진실을 맹세하며, 자신이 한 행동이 옳다면 사람들이 살아남게 해 달라고 빌었다.

보살의 맹세가 끝나자 사람들은 뭍으로 헤엄쳐 나와 살아남았다. 보살은 자신이 한 일을 통해 사람들을 살렸다.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은 대신들에게 말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큰일을 하려 한다면, 먼저 우리부터 죽음을 무릅써야 합니다.”

대신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전하께서 큰일을 하신다면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은 대신들을 한데 모아 군사를 편성하고 법과 규율을 정했다.

오후 세 시 무렵 화장을 마쳤다.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은 길일을 택해 배에 올랐다. 대신들의 배 수백 척과 군사 약 3 천 명이 함께했으며, 군사들은 무기와 전쟁 장비를 갖추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은 검은 옷과 검은 바지를 입고, 대신과 병사들을 많이 거느린 채 장례식장에 이르렀다. 그는 뒤에서 맹세하며 말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참으로 정의롭게 일을 마친다면, 제가 그 일을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맹세를 마친 뒤, 그는 해 질 무렵 군사를 모아 왓 수타왓에 진을 쳤다. 한밤중이 되자 길한 시각을 택해 군사를 이끌고 몽콘순톤 문으로 진격했다. 군사들은 큰 코끼리들을 앞세우고 왕궁 안으로 들어갔다. 맞서 막는 사람이 없자 그대로 궁 안뜰까지 들어갔다.

당번을 서던 관리가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이 궁 안으로 들어왔다고 아뢰었다. 국왕께서는 크게 놀라 대신들과 함께 맞서 싸울지 의논하셨다.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은 군사를 이끌고 계속 나아갔다.

국왕께서는 왕궁을 빠져나와 신하들과 함께 왕실 배를 타고 달아나셨다.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은 프라야 데초 프라야 타이남에게 명하여 뒤쫓게 했다. 그날 밤, 프라야 데초 프라야 타이남은 국왕을 파크모크노이에서 붙잡았다.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은 왕의 관례에 따라 국왕을 처형하게 했다.

프라 쳇타티랏의 재위 기간은 1 년 7 개월이었다.

인쇄 341 쪽

사카라트 991 년, 말의 해, 첫해에 대신들과 고관들이 왕실의 오보석과 왕권의 상징물을 가져와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는 받지 않고 말했다.

“제가 이 일을 맡은 것은 왕위를 빼앗으려는 뜻이 아닙니다. 국왕의 아들인 프라 아팃타웡이 아직 살아 있으니, 왕실의 관례에 따라 그를 왕위에 올리는 것이 옳습니다.”

대신들이 의논한 결과, 프라 아팃타웡은 겨우 열 살이었다. 왕실의 일을 다스리기에는 아직 어렸고, 사냥과 놀이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 대신들은 왕자가 왕위에 오르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왕위를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에게 바치기로 했다.

그들은 왕실의 상징물을 다시 가져와 바쳤다.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은 마침내 이를 받아들였다. 대신들은 왕위를 프라 아팃타웡에게 물려주는 방안도 의논했으나, 왕자가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여겼다. 이에 모두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에게 왕위를 바치며 말했다.

“저희 모두 왕위를 전하께 바치오니, 부디 받아 주십시오. 승가와 나라, 백성을 보살펴 주시면 신하와 백성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프라야 깔라홈 수리웡은 대신들의 말을 듣고 왕위를 받아들였다. 대신들은 왕실로 모셔 왕위에 오르게 하고, 점성가들에게 길일을 정하게 했다.

왕의 대관식을 치르기 위해 모든 관리를 불러 모았다. 왕실의 보석과 상징물을 갖추고, 왕관과 왕실 장신구를 마련했다. 왕은 왕실의 관례에 따라 즉위 의식을 치렀다. 대신과 고관들은 왕에게 절을 올리고 충성을 맹세했다.

길일이 되자 왕은 왕실 의복을 갖추고 왕궁에 나아갔다. 대신들은 왕실의 상징물을 받들고 의식에 참여했다. 왕은 왕궁의 여러 전각을 오가며 즉위 의식을 마쳤다.

왕은 대신과 고관들의 문안을 받고 왕실의 관례에 따라 왕권을 굳혔다. 왕의 동생을 비롯한 왕족과 신하들에게도 관직과 지위를 내렸다.

"우리의 이 동생은 성품이 거칠거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를 우파랏으로 삼아 나라의 일을 맡기고, 왕의 눈과 귀가 되게 하겠다."

왕은 동생에게 왕실의 지위를 내리고, 여러 관리에게도 관직과 작위를 내렸다.

왕은 왓 수타왓에 사찰을 세우고, 큰 체디와 우보솟을 지으라고 명했다. 많은 승려를 위한 거처도 마련했다.

공사가 끝나자 왕은 그 사찰을 **왓 차이왓타나람** 이라 이름 지었다. 주지에게는 승직과 작위를 내리고, 왕실의 의식과 공양을 맡도록 했다.





사카라트 993 년, 양의 해 트리삭에 왕은 장인들에게 왕궁의 모양을 그려 오게 하고, 캄보디아의 쁘랑 양식을 본떠 왕궁을 세우게 했다. 림왓텝찬 마을에 별궁을 마련하여 부처님 발자국을 참배하러 갈 때 머물도록 했다.

왕궁을 세운 해에는 와트 프라 시 산펫의 사찰도 마련했다. 준공한 뒤에는 성대한 봉헌식과 축하 행사를 열었다. 왕의 위엄은 높아졌고, 백성은 편안하게 살았다. 질병과 재난도 줄었으며, 대신과 관리들은 왕을 따랐다. 코끼리와 말도 풍성했고, 각지의 상인들이 와서 크게 장사했다.

왕은 장인들을 보내 수도의 건물들을 본뜨게 하고, 캄보디아의 쁘랑 양식도 들여오게 하셨다. 장인들에게 림왓텝찬 마을에 왕궁을 지어 부처님 발자국을 참배할 때 머물도록 하셨다.



아유타야주 나콘루앙군, 빠삭강 동쪽 강변,쁘라삿통 왕, 1631 년(불기 2174 년) 사라부리의 부처님 발자국을 참배하러 가는 길에 쉬어 가는 왕실 별궁.

그곳에 새 도시를 세우고 왓 프라 시 산펫을 마련했다. 준공한 뒤에는 성대한 축하 의식과 여러 공연을 열었다. 국왕의 위엄이 높아지고 나라가 평안해졌다. 백성은 편안히 살았고 질병과 재난은 줄었다. 대신과 관리들은 왕을 따랐으며, 코끼리와 말도 많이 번성했다. 전국 각지의 상인들이 와서 활발히 장사했다.

사카라트 994 년, 원숭이 해 짯와삭에 왕은 큰 궁전을 짓도록 명하셨다. 공사는 열한 달 만에 끝났으며, 그 궁전은 '시리야소톳'이라 불렸다.





밤중에 국왕께서는 꿈을 꾸셨다. 신들의 왕인 옴린타라티랏이 내려와 잠든 국왕 곁에 앉아 말씀하셨다.

"전차 대열을 갖추어라."

말씀을 마친 뒤 신들의 왕은 사라졌다. 이튿날 국왕께서는 대신들을 불러 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왕실 점성가들이 해몽하며 아뢰었다.

“전하께서 새로 지으신 궁전의 이름을 ‘시리야솟톳 마하피만반롱’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맞지 않습니다. 신들의 왕께서 전차 대열을 갖추라 하신 것은 큰 전쟁에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대신들은 왕궁의 이름을 ‘짜끄라왓 파이차욘 마하쁘라삿’으로 바꾸었다. 국왕께서는 이를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다.

그해 왕비께서 왕자를 낳으셨다. 왕족들은 아이의 몸빛이 특이한 것을 보았으나, 아이에게는 두 팔이 있었다. 국왕께서는 이를 기이하게 여기시고 왕자에게 프라 나라이랏차꾸만이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국왕께서는 방낭인 섬에 아이사완팁아삿 전각을 세우셨다. 그곳에는 나무가 우거져 왕실의 휴식처로 삼기에 좋았다. 수리웡 왕족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왕실 별궁 가까이에 사찰을 세워 승가에 바쳤다. 불탑과 불당을 지어 불교를 위한 시설을 완성하고, 그 사찰을 **왓 춤폰니까야람** 이라 이름 지으셨다.



*아유타야주 방빠인군 반렌(บ้านเลน), 방빠인 왕궁 가까이 쁘라삿통 왕이 모후의 옛 거처가 있던 곳에 세운 사찰로, 방빠인 별궁의 왕실 사찰 역할을 했다, 태국 예술국의 2022 년 설명은 창건을 **1632 년(불기 2175 년)**으로 기록한다.*

사카라트 995 년, 닭의 해 벤짜삭에 국왕께서는 왓 마하탓의 오래된 쁘랑을 허물게 하셨다. 옛 쁘랑은 높이가 19 와였고, 꼭대기의 나파술은 3 와였다. 왕께서는 오래된 기단을 그대로 두고 새로 쌓게 하셨다. 무너져 있던 부분을 보수하고, 남아 있던 나무와 돌도 손질하게 하셨다. 공사를 마친 뒤에는 9 개월 동안 큰 봉헌 의식을 치르고 축하 행사를 열었다.

그해 국왕께서는 후궁에게서 세 왕자를 얻으셨다. 한 명은 프라 뜨라이푸와나팃웡, 한 명은 프라 옹통, 또 한 명은 프라 인타라차라 하였다. 왕자들이 장성하자 국왕께서는 각자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

국왕께서는 열두 번째 달에 백성들이 추수를 마친 뒤 부처님 발자국을 참배하러 가기로 하셨다. 장인들을 보내 타라통댕 개울가에 왕실 행궁을 짓고, 주변에 물길과 쉼터를 마련하게 하셨다.

그때 국왕께서는 왓 시 산펫의 큰 불당을 참배하러 가셨다가, 프라짜오 쏭탐의 아들인 프라 아팃타웡이 왕위에서 물러난 뒤 불당 뒤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시신이 신하에게 아뢰었다.

“프라 아팃타웡이 왕위를 빼앗겼지만, 아직 기회를 엿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왕께서는 프라 아팃타웡을 낮은 담장 안쪽의 작은 거처로 옮기게 하셨다. 그곳에는 두 사람만 함께 지내도록 하고, 식사를 들여보내게 하셨다. 그런 뒤 국왕께서는 왕궁으로 돌아오셨다.

음력 열두 번째 달, 추수가 끝나자 국왕께서는 부처님 발자국을 참배하러 떠나셨다. 장인들을 보내 타라통댕 개울가의 숙소를 꾸미고, 물길을 내며 길을 닦게 하셨다. 대신들과 관리들이 왕명에 따라 장인과 노역자들을 데리고 올라가 쉼터와 사당을 만들었다.

이때 승려와 사미들이 산길을 오르다가 사람들이 사당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미들이 살펴보니 사당은 다섯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중 두 칸은 막아 사람들이 잠잘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사당의 다섯 칸 가운데 두 칸을 막아 사람들이 머물며 잘 수 있도록 했다. 지붕이 없으면 비가 새고, 쉬어 갈 곳이 없으면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장인과 관리들이 이를 좋게 여겨 공사를 마쳤다. 그 사당은 ‘살라 짜오삼낭’이라 불렀다.

또한 군사와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파고, 길을 따라 쉼터를 만들었다. 대신들은 왕명을 받들어 사당과 우물을 마련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며 쉬고 물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국왕께서는 모든 공사를 마치게 하신 뒤 대신들에게 명하여 각 부서의 관리를 정하고 업무를 나누게 하셨다. 모든 관리가 맡은 일을 보고하고 준비를 마쳤다.

음력 열한 번째 달 초이틀, 새벽 두 시가 되자 국왕께서는 왕실 예복을 갖추고 보석 장신구를 착용하셨다. 왕실의 깃발과 무기를 앞세우고, 왕실 배와 수행원들을 거느려 길을 나서셨다. 배 행렬은 물길을 따라 나아갔으며, 왕과 신하들은 길을 따라 마련된 숙소에서 쉬었다.오후가 되자 행렬은 타짜오사눅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루를 묵었다.

그날 오후 관리들은 왕실의 여러 부서에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왕께서는 관리들의 업무와 지위를 정하고, 각 부서가 맡을 일을 빠짐없이 나누게 하셨다.

배들은 행렬을 이루어 차례로 늘어섰다. 날이 밝자 국왕께서는 전쟁에 나설 때 입는 옷을 갖추고 코끼리에 오르셨다. 불상과 왕실의 보물, 보석 장신구를 갖춘 행렬이 뒤따랐다. 국왕께서는 부처님 발자국 앞에 이르러 공양을 올리고 예를 갖추셨다. 여러 날 동안 공양과 봉헌 의식을 치르며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여셨다.

국왕께서는 거지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왕실의 재물을 아낌없이 베푸셨다. 저녁까지 부처님께 예를 올린 뒤 타라통댕과 후아이카오타에서 머무셨다가, 행사를 마치고 아유타야로 돌아오셨다.

사카라트 997 년, 돼지의 해 삽타삭에 왕의 딸이 세상을 떠났다. 국왕께서는 왓 차이왓타나람에서 장례를 치르게 하셨다. 화장할 때 시신이 잘 타지 않자 사람들은 누군가 주술을 쓴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백성들 사이에는 여러 소문이 돌았다.

사카라트 998 년, 쥐의 해 앗타삭에 국왕께서는 왕궁의 담을 바깥으로 옮기고 마하쁘라삿과 왕실 불당을 새로 세우게 하셨다.

사카라트 999 년, 소의 해 놉삭에 국왕께서는 시바와 나라이라는 신을 모신 사당을 허물게 하셨다. 그해에는 프라 나라이가 아직 어렸다. 왕궁의 담을 밖으로 옮기고 마하쁘라삿과 왕실 불당을 세우게 하셨다.

어느 날 국왕께서는 작은 왕실 배를 다시 살펴보셨다. 배의 장식이 제대로 달리지 않은 것을 보시고 시종 마에게 명하여 고치게 하셨다. 마는 배의 장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 달았다. 국왕께서는 이를 보고 마에게 상으로 은과 검은 천을 내리셨다.

왕실 행차를 준비할 때, 국왕께서는 왓 차이왓타나람에 가서 승려들을 공양하고자 하셨다. 어린 왕자들도 따라가려 했으나, 프라 나라이랏차꾸만은 병이 났다. 국왕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픈데 따라오지 말거라.”

저녁 무렵 비가 내렸다. 프라 나라이랏차꾸만은 게이에 나가 놀았다. 유모와 시종들이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 왕자는 비를 맞은 뒤 병이 더 심해졌다.

국왕께서는 왕자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의사를 불러 치료하게 하셨다. 왕자의 병세를 살펴보시고는 그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국왕께서는 왕자를 위해 3 일 동안 성대한 축하연을 열게 하셨다.

제례에는 화신, 달과 해, 그리고 열두 별자리의 신들을 모셨다. 신들의 왕인 옴린타라티랏을 중심으로 신들을 차례로 배치했다. 금판에 천문 계산에 따른 글자를 새겨 한 줄에는 새 사카라트를, 다른 한 줄에는 이전 사카라트를 적었다. 금판은 조각한 쟁반에 담아 신들의 왕 앞, 큰 흰 우산 아래에 두었다.

수메루산 정상에는 여러 방향을 지키는 코끼리 형상을 세우고, 각 방향마다 상서로운 보석과 색을 갖추었다. 새 사카라트를 정하는 의식도 거행했다. 왕실의 천문관과 학자들이 제례를 준비했으며, 부처님 형상과 삼장을 제단의 중심에 모셨다. 촌락 승가와 숲속 승가의 승려들도 초청했다.

숲속 승가의 승려들이 모여 『불수호 대길상경』을 독송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국왕께 아뢰었다. 길한 시각이 되자 국왕께서는 예복을 갖추고 황금 장식의 왕실 가마에 오르셨다. 왕실 학자들과 함께 산기슭의 제례 장소에 도착하셨다.

국왕께서는 수메루산 정상으로 올라가 부처님 발자국 앞에 예를 올리고, 부처님의 삼보에 공양하셨다. 왕실 점성가와 바라문들은 시바와 나라이라는 신의 형상을 장식하고 제례를 거행했다. 왕실의 무용수와 음악가들이 행렬을 이루고, 여러 관청의 관리들이 의식에 참여했다.

이튿날 국왕께서는 바라문들에게 보시를 내리기로 하셨다.

국왕께서는 바라문들에게 왕실 재물을 넉넉히 베푸셨다. 부처님께 저녁 공양을 올리신 뒤에는 타라통댕과 후아이카오타에 머무셨다. 모든 의식을 마치고 아유타야로 돌아오셨다.

사카라트 1000 년, 호랑이 해 삼릿삭에 국왕께서는 아유타야의 대신과 고관들에게 왕명을 전하셨다. 왕실 점성가들은 사카라트의 변화와 나라의 앞날을 살폈다. 그해 나라 안팎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여겨, 국왕께서는 아유타야의 사카라트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 여러 지역에도 왕명을 전달하게 하셨다.

사카라트 1002 년, 용의 해 토삭에 아와의 국왕은 왕명을 내려 각지의 관리들에게 알리게 했다. 왕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아와 왕국은 법과 왕실의 관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우리와 인접한 도시와 나라들도 이 뜻을 알도록 하라.”

아와의 국왕은 통고문을 보내 퉁구의 관리들에게도 전달하게 했다. 아유타야에도 사신을 보내 왕실의 뜻을 알렸다.

아와의 사신은 아유타야에 도착해 왕실의 관례에 따라 문안을 올리고 선물을 바쳤다. 아유타야의 대신들은 사신의 말을 국왕께 전했다. 사신은 아와 국왕의 말을 전하며, 아유타야의 국왕이 왕위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축하한다고 했다.

국왕께서는 아와의 사신을 맞아 왕실의 예에 따라 대접하셨다. 그러나 사신의 말 가운데 일부가 왕실의 뜻과 맞지 않자 국왕께서는 불쾌해하시며 말씀하셨다.

“저 버마인들은 이제 우리를 예전처럼 따르지 않는구나.”

그 뒤 국왕께서는 짜끄라왓 파이차욘 마하쁘라삿에 나아가 외국 사신들을 맞으셨다. 왕실의 관례에 따라 문안을 받고, 사신들에게 선물과 음식, 필요한 물품을 내리셨다. 사신들은 왕의 명을 받고 돌아갔다.

인쇄 361 쪽

아와의 사신이 왕실의 하사품을 받지 않으려 하자, 국왕께서는 명하셨다.

“외국 사신이 하사품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하면, 물건을 거꾸로 들려 보내고 그들을 도시 밖으로 내보내라.”

관리들은 왕명을 전했다. 사신들은 결국 하사품을 받았고, 관리들은 그들을 도시 밖으로 내보냈다.

사카라트 1003 년, 양의 해 트리삭에 국왕께서는 아이사완팁아삿 전각으로 행차하셨다. 그날 저녁 국왕께서 전각 앞에 계실 때, 왕자 프라 나라이랏차꾸만이 궁 안에 있었다. 갑자기 번개가 떨어져 박공 장식의 동물 형상들이 왕자 주위로 흩어졌다. 왕실 점성가들은 이를 큰 복이 있을 징조로 풀이했다. 외국에서 왕실에 바칠 물품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열 번째 달이 되자 외국 상선이 옷감과 외국산 말을 싣고 왔다. 말 두 필과 보석 장신구 한 점을 비롯한 물품을 국왕께 바쳤다.

사카라트 1005 년, 양의 해 벤짜삭에 왕실 점성가가 아뢰었다.

“사흘 안에 왕궁에 불이 날 징조가 있습니다.”

국왕께서는 점성가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셨다. 어느 날 국왕께서 파이차욘 마하쁘라삿에 계실 때 쥐 한 마리가 떨어졌다. 국왕께서는 금그릇으로 쥐를 덮어 두고 점성가를 불러 물으셨다.

"그 안에 몇 마리가 있느냐?"

점성가는 네 마리라고 답했다. 국왕께서 금그릇을 열어 보니 새끼 쥐 세 마리와 어미 쥐 한 마리가 있었다. 점성가의 말이 맞자 국왕께서는 은과 옷감을 상으로 내리셨다.

점성가가 불이 날 것을 예언했으므로 국왕께서는 왕궁의 물품을 왓 차이왓타나람으로 옮기게 하셨다. 왕실 배와 창고의 물품도 점검하고, 궁 안에 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들이 밤낮으로 살피게 하셨다.

사카라트 1006 년, 원숭이 해 차왓삭에 프라짜오 쁘라삿통께서는 온 나라를 다스리셨다. 왕궁에는 금으로 만든 쁘라삿과 흰 코끼리가 있어 나라의 위엄을 드러냈다.

아와의 왕은 크게 기뻐하며 사신을 보내 관례에 따라 조의를 표했다. 아유타야의 사카라트를 쓰라는 왕실의 뜻에 대해서도 답을 보내왔다. 아와와 주변의 나라들은 여러 대에 걸쳐 예전 사카라트를 써 왔으므로, 이를 바꾸라고 하면 기존 관례를 거스르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왕궁 주위에는 왕실의 깃발과 장식물을 세우고, 바나나와 사탕수수 나무도 일정한 간격으로 심었다. 국왕께서는 바라문들에게 왕실의 재물을 베푸셨다. 의식이 끝난 뒤에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왕궁의 여러 의례와 행사를 마치셨다.

그해 국왕께서는 아와의 왕에게 왕실 서신을 보내셨다. 서신에는 아유타야가 왕실의 관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며, 국왕께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왕의 덕에 따라 백성을 보살피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왕께서는 서신을 퉁구에도 보내게 하셨다.

인쇄 365 쪽

프라 시리수탐마랏의 치세

사카라트 1008 년, 원숭이 해 앗타삭에 프라 나라이께서는 사람을 보내 바깥의 동정을 살피게 하고, 숙부인 프라 시리수탐마랏과 함께 일을 도모하셨다.

밤이 되자 프라 나라이께서는 여동생과 함께 사깨오 연못의 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숙부에게 갔다. 프라 시리수탐마랏과 왕의 조카 프라 나라이가 군사를 모아 왕궁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차오파 차이를 붙잡아 왓 코크프라야에서 처형했다.

프라 시리수탐마랏은 아유타야의 왕위에 오른 뒤 프라 나라이랏차낫다를 우파랏으로 삼았다. 프라 나라이께서는 보원사탄몽콘 왕궁에 머물렀다.

두 달 남짓 지난 뒤, 국왕 프라 시리수탐마랏은 왕궁에서 조카 프라 나라이의 누이를 보았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고, 얼굴과 몸가짐이 단정했다. 국왕께서는 그녀를 궁 안으로 불러들이려 하셨다. 프라 나라이의 누이는 겁이 나서 프라 나라이에게 알리려 했다.

보원 몽콘 궁에 이르자 문지기가 의심하였다. 보원 몽콘 궁에 도착한 뒤, 프라라차 깔라야니는 그곳에서 나와 폐하를 알현하고 울면서 모든 일을 아뢰었다. 숙부인 왕께서 사악하고 부당한 일을 저지르셨다는 것이었다.

나라이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였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아아, 숙부여. 나는 아버지께서 승하하신 뒤에도 숙부께서 계시니, 숙부께서 친아버지와 다름없이 왕족을 보호하고 왕실을 이어 가실 줄 알았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인가. 숙부께서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잃으셨다. 왕위를 차지하고 다스리는 일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후궁과 브라만, 백성과 신민이 고통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 내가 그냥 두려 해도 어쩔 수 없이 맞서야 하니, 왕의 위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나라이 왕은 생각을 마친 뒤 대신들을 궁으로 불러, 전쟁을 일으키려는 사정을 밝혔다.

대신들은 왕의 명을 듣고 모두 나서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맹세했다. 나라이 왕은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길한 의식을 행하고 모든 군사에게 표식을 달게 한 뒤, 전투 때 쓸 부적 표시로 님나무 잎을 사용하게 하였다. 시 수탐마라차티랏 왕이 금요일에 태어났고 님나무 잎은 적을 뜻하는 이름이기 때문이었다.

나라이 왕은 삼보와 이슈와라, 그리고 신통력과 신성한 힘을 지닌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올렸다. 이어 쿤 세나차이, 쿤 찬트라텝, 쿤 팁몬트리, 쿤 텝몬트리, 쿤 싯티끄룻, 쿤 텝시탐랏에게 병사 백 명을 거느리고 **보원 몽콘 궁**을 지키게 하였다.




*찬타라까셈 국립박물관의 공식 설명은 이 궁전이 **'왕 찬 보원(วังจันทน์บวร)'**으로 불렸으며, 나라이 왕 즉위 후 **'프라 랏차왕 보원 사탄 몽콘(พระราชวังบวรสถานมงคล)'**으로 개명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음력 12 월 초열흘 목요일, 저녁 다섯 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나라이 왕은 전투를 위해 온갖 준비를 마쳤다. 왕은 행차용 코끼리에 올라타고 프라텝데차에게 왕실 코끼리의 중앙에 서게 하였다. 쿤 프라시콴에게도 코끼리 한가운데 서게 하고, 쿤 인타반에게는 왕의

코끼리 중앙에 서게 하였다. 쿤 프라온차티랏, 믄텝깐차라쿠완, 나이 타이 마하댁, 마쁘랑쿠완, 믄랏차쿠차이 등에게도 각자 코끼리를 맡겼다.

상서로운 때가 이르자 왕은 군사와 의장 행렬을 거느리고 왓 찌팝플라차이 앞길로 나아갔다. 프라야 세나피묵과 프라야 차이야손은 **일본인 40 명을** 거느리고 와서 군무에 나서겠다고 알현하였다. 이어 루앙 피칫뎃도 나와 군무에 나서겠다고 아뢰었다.

***사카라트 1018 년, 서기 1656 년(불기 2199 년)**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기록에 시 수탐마라차 왕이 처형되고 나라이 왕이 승리한 해가 사카라트 1018 년이라고 나옵니다. 나라이 왕이 숙부 시 수탐마라차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해도 1656 년으로 기록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군"은 일본 정부가 파견한 군대라기보다, 아유타야 왕에게 고용되거나 전투에 자원한 **일본인 무사·용병·보조병(아사 이뿐)**을 가리킵니다.*

기록을 따라가면 시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6 세기 후반:** 일본과 아유타야의 교역은 나레수안 왕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 정착의 정확한 시작 시점은 확정하기 어렵지만, 일부 연구는 1570~1590 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 ***1593 년:** 아유타야 연대기는 나레수안 왕의 버마 전투에 일본인 병력이 참여했다고 기록합니다. 한 연구는 그 수를 약 500 명으로 소개하지만, 최초 도착 시기와 정확한 병력 규모는 별도 사료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일본인 무장 병력이 아유타야 군사에 참여했다는 가장 이른 구체적 기록은 1593 년 무렵**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 ***17 세기 초:** 에까톳사롯 왕 때에는 일본인 공동체가 아유타야에 자리 잡았고, 뒤이어 일본인 무사들이 왕실 경호대와 보조군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번역의 **1656 년 일본인 40 명**은 일본군 본대가 새로 온 장면이라기보다, 아유타야에 있던 일본인 무장 집단이 나라이 왕의 편에 가담한 기록으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1593 년 기록부터 1656 년까지 같은 부대가 끊김 없이 존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왕은 찌꾼 길로 행차하였다. 한편 시 수탐마라차 왕은 나라이 왕이 보원 몽콘 궁에서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는 말을 듣고, 마하텝과 루앙 인트라뎃에게 쿤 밤르어팍디와 그의 노예를 붙잡아 방뜨라 앞에서 죽이라고 명하였다. 쿤 밤르어팍디는 도망쳐 살아남았다. 그는 왓 찬탄 앞에 이르러 왕께 절하고 아뢰었다.

나라이 왕은 프라야 아난타카야옷, 프라야 오난타카야옷, 프라랏차몬트리, 루앙 요라팁, 루앙 온라웡차, 루앙 피칫뎃, 쿤 뜨랏, 쿤 뜨렁파닛, 쿤 싱하팁 등에게 군사를 맡겨 성 안의 여러 길과 문을 지키게 하였다. 각 부대는 지정된 길목과 성문 앞에 배치되었다.

시 수탐마라차 왕 편의 군사와 나라이 왕 편의 군사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서로 싸웠다. 일본인 부대도 나라이 왕에게 합류해 랏란 쪽에서 전투를 도왔다. 양쪽 군사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다.

나라이 왕은 쿤 찬트라텝과 판 팁랏에게 대포 세 문을 가져와 왕궁 앞 광장에 설치하고, 궁을 향해 여러 차례 쏘게 하였다. 포를 쏠 때마다 불길과 연기가 밝게 치솟아 눈앞에 드러났다. 이는 승리를 거두게 될 길한 징조로 여겨졌다.

양쪽 군사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가 계속 나왔다. 나라이 왕은 쿤 찬트라텝과 판 팁랏에게 대포 세 문을 왕궁 앞 광장에 설치하여 궁을 향해 여러 차례 쏘게 하였다. 포를 쏠 때마다 불길과 연기가 밝게 치솟았으므로, 승리를 예고하는 길한 징조라고 여겼다.

나라이 왕은 왕실 코끼리에 올라타고, 프라텝데차에게 왕실 코끼리의 중앙에 서게 하였다. 쿤 프라시콴과 쿤 인타반도 각자의 자리에 세우고, 전투를 위해 군사들을 정렬시켰다.

저녁이 지난 뒤, 시 수탐마라차 왕은 코끼리를 타고 궁 안에서 나와 성벽 앞 광장에 이르렀다. 나라이 왕도 행차용 코끼리를 타고 성벽 바깥으로 나아갔다. 양쪽 군사는 서로 맞서 싸웠고, 나라이 왕을 따르는 의용군은 시 수탐마라차 왕 앞까지 밀고 들어갔다.

양편 군사가 맞붙어 싸우는 동안 나라이 왕의 의용군은 계속 공격하였다. 시 수탐마라차 왕의 군사들은 물러나 궁 안으로 달아났으며, 궁문을 닫았다.

그 뒤 나라이 왕은 차크라왓 궁전으로 올라갔다. 트라이푸와나티랏은 왕실 코끼리를 타고 궁 안에서 나와 나라이 왕에게 절하였다. 나라이 왕은 의용군에게 함께 가서 차크라왓 궁전의 문과 플라투와라 문을 부수라고 명하였다.

프라 싯티차이가 플라투와라 문을 열고 나와, 시 수탐마라차 왕이 뒷궁으로 달아나 그곳에 있다고 알렸다. 군사들은 궁 안으로 몰려 들어갔다. 시종장 나이 깨우는 프라 싯티차이를 데리고 차크라왓 궁전으로 와서 나라이 왕께 절하게 하였다. 나이 깨우는 의용군이 이미 궁에 들어갔으며, 프라 싯티차이가 시 수탐마라차 왕은 뒷궁으로 달아났다고 전했다고 아뢰었다.

나라이 왕은 궁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대신들은 뒷궁에서 시 수탐마라차 왕을 찾아냈고, 관례에 따라 왓 콕프라야에서 처형하게 하였다. 시 수탐마라차 왕의 재위 기간은 두 달 스무 날이었다.

나라이 왕이 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때는 사카라트 1018 년 무신년, 음력 12 월 11 일 금요일, 저녁 두 시 네 밧이었다. 서기 1656 년, 불기 2199 년에 해당한다.

사카라트 1018 년 무신년, 음력 12 월 그믐 초이틀 목요일, 저녁 두 시가 지난 시각에 마하랏쿠루와 왕실의 스승들, 여러 대신과 신하가 나라이 왕을 모시고 왕위에 올랐다. 이는 아유타야 왕국의 옛 대왕들이 행하던 관례에 따른 대관식이었다.

대관식을 시작한 첫날 밤, 저녁 여덟 시쯤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대관식이 열린 전각의 천장에서 희고 깨끗한 우박 같은 것이 떨어졌다.

마하랏쿠루와 왕실의 스승들은 옛 왕들의 관례에 따라 왕에게 왕호를 올렸다. 왕의 긴 칭호는 다음과 같았다.

ทรงพระนามกรบวรศรีสวัสดิสมเด็จพระบรมราชาธิราชรามาธิบดีศรีสรรเพชญ์ราชาบรมมหาจักรพรรดิศวร ราชาเมศวรธรรมาธิบดีศรีสถิตศักดิ์สังหารจักรพาลิเบนทร์ สุริเยนทราธิบดินทรหริหรินทราธาราธิบดีศรีสุวิบูลยคุณอัคนิศจุจิตรภูวนาทิตยฤทธิพรหมเทพเทพาธิบดินทร์ ภูมินทราธิราชรัตนากาศมณวงศ์ องค์เอกาทศรุจิวิสุทธิอโสมบรมอริยาศัยสมุทยโรมนนต์ อนันตคุณวิบูลยสุนทรธรรมิกราชเดโชไชยไตรโลกนาถบดินทรอรินทราธิราชชาติพิชิต ทิศทศพลญาณ สมันตมหันตผา รติวิชัย ไอสวรรยาธิปไตยขัตติยวงศ์ องค์บรมาธิบดีศรีภูวนาถบิเบศโลกเชษฐวิสุทธิภุกรัตนโมลีศรีปทุมสุริยวงศองค์สรรเพชญ์พุทธางกูร บรมบพิตรพระพุทธเจ้าพระเจ้ากรุงเทพพระมหานครบวรทวาราวดีศรีอยุธยามหาดิลกภพนพรัตนราชธานีบุรีรมย์

쏨 프라남 꼰 보원 시사왓디 쏨뎃 프라 보롬마랏차티랏 라마티보디 시 산펫 라차 보롬마하짝까팟 사왓라차 메수언 탐마티보디 시 사팃삭 상한 짝까파리벤 수리옌타라티보딘타라하리 하린타라티라티보디 시 수위분라야쿤 악니찟쭈찟 푸와나팃 릿티프롬텝 텝파티딘 푸민타라티랏 랏타나깟 마나웡 옹 에까타사룻 위숫티 아솜 보롬 아리야사이 사무타이 롬몬 아난타쿤 위분 순톤 탐마익랏 데초차이 뜨라일록낫 보딘 아린타라티랏 찻티핏찟 팃타사폰야안 사만타마한타파 라티위차이 아이사왓야티빠타이 캇티야웡 옹 보롬마티보디 시 푸와낫 비벳록 체타위숫티 푸카랏타나모리 시 빠툼 수리야웡 옹 산펫 푸타앙쿤 보롬마보핏 프라풋타차오 프라차오 끄룽텝 프라마하나콘 보원 타와라와디 시 아유타야 마하딜록폽 나와랏랏차타니 부리롬

대관 의식이 끝나자 왕에게 왕권을 상징하는 다섯 가지 왕실 보물을 올리고, 여러 상서로운 물건과 예물을 바쳤다. 신하들은 왕 앞에서 맹세하고, 왕은 브라만과 대신,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백성이 평안하고 번성하도록 힘쓰고, 시장과 세금, 통행세를 줄이라고 명하였다.

왕은 대신과 여러 관료에게 관직을 맡기고, 각 부처의 신하들은 왕에게 절하고 충성을 맹세하였다. 대관식을 치를 당시 왕의 나이는 스물다섯이었다.

왕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시장과 세금, 통행세를 줄이게 하였다. 신하들은 백성을 돌보고 나라가 계속 번영하도록 힘쓰라는 왕명을 받았다.

왕은 이어 왕실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였다. 전각을 장식하고 장례 행렬을 꾸몄으며, 여러 대신과 관료가 행렬을 따라 왕실의 장례 의식에 참여하였다. 장례 행렬은 악대와 함께 왕실 화장터로 나아갔다. 왕은 옛 왕들의 관례에 따라 제물을 올리고 의식을 치렀다.

왕실의 유골을 왓 프라 시 산펫으로 모셨다. 승려들을 청해 공양과 독경을 올리고 왕실의 장례 의식을 마쳤다. 의식이 끝난 뒤 왕은 보원 몽콘 궁으로 돌아갔으며,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은 뒷궁에 머물게 하였다.

그해 음력 2 월,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의 시녀인 암댕 깬이 거짓 소문을 전했다. 그녀는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이 시 수탐마라차 왕과 함께 싸웠으며, 시 수탐마라차 왕이 패한 뒤에도 많은 사람을 수도 밖에 모아 두고 있다고 고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신하를 보내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다.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은 자신이 왕을 배반할 뜻이 없다고 아뢰었다. 다만 그가 많은 사람을 모아 두었다는 말이 계속 들리자, 왕은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였다.

조사하러 간 신하는 돌아와 왕에게 그간의 사정을 모두 아뢰었다. 왕은 마하랏쿠루에게 명하여 국고의 은 100 창을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에게 내리고, 그가 백성에게 고루 나누어 주게 하였다.

그러나 프라야 피차이송크람과 프라 마하몬트리는 프라야 팟탈룽과 프라 시푸리프라차가 한밤중에 뒷궁으로 내려가려 한다고 왕에게 아뢰었다. 두 사람이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과 함께 나라를 해치려는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왕은 다시 사람을 보내 사실을 알아보게 하였다. 마하댁이었던 나이 푸옥은 예전에 프라야 차크리와 프라야 프라클랑에게, 프라야 팟탈룽과 프라 시푸리프라차가 뒷궁으로 내려가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을 만나려 한다고 알렸다. 그들은 밤중에 사람을 모아 나라에 해를 끼칠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왕은 이 보고를 듣고 프라야 프라클랑에게 명을 내려, 프라야 팟탈룽에게 그곳으로 가도록 하였다. 두 사람은 밤중에 뒷궁으로 내려갔으며, 신하들은 이를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의 무리와 함께 나라를 해치려는 일로 여겼다.

왕은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는 뜻을 품었다고 보고, 사형에 처해 목을 베어 보원 몽콘 궁의 법정 앞에 걸어 두게 하였다.

한편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은 보원 몽콘 궁에 들어와 왕을 알현하였다. 프라 싯티차이와 타오 랏차나이피롬은 날마다 몰래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프라야 피칫팍디는 믄 마이사와이루아이에게 프라 싯티차이와 타오 랏차나이피롬이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과 몰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

프라야 차크리와 프라야 프라클랑이 왕께 아뢰었다.

“누군가가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이 분명히 폐하를 해치려 한다고 알렸습니다.”

왕은 명을 내려 프라야 피칫팍디에게 그 일이 사실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은 왕이 행차할 때마다 허리에 단검을 차고 따라왔다. 프라야 피칫팍디는 이를 보고 그가 해를 끼치려 한다고 의심하였다.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은 프라야 피칫팍디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왕이 보낸 신하가 그에 관한 일을 조사해 다시 아뢰었다.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은 트리파와이 의식 때 왕이 행차하면, 좁은 길목에 의용군을 숨겨 두었다가 습격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왕은 밤중에 행차할 경우, 길목에 숨은 의용군이 나와 왕을 해치고 왕의 목숨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왕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은 우리의 친동생과 같은 사람이다. 지금껏 우리와 가까이 지냈는데 어찌 우리를 해치려 하겠는가. 트리파와이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신을 모신 곳으로 행차할 것이다. 그가 정말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우리의 공덕과 권능을 의지해 맞서면 된다."

트리파와이 의식이 열리는 날 밤, 왕은 의장과 장신구를 갖춘 왕실 코끼리에 올라탔다. 타오 프라야 세나밧디몬트리와 여러 신하가 행렬의 앞뒤와 좌우에 섰다. 왕은 보원 몽콘 궁을 나와 호라찬타이 다리를 건넜고,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도 왕실 코끼리를 타고 뒤따랐다.

왕은 찌꾼 길을 따라 행차하였다. 그 길목의 양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었다. 왕은 신하들에게 뒷궁에 왕명이 내려왔는지 물어보게 하였다. 그런 명은 없다는 대답을 듣고, 왕은 신을 모신 곳으로 행차한 뒤 보원 몽콘 궁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상인 렝과 왕실 선박의 관리가 배에서 내려 믄 랏차맛에게 알렸다. 예전에 차이랏차티랏 왕의 신하였던 나이 숙이 이제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의 신하가 되었으며, 나이 숙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이 돈다는 것이었다.

푸카셍과 타오 무리어선은 나이 숙에게 다시 반란을 일으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나이 숙은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이 왕의 신하를 해치려 한다고 대답하였다.

믄 랏차맛은 이 말을 루앙 피칫뎃에게 알렸다. 루앙 피칫뎃은 그 내용을 왕께 아뢰었다. 어느 날 프라야 차크리와 프라야 폰텝도 왕께 나아가,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아뢰었다.

왕은 대신들을 불러 명하였다.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은 우리의 친동생과 같은 사람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 그를 아껴 장차 더 높은 지위에 올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충성하지 않고 사람들의 거짓말을 듣고 무리를 모아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어찌해야 하겠는가?"

대신들은 왕께 아뢰었다.
"그가 실제로 모반을 꾀했다면, 왕실의 관례에 따라 처벌하시기를 청합니다."

왕은 말씀하셨다.

“방콕 도성 안에서는 그를 처형할 수 없다. 우리가 왕도에 갈 때 그를 왕실 코끼리에 태워 함께 데리고 가겠다. 그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맞서 싸우겠다.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의 공덕을 의지하겠다.”

왕은 대신들에게 왕도에 갈 준비를 하라고 명하였다.

음력 3 월 초사흘, 원숭이해 화요일에 길한 시각을 택하여 왕은 왕실 배 시리솜랏차이에 올랐다. 대신과 신하들이 왕의 배를 따라 행렬을 이루었다.

인쇄 380 쪽

왕실 배와 여러 대신의 배는 좌우와 앞뒤에 늘어서 왕도에 도착하였다. 날이 밝고 두 시가량 지나자 왕은 왕실 코끼리에 올라탔다. 프라 인타라차에게도 코끼리 한 마리를 내주고,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도 코끼리를 타게 하였다. 솜뎃 프라랏차티랏과 대신들도 각자 코끼리를 타고 행렬에 섰다.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은 나라이 왕의 공덕과 권능이 두려워 왕을 해치지 못했다. 왕은 왕도로 돌아와 왕궁으로 들어갔다.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도 왕을 따라 왕궁에 들어왔다.

프라 수린타락디는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을 따라 왕궁 앞 코끼리 광장까지 왔다. 그곳에서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이 나이 낭까를 풀어 주는 것을 보고는, 곧 궁 안으로 들어갔다. 수린타락디는 왕께 나아가 그 일을 아뢰었다.

왕은 명을 내려 프라 야위칫카디와 프라 수린타락디, 쿤 렉 마하댁에게 나이 낭판을 맡겨 경계하고 살피게 하였다.

당번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보니, 프라 인타라차티랏과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이 처소에서 나와 왕의 침소 가까이로 왔다. 프라 수린타락디가 보이자 두 사람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뒤 쿤 렉 마하댁이 프라 수린타락디의 당번을 이어받았다.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은 프라 옹텅에게 왕실의 긴 창을 가져오게 했다. 그 창은 뭇뎃 전각에 놓여 있었다.

나라이 왕이 잠에서 깨어나자 쿤 렉 마하댁은 왕실 창을 가져오게 된 일을 아뢰었다. 왕은 말씀하셨다.

“그 왕실 창은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에게 줄 물건이 아니다. 창을 가져오게 한 것을 보니, 그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분명하다.”

왕은 프라야 피차이송크람에게 병사들을 거느리고 왕궁 앞문을 지키게 하고, 프라 시리마하랏차에게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왕궁 서쪽 문을 지키게 하였다. 프라 톤부리에게는 차누안 문을 지키게 하고, 수상한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살피게 하였다.

이어 왕은 프라야 차크리, 프라야 피칫팍디, 프라마하몬트리에게 명을 내렸다.

왕은 루앙 인트라뎃에게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을 맡아 감시하게 하였다. 프라 수린타락디, 루앙 텝솜밧, 루앙 깜팽, 프라 람, 믄 마이사와이루아이에게는 프라 인타라차를 맡아 감시하게 하였다. 루앙 위칫송크람과 루앙 람팍디에게는 프라 인타라차와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이 지니고 있던 칼을 거두게 하였다.

아침 다섯 시가 되자 프라 인타라차,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 프라 옹텅이 왕을 알현하러 나왔다. 왕은 그들을 붙잡아 두게 하였다.

프라야 차크리는 왕께 아뢰었다.

"소신이 변명할 기회를 얻어 아뢰게 해 주십시오."

왕은 프라야 차크리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다. 프라야 차크리는 여러 사람이 이 일을 알고 있으니, 그들 모두 불러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왕은 그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였다.

왕은 프라야 차크리에게 물었다.
"어떤 경위로 이 일을 알게 되었느냐?"

프라야 차크리는 아뢰었다.
"누군가 왕실의 창을 땅에 묻어 두었다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파헤쳐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말하였다.
"좋다. 파 보아라."

왕은 프라야 차크리에게 명하여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의 일을 맡아 살피게 하였다. 프라야 차크리가 왕의 명을 받들자,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왕 앞에 불러 세웠다.

왕은 그들에게 물었다.
"왕실의 창을 땅에 묻었다는 말이 사실이냐?"

그들은 창을 묻은 적이 없다고 아뢰었다. 왕은 창이 있는 곳을 찾아내도록 다시 명하였다. 프라야 차크리는 그 일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아보았다.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을 호위하던 사람들은 그가 왕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대신들에게 다시 조사하게 하였다. 여러 신하가 함께 모여 왕 앞에 나아가 사실을 아뢰었다.

프라 옹텅은 자신의 형인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을 빼내려 하며, 그를 감시하던 신하들을 때렸다. 신하들은 프라 옹텅도 붙잡았다. 그 자리에서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과 프라 옹텅은 처형되었다.

프라 인타라차티랏은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과 함께한 일이 있었으므로, 왕은 그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였다.

나라이 왕은 배를 타고 왕궁을 나섰다. 이어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과 함께 모반을 꾀한 신하들을 왕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왕이 루앙 깔라홈에게 그 일을 물었다. 루앙 깔라홈은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이 모은 사람들의 수가 삼천 명가량이며, 왕이 그에게 내려 준 사람도 천 명이 넘는다고 아뢰었다. 프라 싯티차이와 루앙 사왓싯티, 프라 옹텅의 동생인 프라 싯티차이 등도 그 일에 연루되었다고 하였다.

그들은 왕에게 아뢰었다.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은 사람 삼천 명가량을 거느리고 있으며, 왕께서 내려 주신 사람도 천 명이 넘습니다."

프라 싯티차이와 루앙 사왓싯티, 프라 싯티차이의 아우인 프라 루앙 쿤 믄 판타나이는 그 일을 맡아 살피겠다고 하였다.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도 왕 앞에 불려 왔다.

왕은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에게 사람을 얼마나 거느리고 있는지 물었다. 그가 거느린 사람은 삼천 명가량이었고, 왕이 내려 준 사람은 천 명 남짓이었다.

프라 싯티차이와 루앙 사왓싯티는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과 함께 왕에게 해를 끼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왕은 그들의 말을 다시 조사하게 하였다.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은 나이 인에게 이 일을 전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지켜보라고 하였다.

인쇄 386 쪽

프라야 위칫수린과 프라야 시수라팍디는 왕에게 아뢰었다.

"그들이 언제든 병력을 동원하려 하면, 저희도 그때 바로 나서겠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명부에 적어 두십시오."

이 일을 처음 의논한 사람은 프라야 깔라홈, 프라야 폰텝, 프라야 마하몬티안, 프라야 수코타이, 프라야 위칫수린, 프라야 시수라팍디였다. 이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모였다. 겉으로는 점잖은 행색으로 드나들던 이는 차오프라야 마하우파랏, 프라야 피칫 등 세 사람이었다.

프라야 시푸리프라차, 루앙 깔라홈, 나이 펫툰도 함께 모의하였다. 이들은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에게 프라야 차크리, 프라야 피차이팍디, 루앙 인트라뎃, 쿤 렉, 쿤 텝랏의 이름을 왕명 문서에 적어 두자고 하였다.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 더는 입을 열어 모의를 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도 동의하였다. 프라야 시푸리프라차는 나이 펫툰에게 자신의 명부를 주어 그들의 이름을 적게 하고, 루앙 깔라홈에게는 그 명부를 거처에 보관하게 하였다.

믄 팁세나와 믄 랏차맛은 뒷궁으로 가서 가담하겠다고 청하였다.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은 그들에게 무늬 있는 옷감과 셔츠를 각각 내주었다.

한편 이깬과 나이 분끗은 이렇게 진술하였다.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이 이깬과 나이 분끗에게 비밀 연락을 맡겨 프라야 마하몬티안과 프라야 수코타이에게 전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깬은 뒷궁으로 간 사람은 프라야 깔라홈의 아내라고도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프라야 깔라홈의 딸인 낭너이, 루앙 랏차붓의 아내, 세상을 떠난 프라야 깔라홈의 아내와 낭 키앗, 피차이란릿의 아내인 타오 랏차우타이, 맘 수드의 며느리이자 프라 시푸리프라차의 유모, 매 시 우타이, 프라야 팟탈룽의 아내인 매 프라 시팍디, 프라야 수코타이의 아내, 프라야 프라클랑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촘므앙의 아내가 거론되었다. 왕은 이들에게 금팔찌 한 쌍을 하사하였다.

왕은 거론된 사람들을 심문하고 대신들에게 명하여 프라 트라이푸와나팃티야웡과 함께 모의하고 왕을 해치려 한 자들의 죄를 판결하게 하였다. 왕을 해치려 한 일은 목숨을 잃을 만큼 큰 죄였고, 단지 그와 왕래하며 지냈을 뿐 해칠 마음은 없었던 사람들은 연루된 정도가 달랐다. 왕은 이들에게 왕실의 벌을 내린 뒤 목숨을 살려 주었다.

그해 4 월, 왕은 여러 왕실 공덕 의식을 올렸다. 또한 이슈와라 신의 입상 한 기와 시와아티야 신의 입상 한 기를 만들게 하였다. 마하위 ษณ 신상과 찬타티차와라 신상도 각각 한 기씩 만들고, 네 신의 형상에는 금으로 된 옷과 장신구를 갖추게 하였다.

그 형상들은 왕실 제례를 위해 라차와디에 모셔 두고, 각 신상에 반지를 장식하였다.

그해 음력 2 월, 왕은 차오프라야 차크리에게 브라만 의례용 전각을 세우고 제사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의식을 처음 준비할 때 프라므앙과 쿤 믄에게 병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전각을 짓게 하였다. 전각은 마캄용 지역에 세웠다.

그달에 프라 타이나암, 쿤 인, 쿤 믄 등은 의식을 치를 장소에 우뚝 솟은 야자수처럼 빛나는 상서로운 징조가 밤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이는 앞으로 왕실의 길상과 번영이 크게 일어날 징조였다.

의식 준비가 끝나자 금요일 음력 4 월 초닷새, 날이 밝은 뒤 여덟 밧이 지났을 때 왕은 왕실 배를 타고 행차하였다. 왕실 수행원들은 앞뒤와 좌우로 배를 늘어세웠다. 왕은 보원 몽콘 궁으로 돌아왔다.

그해 음력 2 월, 왕은 차오프라야 차크리에게 브라만 의식을 위한 전각을 짓고 의식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브라만과 의례 담당자들을 불러 모으고, 바닷가 풀밭에서 행할 모든 왕실 의식을 준비하게 하였다.

금요일 음력 7 월 초열흘, 왕은 마하쁘라야칫 의식과 브라만의 의식을 거행하였다. 의식은 경전에 기록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왕실 의식이 끝나자 왕은 왕궁으로 돌아왔다. 그달에는 높은 신의 형상을 주조하게 하였는데, 높이가 두 큐빗이 넘도록 만들고 금으로 옷을 입혔다. 왕실 의식에 쓸 금반지도 마련하였다.

그 뒤 닭해인 놉파쏙년에 왕은 차오프라야 차크리에게 브라만 의식을 위한 전각을 마련하게 하고, 의식에 쓸 제물과 물품을 준비하게 하였다. 바닷가 풀밭에서 의식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갖추도록 하였다. 왕은 의식에 쓰일 신상을 모두 주조해 금으로 입히고, 왕실 의식에 쓸 반지를 장식하게 하였다.

음력 7 월 초열흘 금요일, 왕은 마하쁘라야칫 의식을 다시 거행하였다. 왕은 브라만 의식에 관한 경전의 절차에 따라 모든 의식을 행하였다. 이어 음력 7 월 그믐 열흘 금요일에도 왕은 경전에 따른 의식을 거행하고 제물을 올렸다.

사카라트 1020 년 개해, 삼릿타섹년 음력 1 월에 나라이 왕은 금빛 왕실 배를 타고 나콘사완으로 행차하였다. 프라야 차크리가 왕께 아뢰었다.

“시사왓의 쿤 세리짜린이 전하기를, 후아이사이 마을의 숲으로 소식을 살피러 나갔는데 나이 안차이가 흰 코끼리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키가 세 큐빗 남짓이고 귀와 꼬리가 황금빛을 띤다고 합니다.”

왕은 프라야 타나오시리와 프 ฤ 띠바트, 그리고 코끼리 담당자들에게 흰 코끼리를 데려오게 하였다. 왕은 나콘사완을 떠나 아유타야로 돌아왔고, 흰 코끼리는 금요일 음력 2 월 초닷새에 수도에 도착하였다. 왕은 코끼리를 행렬로 맞아 궁 가까이에 두고 이름을 내렸다. 그 이름은 **프라 인트아이야라완 위셋타랏끼리니**였다.

왕은 대신과 관료들에게 명하여 사흘 동안 공양과 의식을 올리게 한 뒤 왕궁으로 돌아갔다.

왕은 흰 코끼리에게 왕실 장신구를 갖추어 주고, 코끼리를 돌보는 관리를 두었다.

흰 코끼리를 발견해 붙잡은 나이 안차이에게는 **쿤 카쳰트라 아이야라완 위숫타랏끼리니**라는 이름과 지위를 내렸다. 은으로 입힌 그릇과 금 장신구, 은화 두 창, 여러 무늬의 옷감과 비단옷을 하사하였다. 나이 안차이의 아내에게도 은화와 장신구, 옷감을 내렸다.

코끼리가 병들거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한 공로를 인정하여, 왕은 나이 안차이와 코끼리를 데려오는 일을 도운 사람들에게도 상을 주었다. 흰 코끼리를 돌보던 관리에게는 관직과 함께 금과 은, 옷감을 내렸다.

코끼리 운반을 도운 사람들과 흰 코끼리를 보살핀 왕실 노예들에게도 상을 내렸다.

나라이 왕은 공덕을 쌓고 왕실의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 사원에 불상을 세우게 하였다. 불상은 금으로 장식하고 왕실 장신구를 갖추게 하였다. 왕은 여러 불상과 신상에 금 장식과 보석을 마련하여 사원에 봉안하게 하였다.

한편 캄보디아에서는 왕의 아들 낙 찬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동생 낙 빠툼과 사이가 나빠졌다. 낙 빠툼은 베트남의 관리들에게 서신을 보내 캄보디아를 차지하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베트남의 관리들은 옹 찌앙 투이를 보내 캄보디아를 공격하게 하였다.

낙 찬은 나라를 빼앗기고 재물과 하인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갔다. 이후 베트남 측은 낙 찬을 다시 캄보디아로 돌려보냈다. 참빠라차의 도성에 이르렀을 때 낙 찬은 세상을 떠났다.

캄보디아의 관리들인 프라야 랏차팍디, 프라야 또까, 프라야 또빠까, 프라야 나콘루앙, 시리까, 포창 등은 가족과 병사들을 이끌고 아유타야로 와 왕의 보호를 청하였다. 그들은 캄보디아에 머물 곳이 없어 가족과 수행원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다.

사카라트 1022 년 돼지해 엑까섹년에 루앙 깜럿 프라파이, 루앙 짠랏차, 루앙 이솜, 루앙 랏차꾸만, 루앙 랏차세나, 루앙 세나위차이와 쿤 믄 등이 병사 2,214 명을 거느리고 왕에게 귀순하였다. 캄보디아에서 온 이들과 그 가족, 수행원들도 함께 왕의 보호를 청하였다.

왕은 그들을 환대하고 음식과 생필품을 내렸다. 이들은 왓 프라논의 수도원에 머물게 되었고, 왕은 옷과 먹을 것을 마련해 주어 각자 생업을 이어 가도록 하였다.

왕은 캄보디아에서 온 귀순자들에게 음식과 생필품을 내리고, 수도원에 머물도록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고 생업을 이어 가게 하였다.

사카라트 1022 년 돼지해 엑까섹년, 루앙 깜럿 프라파이와 루앙 짠랏차, 루앙 이솜, 루앙 랏차꾸만, 루앙 랏차세나, 루앙 세나위차이와 여러 쿤·믄이 병사 2,214 명을 거느리고 왕에게 귀순하였다. 왕은 귀순자들에게 왕실의 보호를 베풀고 음식과 생필품을 하사하였다. 이들은 왓 프라논의 수도원에 머물며 생활하도록 허락받았다.

이 귀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나라이 왕의 아버지 프라삿통 왕이 승하하고 시 수탐마라차 왕이 왕위를 이었을 때, 캄보디아의 왕 낙 찬은 쿤 통 프라파이와 병사 다섯 명을 보내 잠입하게 하였다.

방콕 아유타야에서 일을 살피던 쿤 통 프라파이와 병사 다섯 명은 나콘나욕 길로 숲을 가로질러 걸었다. 프라깨우 들판에 이르자 함께 온 병사 세 명 가운데 두 명을 그곳에 남겨 두고, 한 명과 함께 소를 찾는 사람처럼 줄을 들고 걸었다.

그때 나라이 왕은 이미 왕위에 올라 대관식을 마친 뒤였다. 쿤 통 프라파이는 왓 덤 들판에서 승려 세 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승려들에게 나라이 왕이 왕위에 올랐으며 위엄과 권능을 갖추었다고 말했다. 한 손을 두 손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자랑하였다. 그런 다음 쿤 통 프라파이와 병사들은 서로 흩어져 그 일을 알렸다.

돼지해 엑까섹년 음력 9 월, 나라이 왕의 명성이 멀리 퍼지자 여러 사람이 충성을 바쳤다. 그들은 금으로 장식한 유리 그릇과 에메랄드, 붉은 보석 120 개가 박힌 반지를 마련하여 코사티보디를 통해 왕께 바치게 하였다.

그해 프라야 꿋은 충성을 표하며 다이아몬드와 보석으로 장식한 반지를 마련하였다. 그 반지와 보석들은 모두 금 8 창 7 땀릉에 해당하는 값이었다. 또 연꽃 봉오리만 한 에메랄드 반지도 마련해, 기블문에게 맡겨 프라야 람캄행을 통해 왕께 바치게 하였다.

그 돼지해에 낭 프라야 아쨋은 껍질째의 마캄 열매만 한 붉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마련하였다. 값은 금 10 땀릉으로, 코사티보디를 통해 왕께 바쳤다.

같은 해 촌부리의 상인인 프라야 마하몽콘도 충성을 바쳤다. 그는 둥근 금판에 새가 앉아 있는 모양을 만들고, 다이아몬드와 붉은 보석, 에메랄드로 장식하여 왕께 바쳤다. 왕은 그가 바친 물건에 걸맞게 상을 내렸다.

사카라트 1022 년 쥐해 토섹년, 치앙마이의 프라야 센루앙이 방콕 아유타야로 센 수린타이마이트리를 보내 서신을 전하였다. 서신에는 중국군이 치앙마이를 포위하러 온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프라야 센루앙과 치앙마이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 왓 프라풋타싱에 머물며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유타야 왕에게도 도움을 청하였다. 치앙마이 사람들은 왕에게 자신들을 보호해 주고, 중국군의 위협으로부터 치앙마이를 지킬 수 있도록 병사와 무기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아유타야의 보호를 받게 되면 왕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였다.

프라야 차크리는 이 일을 왕께 아뢰었다. 왕은 치앙마이를 지키도록 대신과 병사들을 보내라고 명하였다. 프라야 시하랏뎃을 군의 지휘관으로 삼고, 프라야 타이나암을 부대장으로, 프라야 피칫을 부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프라 람을 선봉으로, 프라야 팟타바를 후군으로 세우고 여러 지역의 병사들을 편성하게 하였다.

코끼리와 말, 무기와 대포도 함께 준비하여 치앙마이로 보내도록 하였다.

왕은 군사들을 편성하여 치앙마이를 지키도록 하였다. 프라야 람뎃초를 지휘관으로, 프라 사라부리를 부지휘관으로, 프라 시사왓을 선봉으로 세웠다. 보병 천 명과 각종 무기를 갖춘 병사들을 배치하고, 대포와 코끼리, 말을 준비하였다.

프라야 타이나암과 프라야 람뎃초가 두 부대를 이끌고 방콕 아유타야에서 출발하였다. 음력 12 월에 군대를 이끌고 치앙마이로 가게 하였다. 센 수린타이마이트리가 앞길을 안내하였다.

프라야 타이나암은 군대를 이끌었고, 프라야 람뎃초도 지휘를 맡았다. 프라 사라부리는 부지휘관, 프라 시사왓은 선봉을 맡았으며, 보병과 대포, 코끼리와 말도 각 부대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방콕 아유타야를 떠나 음력 12 월에 치앙마이로 향하였다.

사카라트 1022 년 쥐해 토섹년 음력 1 월, 나라이 왕은 왕실 배 시리솜랏차이를 타고 피 ษณ 울록으로 행차하였다. 왕은 그곳에서 프라 친랏과 프라 친시를 참배하고 사흘 동안 공양을 올렸다.

프라야 타이나암과 프라야 람뎃초, 프라야 위칫은 군대가 몽차이 들판에 도착했다고 수상에게 보고하였다. 센 수린타이마이트리는 앞서 길을 안내하다가 행방이 묘연해졌다. 왕은 부대장과 군사들에게 명하여 그를 찾아 나서게 하였다.

인쇄 401 쪽

다른 부대의 편성은 다음과 같았다. 프라야 랏차팍디가 후군을, 프라야 뚜깔리가 우익을, 루앙 람팍디가 좌익을 맡았다. 병사 3,000 명과 코끼리 여섯 마리, 말 열 필을 한 부대로 삼았다.

또 다른 부대는 프라야 피차이송크람이 지휘하고, 루앙 수라송크람이 부지휘관, 루앙 랏차몬트리가 선봉을 맡았다. 루앙 깜팽송크람은 전위군을, 루앙 나렌팍디는 우익을, 쿤 피핏릉은 좌익을 맡았다. 병사 500 명과 대포, 코끼리 여섯 마리, 말 여덟 필로 부대를 꾸렸다. 이렇게 다섯 부대가 북쪽으로 올라갔다.

나콘과 므앙 끈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관원들을 보내 항복을 청했다. 나콘과 므앙 끈에서 흩어져 달아났던 사람들도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나콘을 지키던 병사들은 치앙마이로 피신해 있었다.

군 지휘관들은 첼까이와 행, 그리고 피난민들을 프라 핏사눌록의 왕실 본영으로 보냈다. 나콘과 므앙 끈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은 왕은 답서를 보내고, 프라야 깔라홈·프라야 람뎃초·프라야 피차이송크람에게 나콘을 지키게 하였다. 나콘 사람들을 모아 살피고 지키도록 명하였다.

나콘에서 흩어져 떠났던 피난민들은 옛 거주지로 돌아가게 하였다. 프라야 나콘랏차시마, 프라 랏차수파왓디, 프라 수판부리에게는 므앙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왕은 프라야 마하텝과 쿤 믄에게 병사 500 명과 무기를 주어 므앙롱을 차지하게 하였다. 그들은 므앙롱의 수령인 샌 므앙롱과 피난민들을 데리고 프라 핏사눌록의 왕실 본영으로 돌아왔다.

왕은 쿤 랏차세나와 믄 인타카랏에게 프라야 나콘랏차시마와 프라 랏차수파왓디의 소식을 알아보게 하였다. 프라 수판부리는 다시 군사를 이끌고 므앙땅으로 향했다. 믄 찟과 병사 68 명도 음력 3 월 그믐 초이틀 월요일에 프라 핏사눌록의 왕실 본영으로 왔다.
사카라트 1022 년 쥐해 토섹년은 서기 1660 년, 불기 2203 년이다.

나라이 왕은 프라 핏사눌록에서 수코타이로 행차하여 타니 마을에 머물렀다. 이어 프라야 끼앗을 선봉장으로, 쿤 위치안요타를 우익으로, 쿤 람요타를 좌익으로 삼았다. 솜잉 삼랏은 선봉을 맡고, 병사 500 명과 무기를 갖춘 부대도 함께 편성하였다.

왕은 프라야 깜팽펫을 대군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쿤 므앙은 우익을, 쿤 랏차는 좌익을 맡고, 루앙 아난탓샌생은 선봉이 되었다. 코끼리와 말, 대포와 무기를 갖춘 부대를 편성하여 므앙 람디로 진군하게 하였다.

두 부대는 므앙 람디를 공격하고 그곳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곳 사람들이 왕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러자 쿤과 밍을 비롯한 그곳의 우두머리 열다섯 명이 프라야 깜팽펫에게 와서 아뢰었다.

“저희는 왕의 신하가 되어 복종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예를 갖추어 왕에게 항복하고, 왕의 보호 아래 살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 왕은 그들을 환대하고 옷과 생필품을 내렸다.

프라야 깜팽펫은 쿤 초티팍디, 쿤 사라나린, 믄 마하까오탄에게 병사 100 명을 맡겨 프라야 프롬키리를 찾아가게 하였다. 쿤과 믄, 여러 수령도 함께 왕을 찾아와 항복하고 충성을 맹세하였다.

왕은 프라야 깜팽펫에게 그들을 이끌고 왕실 본영으로 오게 하였다. 왕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 옷과 은화를 주고, 모두에게 상을 내렸다. 그런 뒤 프라야 프롬키리를 우두머리로 삼아 병사들과 함께 므앙 인타키리로 돌아가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프라야 프롬키리는 휘하 사람들을 이끌고 방콕 아유타야로 돌아왔다. 나라이 왕은 프라야 사뭇에게 병사들을 이끌고 왕을 알현하게 하였다. 샌 탁친과 샌 부왓반, 샌 아파이완, 샌 핑차이도 병사들과 함께 와서 왕께 절하고 복종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이름과 관직을 내렸다. 샌 탁친은 샌루앙 수린타랏팍디, 샌 부왓반은 샌 쿠민타라비반으로 삼았다. 프라야 프롬키리에게는 은 그릇과 옷감을 내렸고, 샌루앙 수린타랏팍디의 아들인 프라야 인타키리에게도 옷을 하사하였다.

왕은 샌루앙 수린타랏팍디, 샌 쿠민타라비반, 샌 쿤, 믄과 병사들을 인타키리로 돌려보내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프라야 인타키리는 방콕 아유타야에 딸린 지방의 수령으로서 인타키리를 다스리게 되었다.

한편 프라야 깜팽펫과 프라야 끼앗은 그곳에 주둔하면서, 스밍 클롱쿠와 스밍 까텅, 그리고 라와족 마을의 우두머리들을 포섭했다. 라와족 백성도 많이 따르게 되자, 이들을 아유타야 왕도에 보냈다. 왕은 스밍 클롱쿠에게 '스밍 테와키리락'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금으로 장식한 칼과 옷을 하사했다. 그런 다음 모든 사람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다시 올라가 라와족 마을들을 정찰하게 했다. 그 결과 건장한 주민 600 명을 이주시킬 수 있었다.

스밍 테와키리락은 정찰을 계속해 프라야 프롬키리를 찾아냈다. 이에 프라야 깜팽펫은 쿤라차가 프라야 프롬키리와 그 일행을 데리고 아유타야 왕도로 오게 했다. 왕은 프라야 프롬키리를 불러 왕에게 문안드리게 하고, '프라야 수탓타나타니 시 아나위크피롬'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왕은 금으로 테를 두른 은 쟁반과 값진 비단옷을 많이 하사했다. 내무부와 국방부의 대신들, 그리고 네 부처의 관원들도 각자 형편에 맞게 비단옷을 상으로 주었다.

그 뒤 프라야 프롬키리는 인타키리 성을 지키러 돌아갔다. 그곳은 아유타야 왕도에 속한 속국이었다. 왕은 관리를 보내 프라야 수탓타나타니와 함께 지내며 왕도의 행정 관례를 익히게 했다.

그때 아유타야 왕도는 나라이 대왕의 위엄과 덕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웠다. 한편……

아웅와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 중국인 요시우팅이 사람 약 1 천 명을 이끌고 피난해 아웅와에 의지해 살고 있었는데, 호족들이 군대를 이끌고 아웅와로 와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아웅와 왕은 내주지 않았고, 호족 군대는 아웅와를 포위했다.

당시 아웅와 왕의 숙부 망난티밋은 메워타마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 내려가 있다가 소식을 듣고, 메워타마에 속한 서른두 성에서 3 천 명을 징발해 아웅와를 돕도록 했다. 군대는 몬족 땅을 지나 진군했지만, 병사들은 내키지 않아 대열에서 빠져나와 도망치는 사람이 많았다.

망난티밋은 달아난 몬족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불태워 죽이려 했다. 스밍뻐 일행은 이 소식을 듣고 동료 스밍 열한 명과 함께 몬족 병사 5 천 명을 거느리고 메워타마로 쳐들어가 불을 질렀다. 망난티밋을 붙잡았으나, 그는 병이 들어 곧 죽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아웅와 왕이 알게 되면 모두 죽임을 당해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제 아유타야 왕도에 의탁해야만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뜻을 모아 무장한 사람 5 천 명을 이끌고 피난길에 올랐다. 가족과 망난티밋의 가족까지 거느리니 모두 6 천여 명이었다. 이들은 곧 대신들에게 모든 사정을 알리고, 왕께 아뢰어 달라고 청했다.

왕은 크게 가엾게 여기고, 스밍 일행과 그 무리에게 은전과 옷을 많이 내렸다. 그러나 망난티밋은 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

인쇄 408 쪽

한편 한사와디, 양곤, 스리앙의 성주들은 메워타마의 몬족과 그 속국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족을 데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아웅와에 서신을 보냈다. 마침 아웅와를 포위했던 호족 군대는 군량이 떨어져 철수하고 있었다.

아웅와 왕은 한사와디·똥우·쁘라완·스리앙·양곤의 성주들에게 명해, 군사 3 천여 명을 이끌고 망난티밋을 붙잡으러 가게 했다. 군대는 메워타마로 가서 병사 1 만여 명과 전투용 코끼리 68 마리, 말 200 마리를 모았다. 망수라라차를 총사령관으로 삼고, 병사 2 만 명과 전투용 코끼리 100 마리, 말 300 마리를 거느려 메워타마로 진군했다.

군대는 메워타마에서 군사를 모은 다음 북쪽으로 올라가 람푼과 치앙마이를 공격하라는 왕명을 받았다. 한편 아유타야의 군대는 라와족과 라오족을 설득해 나콘 지역과 람푼, 치앙마이에서 많은 사람을 포섭한 상태였다. 이에 왕도에서 문서가 내려와 람푼과 치앙마이를 공격해 반드시 점령하라고 명했다.

군대가 명령에 따라 출발하자, 람푼·치앙마이 주민과 아웅와에 속한 북부 타이야이의 성주들은 아웅와를 포위했던 호족 군대가 자기들에게도 쳐들어올까 두려워했다. 이들은 상수린트라 마이뜨리에게 서신을 들려 아유타야 왕도로 내려보냈다. 호족 군대가 이미 철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아웅와 왕이 도망친 몬족을 추격하도록 버마 군대를

징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성들은 아웅와에 속해 있었으므로 버마 군대도 두려워했다. 그래서 몰래 상수린트라 마이뜨리에게 사람을 보내 아유타야 군대의 진군을 늦춰 달라고 했다. 람푼과 치앙마이를 방어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버마 군대가 함께 와서 돕게 되면, 지혜롭고 말솜씨 좋은 승려 네 명을 사절로 보내 아유타야 군대에 서신을 전하게 하겠다고 했다. 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상수린트라 마이뜨리는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면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쳐 왔습니다.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윗사람까지 허물을 입게 했으니, 엄하게 벌을 내리고 그를 군대에 넘기겠습니다. 저희는 호족이 치앙마이를 빼앗으러 오려는 것을 막아 주신 국왕의 덕과 위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호족이 물러갔습니다. 또 대장군께서 군대를 이끄시니,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부디 군대를 잠시 머물게 하시고 우선 람푼만 공격해 주십시오. 이 사정을 왕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타야 군대는 치앙마이 성주가 서신에 적은 계략을 의심하지 않았다. 서로 의논한 끝에, 왕명에 따라 람푼과 치앙마이를 무력으로 공격하려 했으나 이제 람푼과 치앙마이 성주가 죄를 인정하고 항복해 왔고 치앙마이 성주도 죄를 인정하며 순순히 나왔다.
그는 버마 군대가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어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므로 아직 람푼과 치앙마이를 공격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먼저 왕께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군대는 함께 의논한 뒤 람푼과 치앙마이 주민들의 계략과 상황을 적어 문서를 작성했다. 사람을 시켜 아유타야 왕도에 내려가 왕께 보고하게 했다.

한편 버마·몬족 연합군은 메워타마와 사니에서 출발해 깐짜나부리 쪽으로 진군했다. 버마 측은 도망친 몬족을 넘겨주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 싸워서라도 반드시 데려가겠다는 서신을 보냈다. 깐짜나부리 주민들이 이 일을 왕께 보고했다. 이 보고는 북부 군대의 서신보다 이삼 일 먼저 도착했다.

군대는 전투 대형을 갖추어 진군했다. 한 부대는 타끄라단과 끄람창 검문소에 진을 쳤고, 다른 부대는 타와이로 가는 길목에 진을 쳤다. 본대는 깐짜나부리 인근 람끄퍼임 하구에 큰 진을 세웠다. 해자와 성책을 서둘러 만들고, 좁고 넓은 목책과 참호, 보루를 설치했다. 정찰병과 매복병을 배치하고, 기습 부대와 순찰대를 두어 밤낮으로 경계했다.

한편 버마·몬족 군대는 선봉을 이끌고 들어와 싸이욕 지역에 진을 쳤다. 본대는 딘댕에 진을 세우고 방어 시설을 완성한 뒤, 선봉을 보내 아유타야 군대를 공격했다. 태국과 버마의 순찰대도 곳곳에서 맞붙었다.

왕도에 있던 나라이 대왕은 람푼과 치앙마이 성주들이 죄를 인정하고 순순히 항복한다는 서신을 받았다. 왕은 북부 군대에 명을 내려 람푼과 치앙마이에서 물러나게 하고,

깜팽펫으로 돌아온 뒤 우타이타니 방면으로 진군해 버마군의 뒤를 공격하게 했다. 북부 군대는 왕명에 따라 진군을 멈추고 철수해 씨사왓, 망끌라, 텅파품에 이르렀다.

남쪽과 북쪽에서 온 군대가 모두 집결하자, 왕은 좁은 길목에 기습 부대를 보내 버마군을 차단하고 공격하게 했다. 남쪽과 북쪽의 본대도 서둘러 전진해 사흘 동안 버마군을 공격했다. 버마군은 한밤중 세 시 무렵 무너져 달아났다. 버마의 지휘관과 병사들이 많이 죽거나 사로잡혔다.

버마·몬족 군대는 총캅까지 달아났고, 기습 부대가 뒤쫓아 공격해 크게 무찔렀다. 몬족과 버마 병사들을 사로잡았으며,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포박했다. 망수라라차 포촉 사령관은 어깨에 총상을 입어 병이 났다.

아유타야 군대는 승리를 거두어 코끼리와 말, 무기와 장비, 포로를 많이 얻었다. 지휘관은 여섯 부대의 지원군과 참족 부대, 여러 성의 병사 등 1 만여 명을 편성해 버마·몬족 군대를 추격하게 했다. 이들은 람밍 성까지 쫓아가 다시 승리를 거두었다.

프라야 꼬사렉과 여러 지휘관은 전황을 상세히 적어 왕께 보고했다. 나라이 대왕은 기뻐하며 모든 군대에 귀환하라고 명했다. 프라야 꼬사렉과 지휘관들은 코끼리와 말, 무기와 장비, 포로를 비롯한 전리품을 왕께 많이 바쳤다. 왕은 군대가 적을 이긴 것을 기뻐하며, 지위에 따라 장수들에게 마땅한 상을 내렸다.

이때가 짜끄라트력 1025 년, 서기 1663 년·불기 2206 년이며, 닭의 해였다.

프랑스인 선장 한 사람이 상품을 싣고 와 방콕에서 장사를 했다. 나라이 대왕은 그에게 큰 배 한 척을 만들게 했다. 배가 완성되자 왕은 운하 밖으로 끌어내 프랑스인에게 배를 어떻게 운항하는지 물었다. 그 프랑스인은 총명하고 항해에 능숙했다. 왕에게 배를 몰고 나가 항해해 보겠다고 청하자, 왕은 이를 허락했다.

그 프랑스인은 배를 무사히 운항했다. 나라이 대왕은 그에게 큰 상을 내리고, 루앙 위차옌이라는 관직을 주어 왕도에서 일하게 했다. 그는 여러 일에서 충성심과 능력을 보였으므로 왕은 그를 프라야 위차옌으로 승진시켰다.

오랜 세월 그가 맡은 일을 잘해 왕실의 신임을 얻었다. 어느 날 왕은 프라야 위차옌에게 물었다.

"프랑스에는 어떤 특별하고 신기한 물건들이 있느냐?"

프라야 위차옌은 여러 가지를 아뢰었다. 시계 만드는 기술자, 공기총과 화승총,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이게 하는 망원경 등 여러 신기한 기술이 있으며, 프랑스 왕의 궁전에는 금은도 많다고 했다. 은을 팔각형의 큰 덩어리로 주조하는데……

그 은 덩어리는 둘레가 세 뼘쯤 되고 길이는 일곱 내지 여덟 자였다. 길가에 많이 쌓여 있었으며, 열세 명이나 열네 명이 들어도 하나를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궁전 안의 넓은 방 바닥은 여러 빛깔의 돌로 깔고, 무늬를 새긴 뒤 은과 금, 여러 색의 보석을 박아 장식했다. 꽃나무와 산, 여러 동물의 형상도 새겨 넣었다.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과 거울을 장식했고, 천장은 얇은 금판으로 덮었다. 금판에는 가는 선을 새겨 장식했으며, 그 위에 여러 색의 보석과 금을 박아 매달고 유리 장식도 걸었다. 바닥과 기둥, 천장에는 빛깔이 고운 보석과 금이 가득해 그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라이 대왕은 프라야 위차옌이 프랑스의 진귀한 보물과 물건들을 설명하는 말을 들었으나 그대로 믿지는 않았다. 왕은 실제 모습을 확인하고자 차오프라야 꼬사티보디에게 말했다.

“우리가 배를 만들어 프랑스에 보내려 한다. 배의 선장으로 누가 가서 그곳의 진귀한 물건들을 살펴보면 좋겠느냐? 프라야 위차옌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아야겠다.”

차오프라야 꼬사는 아뢰었다.

“신은 프랑스까지 배를 몰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파안이라는 자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가 직접 가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파안을 불러오라고 명했다. 파안이 입궐하자 왕은 말했다.

“프랑스에 가서 그 나라 왕의 보물이 프라야 위차옌이 말한 대로 있는지, 또 어떤 진귀한 물건들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파안은 왕의 명을 기꺼이 받들고 프랑스에 가서 명령받은 일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배를 만들면서 항해에 능숙한 사람을 찾다가 한 사람을 구했다. 그는 점성술과 여러 기술을 배웠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지만, 함께 가겠다고 했다. 파안은 매우 기뻐했다.

파안은 프랑스인들을 통역으로 구하고 배를 준비했다. 배가 완성되자 프라야 꼬사파는 파안을 데리고 입궐해 왕께 문안드렸다. 왕은 파안을 왕실 사신으로 임명하고, 프라야 차오프라야싼을 부사신으로, 다른 한 사람을 종사관으로 삼았다. 이들에게 왕명을 전하는 국서를 맡기고, 프랑스 왕실의 관례에 맞는 예물과 관직에 걸맞은 하사품도 내렸다.

“길한 날이 되자 왕실 사신 파안과 부사신, 종사관은 왕께 작별 인사를 올렸다. 일행과 하인들을 데리고 큰 배에 올라 왕도를 떠나 바다로 나갔다. 항해한 지 약 넉 달 만에 프랑스의 큰 강 하구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휩쓸렸고, 바다 한가운데서 사흘 동안 떠돌았다. 배에 탄 사람들은……”

배에 탄 사람들은 살려 달라고 외쳤다. 배들은 모두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라앉았고, 그곳을 빠져나온 배는 한 척도 없었다. 그러나 사신 파안은 아직 정신을 잃지 않았다. 그는 스승에게 물었다.

"우리 배가 이 소용돌이 안에서 이삼 일째 맴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곳을 벗어나 우리 모두 죽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사신을 달래며 말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재앙을 피할 방도를 찾겠습니다."

그는 제물을 차려 향과 초를 밝히게 했다. 그런 뒤 흰옷을 입고 선정에 들어가 요가 수행법에 따라 명상했다. 잠시 뒤 큰 폭풍이 일어나 배를 소용돌이 밖으로 밀어 올렸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프랑스 항구 어귀에 도착했다.

사신은 항구의 관리와 성주에게 아유타야 왕도에서 온 배이며, 사신이 왕의 국서를 받들고 왔다고 알리게 했다. 프랑스 왕은 신하들에게 배를 보내 사신과 국서를 맞이하게 했다. 사신 일행을 외국 사절을 접대하는 건물에 머물게 한 뒤, 왕은 사신을 불러……

사신은 왕의 국서와 예물을 바쳤다. 프랑스 왕은 관례에 따라 사신을 대접하게 하고, 통역관을 시켜 바닷길이 편안했는지, 항해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배가 큰 소용돌이에 빠져 사흘 동안 맴돌다가 빠져나왔다는 말을 들은 왕은 크게 의아해했다. 이전에는 어떤 배든 그 소용돌이에 빠지면 바닷물이 배를 빨아들여 가라앉았고, 한 척도 살아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왕은 통역관에게 사신을 다시 자세히 심문하게 했다. 사신은 같은 답을 했고, 왕은 이를 믿었다. 이어 프랑스인 선원들에게도 물으니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왕은 이를 매우 신기하게 여겼다.

왕이 사신에게 무슨 방법으로 소용돌이를 빠져나왔는지 묻자, 사신은 이렇게 답했다.

"저는 두 나라 국왕의 신성한 위엄을 걸고 맹세하며 기도했습니다. 두 분 국왕께서 처음으로 왕실의 우호 관계를 맺으시니, 그 우호가 끊어지거나 깨지지 않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두 분 국왕의 위엄과 덕에 힘입어 큰 폭풍이 일어나 배를 소용돌이 밖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프랑스 왕은 사신의 말을 듣고 사실이라고 여겼다. 아유타야 왕은 큰 복을 지닌 분이며 아유타야 왕은 복덕이 매우 크고 왕과도 비견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프랑스 왕은 사신을 크게 환대하고 많은 상을 내렸다.

얼마 뒤 프랑스 왕은 통역관을 불러 프랑스 군인 500 명을 데려오게 했다. 병사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각각 250 명씩 두 줄로 세웠다. 서로를 향해 총을 쏘게 했으나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왕은 사신에게 태국 군대도 이렇게 훈련하는지 물었다.

사신은 아유타야 왕의 군대도 그와 같다고 대답했다. 왕은 태국 군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잘 훈련되었는지 보고 싶어 했다. 사신은 군사들을 불러 훈련을 보이겠다고 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 병사들을 데려왔다.

프랑스 왕은 왕실 접대관에게 사신을 맞이하게 하고, 궁으로 올라와 국서와 예물을 바치도록 했다. 왕은 사신을 궁으로 불러……

인쇄 419 쪽

사신은 왕의 국서와 예물을 바쳤다. 프랑스 왕은 예를 갖춰 사신을 맞이하고, 통역관을 시켜 바닷길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묻게 했다. 배가 큰 소용돌이 안에서 사흘이나 맴돌다가 빠져나왔다는 말을 듣고 왕은 크게 놀랐다. 예전에는 어떤 배든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면 곧 가라앉아 한 척도 살아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왕은 통역관을 시켜 사신에게 다시 물었다. 사신은 앞서 한 대답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왕은 프랑스 선원들에게도 일일이 물었고, 그들의 말도 모두 같았다. 왕은 이 일을 매우 신기하게 여겨 사신에게 무슨 방법으로 배가 빠져나왔는지 물었다.

사신은 두 나라 국왕의 위엄과 덕에 의지해 기도했다고 답했다. 두 나라가 처음으로 왕실의 우호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 그 우호가 끊어지지 않게 해 달라고 빌었다는 것이었다. 큰 폭풍이 일어나 배를 소용돌이에서 밀어 올린 것도 두 국왕의 위엄과 덕분이라고 했다.

프랑스 왕은 사신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는 아유타야 왕이 군사들을 잘 훈련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물었다. 사신은 아유타야 군대도 숙련된 군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을 쏘아도 서로를 맞히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부 군사들은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도 눈에 띄지 않고, 적장의 목을 베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왕은 그런 군사들의 솜씨를 직접 보고 싶어 했다.

왕은 궁 앞뜰에 세 층으로 된 단을 세우고 흰 천을 둘러 덮게 했다. 주위에 울타리를 두른 뒤 음식과 술을 준비하게 하여, 사신과 군사들이 훈련을 마치고 함께 먹도록 했다.

왕은 스승에게 흰옷과 긴 바지를 입히고 흰 터번을 쓰게 했다. 열일곱 제자도 모두 붉은 옷과 바지를 갖춰 입었다. 스승과 제자들은 왕의 앞에 나아가 절하고 예를 올린 다음, 단 위에 앉았다.

사신은 왕께 아뢰었다.

“폐하의 군사 500 명을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태국 군사 열일곱 명은 이 단 위에 앉아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프랑스 왕은 군사 500 명을 불러 모으고, 태국 군사들도 함께 총을 쏘게 했다. 두 나라 군사들은 서로 멀고 가까운 곳을 겨냥했으며, 온갖 군사 기술을 동원해 위험한 일을 막았다. 프랑스 병사들은 여러 차례 가까이 다가와 총을 쏘았다. 총구에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일었으나, 탄환은 단 하나도 태국 군사들에게 맞지 않았다.

태국 군사 열일곱 명은 왕께서 준비한 음식과 술을 평소처럼 받아먹었다. 그동안 프랑스 병사들은 계속 두려워하며 몸을 움츠렸다. 스승과 태국 군사들은 허락을 청하며 말했다.

“폐하께서 한 번 더 발사하게 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탄환을 실제로 장전해 쏘겠습니다. 그러면 총알이 총구에서 나와 단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군사들은 다시 함께 쏘았다. 탄환이 총구에서 발사되어 단과 입구 가까이, 또 멀리 떨어진 곳에 박혔다. 그러나 태국 군사 가운데 누구 하나도 맞지 않았다. 프랑스 왕은 이 광경을 보고 사신의 말이 사실임을 믿었다. 그는 태국 군대의 무예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군사 기술의 뛰어난 스승을 구하게 한 뒤 많은 금은을 하사하라고 명했다.

프랑스 왕은 태국 군사들에게 많은 옷을 상으로 내렸다. 잔치가 끝나자 사신 일행은 숙소로 돌아갔다. 왕은 파안이 말을 꾸미지 않고 사실대로 전하는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사신이라고 여겼으며, 아유타야 왕의 덕도 매우 크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왕은 물었다.

“아유타야 왕도에는 특별한 무예를 익힌 태국 군사가 이들뿐이냐? 다른 군사들도 더 있느냐?”

사신은 이렇게 답했다.

“이 군사들은 외국 출신으로, 상선에 딸려 와 왕도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무예도 그저 보통 수준입니다. 왕도를 지키는 군사들은 이보다 훨씬 뛰어나며, 여러 특별한 무예를 익힌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프랑스 왕은 왕좌에 높이 앉아 있었다. 아침에는 몸빛이 붉고, 한낮에는 푸르며, 저녁에는 희게 보였다. 여러 차례 왕을 알현한 사신은 이를 보고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어느 날 왕은 사신에게 물었다.

“그대는 높은 지위의 귀족이냐, 아니면 낮은 지위의 귀족이냐? 그대가 참으로 정직하게 말하는구나. 아유타야 왕도에서는……”

"모든 관리를 다스리고, 어떤 귀족에게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는 법이 어떠하냐? 우리도 그와 같이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겠다."

사신은 왕의 몸빛이 여러 날 동안 달라 보이는 까닭을 알고 싶었다. 기회가 오자 사신은 이렇게 아뢰었다.

"소인은 여러 나라를 오가며 장사에 쓰이는 낮은 관리일 뿐입니다. 지혜와 학식도 매우 부족합니다. 소인보다 훨씬 지혜롭고 학식이 높은 고위 관리들이 많습니다.

아유타야 왕도의 관례로는, 국왕께서 어떤 귀족을 특별히 총애하시면 그에게 다른 관리들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불러 왕을 알현하게 하시고, 그가 왕께 문안드리면……"

그 귀족에게 용서를 베푸시듯, 저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신은 여러 날 동안 왕의 몸빛이 달라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왕의 허락을 얻어 알현하게 되자, 그는 왕께 가까이 나아가 문안드렸다. 사신은 왕의 왕좌 둘레가 보석으로 장식된 것을 보았다. 아침에는 루비가 둘러져 있었고, 한낮에는 에메랄드가 놓여 있었으며, 저녁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왕을 둘러싸고 있었다. 보석의 빛깔이 시간마다 달라졌던 것이다.

어느 날 프랑스 왕은 흰 말을 타고 궁 밖으로 행차했다. 말에는 온통 보석으로 장식한 마구를 씌웠고, 목에는 큰 루비 하나를 걸었다. 루비는 매우 커서 그 빛이 왕을 비추었다……

말의 몸 전체가 붉게 빛났다. 왕은 많은 수행원과 함께 행차했다. 왕은 사신에게 그 보석이 얼마나 큰지 물었다. 아유타야 왕도에는 보석이 많으냐고도 물었다.

사신은 아뢰었다.

"소인은 궁중의 보물 창고를 맡은 사람이 아니어서 보석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답하면 거짓말이 될까 두렵습니다. 다만 한 번 뵌 적은 있습니다. 아유타야 국왕께서 흰 말을 타고 행차하실 때, 큰 루비 하나를 말의 목에 걸어 두셨는데 그 크기가 이만했습니다."

프랑스 왕은 사신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칭찬했다. 왕은 파안에게 왕도에 들어가 궁전 안을 둘러보고 여러 보물을 구경하게 하라고 명했다. 파안은 궁전과 왕실의 보물을 살펴본 뒤, 위차옌이 말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고했다.

파안은 다시 왕을 알현해 아유타야 왕도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보물이 있다고 아뢰었다. 프랑스 왕은 아유타야 왕의 덕과 위엄을 칭송하며 우호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

이에 차오프라야 파안을 귀족으로 봉하고, 프랑스 귀족 여성을 아내로 맞게 했다. 왕은 프랑스식 의복과 여러 보석을 하사하고, 궁정에서 일하게 했다. 사신은 왕의 명에 따라 프랑스 여인과 혼인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

약 3 년이 지난 뒤, 사신은 왕께 작별을 고했다. 프랑스 왕은 많은 금은과 옷, 진귀한 물건을 예물로 주고, 아유타야 왕에게 보내는 답신과 왕실 예물도 함께 마련했다.

인쇄 425 쪽

프랑스 왕은 답신과 예물을 큰 배에 싣고 항구로 보내게 했다. 길한 날이 되자 파안 사신과 부사신, 종사관은 바다로 나가 아유타야로 향했다. 위험 없이 항해하여 방콕 왕도에 도착했다. 파안과 부사신, 종사관은 왕께 국서와 예물을 바치고, 프랑스 왕의 답례품도 함께 올렸다. 그들은 여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나라이 대왕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기뻐하며 파안에게 상을 내렸다. 파안은 프랑스에서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했으므로, 왕은 그 공에 걸맞은 상을 내린 것이다.

짜끄라트력 1024 년, 호랑이해 4 년째였다. 서기 1662 년·불기 2205 년.

나라이 왕의 사신 파안이 프랑스 궁정을 방문했을 때, 프랑스 왕이 프랑스 병사 500 명을 불러 사격 시범을 보였다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태국 사신단도 무예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 외교 사절단의 프랑스 방문을 바탕으로 한 서술이지만, 태국 군사들이 총탄을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초자연적 요소가 섞인 연대기 서술로 보아야 합니다. 파안 사절단의 프랑스 방문과 궁정 접대는 동시대 기록으로 확인되지만, 이 사격 시범의 세부 묘사까지 사실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기에는 총탄을 피하는 주술, 보석 빛깔에 따라 달라 보이는 왕의 몸빛 같은 이야기들도 함께 나옵니다.

나라이 왕대 프랑스·아유타야 외교 흐름

시기	*주요 내용*
1680 년대 초	*나라이 왕은 네덜란드의 상업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유럽과 교역·외교 관계를 넓히려 했습니다. 프랑스도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네덜란드와 경쟁하려 했습니다.*
1685 년	*쇼몽 기사와 주아지 수도원장이 이끄는 프랑스 사절단이 시암에 왔습니다. 교역 협상과 함께 나라이 왕의 가톨릭 개종도 프랑스 측 관심사였습니다.*
1685~1686 년	*파안이 이끄는 시암 사절단은 프랑스로 향해 1686 년 베르사유에서 루이 14 세를 알현했습니다. 파안의 사절단 일지는 실제 여정과 접대 과정을 기록한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1687 년	*프랑스는 라 루베르와 세베레가 이끄는 사절단을 다시 시암에 보냈습니다. 6 척에 탄 인원은 병사만이 아니라 장교·사절·성직자 등을 합쳐 모두 1,361 명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방콕과 메르귀에 병력을 두려 했고, 데스파르주가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1688 년	*나라이 왕이 위중해진 뒤 프라 펫라차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방콕과 메르귀의 프랑스 병력은 새 정권과 충돌했고, 결국 프랑스군은 철수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한 '시암의 대서양 세력 추방'으로만 보면 부정확합니다. 시암 측은 프랑스와의 교역 자체를 완전히 끊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시기의 프랑스에 있던 프랑스 병사들을 보여 주는 장면, 1687 년은 프랑스 병력이 실제로 시암에 들어와 방콕과 메르귀에 주둔하게 된 시기*로 구분하면 됩니다.*

나라이 대왕은 여러 대신과 의논하며 말했다.

“아웅와 왕이 감히 버마·몬족 군대를 보내 우리 국경을 넘어 도망친 몬족 가족을 추격하게 했다. 이를 두려워할 수는 없다. 군대를 보내 보복하고 원수를 갚아 그들의 성을 반드시 빼앗아야겠다.”

대신들은 모두 왕의 뜻에 동의했다. 아수자월에 이르러 왕은 마침내 출정하라는 명을 내렸다.

인쇄 426 쪽

차오프라야 꼬사티보디를 총사령관으로 삼아 병사 2 만여 명과 전투용 코끼리 100 여 마리, 말 200 여 마리를 거느리게 했다. 프라야 위찟팍디는 부사령관으로 삼아 병사 1 만여 명, 전투용 코끼리 68 마리, 말 100 여 마리를 맡겼다. 프라 수린트라팍디는 선봉을, 프라야 시하랏데초는 선두 부대를, 프라야 수랏송크람은 후군을 지휘하게 했으며, 부사령관 부대와 같은 수의 병사와 코끼리, 말을 거느리게 했다.

이어 프라야 끼앗과 스밍 프라람, 옛 몬족과 새로 합류한 몬족 지도자들에게 몬족 군사를 이끌고 먼저 출발하게 했다. 타와이와 메워타마, 그리고 그에 딸린 서른두 성의 주민들을 모아 병사 1 만여 명을 확보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들은 메워타마 쪽으로 진군해 차오프라야 꼬사티보디의 군대와 합류하기로 했다.

또 프라야 람데초와 프라야 깜팽펫, 북부의 여러 성주에게 병사 5 천 명과 코끼리, 말, 무기를 갖추게 했다. 치앙마이와 람푼차이, 나콘람빵의 군사를 징발해 1 만여 명을 모으고, 북쪽 길로 진군하게 했다.

윤달이 든 달에 이르러 길일을 점쳤다. 차오프라야 꼬사티보디와 여러 지휘관은 왕께 작별 인사를 올리고 병력을 나누어 출발했다. 한 부대는 프라쩨디삼옹 쪽으로, 또 한 부대는 카오파 방면으로 향했다. 아유타야의 싸이랏 검문소와 타와이 방면에서도 병사를 징발하고, 타와이와 메워타마를 공격해 병사 1 만여 명을 모았다. 북부 군대도 세 라오족 성에서 병사 1 만여 명을 모았다. 일부는 라해 검문소에서, 일부는 므앙턴과 나콘람빵 검문소에서 합류해 짓똥의 스토웅강 일대에 집결했다. 모든 군대가 모이자 병력은 9 만여 명에 이르렀다.

총사령관 차오프라야 꼬사티보디는 전쟁의 규범에 맞춰 진형을 갖추고, 한사와디와 스리앙, 양곤을 공격하러 출발했다. 세 성의 군대는 맞서 싸우기도 하고 싸우지 않기도 했으나, 끝내 버티지 못하고 달아났다. 몬족 주민들이 대거 아유타야 군대에 투항해 합류했다.

각 부대의 지휘관들은 똥우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버마·몬족의 성들을 차례로 점령하고 많은 가족을 사로잡았다. 네 달 뒤 아웅와에 도착하자 총사령관은 큰 진을 치게 했다. 후방의 보급 부대는 아웅와에서 1 요트 떨어진 곳에 두고, 선봉과 선봉 양쪽의 부대, 부사령관 부대는 성의 세 면을 둘러 진을 치게 했다. 성에서 약 200 센 떨어진 곳까지 포위하되 강 쪽 한 면은 열어 두었다. 큰 배를 붙잡아 아웅와 맞은편의 짜까이 성을 공격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군대는 여러 곳에 진을 치고 그 수는 적었는데, 아웅와에는 가뭄이 들어 논밭의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못했다.

아웅와 왕은 망짬레 왕자를 보내 병사 1 만 명을 이끌고 성 밖 여러 곳에 진을 치게 했다. 선봉장 프라야 시하랏데초는 병력을 이끌고 버마군과 여러 차례 들판에서 맞붙었다. 버마군은 용감히 맞섰지만 끝내 당해 내지 못하고 매번 자기 진영으로 달아났다.

어느 날 버마 지휘관은 계략을 꾸몄다. 군사를 진 안에 매복시키고, 뒤쪽 문을 열어 두어 도망치는 척했다. 프라야 시하랏데초는 적의 계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흰 말을 몰아 병사 약 500 명을 이끌고 진 안으로 들어갔다. 버마군은 진 안의 참호에 숨어 있다가 한꺼번에 뛰쳐나와 태국 병사들을 포위했다. 버마군은 수가 훨씬 많아 태국 병사들을 모두 붙잡았다.
그러나 프라야 시하랏데초와 그의 병사들은 모두 몸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 적의 무기가 몸을 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버마군과 싸우며 많은 적을 베어 쓰러뜨렸으나, 수적으로 크게 밀려 힘이 다했다. 버마군은 계속 병력을 보태며 포위해 모두 붙잡으려 했다. 태국 병사들을 때리고 베고 찔렀지만 무기가 몸에 박히지 않았다.

아유타야 군대는 아래쪽에서 뒤따라와 버마 진영을 공격했다. 버마군이 강하게 막아내자 더는 진을 뚫지 못하고 물러났다. 군대는 이 일을 보고서로 작성해 왕께 알렸다.

왕은 프라야 수린트라팍디와 선봉 지휘관들을 보내 프라야 시하랏데초를 구하게 했다. 프라야 시하랏데초가 아직 살아 있다고 보고한 뒤, 서른 마리의 말을 급히 방콕 왕도로 보내 왕께 아뢰게 했다. 나라이 대왕은 프라야 시하랏데초가 적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에 크게 걱정했다.

왕은 관리들에게 명하여 왓 라캉의 프라 피몬탐 승가장로를 모셔 오게 하고, 그 일을 자세히 살펴보게 했다. 프라 피몬탐은 점을 살핀 뒤 그날 밤에 그 일을 알게 되었다. 그는 왕께 예언해 아뢰었다.

“프라야 시하랏데초가 적에게 붙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의 손아귀에서 벗어났고, 다시 승리를 거두어 큰 전리품까지 얻을 것입니다.”

나라이 대왕은 여전히 걱정하며 마음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실제로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한편 버마군은 프라야 시하랏데초와 태국 병사 약 500 명을 모두 붙잡았다고 생각하고, 포로를 아웅와로 보내려 했다. 그때 태국 증원군이 도착해 버마군의 여러 진을 포위했다. 버마 지휘관들은 병력을 내보내 맞섰으나, 아유타야군은 진의 참호 안으로 숨어들어 버마군을 기습했다. 버마군은 수적으로 훨씬 우세해 태국군을 에워싸고 많이 사로잡았다.

그러나 프라야 시하랏데초는 몸을 묶은 밧줄을 풀고 빠져나올 방도를 찾았다. 하늘의 구름을 살펴 길조를 확인한 뒤, 불경의 주문을 외워 몸을 묶은 밧줄을 모두 풀었다. 그는 일어나 버마군의 칼을 빼앗아 자신을 지키던 적 여러 명을 베어 죽였다.
버마군이 흩어져 달아나자 그는 칼로 다른 태국 포로들의 결박도 풀었다. 풀려난 병사들은 서로 도와 버마군의 무기를 빼앗고, 남은 포로들의 밧줄도 차례로 끊었다. 모두 힘을 합쳐 진 안의 버마군을 공격해 많이 죽이고 몰아냈다. 마침내 그 진을 빼앗았는데, 증원군의 지휘관은……

버마·몬족 군대가 그 진영에서 모두 달아나고, 프라야 시하랏데초와 병사들도 결박에서 풀려나자, 이들은 함께 다른 진영들을 차례로 공격했다. 버마군은 크게 놀라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아유타야 군대는 뒤쫓아 버마군을 많이 죽였다.

아웅와 왕의 아들 망짬레 왕자는 버마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는데, 진영 안에서 죽었다. 버마의 지휘관들도 여럿 전사했고, 진영은 모두 함락되었다. 버마군은 아웅와 성으로 도망쳤다. 아유타야 군대는 승리해 버마인 포로와 코끼리, 말, 무기를 많이 얻었다. 포로와 전리품을 총사령관에게 보내고 전황을 알렸다.

차오프라야 꼬사티보디는 크게 기뻐하며 급히 말을 탄 전령 30 명을 더 보내 왕께 보고하게 했다. 전령들은 그날 방콕 왕도에 도착했다. 후군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도 앞서 간 전령들과 거의 같은 시각에 아유타야 왕도에 도착했다. 두 무리는 세 나띠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나라이 대왕은 보고를 받고 크게 기뻐했다. 프라야 시하랏데초는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용맹한 장수라며 칭찬했다. 왕은 그에게 붉은 천으로 된 삼의 한 벌을 상으로 내리고, 절로 돌아가게 했다. 보고서를 들고 온 두 무리의 전령들에게도 상을 내린 뒤 다시 군대로 돌아가게 했다.

왕은 프라야 시하랏데초를 두고 다시 말했다.
“그는 뛰어난 군사로, 견줄 만한 사람이 드물다.”

한편 차오프라야 꼬사티보디와 여러 지휘관은 병력을 이끌고 버마군이 달아난 진영으로 들어갔다. 아웅와 성 주변에 작은 진들을 여럿 설치하고, 성의 세 면을 둘러싸 이전보다 가까이 진을 쳤다.

버마 주민들은 태국군을 크게 두려워해 성 밖으로 나와 싸우려 하지 않았다. 아웅와 왕은 병사들을 뽑아 성의 여러 곳을 지키게 했다. 아유타야 군대는 여러 차례 성을 공격했지만,

주민들이 굳게 방어해 함락시키지 못했다. 태국군은 성을 공격하는 일을 그만두고 작은 진으로 물러났다.

버마 주민들은 성을 단단히 방어하고 낮과 밤으로 경계를 섰다. 그때 아웅와에는 쌀값이 한 타나에 두 밧이나 할 만큼 비쌌고, 주민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아유타야 군대도 식량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병사들을 주변 마을로 보내 식량을 찾아오게 했지만, 모아 오는 양은 적어 군대에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없었다. 병사들은 굶주림과 고통으로 많이 지치고 병들었다.

총사령관과 지휘관들은 서로 의논했다. 지금 성을 함락하지 못하면 군대를 철수해야 할 텐데, 버마군이 뒤쫓아와 병사들을 계속 공격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 이에 적을 속여 안전하게 군대를 철수할 계략을 세우기로 했다.

총사령관과 여러 지휘관은 차오프라야 꼬사티보디에게 이 상황을 알렸다. 그는 크게 근심하며 군대를 철수할 방도를 생각했다. 버마군이 뒤쫓지 못하도록 한 뒤 물러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휘관들은 다시 의논했다.

“식량이 거의 바닥났고 병들고 다친 병사도 많습니다. 이대로 머물기도 어렵고, 곧장 철수하면 버마군이 뒤쫓아와 우리 후군을 공격할 것입니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계략을 써서 버마군이 방심하게 만든 뒤 안전하게 철수합시다.”

모두 동의했다. 차오프라야 꼬사티보디는 버마 관리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내용은 이러했다.

“우리 군대는 버마군과 여러 차례 싸워 큰 피해를 입었고 식량도 부족하다. 더는 싸움을 계속할 수 없으니 왕도 아유타야로 돌아가겠다. 이번에는 철수하지만”

“이번 일을 잊지 않겠다. 다음에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 아웅와를 공격하겠다.”

편지를 완성한 뒤 버마 사절에게 맡겨 아웅와의 대신들에게 전하게 했다. 차오프라야 꼬사티보디는 버마군이 지친 태국군을 두려워하고 있어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한 통 더 편지를 꾸며 성안으로 보냈다.

버마 대신들은 편지를 읽고 이를 계략이라고 여겼다. 태국군이 철수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공격해 올까 두려워했다. 그들은 의논 끝에 태국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 움직이지 말고 성을 지키자고 했다.

차오프라야 꼬사티보디와 지휘관들은 이틀이나 사흘을 기다렸지만 버마군이 성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다시 편지를 써 버마 사절에게 주어 아웅와로 보냈다. 편지에는

버마의 대신과 군사들이 모두 겁이 많고, 성의 방어에만 의지해 감히 나와 싸우지 못한다고 적었다. 태국군은 버마군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래도 더는 싸움을 계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적었다.
아웅와의 식량이 부족해 군대를 오래 주둔시키기도 어렵고, 포로와 가족들을 데리고 물러나는 일도 힘들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군대를 철수하겠지만, 아웅와를 반드시 점령하겠다는 왕명을 저버린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버마군은 성안에서 식량과 물자가 부족해져 더는 버티기 어려웠다. 군대를 철수하려 해도 왕의 명을 어길까 두려워했고, 그대로 머물면 굶주림으로 죽을 지경이었다. 결국 버마군은 더 싸우지 않고 성을 버리기로 했다.

버마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들은 차오프라야 꼬사티보디는 이때가 성을 점령할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아웅와로 들어가, 우리는 그저 한 번 싸워 볼 구실을 마련해 군대를 물러나게 하려 했는데, 당신들은 군대를 내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우호 관계를 끊으려는 셈입니다. 정말 우리를 봐주지 않을 작정이라면, 우리 모두 아웅와를 공격하러 나갈 테니 군대를 서둘러 철수하겠다고 알리십시오."

버마의 대신들은 이 편지를 받고도 겁을 먹어 성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차오프라야 꼬사티보디는 지휘관들을 불러 병사 2 만 명과 부상자들을 코끼리와 말에 태워 먼저 후방으로 보내게 했다. 버마·몬족 포로들도 함께 데리고 갔다. 그런 다음 여러 지휘관과 의논했다.

"오늘 밤에는 버마 사람들을 속여야 합니다. 진영에 쌓아 둔 짚과 마른 풀을 모아 뒤쪽에 쌓아 두고, 병사들에게는 전투복을 입히고 코끼리와 말, 무기를 모두 준비하게 합시다. 그 뒤 병력을 나누어 병사 2 만 명과 무기를 갖춘 부대를 두 갈래로 나누어 성 양쪽에 매복시켰다.
진영에 남은 병사들은 모든 총기에 화약과 탄환을 장전하고 발사 준비를 마쳤다. 진영의 문을 닫아 두었다가 한밤중에 대포를 쏘며 일제히 사격하게 했다. 동시에 진영 뒤에 쌓아 둔 옷과 물건에 불을 질렀다.

불길이 성안까지 환하게 비치고 총소리도 들리자, 성안 사람들은 태국군이 진영을 불태우고 달아난 줄 알고 기뻐했다. 그들은 성문을 열고 태국군 진영으로 나와 남은 물건들을 가져가려 했다.

성 밖에 매복해 있던 태국군은 때를 기다렸다가 함께 달려들어 버마 주민들을 칼과 창으로 공격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버마군은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 앞으로 태국군이 실제로 철수하더라도 또 속임수일까 의심해 감히 뒤쫓지 못할 테니, 아유타야 군대는 안전하게 물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사티보디는 설명했다. 여러 지휘관은 그의 계략에 모두 동의했다.

인쇄 438 쪽

버마 주민들은 계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불길을 보고 총소리를 들은 뒤 태국군이 달아났다고 생각해 기뻐했다. 그들은 굶주린 채 지내며 식량이 몹시 부족했으므로 성문을 열고 짐을 꾸려 나와 태국군 진영에 남은 식량과 물건을 가져가려 했다.

버마 주민들이 텅 빈 진영에 들어가 물건을 챙기려 할 때, 주변에 숨어 있던 태국군이 일제히 공격했다. 많은 버마인이 짧고 긴 무기에 맞아 죽었다. 버마군은 성안으로 도망쳤고, 태국군은 성문까지 추격했다. 성안의 병사들은 급히 성문을 닫고 성벽에 올라 방어했다. 태국군은 다시 진영으로 물러났다.

아웅와 주민들은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크게 낙담했다. 곳곳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울부짖었다. 성안은 몹시 적막하고 슬픔에 잠겼다.

차오프라야 꼬사티보디는 버마 측에 다시 편지를 보냈다.

"아웅와의 버마 사람들은 지혜도 없고 전쟁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계략을 조금 썼을 뿐인데, 당신들은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그 바람에 성안에서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이끌고 성을 포위했지만, 당신들은 감히 나와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성을 공격하면 더 많은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성안에 계속 숨어 있지만 말고 나와서 싸우십시오."

버마 대신들도 의논했다. 태국군이 여러 차례 계략을 썼고 많은 버마 병사가 죽거나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웅와의 식량 사정도 좋지 않아 더는 버티기 어려웠다. 군대를 철수하면 왕명을 어기는 일이지만, 계속 머물면 병사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

그들은 성을 닫고 버티기로 하고, 다시 태국군에 사신을 보내 "지금 성문을 닫아 두면 이번에는 우리만 손해를 입을 뿐입니다. 다음에는 배와 보급품을 더 준비해 다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군대를 철수해 주십시오."

양측은 더 싸우지 않고 군대를 물리기로 했다. 차오프라야 꼬사티보디는 코끼리와 말, 보병과 식량을 정비하고, 치앙마이의 라오족 병사들에게 후군을 맡겼다. 군대는 차례로 철수해 한사와디까지 갔고, 그곳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때 후군으로 오던 치앙마이의 라오족 성주들은 태국군이 아웅와를 점령하지 못하고 철수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들은 아웅와 왕이 두려워 병력을 나누어 치앙마이로 달아났다.

차오프라야 꼬사티보디는 이 소식을 듣고 프라야 깜팽펫과 프라야 람데초에게 북부 병사 2 만 명을 맡겼다. 치앙마이로 달아난 라오족 군대를 뒤쫓아 반드시 붙잡으라고 명했다.

그런 다음 전군을 이끌고 몬 땅을 지나 수도로 향했으며, 여러 갈래 길로 나누어 왔다.

아바 성의 버마인들은 태국군을 두려워하여 오랫동안 성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태국군이 물러난 지 열흘이 넘어서야 비로소 태국군이 내려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때는 이미 뒤쫓을 수 없었다.

한편, 군대를 나누어 달아난 치앙마이의 라오족 영주들은 밤낮으로 서둘러 치앙마이까지 가서 프라야 센루앙을 알현하고 모든 일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치앙마이의 통치자인 프라야 센루앙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아바 왕을 몹시 두려워했다. 이에 라오족 영주와 장수들에게 병사들을 점검하고 성벽과 보루의 각 초소에 배치하라고 명했다. 크고 작은 화포와 무기를 모두 갖추어 성을 굳게 지키며, 뒤쫓아 올 태국군에 대비하게 했다.

프라야 깜팽펫과 프라야 람데초의 군대는 라오군을 뒤쫓았다. 도중에 따라잡지 못하자 치앙마이까지 추격했다. 성벽에 병사들이 배치되어 있고 성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프라야 센루앙이 다시 반기를 들어 맞서 싸우려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사들을 보내 성을 포위하고 진을 친 뒤, 사정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성 안으로 서신을 보냈다. 서신에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지원하러 간 라오군이 도망쳐 돌아와 그간의 일을 알려주었다. 이제 프라야 센루앙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시 성을 걸어 잠그고 아유타야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것인가? 우리와 싸우려는 것이라면 서둘러 알려라. 그러면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성을 공격해 반드시 함락시키겠다.”

프라야 센루앙은 서신의 내용을 확인한 뒤 군대에 답장을 보냈다.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국군이 아바 성을 공격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아바를 함락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군대를 꾸려 지원하러 보냈고, 아유타야를 의지처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이제 태국군은 아바를 함락하지 못하고 도리어 물러났다. 우리 치앙마이는 원래 아바의 신하로 복속해 있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지배자인 아바 왕이 군대를 보내 우리 성을 공격할까 두렵고, 그에 맞서지 못할 것이므로 예전처럼 아바 왕을 의지처로 삼으려 한다. 만일 태국군이 아바군이 우리를 공격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아유타야에 복속하여 태국 왕의 위엄과 권세를 앞으로 계속 의지처로 삼겠다.”

태국군 지휘관들은 그 서신을 읽고, 치앙마이의 통치자 프라야 센루앙이 분명히 맞서 싸우려 한다고 판단했다. 밤이 되자 병사 2 만 명을 보내 성을 기어올라 기습 공격하게 했다. 성 안의 주민들은 밤낮으로 성벽과 보루를 지키며 힘껏 막아섰다. 태국군은 성을 돌파하지 못하고 진영으로 물러났다. 이렇게 여러 차례 기습했으나, 성을 지키던 주민들의 무기에 맞아 병사들이 크게 다치고 죽었다. 치앙마이 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다.

장수와 지휘관들이 의논했다.

“우리 병사들은 식량이 부족하고 병들고 다친 데다 기력이 크게 쇠했다. 치앙마이를 포위한 지 열흘이 넘었는데도 함락하지 못했다. 서신을 써서 빠른 말을 탄 전령에게 맡겨 수도로 보내고, 모든 사정을 왕께 보고해야 한다. 밤중에 성에 불을 지르고 공격해 함락을 시도하자. 설령 성을 얻지 못하고 군대를 물려야 하더라도, 주민들은 이미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를 뒤쫓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군대는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

의견이 모이자 장수들은 병들고 기력이 쇠한 코끼리와 말, 보병을 먼저 거느리고 이삼 일 동안 퇴각했다. 그런 다음 불붙일 재료를 감싼 화살 천 발을 준비했다.

해가 진 뒤 한 경(更)쯤 되었을 때, 병사들을 보내 성을 돌파하게 하고 화살을 성 안으로 쏘았다. 화살은 치앙마이 성 안의 여러 집 지붕에 떨어졌고, 화살에 붙어 있던 불씨가 옮겨붙어 온 마을이 혼란에 빠졌다.

성의 각 초소를 지키던 라오족 병사들은 불이 난 것을 보고 놀라 저마다 집으로 달려가려 하며 초소를 버렸다. 라오족 영주와 장수, 초소 책임자들은 병사들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성을 지키도록 재촉했다. 집들이 불타는 일은 돌보지 말고, 적에게 성을 빼앗기지만은 말라고 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불을 끄거나 소지품을 챙겼다.

불은 한 곳에서만 난 것이 아니었다. 여러 곳으로 번져 주민들이 미처 끄지 못했고, 성 안의 집 천여 채가 불탔다. 초소를 지키던 병사들은 힘껏 맞서 싸웠지만, 태국군은 성을 돌파하지 못하고 진영으로 물러났다. 두 경쯤 되었을 때 군대를 거두어 길을 따라 차례로 돌아가 딱(Thoen) 성에 이르렀다.





*텐 성읍(เมืองเถิน)**의 중심은 **왓 위앙(วัดเวียง)** 일대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태국 문화부 자료는 이 사찰 주변을 옛 텐의 중심으로 설명하며, 둘레에 흙 성벽과 해자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빠른 말을 탄 전령에게 서신을 맡겨 수도로 보내고, 군대가 적국 경계를 넘어 깜팽펫 성에 모이기까지의 경위와 사정을 왕께 보고했다. 그리고 조정에서 어떤 답이 올지 기다렸다.

치앙마이의 라오족 주민들은 성 전체에 불이 번져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 태국군이 물러갈 때도 뒤쫓을 수 없었다.

서신을 든 전령은 길을 따라 차례로 수도에 도착해 알현하고, 서신에 적힌 대로 왕께 보고했다. 왕은 그 사정을 들은 뒤, 총리대신에게 명하여 군대에 답신을 보내게 했다. 답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병사들은 이미 식량이 부족하고 기력이 크게 쇠했다. 게다가 이제는 숲의 열병이 번져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질 시기다. 모든 군대는 서둘러 수도로 내려오라."

장수와 지휘관들은 왕의 답신을 확인하고 군대를 이끌어 아유타야 왕도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끄룽텝마하나콘)'으로 돌아왔다. 북쪽 길로 돌아온 군대는 차례로 수도에 도착했다. 차오프라야 코사와 장수, 지휘관들은 왕을 알현해 모든 일을 보고했다. 그리고 노획한 코끼리와 말, 포로, 물품을 바쳤다.

왕은 모든 사정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차오프라야 코사와 장수, 지휘관들에게 공에 걸맞게 많은 상을 내렸다.

치앙마이의 라오족 주민들은 성 전체가 불타 혼란에 빠졌고,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 태국군이 물러갈 때도 그들을 뒤쫓을 수 없었다.

서신을 가지고 간 전령은 길을 따라 차례로 수도에 도착했다. 전령은 왕을 알현하고 서신의 내용을 보고했다. 왕은 그 사정을 알고 총리대신에게 명하여 군대에 답신을 보내게 했다. 답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병사들은 식량이 부족하고 기력이 크게 쇠했다. 또한 이제는 숲의 열병이 번져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질 시기다. 모든 군대는 서둘러 수도로 내려오라."

장수와 지휘관들은 답신을 확인하고 군대를 이끌어 방콕으로 돌아왔다. 북쪽 길로 돌아온 군대는 차례로 수도에 도착했다. 차오프라야 코사와 장수, 지휘관들은 왕을 알현해 모든 일을 보고하고, 노획한 코끼리와 말, 포로와 물품을 바쳤다. 왕은 그 모든 일을 듣고 크게 기뻐했으며, 차오프라야 코사와 장수, 지휘관들에게 공에 걸맞게 많은 상을 내렸다.

짜끄라트력 1027 년(서기 1665 년, 불기 2208 년), 호랑이해, 토쎅(2 년째)이었다. 나콘사완의 관리들이 총리대신에게 보고했다.

"코끼리 부대장 클롱이 네 척 남짓한 키에 코끼리의 길상(吉相)을 두루 갖춘 백상 한 마리를 나콘사완 성 관할 숲에서 붙잡았습니다."

차오프라야 코사티보디는 이 일을 왕께 보고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대신과 코끼리 관청의 관리들을 보내 백상을 맞이하게 했다. 그들은 백상을 수도 방콕으로 데려왔고, 가는 길마다 사람들은 예법에 따라 나와 맞이했다.

왕은 백상을 왕궁 밖에 머물게 했다. 왕실 의식과 공연을 베풀고 정해진 날에 축하 의례를 치른 뒤, 그 백상에게 '차오프라야 보롬카첸 랏탄'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아울러 금으로 장식한 코끼리 용구와 각종 보석 장식 등 위엄에 맞는 물품을 하사했다. 코끼리 관청의 고위 관리에게는 백상을 돌보고 훈련하도록 명하고, 코끼리 부대장에게도 예법에 따른 관직과 의복, 은을 내렸다.

인쇄 447 쪽

백상 포획을 도운 사람들에게도 모두 상을 내렸다. 그리고 왕은 백상을 맡아 돌보게 하고, 코끼리 부대장과 관련자들에게는 코끼리를 훔치거나 해치지 못하게 단속하라고 명했다. 그런 다음 각자 예전의 생업으로 돌아가게 했다.

백상 '차오프라야 보롬카첸 랏탄'을 돌보는 코끼리 관청의 고위 관리들은 코끼리에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가르쳤다. 한편 사소한 죄로 벌을 받아 갇혀 있는 관리들 가운데 왕께 용서를 청하고 싶은 이들은, 청원 내용을 적은 글과 물품을 백상에게 바쳤다. 백상은 그 글을 코로 받아 왕께 올렸다.

왕이 백상이 머무는 곳을 방문했을 때, 친히 글을 받아 읽고 사건의 전말을 살폈다. 왕은 백상의 간청을 받아들여 여러 차례 죄인들에게 은전을 베풀었다. 그 뒤로 죄를 지은 관리들은 백상에게 청원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여겨,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백상은 여러 차례 죄인들의 용서를 청해 왕의 은전을 받았다. 왕은 지혜와 덕을 갖추고 온갖 왕실의 수레와 의장물을 준비하게 했다. 이후 여러 나라와 마을을 순행할 때에는 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고, 궁중의 왕족과 귀족들도 백상을 각별히 공경했다.

짜끄라트력 1028 년, 소해(丑年), 트리셱(3 년째)이었다. 차오프라야 코사티보디가 병들자 왕은 고위 관리들과 의원들을 보내 돌보게 했다. 그러나 병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왕은 차오프라야 코사티보디를 무척 애도했다. 코사 쿤렉은 왕의 유모의 아들로, 왕이 어릴 때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사이였기 때문이다. 왕은 코사 쿤렉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예우했다.

왕은 대신들과 의논하며 말했다.

"치앙마이의 프라야 센루앙은 여러 차례 우리를 속였고, 다시 성을 닫아걸고 대항하려 하고 있다.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 군대를 일으켜 치앙마이를 쳐서 반드시 함락시켜야 한다.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신들은 왕의 뜻에 모두 동의했다. 소해, 트리셱에 왕은 대신들에게 병력 3 만 명과 의장용 코끼리 200 마리, 말 400 필을 점검하고 크고 작은 무기와 화약을 갖추도록 명했다.

또한 먼저 세상을 떠난 차오프라야 코사의 동생 나이빤을 불러들였다. 그는 프랑스에 사신으로 나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왕은 나이빤에게 차오프라야 코사티보디라는 관직과 칭호를 내리고 군대를 지휘하게 했다. 왕은 그가 오랫동안 군대를 이끌어 온 경험을 높이 평가해 총사령관으로 삼고, 형을 대신해 치앙마이를 치러 가게 했다.

차오프라야 코사티보디가 아뢰었다.

"폐하의 명을 받들기 전에 먼저 그 뜻을 살피고, 내려 주신 왕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치앙마이로 가서 성을 함락시키도록 자원하겠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의 청을 받아들였다. 코사티보디는 왕께 절하고 물러났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차오프라야 코사티보디에게 왕검을 내렸다. 그에게 왕명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말했다.

"그대는 원하는 대로 나가 전투를 치르라."

차오프라야 코사티보디는 왕검을 받은 뒤 왕께 하직하고 내정의 관료 회의소로 갔다. 그는 국방부와 군무 담당 관리들에게 왕명을 전달하도록 하고, 왕실 관리와 군인, 민간인 가운데 3 천 명을 징발해 코끼리 우리 근처에 진을 치게 했다. 진영의 너비는 3 센, 길이는 3 센 10 와로 정했다.

그는 나무를 베고 쪼개 진영의 울타리를 세우게 했다. 말뚝 끝을 땅에 박고 흙을 파서 평탄하게 다진 뒤, 전통에 따라 깃발을 세우고 진영을 갖추라고 명했다. 이 모든 일을 다음 날 세 시까지 끝내도록 했다. 왕이 진영을 둘러볼 때 맡은 일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차오프라야 짜끄리와 국방부 관리들, 여러 관료는 왕명을 듣고 크게 놀랐다. 각자 서둘러 소속 부서에서 병력을 징발했고, 그날 안으로 3 천 명을 모았다. 병사들은 진영의 기둥으로 쓸 대나무를 두 개씩 잘라 코끼리 우리 근처로 옮겼다. 모든 부서가 일을 나누어 맡아 그날 밤 진영을 세우기 시작했다.

말뚝은 끝을 땅에 박고 윗부분은 짧게 남겼다. 위쪽은 서로 촘촘하게 이어 한 줄로 세우고, 아래쪽은 간격을 넓게 두었다. 모든 일을 마치니 날이 밝을 무렵에는 준비가 끝났다.

그때 한 관리가 진영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뚝을 뽑아 그 사이에 하나를 더 끼워 넣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전부터 있던 방식이라고 여겼다. 차오프라야 코사티보디는 모든 관리에게 명하여 왕실의 의장과 물품을 준비하고, 육로와 수로로 이동할 때 필요한 식량과 물건을 빠짐없이 갖추게 했다.

준비가 끝난 뒤 새벽 세 시가 되자 차오프라야 코사티보디는 왕실 바지선에 올랐다. '파나피만 깐짜나롱꼿'이라 불리는 큰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흰 양산과 깃털 부채가 그를 가렸다. 여러 가지 화려한 장식과 의장이 배를 꾸몄다. 장수와 관료들의 배도 줄지어 뒤따라, 마치 왕이 행차하는 듯한 행렬을 이루었다. 악사들이 연주하고 군악대가 북과 나팔을 울렸으며, 여러 척의 배가 행렬을 이루어 나아갔다.

물길과 육로를 따라 파니앗(เพนียด)에 이르렀다. 차오프라야 코사티보디는 왕실 바지선에서 내려 그곳의 왕실 거처에 머물렀다. 관료와 수행원들이 좌우와 앞뒤를 둘러섰다. 그는 왕실 코끼리에 올라 왕실 양산과 의장을 갖추고 이동했다.

파니앗에 도착한 뒤 그는 관리들을 거느리고 진영을 살펴보았다. 진영 울타리의 말뚝 하나가 뽑혀 있는 것을 보고, 담당자를 불러 물었다.

"그대들이 정말 이렇게 하라는 명을 받았는가?"

관리들은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코사티보디가 말했다.

"그대들은 내 명령을 어겼다. 이는 죽을죄다."

그는 곧 그 관리의 목을 베어 말뚝 끝에 걸어 두게 했다. 그런 다음 왕실 배에 올라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다.

차오프라야 코사티보디는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어 자신이 전쟁을 지휘하는 권한을 온전히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다. 왕궁에 도착한 그는 왕을 알현해 군대의 준비와 진영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보고하고, 왕검을 돌려드렸다. 이어 치앙마이를 공격할 수 있도록 군사 지휘권을 내려 달라고 청했다.

왕은 보고를 듣고 차오프라야 코사티보디를 크게 칭찬했다. 이어 그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장수들의 직책을 정했다. 프라야 위치뜨팍디는 부관으로, 프라야 수린팍디는 후방 지원을 맡게 했으며, 프라야 시하랏데초는 선봉을, 프라야 수라송크람은 후군을 지휘하게 했다.

코끼리와 말, 보병을 비롯한 군대가 모두 준비되자 치앙마이로 진군했다. 길일을 택해 차오프라야 코사티보디와 장수들이 왕께 하직하고, 육군과 수군을 이끌어 **끄룽텝마하나콘(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을 떠났다. 물길과 육로를 따라 진군하여 므앙턴(เมืองเถิน)에서 군대를 합류시키기로 했다.

군대를 여러 부대로 나누어 육로로 나아가 므앙나콘(เมืองนคร)에 이르렀다. 그곳 인근에 머물며 군대를 정비했다. 한편 치앙마이의 통치자 프라야 센루앙은 태국군의 움직임을 보고 치앙마이에 서신을 보내 성문과 보루를 점검하게 했다. 병사들을 성벽과 초소에 배치해 예법에 따라 성을 지키도록 했다.

태국군은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준비했다. 라오족 주민들은 이에 맞서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프라야 센루앙은 라오족 장수들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 태국군 진영을 여러 차례 공격하게 했다. 태국군은 전투에서 매우 용맹하게 맞서 물러서지 않았다. 양군은 치열하게 싸웠고, 라오족 병사들은 적의 무기에 맞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많았다. 태국군의 공세를 감당하지 못한 라오군은 매번 성 안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주민들 가운데는 성을 버리고 치앙마이로 달아나는 이들도 있었고, 성 밖에서 태국군을 찾아 항복하는 이들도 있었다. 태국군은 코끼리와 말, 무기와 많은 라오족 포로를 얻었다. 그들을 이끌고 길을 따라 작은 마을과 큰 마을을 차례로 공격하며 북쪽으로 진격했다.

라오족은 태국군을 막아 내지 못하고 흩어져 달아났다. 차오프라야 코사티보디 총사령관의 권한 아래 태국군은 파니앗 지역에서 전투를 치렀다. 그때부터 군인들은 그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따랐다. 전쟁에 관한 일은 무엇이든 그의 지휘에 따라 집행되었다.

태국군은 이어 군대를 이끌고 람푼(ลำพูน)을 공격해 성을 포위했다. 람푼의 통치자 프라야 센루앙은 병사들을 징발해 성벽과 보루의 초소에 배치하고 성을 지키게 했다.

태국군은 성을 공격했다. 라오족 주민들은 7 일 동안 맞서 싸웠지만, 적의 무기에 맞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많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여겼다. 밤이 되자 성을 빠져나와 치앙마이로 달아나는 이들도 있었고, 숲으로 도망치거나 태국군에 항복하는 이들도 많았다.

태국군은 람푼 성을 점령하고 코끼리와 말, 무기와 포로를 많이 얻었다. 그런 다음 치앙마이를 공격하러 진군했다. 태국군이 람푼을 점령하자 프라야 센루앙은 낙담했다. 그는 군대를 편성해 출정시키려 했다

차오프라야 코사 총사령관은 성을 함락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자, 전투 상황을 적은 서신을 작성해 보냈다.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빠른 말 13 필에 서신을 맡겨 끄룽텝마하나콘(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으로 보내 왕께 보고하게 했다.

왕은 그 내용을 알고 크게 기뻐했다. 대신들에게 6 만 명의 군대와 전투용 코끼리 500 마리, 말 500 필을 점검하고 무기와 식량을 빠짐없이 준비하라고 명했다. 왕은 치앙마이로 출정할 것이며, 군대는 므앙턴에 나아가 왕을 맞이하라고 했다.

길일이 되자 왕은 왕실의 보물과 의장을 갖추고 출정 준비를 했다. 왕실 바지선과 악기, 군악대, 장수와 관료들의 배가 차례로 행렬을 이루었다. 흰 양산과 각종 의장물을 갖춘 왕의 행차는 대규모 수군 행렬을 이루어 나아갔다.

행렬의 준비가 모두 끝나고 점성관이 길한 시각을 알리자, 왕실 악사와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북과 나팔을 울렸다. 왕은 왕실 바지선에 올라 출발했다. 여러 장수와 관료, 군인들이 배를 타고 뒤따랐다.

왕의 행렬은 물길과 육로를 따라 므앙턴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왕은 하룻밤 머물렀다. 다음 날 왕실 코끼리에 올라 군대를 이끌고 육로로 람푼까지 나아가도록 했다. 군대는 그곳에 머물며 진을 쳤다.

왕은 총사령관에게 왕명을 보내도록 했다. 치앙마이를 포위한 군대는 왕실 군대가 도착할 때까지 성을 서둘러 공격하지 말고, 왕의 도착을 기다렸다가 함께 성을 함락시키라는 내용이었다.

차오프라야 코사와 여러 장수는 왕명을 확인하고 왕실 진영을 정비했다. 왕을 맞이할 진영과 의장을 마련하고, 군대와 코끼리와 말을 쉬게 했다.

왕은 치앙마이에 이르러 군대가 마련한 진영에 머물렀다. 차오프라야 코사와 장수들은 왕을 알현해 전황을 보고하고, 왕을 호위하며 진영을 둘러싼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코끼리와 말, 군인들은 행렬을 이루어 왕의 진영을 둘러쌌다.

한편 치앙마이의 라오족 주민들은 태국군을 당해낼 수 없다고 여기고 성을 지키는 데 더욱 힘썼다. 프라야 센루앙은 태국군이 성을 함락할까 두려워 아바에 서신을 보내 군대를 내려보내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아바에서는 치앙마이의 서신을 받고 태국군이 이미 치앙마이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버마군은 크게 놀라 병력과 코끼리를 모아 지원할 준비를 했다. 치앙마이의 주민들도 구원군이 오기를 기다리며 성을 지킬 준비를 서둘렀다.

치앙마이의 프라야 센루앙은 태국군이 성을 포위한 것을 알고, 병사들에게 성벽과 보루를 지키게 했다. 태국군은 성 주변에 진영을 세우고 포위망을 좁혀 갔다. 라오족 병사들은 성 밖으로 나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치앙마이의 주민들은 태국군이 오래 머무르며 힘이 빠지기를 기다렸다. 프라야 센루앙은 아바에서 군대가 내려오면 태국군을 막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성 안의 병사와 주민들에게 밤낮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게 하고, 성벽과 초소를 보강했다.

치앙마이에서는 병사들이 가죽으로 만든 모자와 옷, 신발을 갖추도록 했다. 성의 세 모퉁이에 성벽 높이만큼 흙을 쌓아 방어 진지를 만들고, 그 사이에도 여섯 곳에 진지를 마련했다. 대포를 진지마다 설치해 성벽을 향해 쏘게 하고, 성을 지키는 주민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이었다.

또한 모든 부대가 밤낮으로 방어를 준비하게 하고, 군대가 성을 공격할 시각과 신호를 정해 두었다. 대신과 장수들은 왕명을 받고 방어와 공격에 필요한 준비를 서둘렀다. 길한 시각이 되자 왕실 스승과 제관들이 왕께 축원하고 승리를 빌었다.

왕은 대왕의 예복과 장신구를 갖추고 전쟁터로 향할 준비를 했다. 왕실 악사들이 나팔과 북을 울리고, 왕은 장식한 전투용 코끼리에 올라 출정 행렬을 시작했다. 왕의 코끼리는 높은 의장물을 두르고, 장수와 병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인쇄 461 쪽
왕의 행렬은 코끼리들을 앞세우고 불을 밝혀 나아갔다. 대신과 장수, 병사들이 왕의 행차를 둘러쌌다. 왕은 공격 신호로 봉화를 올리라고 명했다.

치앙마이의 장수와 병사들은 봉화를 보고 모두 무장했다. 가죽 갑옷을 입고 창과 장검을 들었으며, 적의 공격에 대비해 방패와 통나무를 준비했다. 성을 지키는 주민들은 뜨거운 자갈과 석회 가루, 끓는 기름을 성벽 위에서 쏟아부을 태세를 갖추었다. 북과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 성을 지키는 병사들의 기세를 돋웠다.

왕은 장수들에게 사다리를 성벽에 걸치고, 모든 보루에서 동시에 대포를 쏘며 성을 공격하라고 명했다. 성을 지키던 라오족 병사들은 거세게 저항했다.

성 안에서는 끓는 기름을 성벽 아래로 쏟아 적군에게 들이부었다. 태국군은 창과 장검으로 통나무를 막아 내고, 방패를 앞세워 뜨거운 자갈과 석회 가루, 기름을 피하며 성벽으로 다가갔다. 라오족 병사들은 성벽 위에서 계속 돌과 뜨거운 물질을 쏟아부었지만, 태국군은 물러서지 않고 사방에서 공격했다.

태국군은 사다리를 성벽에 걸쳐 기어올랐고, 여러 곳에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성 안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 라오족 주민과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 태국군은 치앙마이 성을 함락했다.

날이 밝자 프라야 센루앙과 그의 아들, 아내와 친족들을 모두 사로잡았다. 라오족 영주와 대신들의 가족, 주민들도 많이 포로로 잡았다. 코끼리와 말, 무기와 대포, 각종 물품도 노획했다.

왕은 장수와 지휘관들에게 차례로 상을 내렸다. 치앙마이에 약 15 일 머물며 주변 도시들이 안정되기를 기다린 뒤, 육로로 돌아와 수코타이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도 15 일간 머물렀다.

왕은 남부 여러 도시의 군대 2 만여 명을 거느리고, 부상자와 병든 병사, 라오족 포로 가족들은 깜팽펫으로 보내도록 했다. 왕실 군대는 수코타이에서 차례로 나아가 피싸눌록에 도착했다.

왕은 왓 프라씨랏따나마하탓으로 가서 프라친라차와 프라친씨 불상에 예를 올렸다. 공양을 바치고 여러 의식을 치른 뒤, 사흘 동안 축하 연회와 공연을 베풀었다. 피싸눌록에 이레간 머문 뒤 군대를 나누어 이동하게 하고, 왕은 수로를 따라 귀환했다. 차오프라야 세나보디의 배와 여러 관료의 배가 왕의 행렬을 호위했다.

왕은 끄룽텝마하나콘(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으로 돌아와 왕궁에 머물렀다. 차오프라야 코사와 장수, 지휘관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

그때부터 왕의 위엄과 권세가 사방에 널리 알려졌다. 크고 작은 속국의 통치자들은 왕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아유타야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당시 끄룽텝마하나콘은 평온하고 풍요로웠다.

그 무렵 코끼리 관청을 맡고 있던 프라페트라차는 수판부리 성 관할 반플루루앙 출신이었다. 그는 재능과 권세가 있었고 코끼리를 다루는 기술에 능했으며 용맹했다. 전쟁에서도 여러 차례 공을 세웠고, 치앙마이 원정에도 왕을 수행했다. 왕은 프라페트라차를 특별히 아꼈다.

치앙마이에서 돌아온 뒤 왕은 치앙마이 통치자의 딸을 데려왔는데, 그 여인은 임신한 상태였다. 왕은 그 여인을 프라페트라차에게 맡기며 말했다.

“이 라오족 여인은 아이를 가졌다. 궁궐에서 기르기에는 마음이 쓰이니, 그대가 데려가 집에서 기르라.”

프라페트라차는 왕의 하사를 받아 그 여인을 집에서 기르게 되었다.

호랑이해 짜뚜와썩(4 년째)에 왕은 피싸눌록의 프라친라차와 프라친씨 불상에 예를 올리러 길을 떠났다. 프라페트라차는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왕의 행렬을 따랐다. 포쁘라탑창 지역에 이르렀을 때 여인은 열 달을 채우고 길한 날에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용모와 기상이 훌륭했다. 아이의 이름은 짜오 드아였다. 아이가 자라 말을 알아듣게 되자 프라페트라차를 아버지로 여겼다.

짜오 드아는 자라면서 총명하고 대담해졌다. 프라페트라차는 그를 양자로 삼아 궁궐에 데려가 마하렉, 곧 왕실 시종으로 바치고 왕을 섬기게 했다. 왕은 나이 드아를 매우 아껴 친아들처럼 대하려는 뜻을 품었다. 왕은 시종들에게 거울을 가져오게 하고, 나이 드아를 가까이 불러 말했다.

나이 드아는 거울을 향해 기어가 왕과 함께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았다. 왕이 물었다.
“네 모습과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치니 어떠하냐?”
나이 드아가 대답했다
“거울에 비친 두 모습의 생김새와 머리카락이 서로 닮았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나이 드아를 더욱 가엾고 사랑스럽게 여겼다. 왕은 그에게 왕의 아들로서 지켜야 할 가르침을 일러 주고, 관직과 여러 일을 맡겼으며 좋은 옷과 금을 많이 내렸다.

나이 드아는 자신이 왕의 아들로 대우받는다고 여겨 크게 기뻐했다. 왕실의 음식과 물품을 마음껏 누렸다. 그는 무엇이든 갖고 싶은 것을 구했고, 누가 이를 말려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여러 차례 제멋대로 행동하자 궁궐의 관리들이 그 일을 왕께 아뢰었다. 왕은 그 말을 듣고도 나이 드아를 나무라지 않았다.

궁궐에는 '플라이솜'이라는 수코끼리가 한 마리 있었다. 이 코끼리는 사형수를 죽이는 데 쓰이는 사나운 코끼리였다. 발정기에 들어가면 경험 많은 코끼리 조련사라도 타고 물에 들어가기 어려웠다. 그래서 코끼리 우리에 묶어 두었다.

어느 날 나이 드아는 그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 우리로 갔다. 조련사들이 말렸지만 듣지 않고, 플라이솜을 묶어 둔 줄을 풀어 물가로 데려갔다. 코끼리를 타고 물에 들어갔다가 아무 일 없이 돌아왔다. 그의 복과 신비한 힘이 그러한 위험을 막아 주었다고 했다.

코끼리 관청의 관리들이 이 일을 왕께 아뢰었다. 왕은 크게 놀랐으나 기뻐하며 모든 코끼리를 튼튼한 밧줄로 묶고, 급히 나이 드아를 도우러 가도록 명했다. 나이 드아가 플라이솜을 타고 물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우리로 돌아왔다는 보고를 듣자, 왕은 그를 불러 말했다.

"그대는 사납고 힘센 코끼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루는구나. 장차 내 코끼리 관청에서 일하며 그대 아버지를 도와 왕실의 일을 맡을 수 있겠다."

그 뒤 나이 드아는 **루앙 소라삭**이 되어 코끼리 관청에서 왕을 섬겼다.

그때 왕은 자주 루프부리로 행차해 사깨오 지역을 유람했다. 왕은 롭부리에 왕궁을 짓게 하고 그곳에서 편안히 머물렀다.




다시 여러 숲과 정원을 둘러보고, 연못과 정원, 각종 나무와 꽃을 갖추어 왕실의 휴식처로 만들었다. 왕은 사깨오에서 롭부리로 이어지는 물길을 정비하게 하고, 그 일대에 왕실 거처를 마련했다. 공사가 끝나자 왕은 그곳에 머물며 즐겼다.

왕은 추운 계절과 더운 계절에는 롭부리(ลพบุรี, Lopburi)에 머물고, 우기에는 끄룽텝마하나콘(**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으로 내려와 지냈다. 당시 아유타야 왕도도 매우 평온하고 풍요로웠다.

469 쪽

왕에게는 왕자 한 명이 있었다. 왕자는 '짜오파 너이'라 불렸고, 성인식 뒤에는 '짜오파 아파이롯'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왕은 그를 왕궁 뒤쪽의 거처에 두었다.

왕에게는 공주도 한 명 있었다. 왕은 공주를 **크롬루앙 요타텝**에 봉하고 왕궁에서 지내게 했다.

그 무렵 프랑스인 **프라야 위치옌**은 왕을 위해 여러 일을 맡아 공을 세웠다. 왕은 그를 대신으로 승진시키고 총리대신의 직책을 맡겼다. 또한 프라야 람데초를 나콘시탐마랏의 통치자로, 프라야 람을 나콘랏차시마의 통치자로 각각 임명했다.

프라야 위치옌은 큰 사각형 건물을 짓고, 그 둘레에 담을 둘러 거처를 마련했다. 와트 반 근처에는 외국인들의 집도 여럿 세웠다. 그는 여러 일을 꾸미며 왕위를 차지하고 왕실에 해를 끼칠 방도를 생각했다.

프라밧 보롬나타 보핏 프라풋타짜오 유후아(พระบาทบรมนาถบพิตรพระพุทธเจ้าอยู่หัว**)**는 그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프라야 위치옌을 처벌하지 않았다. 그가 왕실의 여러 업무에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승려와 사미들을 여러 일에 동원하기도 했다.

왕은 루프부리에 머물며 자신을 '루프부리의 왕'이라고 불렀다. 왕은 루프부리의 보루와 성벽, 망루, 연못 등 허물어진 곳을 고치고 정비하게 했다. 공사가 끝나자 왕은 그곳에서 편안히 지냈다.

한편 루앙 소라삭은 프라야 위치옌이 승려와 사미들을 여러 업무에 동원해 불교계를 어지럽히는 것을 보고, 그 일을 왕께 아뢰었다. 왕은 그 말을 듣고도 프라야 위치옌을 처벌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루앙 소라삭은 이렇게 생각했다.

"저 외국인은 왕의 총애를 참으로 많이 받는구나. 무슨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구나…"

루앙 소라삭은 직접 한 번 벌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프라야 위치옌이 궁에서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가 기다렸다. 아침이 되자 프라야 사무하 나욕이 프랑스인을 데리고 궁에 들어와 그곳에서 업무를 보았다. 루앙 소라삭은 기회를 보자 프라야 위치옌의 입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다. 그런 다음 집으로 달아나 빠른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끄룽텝마하나콘으로 내려갔다.

프라야 위치옌은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목욕한 뒤 왕을 알현했다. 입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는 아뢰었다.

“폐하의 법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루앙 소라삭이 저를 두 번 때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신하 앞에서 큰 모욕을 당했으니, 루앙 소라삭을 벌하시도록 명을 내려 주십시오. 제가 죽고 나서야 이 수치스러운 마음이 풀릴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루앙 소라삭에게 크게 노했다. 왕이 프라야 위치옌에게 물었다.

“그대가 루앙 소라삭과 다투었느냐?”

위치옌은 루앙 소라삭과 다툰 적도 없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한 적이 없다고 아뢰었다. 왕은 더욱 노하여 관리들을 보내 루앙 소라삭을 불러오게 했다.

왕은 관리들에게 루앙 소라삭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관리들은 그의 집으로 갔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와 보고했다. 왕은 모든 관리에게 명하여 사방으로 찾아 반드시 데려오게 했다. 그리고 프라야 위치옌에게 말했다.

“그대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그자를 찾아내겠다.”

프라야 위치옌은 왕 앞에 나아가 루앙 소라삭을 용서해 달라고 청했다. 왕은 루앙 소라삭이 전에 위치옌을 때렸던 일도 기억하고 있다며, 위치옌이 정말 잘못한 일이 있는지 물었다. 루앙 소라삭은 프랑스인이 잘못했다고 대답했다. 그가 무슨 일을 해도 왕은 벌하지 않고, 오히려 코끼리까지 하사했으니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프라야 위치옌은 왕의 명을 기꺼이 받들며 루앙 소라삭에게 한 번만 벌을 내려 달라고 청했다.

한편 루앙 소라삭은 짜오매 왓 두싯을 찾아갔다. 그녀는 짜오프라야 코사 렉과 짜오프라야 코사 빤의 어머니이자 왕의 유모였다. 루앙 소라삭은 그녀에게 절하며 도움을 청했다.

루앙 소라삭은 짜오매 왓 두싯에게 프라야 위치옌의 행동이 불교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고했다. 그녀는 첫 잘못이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왕에게 청했다. 왕이 루앙 소라삭에게 벌을 내리는 것을 본 그녀는 배를 타고 롭부리로 가서 이레 동안 머물렀다.

왕은 짜오매를 다시 불러들였다. 그녀가 오자 왕은 몸소 나아가 맞이하고 예를 갖추어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다. 짜오매는 그간의 일을 모두 아뢰었다. 왕은 루앙 소라삭을 불러오게 했다. 그런 다음 짜오매에게 공손히 절하며 자신의 명을 받아 달라고 청하고, 궁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짜오매는 왕이 루앙 소라삭을 용서한 것을 보고 그를 위해 다시 용서를 청했다. 왕은 그 청을 들어주면서, 루앙 소라삭이 프라야 위치옌에게 저지른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 주었다. 왕은 루앙 소라삭에게 궁에 이삼 일 머물게 했고, 짜오매를 공경하여 끄룽텝마하나콘으로 돌아가도록 배웅했다.

왕은 짜오매의 청을 들어 루앙 소라삭을 용서했다. 그리고 루앙 소라삭이 프라야 위치옌에게 저지른 일을 모두 짜오매에게 들려주었다. 왕은 루앙 소라삭에게 궁에 이삼 일 머물도록 명하고 예를 갖추어 대했다. 뒤이어 짜오매를 끄룽텝마하나콘으로 돌아가도록 배웅했다.

한편, 사무하 나욕이던 프라야 위치옌의 지휘를 받던 고위·하급 관리들은 서로 의논했다. 그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지혜와 정직함을 갖춘 관리가 적지 않은데도, 왕이 외국 상인인 위치옌에게 사무하 나욕의 자리를 주고 그를 총애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 외국인은 충성스럽지 않고 왕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는 말도 관리들 사이에서 계속 나왔으며,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왕은 관리들의 불평을 풀 방도를 생각했다. 위치옌이 모든 관리보다 지혜롭고, 프랑스에서 진귀한 물건들을 많이 바쳤다고 여겼다. 이에 그를 외국 사무를 맡는 최고 대신, 곧 왕의 눈과 귀가 되는 자리에 임명했다. 그를 해치려는 자들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었다.

그리하여 위치옌은 왕의 보호와 권세를 입어, 누구도 감히 그를 흔들어 놓을 수 없게 되었다.

얼마 뒤 왕이 궁 밖으로 나섰다. 크롬마 타와 대신, 프라 크루 파로히타찬 등이 함께했고, 그들은 왕의 수레 곁에서 시종했다. 왕은 모든 관리에게 명했다.

"그대들은 힘을 모아 큰 저울을 만들라. 그 위에 올려 무게를 재어 보려 하니,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보겠다."

대신들은 왕명을 받들고 그것을 재는 방법을 의논했다. 큰 구조물을 세우고 사슬을 걸어 높은 깃대에 매달았다. 그 위에 올라가도록 사다리도 놓았다. 그런데 왕은 그 구조물과 사슬을 보니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 같다고 여겼다. 프라야 위치옌은 다른 방도가 있는지 생각했다. 그는 왕에게 나아가 그 구조물에 올라 무게를 재는 일을 해낼 방법이 없다고 아뢰었다.

왕은 다시 위치옌에게 명했다.
"그대가 직접 올라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보라."
위치옌은 명을 받고 나가 그 일을 어떻게 할지 궁리했다. 큰 배 여러 척을 가져오게 했다.

인쇄 476 쪽

배들을 나란히 댄 뒤, 대포 프라피룬을 '낭뻿'이라는 배에 실었다. 배가 얼마나 가라앉는지 표시해 두었다. 그런 다음 대포를 배에서 끌어내리고, 벽돌 조각과 돌을 실어 배가 앞서 표시한 지점까지 가라앉을 때까지 무게를 맞추었다. 이로써 프라피룬의 무게를 알아냈다. 위치옌은 그 방법을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보고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대포의 무게를 재어 낸 프라야 위치옌의 지혜를 칭찬했다. 그리고 여러 대신에게 말했다.

"프라야 위치옌의 지혜가 그대들보다 뛰어난데, 그를 그대들보다 높은 자리에 두지 않을 까닭이 있겠는가?"

왕은 상아 가마를 내려 위치옌에게 타게 하고, 높은 자리와 지위에 맞는 예우를 더해 주었다. 또 그에게 많은 생활용품과 음식을 하사했다. 그 뒤 위치옌은 자신의 권한이 부족한 일이 있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왕에게 아뢰기만 하면, 왕실과 여러 대신이 크게 두려워할 만큼 위세를 떨쳤다.

어느 날 사무하 나욕이 왕께 아뢰었다.

"프라핏사눌록은 북부에서 큰 도시입니다. 적이 쳐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그곳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성 밖에 큰 보루를 쌓아 주십시오. 남쪽 입구 쪽에도 보루를 세우고, 톤부리의 강 양쪽에 큰 보루를 만들게 해 주십시오. 바다에서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강 양쪽을 잇는 큰 사슬도 물길을 가로질러 걸어야 합니다."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프라야 위치옌에게 프라핏사눌록과 톤부리의 보루를 맡겨 짓게 했고, 두 곳의 공사를 모두 마치게 했다.

그 뒤 왕은 해마다 빠짐없이 부처의 발자국을 참배하러 행차했다. 프라 라차니웻 차라께쎔에 머물며 사흘 동안 큰 공양 의식을 거행하고, 옛 왕실의 관습에 따라 의식을 마친 뒤 롭부리로 돌아왔다. 왕은 부처의 발자국이 있는 곳으로 이어지는 길을 정비하게 하고, 길과 선착장도 손보게 했다.

왕은 부처의 발자국이 있는 곳까지 이어지는 길을 정비하게 했다. 공사가 끝나자 왕실의 공덕을 쌓고 여러 불교 의식을 거행했다.

어느 날 왕은 사깨오 연못의 담낭으로 행차했다. 여러 대신이 함께했고, 왕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궁으로 돌아올 때에는 왕의 가마를 타고 돌아왔다. 가마는 붉은 천으로 덮고 왕실 물품으로 장식했다.

큰 사찰 앞에 이르자 왕은 가마에서 내려 말을 탔다. 왕실 명령으로 프라텝라차를 불러 말에 오르게 하고, 자신이 타던 붉은 천을 말 위에 덮어 주었다. 왕은 그에게 직접 말을 타 보라고 했다. 프라텝라차는 명을 받들어 말에 올랐다. 관리들과 시종들이 뒤따랐으며, 왕도 행차를 이어갔다.

왕은 그 광경을 보고 기뻐했다. 말에서 내려 왕 앞에 절을 올리자, 왕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말에 올라 궁으로 돌아갔다.

프라밧 솜뎃 보롬마나탐 보롬마핏 프라풋타짜오 유후아께서는 롭부리에서 성대한 왕실 의식을 거행하고, 아유타야로 돌아오셨다. 나라에는 풍요가 가득했고 코끼리와 말도 많았으며,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았다. 외적의 침입도 없었고, 국내에는 법과 질서가 바로 서 있었다. 왕은 여러 나라의 사절과 외국 상인들을 맞이했고, 나라의 재물과 번영은 더욱 커졌다.

출처에는 왕의 존칭이 프라밧 솜뎃 보롬마 보핏 프라풋타짜오 유후아 "พระบาทสมเด็จบรมบพิตรพระพุทธเจ้าอยู่หัว"로 적혀 있습니다.

율력 1054 년 개띠 해, 4 차 연도에 프라야 쎄왓쿤차라보롬께쎈찻딴이라는 흰 코끼리가 병들어 죽었다. 왕은 크게 슬퍼하여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근심과 고통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병세가 깊어졌다.

율력 1054 년은 서기 1692 년, 불기 2235 년입니다.

왕은 신하들이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자신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프라텝라차에게 자신을 대신해 국정을 맡기라고 명했다. 여러 대신과 장관에게도 각 도시로 사람을 보내 상황을 알리고, 군사와 관리를 준비시켜 두라고 했다. 각 지역의 관문과 길목도 지키게 했다.

루앙 소라삭은 그때까지 별다른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느 날 루앙 소라삭은 궁에 들어가 왕의 일을 살폈다. '팀답'이라는 곳에 앉아 있다가 '솜잉 팟바'가 있는 것을 보고 불러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러 가지 일을 말하던 끝에 루앙 소라삭이 물었다.

"우리 나라의 관습으로는 국왕의 병환이 위중해져 곧 승하할 지경에 이르면, 왕세자와 왕자들, 대신들은 왕위를 어떻게 다투게 되는가?"

솜잉 팟바가 대답하기 시작했다.

"왕위 계승을 생각한다면, 국왕께서 아직 승하하시기 전에 사람과 무기를 서둘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승하가 임박했을 때 바로 왕위를 차지해야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일을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면 왕위를 바라는 자들이 생겨 서로 사람과 무기를 준비해 다투고, 많은 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한 대로 되기 어렵고 일도 힘들어집니다."

루앙 소라삭은 솜잉 팟바의 계책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지금 왕께서는 병환이 위중하시고, 이삼 일 안에 승하하실 듯합니다. 저도 왕위를 바라고 있습니다. 왕위를 차지할 계획을 세우려 하는데, 그대는 저와 함께하겠습니까?"

솜잉 팟바가 말했다.

“정말 그렇게 하실 생각이라면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루앙 소라삭은 솜잉 팟바에게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솜잉 팟바는 삼백 명이 조금 넘는다고 대답했다. 루앙 소라삭은 이삼 일 안에 모든 사람과 무기를 준비하되,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다. 솜잉 팟바는 대답을 듣고 사람과 무기를 빠짐없이 준비했다.

얼마 뒤 루앙 소라삭은 프라텝라차의 집으로 찾아갔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눈 뒤, 루앙 소라삭이 프라텝라차에게 물었다.

“요즘 국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프라텝라차는 왕이 승하하면 왕위를 뒤쪽 궁전에 머무는 왕자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루앙 소라삭은 프라텝라차가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기는 데 동의한다면 자신은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다.

프라텝라차는 루앙 소라삭의 말을 듣고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떤 일을 하려는가? 그대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면, 나는 그 말대로 따르겠다.”

루앙 소라삭은 함께할 사람과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프라텝라차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군사가 적지 않으니, 사람들을 모아 무기를 준비하고 사흘 안에 일이 시작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사람들은 사원과 여러 집에 나누어 두어 서로 눈에 띄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루앙 소라삭은 왕위를 차지하는 일을 자신이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프라텝라차도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 뒤 루앙 소라삭은 집으로 돌아갔다.

프라텝라차는 사람과 무기를 모두 준비한 뒤 루앙 소라삭의 집으로 보냈다. 그런 다음 프라짜오하오 전각에서 대신들과 함께 국정을 살폈다. 그때 왕은 쑷타사완 왕좌전에 머물고 있었다. 병세가 더욱 깊어져 음식을 드시지 못했고, 승하가 가까워 보였다.

루앙 소라삭은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군사들을 불러들였다. 라만인과 솜잉 팟바의 사람들까지 합해 삼백 명 남짓이 모두 모였다. 루앙 소라삭은 그들에게 무기를 들고 함께 움직이도록 한 뒤, 각자 여러 곳에 나누어 머물게 했다.

그는 아침 아홉 시 무렵에 함께 움직이기로 하고, 무기를 궁 안으로 몰래 들여보낼 방법을 의논했다. 궁의 문지기가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일렀다. 자신이 먼저 프라짜오하오 전각에 들어가면 모두가 곧장 뒤따라 들어오라고 했다. 앞쪽 문 사이로 무기를 들여보내고, 전각 둘레를 에워싸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계획대로 준비했다.

사람들은 궁 안으로 들어간 뒤 각자 정해진 곳에 흩어져 머물며 다른 이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했다.

루앙 소라삭은 사신을 보내 왕 앞에 모인 대신들에게 일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게 했다. 사신이 프라짜오하오 전각에 들어가 보니 고위·하급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만, 프라야 위치옌만 보이지 않았다. 사신은 돌아와 그 사실을 알리며 물었다.

"그 프랑스인은 어째서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아침 아홉 시가 지나자 루앙 소라삭은 지위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 궁으로 들어갔다. 뜻을 같이하는 군사 열 명이 함께했고, 칼을 든 사신도 뒤따랐다. 프라짜오하오 전각에 들어간 루앙 소라삭은 프라텝라차 가까이에 서서 대신들에게 말했다.

"지금 왕의 병환이 위중합니다. 왕께서 승하하시면 왕위를 이을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그대들은 나와 함께하겠습니까? 뜻을 분명히 말하십시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루앙 소라삭이 이렇게 말하는 동안, 그의 편에 선 군사들이 무기를 갖추고 전각 안으로 들어왔다.

인쇄 485 쪽

군사들은 전각의 앞문과 옆문을 둘러쌌고, 일부는 안으로 들어갔다. 대신들은 무장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눈치만 보다가, 모두 손을 들어 복종의 뜻을 나타냈다.

루앙 소라삭은 칼을 뽑아 흔들며 외쳤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정말 나와 함께할 것인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대신들은 두려움에 떨며 손을 들어 다시 복종을 표했다.

"저희 모두 전하를 따르겠습니다. 전하의 신하가 되기를 청합니다."

루앙 소라삭은 대신들이 모두 복종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프라텝라차에게 아버지로서 예를 올렸고, 프라텝라차는 왕실의 명을 받았다. 루앙 소라삭은 왕실의 재산과 권한을 프라텝라차에게 넘겼다.

대신들은 루앙 소라삭에게도 복종을 맹세한 뒤 그를 마하우파랏의 자리에 추대했다. 루앙 소라삭은 마하우파랏의 지위에서 정무를 맡기 시작했다. 그는 군사들에게 불상과 경전을 모셔 오게 했다.

의식을 갖추고 경전의 가르침을 낭독하게 했다. 또 왕실 의례에 따라 승가의 고승들을 불러 모셨다. 삼보에 예를 올리고, 대신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여 옛 왕실 관습에 따라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

프라텝라차는 국정을 맡은 뒤 짜오프라야 수라송크람을 사신으로 삼아 프라야 위치옌을 데려오게 했다. 수라송크람이 위치옌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다. 위치옌은 사신에게 누가 자신을 부르는지 물었다. 사신이 짜오프라야 수라송크람이라고 답하자, 위치옌은 말했다.

"수라송크람에게 이리로 오라고 하시오. 그에게 갚을 은혜가 많지만, 그 은혜를 발로 지워 버리려는 셈이니 말이오. 내가 그와 함께 가면 반드시 위험에 빠질 것이오."

사신은 왕의 명령이니 서둘러야 하며, 위치옌이 그 명령을 거스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위치옌은 옷을 갖춰 입고 가마에 올랐다. 앞장선 사신과 함께 궁으로 향했다.

한편 루앙 소라삭은 마하우파랏의 궁에 자리를 잡고, 군사들에게 궁의 보루와 문을 지키게 했다. 누구도 몰래 드나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길목마다 경계를 세웠다. 위치옌이 오면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죽이라고 명했다.

위치옌이 궁문에 이르자, 문 양쪽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몽둥이로 가마를 내리쳤다. 위치옌은 가마에서 떨어졌고, 그들은 그를 죽였다. 위치옌을 따르던 사람들은 두려워 달아났다.

프라텝라차는 왕이 머물던 **쑷타사완 전각**으로 올라갔다. 병환이 위중한 왕에게 절을 올리고 병세를 여쭌 뒤, 자신이 국정을 맡게 된 사정을 아뢰었다.




*내전구역(เขตพระราชฐานชั้นใน)**에 자리한 나라이 왕의 개인 거처였습니다. 왕이 말년에 병상에 누워 있던 곳이며, **1688 년 7 월 11 일 [불기 2231 년] 에 승하한 장소**도 바로 이 전각입니다. 현재는 건물 기단과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프라텝라차와 루앙 소라삭이 반역을 꾀한 것이라고 생각한 왕은 크게 노했다. 왕은 곁에 놓인 칼을 잡고 일어나려 했지만, 병세가 깊어 몸을 가누지 못했다. 왕은 두 사람을 처벌하러 가겠다고 말했으나,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왕은 칼을 내려놓고 부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신에게 자신에게 이레만 더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 반역을 꾀한 두 부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뜻이었다.

프라텝라차와 루앙 소라삭은 쑷타사완 궁전에서 나와, 왕이 그날 안에 승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 배를 마련하고 끄룽텝마하나콘으로 내려가게 했다. 또 뒤쪽 궁전에 머물던 차오파 아파이야톳을 불러 롭부리로 서둘러 오게 했다.

사신들은 그날 배를 타고 끄룽텝마하나콘으로 내려갔다. 한편 왕의 병세는 더욱 위중해졌다. 왕은 궁을 지키던 옛 신하들 가운데 열다섯 명가량을 큰 궁전으로 불러들여, 자신이 쑷타사완 궁전에 머무는 동안 경비를 맡기라고 명했다.

왕은 프라텝라차와 루앙 소라삭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두 부자는 반역을 꾀하고 있다. 나는 이미 병들어 몸이 약해졌고, 사흘도 더 버티기 어려울 듯하다. 그대들까지 궁에 남아 있으면 저들이 모두 죽일 것이다. 반역자들과 함께 있다가 화를 입지 말고, 부처의 가르침에 의지해 출가하라. 그러면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왕은 왕실 창고에서 필요한 물품을 내오게 했다. 승가의 고승들을 불러오라는 명도 내렸다. 그날 밤 왕은 고승들에게 대신들을 출가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고승들은 출가 의식을 치를 수 있다고 답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고 마음 아파했다. 그러나 병세가 위중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므로, 프라텝라차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왕은 명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불러 승려가 되게 하라. 요문의 궁전에서 그들을 출가시킬 수 있겠는가?"

고승들은 가능하다고 아뢰었다. 프라텝라차는 왕실의 큰 궁전을 승가에 봉헌하고 출가 의식을 치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왕은 두 궁전을 출가 의식에 쓰도록 허락하고, 궁 안에 있던 대신들을 모두 승려로 만들도록 명했다.

고승들은 궁에 머물던 대신들을 불러 모아 출가 의식을 준비했다. 의식이 끝나자 승려들은 왕에게 절을 올리고 사원으로 돌아갔다.

한편 고위·하급 관리들은 프라텝라차의 명에 따라 모여들었다. 그들은 프라텝라차에게 자신들 중 누가 왕의 명을 받들어 가까이 모시게 될지 물었다.

왕의 곁에는 어린 왕자 한 명만 남아 왕을 돌보고 있었다. 그 왕자는 마을 사람인 쿤 끄라이싯티싹의 아들이었다. 왕은 어릴 때 그를 궁으로 데려와 기르게 했다. 유모와 보모가 돌보았으며, 체구가 작고 왜소해 왕은 그를 '아이 띠아'라고 불렀다.

아이 띠아는 왕을 충실히 섬기며 침상 곁에서 보살폈다. 새벽이 되어 왕이 침상에서 일어나 궁 앞의 유리 성벽 문으로 나가자, 루앙 소라삭은 경비를 맡은 사람들에게 그를 지키라고 명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이 띠아를 성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죽였다. 그를 돕던 신하들도 모두 붙잡혀 목숨을 잃었다.

왕은 아이 띠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며 물었다.
"누가 아이 띠아에게 그런 짓을 했느냐?"

그날은 목요일, 다섯째 달 하현 사흘이었다. **율력 1054 년 개띠 해, 4 차 연도**였다. 왕은 스물다섯 살에 왕위에 올라 스물아홉 해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승하 당시 나이는 쉰한 살이었다.

율력 1054 년은 서기 1692 년, 불기 2235 년입니다.

왕은 쑷타사완 마하쁘라삿 궁전에서 승하했다. 끄룽텝마하나콘으로 내려간 사신들은 차오파 아파이야톳에게 모든 일을 보고했다. 아파이야톳은 사신에게 왕의 밀명을 맡은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사신은 프라텝라차와 루앙 소라삭뿐이라고 답했다.

아파이야톳은 왕의 밀명을 맡은 자들이 자신을 해치려 할까 두려워했다. 그는 배를 타고 롭부리로 올라갔다. 프라프롬 사원에 들러 승려 한 분을 찾아 인사를 올린 뒤 다시 배를 타고 롭부리로 향했다.

그가 롭부리에 도착하기 직전에 왕은 이미 승하했다. 이에 마하우파랏의 지위에서 정무를 맡던 루앙 소라삭은 관리들에게 차오파 아파이야톳을 붙잡아 오게 했다. 그리고 왓 탁에서 백단나무 몽둥이로 처형했다.

프라펫라차 티랏왕의 치세

율력 1054 년 개띠 해, 4 차 연도(서기 1692 년, 불기 2235 년)에 프라펫라차가 왕위에 올라 쑷타사완 마하쁘라삿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다. 그는 예전 신하들을 고위·하급 관리로 두루 임명하고, 각자의 공에 따라 지위와 관직을 내렸다. 또한 고위 관리들에게 왕실의 물품을 나누어 주고, 옛 왕실 관습에 따라 충성 맹세를 받았다. 이어 왕위 계승 의식도 거행했다.

왕은 루앙 소라삭을 왕세자로 삼아 마하쁘라삿에 책봉했다. 대신들은 모두 왕궁에 모여 있었고, 오직 프라야 헤쎙칸만 보이지 않았다.

그 무렵 프라나라이 왕은 병이 위중해 궁에 머물지 않고 반빠에 나가 있었다. 왕은 프라야 후쎙칸에게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프라야 후쎙칸은 왕께서 반빠에 나가 계신다고 아뢰었다.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선왕께서 승하하시고 폐하께서 왕위에 오르셨으므로, 신은 서둘러 돌아와 폐하의 신하로서 계속 왕명을 받들어 봉사하고자 하였나이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그가 오지 않았던 일을 용서하였다. 이어 관례에 따라 프라야 누칫에게 충성의 맹세를 하고 성수를 마시게 하라고 명하였다.

그 뒤 왕은 담당 관리들에게 선왕의 시신을 왕실 관에 모시는 일을 준비하도록 명하였다. 또한 대신과 모든 관원에게 각자의 직무에 따라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하면서, 이레 뒤에 수도로 내려가겠다고 하였다. 왕실 점성관에게 길일을 정하게 하였고, 대승의 길한 시각이 되자 선왕의 관을 왕실 어선 시 솜마랏차이에 모셨다. 배는 여러 겹의 화려한 장막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정해진 수로를 따라 먼저 수도로 내려갔다.

왕은 왕족과 모든 브라만 사제에게 배를 타고 뒤따르도록 명하였다. 왕 자신은 왕실 어선 끄라이손 피만에 올랐는데, 그 배는 왕실의 온갖 기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왕족들의 배와 대신, 왕실 사제, 브라만 학자, 크고 작은 관원들의 배가 정연하게 둘러섰다. 앞뒤의 행렬은 강물 가득히 길게 이어졌다.

왕은 롭부리에서 배의 행렬을 출발시켜 아유타야 수도로 내려가게 하였다. 왕궁의 정박지에 이르러 어선이 멈추자 왕은 왕궁으로 올라갔다. 선왕의 관은 수리야마린 마하쁘라삿 전각에 봉안하도록 명하였다. 이어 담당 관리들에게 수도의 왕궁 안에서 왕실 화장 전각과 여러 부속 시설을 건립하게 하였다.

또한 프라 마하랏차크루 사제에게 수도에서 대관식을 다시 준비하도록 명하였다. 이로써 대관식은 두 차례 치러지게 되었다.

용의 해, 십 년 주기의 넷째 해, 음력 10 월 상현 7 일 목요일 아침, 네 나리까 세 밧에 대관식을 위한 길한 시각이 되었다. 모든 대신과 관원, 왕실의 크고 작은 신하들이 산펫 쁘라삿 전각에 모여 대관식을 거행하고 왕을 받들어 아유타야 수도의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모든 대관 의식은 옛 왕실 관례에 따라 치러졌으며, 프라삿 통 왕 때와 같았다.

왕에게 올린 왕호는 다음과 같았다.

"솜뎃 프라 마하부룻 위숫티데촛돔, 보롬 짜끄라팟 차오 피폽 끄룽텝 프라 마하나콘, 보원 타와라와디 시 아유타야, 마하딜록 폽 나파랏 라차타니 부리롬, 우돔 프라 라차니웻 마하사탄."

"สมเด็จพระมหาบุรุษสุทธิเดชอุดม บรมจักรพรรดิเจ้าพิภพกรุงเทพพระมหานคร
บวรทวาราวดีศรีอยุธยามหาดิลกภพนพรัตนราชธานีบุรีรมย์อุดมพระราชนิเวศมหาสถาน"

왕위에 올랐을 때 왕의 나이는 쉰여섯이었다.

왕은 수도에서 사흘 동안 축하 의식을 열게 하였다. 수도 둘레의 길들을 정비하고, 왕의 행렬이 지나갈 길가에 높이 솟은 겹지붕의 라차왓 장식문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게 하였다.

왕은 왕실 예복과 장신구를 모두 갖추고, 높은 의장물로 장식된 왕실 가마에 올랐다. 승리의 북과 피리, 나팔, 소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호위 병사들이 빽빽하게 늘어섰다. 앞뒤의 행렬이 모두 준비되자 왕은 수도를 오른쪽으로 도는 순행을 한 뒤 왕궁으로 돌아왔다.

그 무렵 수판부리 지역의 반 플루 루앙에 살던 왕의 친족과 옛 가신들은 왕이 즉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함께 말과 여러 가지 물품을 마련하여, 시골에서 구할 수 있는 대로 가지고 와 왕에게 바쳤다.

왕은 친족들과 옛 가신들이 왕궁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그들은 연못 뒤편의 마하 포카라트 문으로 들어와 왕의 거처 가까운 왕궁 안에 머물렀다. 왕은 그들에게 알현하여 가지고 온 물품들을 바치도록 허락하였다.

왕의 친족들과 옛 가신들은 시골 사람들이어서 궁중의 예법과 관례를 알지 못하였다. 이전부터 말하던 대로 말을 하였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왕의 복을 축하하려고 찾아왔다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 병약한 늙은 부모 때문에 직접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물품만 맡겨 보내 왕에게 선물로 전하게 하였다.

궁중의 신하들은 이를 듣고 그들을 나무랐다.

“그분을 ‘나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이미 왕위에 올라 이 나라의 대왕이 되셨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하오.”

왕은 이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라 예전부터 그렇게 말하는 데 익숙하다. 나는 조금도 탓하지 않는다.”

그리고 왕실 주방의 담당자들에게 음식을 마련하여 그들이 배불리 먹도록 대접하라고 명하였다.

왕의 친족들과 옛 가신들은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하사받았다. 그 가운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왕에게 아뢰었다.

“나이 탄, 신들은 술을 마시고 싶나이다.”

왕은 술을 가져다 그들에게 하사하였다. 그들은 술을 받아 마시고 취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껩 독 마이 로이’와 여러 가지 ‘쁠렝 까이 빠’ 노래를 불렀다. 왕은 그 소리를 듣고 웃었다.

이어서 왕은 연로한 궁녀들에게 왕의 친족들과 옛 가신들을 데리고 내궁과 왕실 전각들을 구경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그들은 아름다운 여러 왕실 기물과, 화려한 장신구와 옷으로 꾸민 궁녀들을 보고 저마다 크게 칭찬하였다. 또한 왕의 위엄과 복덕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우리 나이께서는 참으로 큰 복을 지니셨다.”

그들은 왕실 전각과 왕궁 안의 여러 곳을 둘러본 뒤 돌아와 왕에게 절하고, 자신들이 보고 온 모든 것을 칭찬하였다. 그리고 물었다.

“오늘 밤 나이 탄께서는 저희를 어디에서 자게 하시겠나이까?”

왕은 대답하였다.
“너희 모두는 큰 왕실 전각에서 자거라.”
그러고는 친족들과 옛 가신들을 그 왕실 전각에서 자게 하였다.

이튿날 아침 왕은 음식을 마련하여 그들을 배불리 대접하게 하였다. 식사가 끝나자 각자의 신분에 맞추어 금은과 의복,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모든 사람에게 넉넉히 하사하였다.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금은과 물품을 전해 주도록 하였다.

친족들과 옛 가신들은 하사받은 물품을 모두 받은 뒤, 여러 가지 축원을 올리고 절하며 작별을 고하였다. 왕은 그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였다.

이어서 왕은 자신의 옛 정실부인을 중궁의 왕비로 삼았다. 또한 나라이 왕의 왕비였던 짜오 파 시 수완, 곧 프라 라차 깐라야니이며 끄롬 루앙 요타팁인 이를 오른편의 정비로 삼았다. 나라이 왕의 딸인 짜오 파 끄롬 루앙 요타텝은 왼편의 정비로 삼았다.

왕 자신의 딸로서 후궁이었던 치므를 프라 매 유 후아 낭 프라야로 삼았다. 왕의 누이인 타오 시 출라락의 아들, 왕의 조카 프라 옹 깨오를 짜오 파 끄롬 쿤 세나 보리락으로 삼았다.

왕위 획득에 함께 힘을 보탰던 코끼리 부서의 오른편 왕실 시종 나이 촙 쁘라싯을 후궁의 끄롬 프라 라차왕 보원 사탄 피묵으로 임명하여 왕명을 받들게 하였다.

*주요 칭호 원문: **พระอัครมเหสีกลาง** — 중궁의 왕비 / **พระอัครมเหสีฝ่ายขวา** — 오른편 정비 / **พระอัครมเหสีฝ่ายซ้าย** — 왼편 정비 / **พระแม่อยู่หัวนางพระยา** — 프라 매 유 후아 낭 프라야.*

인쇄 500 쪽

왼편 왕실 시종 나이 릿 촙 쁘라싯은 왕의 외손자로서 왕실 친족에 봉하고, 짜오 파 프라 차이 수리나라는 이름을 내렸다. 왕족인 쿤 티프 폰 팍디도 왕실 친족에 봉하고 짜오 파 프라 인 아파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왕은 이들 모두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의장물과 장신구를 하사하였다.

짜오 프라야 수라 송크람에게는 후궁의 왕자와 동등한 지위의 의장물을 하사하였다. 또한 옛 가신 나이 분 막을 프라야 위칫 푸반으로 임명하고, 금제 물그릇과 금제 물주전자, 금제 타구와 지위에 따른 의장물을 하사하였다.

왕은 왕자 끄롬 프라 라차왕 보원 사탄 몽콘이 짠 궁으로 옮겨 전궁의 거처로 삼게 하였다. 프라 반 차는 후궁에 거처하도록 하였다. 짜오 프라야 수라 송크람은 예전에 살던 사각형 건물에 그대로 머물게 하였다. 이 세 곳 모두에 높은 의장물을 하사하고, 각자의 행렬을 갖추어 왕을 알현하러 오도록 하였다.

어느 날 왕은 오른편 정비로 삼은 끄롬 루앙 요타팁의 전각에서 잠자리를 함께하려고 찾아갔다. 그러나 끄롬 루앙 요타팁은 몸이 아프다고 아뢰게 하였다. 그러자 왕은 왼편 정비로 삼은 끄롬 루앙 요타텝의 전각으로 갔다.

*주요 칭호 원문: **กรมพระราชวังบวรสถานพิมุขฝ่ายหลัง** — 끄롬 프라 라차왕 보원 사탄 피묵, 후궁의 왕자 직위 / **กรมพระราชวังบวรสถานมงคล** — 끄롬 프라 라차왕 보원 사탄 몽콘, 전궁의 왕자 직위.*

끄롬 루앙 요타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말로 꾸짖었으며, 칼을 들고 무릎 위에 가로놓았다. 왕은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 사랑의 주술을 행하는 술사를 찾게 하였다. 술사가 오자 그 주술의 의식을 행하게 하였다.

그 뒤 끄롬 루앙 요타텝은 왕을 몹시 그리워하며 초조해하였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거듭 청하였다. 왕이 한 차례 찾아가자 마침내 받아들였다. 왕은 끄롬 루앙 요타팁의 전각에서도 잠자리를 함께하였다.

이어서 왕은 나라이 왕의 시신을 화장할 왕실 화장 전각의 공사를 서두르라고 담당 관리들에게 명하였다.

전각은 매우 크고 넓었으며, 높이는 두 센 열한 와 한 속 한 큽이었다. 꼭대기에는 다섯 개의 첨탑이 있었다. 금빛 화장 전각 내부에는 여러 가지 정교한 장식과 기물들이 갖추어졌으며, 여러 방향의 부속 화장 전각과 작은 전각, 삼상 시설들도 마련되었다. 왕실 화장 전각은 약 여덟 달 만에 완성되었다.

돼지의 해, 십 년 주기의 다섯째 해, 음력 6 월 보름날, 길한 시각이 되자 왕은 선왕의 관을 수리야마린 전각에서 내려오게 하였다.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대승의 왕실 운구 수레, 프라 마하 피차이 라차롯 위에 관을 모셨는데 그 수레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식과, 층층이 세운 왕실 양산과 깃발, 붉은 장막이 갖추어져 있었다.

전각 높이의 원문은 "สองเส้นสิบเอ็ดวาศอกคืบ"이며, 센·와·속·큽은 당시의 길이 단위야. 운구 수레의 원문 명칭은 ***พระมหาพิชัยราชรถ.***

타이식 나팔과 서양식 나팔 소리, 악기와 승리의 북을 비롯한 온갖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승왕이 아비담마를 설하는 수레, 볶은 쌀과 꽃을 뿌리는 수레, 백단향 장작을 싣는 수레, 두 발과 네 발을 가진 여러 동물의 형상을 실은 수레들이 뒤따랐다. 동물 형상들의 등에는 승려의 가사를 두 벌씩 얹어 놓았다.

브라만들은 여러 가지 의례의 악기를 연주하며 행렬을 이끌었다. 호위 병사들은 좌우와 앞뒤에 빽빽하게 늘어섰으며, 대신과 관원, 모든 왕실 신하들이 함께하였다. 그들은 흰색 차루이 칭 무늬의 하의를 입고, 정해진 겉옷과 크루이 예복을 갖추었다.

많은 사람이 프라 피차이 라차롯을 둘러싸고 뒤따랐다. 옛 버마식 왕실 관례에 따라 행렬은 라차위티 길을 천천히 나아갔으며, 보는 이들에게 장엄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선왕의 시신이 짜끄라왓 전각 앞에 이르자 왕은 신호를 보내 앞뒤의 모든 행렬을 멈추게 하였다. 왕은 손에 쥔 타마린드 가지로 세 번 쳐서 보시하였다. 길한 시각을 살피며 기다리던 신하들은 절을 하고 모자를 벗어 내려놓은 뒤, 왕이 던진 보시물을 받았다.

보시가 끝나자 다시 신호를 보내 모든 행렬을 출발시켰다. 왕실 화장 전각에 이르러 선왕의 관을 금빛 화장 전각 안에 봉안하였다.

왕은 여러 가지 공연과 불꽃놀이를 마련하여 추모 의식을 열게 하였다. 승려 일만 명이 참석하는 사덥빠껀 의식을 이레 동안 행한 뒤, 선왕의 시신을 화장하였다.

화장이 끝나자 유골을 거두는 의식을 행하고, 승려 사백 명이 다시 사덥빠껀 의식을 치렀다. 유골을 작은 왕실 관에 담아 프라야눔맛 가마에 모시고, 행렬을 갖추어 왕궁으로 들어왔다. 이어 유골이 든 관을 왓 프라 시 산펫 사원의 대불전 뒤편에 있는 짜라남에 봉안하였다.

그 무렵 왕자 끄롬 프라 라차왕 보원 사탄 몽콘은 후궁의 왕자와 짜오 프라야 수라 송크람의 기세와 세력이 큰 것을 보고, 그들이 왕위의 적수가 될까 두려워하였다.

그는 자신의 적인 후궁의 왕자를 없애려고 왕에게 아뢰면서 계책을 꾸몄다. 왕궁의 금 그릇을 가져다가 후궁에 몰래 숨겨 놓고, 누군가 왕궁의 금 그릇을 훔쳐 갔다며 재판 관리들에게 조사하게 하였다.

수색 끝에 후궁에서 금 그릇이 발견되자, 관리들을 보내 후궁의 왕자를 체포하게 하였다. 이어 대신과 모든 재판 관리들을 모아 심리하게 하였고, 후궁의 왕자가 반역을 꾀하였으니 처형해야 한다고 판결하도록 하였다.

대신들은 모두 같은 의견으로 결정하고 왕에게 판결문을 올렸다. 그러나 짜오 프라야 수라 송크람만은 다른 대신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그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형 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청하였는데 두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노하여 말하였다.

*'사덥빠껀'의 원문은 **สดับปกรณ์** 으로, 죽은 이를 위해 승려에게 공양과 물품을 바치며 공덕을 회향하는 의식이야.*
*'짜라남'의 원문은 **จระนำ** 으로, 건물 벽면에 마련한 감실을 가리켜.*

"짜오 프라야 수라 송크람은 악한 뜻을 품은 자와 한패가 되어 그를 편들고 있다."
그리하여 짜오 프라야 수라 송크람을 잡아 처형하게 하고, 후궁의 왕자도 판결에 따라 처형하도록 하였다.

이어 왕은 대신과 모든 관원에게 다음 문제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 체디를 세울 때에는 먼저 비계를 설치한 뒤에야 쌓아 올릴 수 있다. 공사가 끝나면 그 비계를 남겨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철거해야 하는가?"

대신과 관원들은 아뢰었다.
"비계는 철거해야 하옵니다. 남겨 두어도 아무 쓸모가 없나이다."

그러자 왕은 고위 대신들에게 짜오 프라야 수라 송크람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명하였다.

"그대가 살아 있어도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다. 더 머무르지 말고, 내세에서 공덕을 구하도록 하라. 그대의 자식들은 내가 보살펴 기를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 뒤 돼지의 해, 십 년 주기의 다섯째 해, 음력 11 월에 짜오 프라야 수라 송크람을 처형하였다.

왕은 그의 생후 열 달 된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와 기르게 하고, 유모와 돌보는 사람들을 붙여 주었다. 또한 공을 세운 한 관원을 그 대신 프라야 수라 송크람으로 임명하고, 그 직위와 신분에 맞는 의장물을 하사하였다.

사카라트 1046 년(서기 1684 년·불기 2227 년), 쥐의 해, 십 년 주기의 여섯째 해에 반란이 일어났다.

짜오 파 아파이 톳의 옛 가신인 탐 티안이 나콘 나욕 지역에서 소요를 일으켰다. 탐 티안은 거짓 계책을 꾸며 얼굴에 점을 붙여 짜오 파 아파이 톳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시골 사람들에게 자신이 짜오 파 아파이 톳이며, 롭부리 지역의 왓 삭에서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다고 주장하였다.

사정을 모르는 시골 사람들은 이를 사실로 믿었다. 그리하여 탐 티안의 반란 무리에 가담한 사람이 매우 많아졌다.

반란자 탐 티안은 큰 수코끼리 한 마리에 올라탔다. 그는 높은 전투용 앉음대를 얹고, 칼라라는 사람과 함께 많은 추종자를 모았다. 사라부리와 롭부리, 쿤 나콘 지역까지 사람들을 끌어들여 많은 무리를 얻었다.

음력 3 월이 되자 그는 프라 나콘 루앙 전각으로 이동하여 사흘가량 머물렀다. 이어 가까운 사람을 몰래 보내 왓 빠 클롱의 프라 프롬 승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게 하였다.

"짜오 파 아파이 톳께서 프라 나콘 루앙 전각에 오셔서 사흘째 머물고 계십니다. 지금 스님을 모셔 오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프라 프롬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을 모시러 온 사람에게 말하였다.

"왕자가 참으로 살아 계시다면 어찌 프라 나콘 루앙에만 머물겠느냐? 벌써 수도까지 내려왔을 것이다. 이는 거짓을 꾸며 사실인 양 말하는 것이니 믿지 말라. 누가 그를 믿고 따른다면 그 사람도 헛되이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흩어져 달아났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다.

이튿날 아침, 반란자 탐 티안은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코끼리를 타고 프라 나콘 루앙에서 수도로 내려왔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짜오 파 아파이 톳이며, 내려가 왕위를 되찾겠다고 선언하였다.

일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짜오 파 아파이 톳으로 믿었다. 사람마다 가진 대로 여러 가지 무기를 들었으며, 아무 무기도 없는 사람은 막대기를 들었다. 많은 사람이 반란자 탐 티안이 탄 코끼리를 둘러싸고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보퐁 운하를 따라 코끼리 우리 쪽으로 향하였다.

그때 왕자 끄롬 프라 라차왕 보원 사탄 몽콘은 코끼리 우리 안에서 왕실 코끼리를 타고, 중앙의 포획 구역에서 코끼리를 잡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아뢰었다.
“악한 무리가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 지금 수도를 공격하러 오고 있나이다.”

전궁의 왕자는 이를 듣고 놀라, 경찰에게 급히 말을 타고 나가 악한 무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라고 명하였다.

경찰은 명을 받자 빠른 말을 타고 서둘러 나갔다. 반란군은 보 퐁 마을에 이르러 코끼리 운하를 건너려 하고 있었다. 앞장서 군사들을 이끌던 판 차이 투라가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를 붙잡아 전궁의 왕자에게 데려왔다.

왕자는 물었다.
“누가 군사를 이끌고 왔느냐?”

판 차이 투라는 아뢰었다.
“짜오 파아파이 톳께서 오셨나이다.”

왕자는 말하였다.
“그가 오면 싸우면 된다.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왕자는 코끼리 우리 쪽을 바라보다가, 반란자가 코끼리를 타고 들판을 가로질러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보았다. 이에 쿤 인 아피반에게 왕에게 들어가 이 사실을 알리라고 명하였다.

왕은 소식을 듣고 놀라, 왕실 수코끼리 몽콘 짜끄라판을 가져다 대라고 명하였다. 왕은 많은 신하들에게 둘러싸인 채 코끼리에 올라 서둘러 전궁으로 향하였다.

왕은 이름을 지정한 시종에게, 나레수안 왕이 마하 우빠라차와 코끼리 싸움을 벌일 때 사용하였던 왕실 무기 커 폰 파이를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시종은 명을 받자 무기고로 달려가 왕실 무기고 프라 클랑 생 삽파윳에서 그 무기를 가져왔다. 왕도 급히 이동하였다.

한편 전궁의 왕자는 코끼리 우리에서 반란군을 맞아 싸울 준비를 하라고 명하였다. 그곳에 함께 있던 짜오 프라야 탐마는 아뢰었다.

“코끼리 우리에서 맞아 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옵니다. 수도 안으로 들어가 방어하시는 편이 낫겠나이다.”

왕자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 수도 안으로 들어갔다. 왕궁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마하차이 보루 위에 올라, 군사들을 배치하여 전궁 앞 성벽 기슭을 지키게 하였다.

왕실 무기 ‘커 폰 파이’의 원문은 ***พระแสงของพลพ่าย.***

508 쪽

반란자 탐 티안은 코끼리를 타고 군사들을 이끌어 코끼리 우리에 이르렀으나 아무도 맞서 방어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시 이동하여 전궁 앞 둑길 맞은편, 왓 마헤용 쪽에 코끼리를 세웠다.

전궁의 왕자는 마하차이 보루의 담당자들에게 반란자를 쏘아 맞힐 수 있도록 대포를 장전하라고 명하였다. 장전이 끝나자 다음과 같이 기원하였다.

“이 대포에 깃든 신들이여. 내가 복덕이 부족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적에게 패할 운명이라면, 지금 나의 배가 터져 즉시 목숨을 잃게 하소서.

그러나 나에게 큰 복덕과 공덕이 있어, 이 타이 땅의 왕위를 이어받아 다스릴 수 있다면, 이 대포의 탄환이 적을 맞혀 파멸시키게 하소서.”

기원을 마친 뒤 왕자는 직접 화승을 받아 대포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불길이 화약에 닿지 않았다. 왕자는 크게 의심하여 장전해 둔 탄환과 화약을 꺼내게 하였다.

살펴보니 잘못 장전되어 있었다. 탄환을 먼저 넣고 화약을 뒤에 넣었던 것이다. 왕자는 크게 노하여 그들이 반란자와 한패라고 말하고, 대포를 장전한 사람을 처형하게 하였다.

대포를 다시 장전하게 한 뒤 왕자는 다시 화승을 받아 불을 붙였다. 이번에는 탄환이 날아가 반란자 탐 티안이 타고 있던 코끼리를 맞혔다. 코끼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반란자 탐 티안과 칼라라는 종은 코끼리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그들은 달아나 왓 타납 빠 카오 산에 숨어 있었다. 반란에 가담한 무리들은 흩어져 여러 곳으로 도망하였다.

전궁의 왕자는 관리들에게 반란자들을 뒤쫓아 붙잡으라고 명하였다. 관리들은 그 사원에서 반란자 탐 티안과 칼라를 잡아 데려왔다. 왕자는 쿤 프롬 아피반에게 부왕을 찾아가 반란군이 패한 경위를 모두 아뢰라고 명하였다.

한편 왕은 왕실 코끼리를 타고 코끼리 다리의 어귀까지 왔다. 마침 왕실 무기를 가지러 갔던 시종이 돌아와 그것을 바치자, 왕은 그 무기를 받아 코끼리의 이마 위에 가로놓았다.

그때 쿤 프롬 아피반이 와서 절하고 사건의 경위를 모두 아뢰었다. 왕은 기뻐하며 반란에 가담한 무리들을 빠짐없이 뒤쫓아 붙잡도록 명한 뒤 왕궁으로 돌아갔다.

전궁의 왕자도 관리들을 동원하여 악한 무리들을 추적하고 체포하게 하였다. 이어 왕궁으로 가서 부왕을 알현하고 모든 일을 상세히 아뢰었다.

악한 무리들을 모두 붙잡은 뒤에는 반란자 탐 티안과 반란을 주도한 많은 사람을 처형하였다. 단순히 뒤따라 가담한 사람들은 사슬을 채워 코끼리의 풀을 베는 형벌 노동에 보냈다. 숲으로 달아난 사람들도 많았다. 그리하여 사라부리와 롭부리, 쿤 나콘 지역의 여러 마을이 버려져 황폐해졌다.

앞서 사카라트 1045 년, 돼지의 해, 십 년 주기의 다섯째 해에 왕이 처음 대관식을 거행하고 즉위하였을 때, 북쪽과 남쪽의 모든 지방관에게 수도로 들어와 절하고 충성의 성수를 마시라는 왕명을 내렸다.

그러나 나콘 랏차시마를 다스리던 프라야 욤마랏 상과 나콘 시 탐마랏을 다스리던 프라야 람 데초는 나라이 왕이 승하하고 새 왕이 즉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도 거만한 뜻을 품었다. 두 사람은 불복하여 각자의 도시에 머물면서 왕을 알현하러 오지 않았다.

반란자 탐 티안의 무리를 처형하는 일이 끝난 뒤, 왕은 왕세자이자 전궁의 왕자와 의논하였다.

“두 도시가 반란을 일으켜 왕명에 불복하고 있으니 그대로 둘 수 없다. 군대를 동원하여 토벌해야 한다. 나콘 랏차시마가 가까우니 먼저 그곳을 공격하고, 함락한 뒤 나콘 시 탐마랏을 공격하도록 하자.”

왕세자도 왕의 뜻에 모든 점에서 동의하였다. 왕은 사무하 나욕에게 군사와 무기를 빠짐없이 준비하라고 명하였다.

그 무렵 나라이 왕 때의 프라야 시하랏 데초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은 옛 가신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였다. 이어 그를 총사령관으로 삼아 나콘 랏차시마를 공격하게 하였다.

또 다른 옛 가신을 프라야 나콘 랏차시마로 임명하여 선봉을 맡겼다. 그에게는 나콘 랏차시마를 함락한 뒤 그곳에 머물러 도시를 다스리게 하였다. 여러 지원 부서의 관원들은 후군의 감찰관인 욕끄라밧으로 삼았다.

병력 만 명과 전투용 코끼리 이백 마리, 말 삼백 필을 동원하고, 각종 무기와 대포, 소총, 탄환, 화약, 초석, 군량을 모두 갖추었다.

쥐의 해, 십 년 주기의 여섯째 해, 음력 4 월에 대승의 길한 시각이 되자 프라야 시하랏 데초와 모든 지휘관은 왕에게 절하고 작별을 고하였다. 그들은 코끼리와 말, 군사들을 이끌고 사라부리를 거쳐 진군하였다.

나콘 랏차시마의 지방관은 수도의 군대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력과 모든 무기를 점검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이어 군사를 내보내 길을 따라 여러 곳에 진지를 세우고 방어하게 하였다.

프라야 시하랏 데초의 군대는 성 밖에 나와 방어하던 진지들을 공격하였다. 양측은 치열하게 싸웠다. 나콘 랏차시마의 군대는 맞서 버티지 못하고 모든 진지에서 흩어져 달아났다. 패한 군사들은 도시 안으로 물러났다.

수도의 군대는 길을 따라 늘어선 진지들을 모두 격파한 뒤 도시까지 추격하였다. 나콘 랏차시마의 지방관은 병사들을 성벽 둘레의 방어 위치에 배치하고, 각종 무기와 대포, 소총을 빠짐없이 갖추어 도시를 굳게 지켰다.

아유타야의 군대는 나콘 랏차시마를 둘러싸고 진지를 세웠다. 이어 지원 병력 삼천 명을 편성하여 도시를 공격하였다. 성안의 사람들은 힘껏 싸우며 방어하였고, 대포와 소총을 수도의 공격 부대를 향해 집중적으로 쏘았다.

공격 부대에서는 죽거나 다친 사람이 매우 많았다. 계속 공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물러났다. 이처럼 여러 차례 공격하였으나, 성안의 사람들은 굳게 맞서 방어하였다. 결국 함락할 수 없었으므로 포위만 계속하였다.

그러나 여러 달 동안 포위한 끝에 군량이 떨어졌다. 병사들은 굶주려 수척해졌고, 병들거나 죽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군대에서 몰래 달아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에 모든 지휘관은 의논한 뒤 사무하 나욕에게 서신을 보내 지원군과 탄환, 화약, 모든 부대에 필요한 군량을 요청하였다.

짜오 프라야 짜끄리는 그 서신을 가지고 왕에게 들어가 사정을 빠짐없이 아뢰었다. 두 왕은 사건의 경위를 듣고 크게 노하여 말하였다.

“이자들에게 나콘 랏차시마 한 곳을 공격하라고 하였을 뿐이다. 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올라갔는데도 함락하지 못한다고 하니, 이런 자들을 계속 먹여 살려야 하겠느냐?”

왕은 사무하 나욕에게 관리들을 보내 모든 지휘관을 붙잡아 결박한 채 수도로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그들이 끌려오자 왕이 하사한 지위의 증표를 거두고, 재산과 보석을 모두 몰수하였다. 이어 사흘 동안 배에 태워 돌아다니며 죄를 드러내 보이게 한 뒤, 많은 지휘관을 처형하였다.

그 뒤 왕은 주요 대신들에게 다시 군대를 동원하여 나콘 랏차시마를 공격하라고 명하였다.

화약고에서 화약을 꺼내던 담당자가 화약에 덮어 두었던 돗자리의 먼지를 털자 불꽃이 튀어 화약 위로 떨어졌다. 화약은 한꺼번에 불붙었고, 많은 화약이 폭발하여 그곳의 창고와 건물들이 무너졌다.

불덩이가 공중으로 솟구쳐 사방으로 퍼졌으며, 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이 온 하늘을 뒤흔들었다. 불덩이에 맞은 관리들은 쓰러졌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어 고통을 겪었다. 그리하여 얻을 수 있었던 화약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에 병력 오천 명을 동원하고, 코끼리와 말, 무기와 모든 군량을 갖추어 출정시켰다.

나콘 랏차시마에 이르자 이전과 같이 도시를 둘러싸고 진지를 세웠다. 나콘 랏차시마의 지방관도 군사들을 점검하여 성벽의 방어 위치에 배치하고 도시를 굳게 지켰다.

수도의 군대는 여러 차례 공격하였다. 성안의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으며 싸워 방어하였다. 수도의 군대는 도시를 함락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포위하였다.

수도의 군대가 두 차례에 걸쳐 나콘 랏차시마 사람들과 싸운 기간은 모두 합하여 이 년이 넘었다. 성안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 두 차례의 농사철이 지나자 군량이 떨어졌고, 성안의 병사와 백성들은 굶주려 수척해졌으며 죽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가족을 데리고 도시에서 도망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지방관 프라야 욤마랏은 강인하고 능숙하여 오래도록 저항하였다.

한편 형벌을 받은 타오 송 깐단도 달아나 나콘 랏차시마에 머물고 있었다.

도시를 포위한 지휘관들은 의논하였다.

“성안의 사람들이 굳세게 맞서고 있으니 정면으로 공격하여 함락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계책을 생각하였다. 화약을 넣은 대나무 통을 만들어 불을 붙여 발사해 보았으나, 불길이 화약에 닿으면 폭발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다.

또 다른 계책으로는 큰 연을 띄우고, 그 연에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매달아 큰 밧줄로 성안에 내려보내도록 하였다. 그릇에는 화승을 연결하여 불을 붙였으며, 불이 화약에 닿으면 성안으로 떨어져 불을 내게 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계책으로, 날카로운 불붙은 물체를 화살에 묶어 성안으로 집중적으로 쏘아 도시를 불태우게 하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밤이 깊어 삼 야마 무렵이 되자 화약을 넣은 대나무 통을 발사하고 연을 띄우며 화살을 한꺼번에 쏘았다. 이어 지원 병력을 편성하여 도시를 공격하였다.

성안의 사람들은 화약 통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많았다. 이전에 겪어 본 적이 없는 공격이었으므로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연에 매단 흙 그릇과 날카로운 불붙은 물체를 묶은 화살은 성안의 집 지붕 위로 떨어졌다.

불길은 때를 맞추어 크게 번졌고, 곳곳을 태웠다. 성안의 사람들은 방어 위치를 지킬 수 없었다. 모두 두려워하며 흩어져 혼란에 빠졌다. 재산을 지키려다 죽거나 곤경에 처한 사람도 많았다.

그리하여 도시는 수도의 군대에 함락되었다. 수도의 군대는 성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뒤쫓아 붙잡고 여러 가지 물품을 거두었다.

나콘 랏차시마의 지방관은 타오 송 깐단과 자식, 아내, 가족, 모든 군사를 데리고 밤중에 도시에서 달아났다. 그들을 붙잡지는 못하였다.

군대는 나콘 랏차시마를 함락한 뒤 사무하 나욕에게 서신을 보내 왕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두 왕은 사건의 경위를 듣고 군대에 답서를 보냈다. 도시를 맡아 다스릴 사람을 임명하여 질서를 회복하고, 그 뒤 군대를 철수시켜 수도로 돌아오라고 명하였다.

모든 지휘관은 왕의 문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고, 명령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 일을 마친 뒤 군대를 철수하여 수도로 돌아왔다.

그들은 왕을 알현하고, 계책을 세워 도시를 공격하고 함락한 경위를 빠짐없이 아뢰었다. 왕은 모든 지휘관에게 각자의 지위에 따라 많은 상을 내렸다.

사카라트 1047 년(서기 1685 년·불기 2228 년), 소의 해, 십 년 주기의 일곱째 해에 오른편 정비 끄롬 루앙 요타팁(**กรมหลวงโยธาทิพ**)이 임신 열 달을 채우고 왕자를 순산하였다.

왕족들은 왕자에게 **짜오 파 프라 콴(**เจ้าฟ้าพระขวัญ**)**이라는 이름을 올렸다. 왕자가 태어난 그날 밤, 땅이 흔들리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왕자가 자라자 많은 사람이 그를 존중하였다. 그는 나라이 왕의 외손자로서 고귀한 왕족이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충성을 바치고 그의 신하가 되었다.

앞서 돼지의 해, 십 년 주기의 다섯째 해에 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빠 통 마을은 상서롭고 훌륭한 왕실의 터전이다. 우보솟과 위하라, 설법당, 체디, 경계 담장, 승려들의 거처를 갖춘 사원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하여 승려들의 거처와 정자, 다리, 출입문까지 모두 갖추게 하였다. 또한 유약 기와를 만드는 장인 믄 짠트라에게 노란색 유약 기와를 만들어 모든 우보솟과 위하라의 지붕을 덮게 하였다.

사원 공사는 삼 년이 넘게 걸렸으며, 호랑이의 해, 십 년 주기의 여덟째 해에 완성되었다. 왕은 사원의 이름을 **왓 보롬 풋타람(**วัดพระบรมพุทธาราม**)**이라 정하였다.

사원의 주지로는 **프라야나 솜포티(พระญาณสมโพธิ)**라는 왕실 승직을 지닌 마을 거주 승려를 임명하였다.

왕은 사흘 동안 공연을 마련하여 사원의 완공을 축하하게 하였다. 많은 승려에게 보시하고, 사원을 유지하도록 많은 백성을 사원에 배속하였다. 또한 관례에 따라 사원에 왕실의 토지를 하사하였다.





사카라트 1048 년(서기 1686 년·불기 2229 년), 호랑이의 해, 십 년 주기의 여덟째 해에 차이야의 관리들이 군무 대신에게 보고서를 보내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짜오 프라야 나콘 시 탐마랏이 반란을 일으켜 왕명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무기를 모아 서쪽의 여러 도시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 도시들을 차지한 뒤에는 수도를 해치려 할 것입니다.

또한 도망한 나콘 랏차시마의 지방관 나이 상 욤마랏은 추종자들을 이끌고 나콘 시 탐마랏과 차이야의 경계 지역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프라야 나콘 시 탐마랏과 함께 반란을 꾀하고 있으며, 바깥 지역의 주민들과 상 욤마랏의 설득에 넘어간 사람들도 많이 모아들이고 있습니다."

짜오 프라야 꼬사티보디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왕에게 들어가 아뢰었다. 두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노하여 말하였다.

인쇄 518 쪽
"이 두 사람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그대로 둘 수 없다. 대군을 편성하여 육로와 수로로 보내 토벌해야 한다. 이 두 반란자는 우리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붙잡으면 남김없이 처단하리라."

왕은 사무하 깔라홈에게 코끼리와 말, 모든 무기를 준비하게 하였다. 또한 군선과 추격선, 군량 수송선을 갖추어 육로와 수로 양쪽의 출정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 엄한 왕명을 내려 다음과 같이 임명하였다.

총사령관은 **프라야 수라 송크람(พระยาสุรสงคราม)**, 군대의 감찰관인 욕끄라밧은 **프라 수라 세나(พระสุรเสนา)**, 보급과 군무를 맡는 끼약까이는 **프라야 펫차부리(พระยาเพชรบุรี)**, 선봉은 **프라야 시하랏 데초(พระยาสีหราชเดโช)**, 후군은 **프라야 랏차부리(พระยาราชบุรี)**로 삼았다.

육군은 병력 삼만 명과 전투용 코끼리 삼백 마리, 모든 무기를 갖추어 육로로 출정하게 하였다.

수군은 **프라야 랏차 방산(พระยาราชบังสัน)**을 지휘관으로 삼았다. 해상 전투용 선박 백 척과 노를 젓는 병사 오천 명을 거느리고 바닷길로 출정하게 하였다. 육군과 수군이 함께 나콘 시 탐마랏을 공격하고 함락하도록 명하였다.

대승의 길한 날이 되자 프라야 수라 송크람과 프라야 랏차 방산, 모든 지휘관은 왕에게 절하고 작별을 고하였다. 그들은 육로와 수로를 따라 나콘 시 탐마랏으로 향하였으며, 차이야부리에서 두 군대가 함께 집결하였다.

육군의 총사령관은 춤폰과 차이야의 관리 및 지방 군사들을 징발하여 군대에 합류시켰다. 이어 수군에도 날짜를 정해 알려 차이야에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였다.

육군은 차이야와 나콘 시 탐마랏의 경계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나이 상 욤마랏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수도의 군대는 밤중에 그를 포위하였다.

나이 상 욤마랏은 미처 굳게 방어할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 급히 사람들을 모아 싸워야 했으므로 군사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강인하고 능숙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 수도의 군대에 힘껏 맞서 싸웠다.

수도의 군대는 여러 부대로 나뉘어 앞뒤에서 공격하였다. 나이 상 욤마랏의 군대는 포위되었고, 돌파하여 빠져나가지 못하였다. 많은 군사가 흩어지고 죽었다.

나이 상 욤마랏은 끝까지 달아나지 않았다. 뜻을 함께한 일곱여덟 명의 군사와 함께 서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수도의 군대는 승리하고 나이 상 욤마랏의 추종자들을 많이 포로로 잡은 뒤 나콘 시 탐마랏 지역으로 진군하였다.

짜오 프라야 나콘 시 탐마랏은 수도에서 육군과 수군이 출정하였고, 육군 지휘관 상 욤마랏도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낙담하였다.

그는 육군과 수군을 내보내 싸워 막게 하면서, 먼저 적의 힘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또한 성 밖의 모든 주민과 가족을 성안으로 옮기고 많은 식량을 들여놓았다. 이어 전쟁에 대비하여 성벽과 보루, 진지, 성문, 전투용 누각, 뾰족한 말뚝과 가시 장애물을 모두 갖추었다. 도시를 정비하고 병사들을 보강하여 수도의 군대에 굳게 맞설 준비를 하였다.

한편 프라야 랏차 방산(พระยาราชบังสัน)의 수군은 바닷길로 나아가 육군보다 먼저 나콘 시 탐마랏 지역에 들어갔다. 바다에서 나콘 시 탐마랏의 수군과 전투를 벌였다.

나콘 시 탐마랏의 수군은 힘껏 맞서 싸웠다. 수도의 수군은 적을 무너뜨리지 못하였으므로 닻을 내리고 여러 날 동안 포격전을 벌였다. 대포 소리가 크게 울려 바다의 깊고 넓은 수면에 메아리쳤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듯하였으나,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하였다.

육군은 나콘 시 탐마랏의 육군과 마주쳐 여러 진지에서 싸웠다. 수도의 군대가 공격하자 나콘 시 탐마랏 사람들은 굳세게 저항하였고, 마침내 근접전까지 벌어졌다. 수도의 군대는 진지를 함락하지 못하였으므로 나콘 시 탐마랏의 진지들을 둘러싸고 포위하였다.

여러 날에 걸쳐 전투가 벌어졌다. 나콘 시 탐마랏의 군대는 수도의 군대가 강하고 쉽게 막아 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고, 밤중에 진지에서 달아났다. 수도의 군대는 곧바로 추격하였다.

나콘 시 탐마랏의 군대는 돌아서서 맞서 싸웠으나, 흩어져 패주하고 혼란에 빠졌다. 많은 코끼리와 말, 무기를 수도의 군대에 빼앗겼다. 무기에 맞아 다치거나 죽은 관원과 병사도 많았다. 남은 군사들은 물러나 나콘 시 탐마랏으로 달아났다.

수도의 군대는 승리하여 많은 코끼리와 말, 사람, 여러 가지 무기를 얻은 뒤 추격하였다.

그들은 나콘 시 탐마랏의 수군이 굳게 저항하여 수도의 수군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병력을 내려보내 바닷가에서 적의 뒤를 공격하게 하였다.

나콘 시 탐마랏의 수군은 앞뒤에서 협공을 받아 많은 군사를 잃었다. 버티지 못하고 흩어져 달아났으며, 모두 여러 방향으로 물러났다.

수도의 군대는 승리한 뒤 육군과 수군이 함께 나콘 시 탐마랏으로 진군하여 도시 둘레에 진지를 세우고 포위하였다.

나콘 시 탐마랏의 지방관 프라야 람 데초(พระยารามเดโช)는 육군과 수군을 모두 잃자 슬퍼하였다. 그러나 군사들을 성벽 둘레의 방어 위치에 배치하고 무기를 갖추어 도시를 굳게 지켰다.

그는 군대를 내보내 수도의 군대와 날마다 싸웠다.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았다. 또한 방패와 칼, 손잡이가 긴 칼과 방패, 쌍검을 능숙하게 다루는 병사들을 뽑아, 여러 차례 서로 무예의 법식에 따라 겨루게 하였다.

수도의 군대와 나콘 시 탐마랏의 사람들은 약 삼 년 동안 팽팽하게 맞서 싸웠다. 양측 모두 강하여 어느 쪽도 승리하거나 패하지 않았다. 방어 위치를 지키는 병사와 진지를 둘러싼 병사들은 서로를 향해 노래를 부르며 조롱하기도 하였다.

수도의 군대에는 쌀과 군량을 실은 수송선들이 끊임없이 보급하였다. 그리하여 병사들은 굶주리거나 수척해지지 않았으며, 모든 물자가 충분하고 군대의 힘도 여전히 강하였다.

그러나 성안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졌다. 사람들은 굶주려 수척해졌고 많이 죽었다. 군대의 힘도 약해져 성 밖으로 나와 싸울 수 없었으며, 오직 방어에 힘썼다.

수도의 군대는 성안의 힘이 약해진 것을 보고 지원 병력 이천 명을 편성하였다. 그들은 가시 장애물과 말뚝을 뽑고 해자를 넘어가 사다리를 성벽에 걸고 올라 도시를 공격하였다.

지방관 프라야 람 데초는 직접 나와 병사들을 이끌고 굳세게 싸워 방어하였다. 병사들은 날카로운 무기를 던지고 대포와 소총을 잇달아 쏘았다. 탄환은 빗줄기처럼 쏟아져 수도의 공격 부대를 맞혔다. 공격 부대에서는 죽거나 다친 사람이 많았다. 도시를 함락하지 못하자 물러났다.

총사령관은 육군과 수군에 전열을 갖추어 다시 공격하라고 명하였다. 또한 굴을 파서 성벽 가까이로 접근하였다.

성안의 사람들은 그곳을 향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지방관 프라야 람 데초는 병력 육백 명을 편성하여, 적이 파고 들어오는 굴을 밖에서부터 공격하게 하였다.

양측은 근접전을 벌였고, 성안의 군사들은 갑자기 들이쳐 수도의 지원 병력을 많이 죽였다. 수도의 군대는 더 싸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돌아갔다.

나콘 시 탐마랏의 모든 관원과 관리들은 프라야 람 데초와 뜻을 함께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성벽의 방어 위치를 더욱 엄격히 점검하고 지켰으며, 누구도 다른 뜻을 품지 못하게 하였다. 모두 서로 화합하며 지냈다.

프라야 람 데초는 모든 관원과 관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도의 군대가 우리 도시를 공격하러 와서 여러 차례 공격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제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 군대가 기세를 얻었으니 그대로 둘 수 없다. 마땅히 밖으로 나가 공격하여 적을 흩어지게 하고 패주시켜야 한다.”

모든 관원과 관리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강하고 능숙한 병사 약 삼천 명을 뽑았으며, 모두 근접전 무기를 들게 하였다.

프라야 람 데초는 밤중에 병사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 적의 진지를 기습하였다.

포위 진지를 지키던 수도의 병사들은 이를 알아차리고 대포와 소총을 쏘았다. 이어 진지에서 나와 나콘 시 탐마랏의 군사들을 뒤쫓아 공격하였다. 성안의 군사들도 물러서지 않고 가까이 맞붙어 승부를 겨루었다.

양측에서 군사들이 죽었으나, 성안의 군사들이 약 두 배 더 많이 죽었다. 프라야 람 데초는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성안으로 물러났다.

이처럼 여러 차례 나가 진지를 공격하였으나 병사를 많이 잃었고, 적을 흩어지게 하지 못하였다. 결국 오직 방어만 하였다.

성안의 백성과 병사들은 몹시 굶주려 수척해졌으며, 날마다 죽어 갔다. 남은 식량을 나누어 먹었으나 마침내 모두 바닥났다.

짜오 프라야 나콘 시 탐마랏은 근심에 빠졌다. 식량이 부족하여 더는 도시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적이 사방을 포위하고 있으므로 성 밖으로 나가 식량을 구할 수도 없었다. 적의 눈을 피할 계책도 없었다.

그는 생각하였다.

“성안에 계속 머물면 나라에 반역한 자로 붙잡힐 것이 틀림없다. 나는 달아나 목숨을 보전하겠다.”

그러나 달아날 방도를 생각하니, 수군의 지휘관 프라야 랏차 방산에게 의지해야 할 듯하였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서로 아끼던 벗이었기 때문인데 그는 오랜 벗이므로 자신을 저버리지 않고, 목숨을 구하여 달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비밀 서신을 작성하여 가까운 사람에게 맡기고, 몰래 밖으로 나가 프라야 랏차 방산에게 전하게 하였다.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 프라야 람 데초가 벗 프라야 랏차 방산에게 보내는 글이다.

우리 두 사람은 같은 임금의 신하였으며, 서로 목숨과 마음을 아끼는 벗으로서 오랫동안 기쁨과 고난을 함께하며 왕명을 받들어 왔다.

왕께서 우리를 보내 람빵을 공격하게 하셨을 때, 마웅 모가 이끄는 버마군이 사이 욕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에도 우리 두 사람은 고난을 함께하며 전쟁을 치렀고,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어 함께 왕에게 바쳤다.

왕께서는 우리를 총애하여 지위와 작위를 내리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다.

그러나 왕께서 병환에 계실 때, 프라 페트라차와 루앙 소라삭 두 부자가 충성의 성수를 마셨던 맹세를 저버리고 반란을 꾀하여 왕위를 빼앗으려 하였다. 수도의 대신 가운데 누구도 왕위의 적을 제거할 계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왕께서는 깊은 슬픔 속에 승하하셨고, 왕위는 프라 페트라차에게 넘어갔다. 그는 모든 지방관에게 들어와 절하라고 명하였다.

내가 불복하여 들어가지 않은 것은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려는 뜻에서가 아니다. 그 까닭은 승하하신 우리 임금께 은혜를 갚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라에 해를 끼친 자의 신하가 되겠다고 고개를 숙일 수 없었다.

또한 나는 사내이자 군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얼마간의 자존심이 있다. 이전에 절한 적도 없던 사람에게 스스로를 낮추어 절할 수 없었다. 이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마음이다.

적이 우리 도시를 공격하러 왔고, 수도의 군대와 우리는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다. 우리 군사들이 수도 군대의 병사들보다 약하거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다. 그동안 충분히 맞서 싸워 왔다.

그러나 지금은 식량이 부족하여 우리 편의 힘이 쇠하였다. 식량을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패하게 되었다. 더는 도시를 지킬 수 없으므로 달아나려 한다.

포위망을 돌파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수도의 포위 진지가 나의 솜씨를 막아 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갈 길이 없으니 끝까지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이번의 죽을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벗인 그대에게 의지해야 한다. 그대는 예전에 같은 임금의 신하로서 우리 둘이 함께 겪었던 고난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

이번에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도와주라. 어느 정박지 한 곳에 군선 한 척을 마련하여 나를 기다리게 해 주라. 사흘 안에 나는 그대가 맡은 쪽의 포위 진지를 뚫고 나가겠다.

배를 타게 되면 벗인 그대와 작별하고 내 운명에 따라 달아나겠다."

인쇄 526 쪽

프라야 랏차 방산은 서신을 읽고, 예전에 서로 아끼는 벗으로서 고난을 함께했던 일을 떠올렸다. 또한 두 사람이 모두 무슬림이었으므로 프라야 람 데초에게 더욱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어느 정박지에 군선 한 척을 준비해 두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비밀 답서를 작성하였다.

"벗이 원하는 일은 내가 모두 준비해 두었다.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나오라. 이 일이 드러나면 내가 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는 밖으로 나왔던 사람에게 답서를 맡겨 프라야 람 데초에게 전하게 하였다.

프라야 람 데초는 서신을 받고 크게 기뻐하였다. 뜻을 함께한 병사 십여 명을 뽑아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밤이 되자 프라야 람 데초와 그 병사들은 자신의 자식과 아내, 친족, 성안의 모든 관원과 관리들을 죽였다. 달아나기로 하면 적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가족들을 죽이는 것은 무슬림들 사이의 관례였다.

프라야 람 데초는 주술에 능하고 솜씨가 강하였으며, 좋은 때를 기다렸다. 그는 쌍검을 들고 병사 십여 명을 이끌었다. 병사들도 모두 쌍검을 들었다.

그들은 밤중에 성문을 열고 달려 나와, 수군 총지휘관이 맡은 강 쪽의 포위 진지를 맹렬하게 공격하였다.
가족을 죽이는 일을 '무슬림들 사이의 관례'라고 서술한 부분은 이 연대기의 주장 그대로 옮긴 것이다.

포위 진지를 지키던 참족 병사들은 대포와 소총을 집중적으로 쏘았다. 굉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러나 프라야 람 데초와 그의 병사들은 주술에 능하여 무기에 맞아도 상처를 입지 않았으며, 두려워하여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들은 포위 진지를 돌파하여 무너뜨리고, 참족 병사들을 뒤쫓아 찌르고 베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큰 고통을 겪었다.

포위 진지의 병사들은 그들의 솜씨를 막아 내지 못하고 길을 열어 주었다. 프라야 람 데초와 병사들은 여러 진지의 수도 군사들을 물리치며 돌파하였다. 아무도 막지 못하자 그는 병사들을 데리고 프라야 랏차 방산이 정박시켜 둔 군선에 올랐다.

배는 바다로 나가 돛을 올리고 대양을 향해 달렸으며, 무슬림의 나라로 도망하였다.

수도의 군대는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을 붙잡고 모든 물품을 거두었다. 지휘관들은 반란자가 프라야 랏차 방산이 맡은 방어 구역을 돌파하고 군선을 타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프라야 랏차 방산은 수군을 보내 즉시 추격하지 않고 반란자가 달아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지휘관들은 이 사실을 총사령관 프라야 수라 송크람에게 보고하였다.

총사령관은 이를 듣고 조사와 심문을 벌였다. 그 결과 나콘 시 탐마랏의 지방관 프라야 람 데초가 프라야 랏차 방산에게 비밀 서신을 보냈으며, 프라야 랏차 방산은 악한 뜻을

품은 자와 내통하여 그가 나오도록 군선을 준비해 두었고 반란자가 멀리 달아나도록 보내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와 심문으로 사실이 확실해지자 프라야 랏차 방산을 붙잡아 처형하였다. 이어 수도에 서신을 보내 사무하 깔라홈이 사건의 모든 경위를 왕에게 빠짐없이 아뢰도록 하였다.

두 왕은 사건의 경위를 듣고 프라야 랏차 방산에게 크게 노하여 말하였다.

“그는 반란자들과 한패이다.”

왕은 군대에 답서를 보냈다. 사건에 관련된 공모자들을 모두 조사하여 붙잡은 뒤, 프라야 랏차 방산의 시신과 그 추종자들을 사흘 동안 끌고 다니며 죄를 드러내 보이게 하고, 처형하도록 명하였다.

또한 그들의 머리를 나콘 시 탐마랏의 성문에 꽂아 두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본받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그 뒤 솜씨가 강하고 공을 많이 세운 지휘관을 뽑아 도시를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도시를 정비하고 모든 백성을 위무하여 질서를 회복한 다음, 군대를 철수하여 수도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모든 지휘관은 왕의 문서에 적힌 명령을 확인하고 그대로 시행하였다. 도시를 맡아 다스릴 지방관과 관리들을 임명하고, 주민과 코끼리, 말, 무기와 여러 물품을 도시의 필요에 맞게 남겨 두었다.

그런 뒤 육군과 수군을 철수시키면서 사람과 포로, 코끼리를 이끌고 말과 무기, 모든 물품을 가지고 수도로 돌아왔다. 지휘관들은 왕을 알현하고 모든 사건의 경위를 아뢰었다.

이어 많은 코끼리와 말, 포로와 물품을 바쳤다. 왕은 그들의 공에 걸맞게 상을 내렸다.

사카라트 1049 년(서기 1687 년·불기 2230 년), 양의 해, 십 년 주기의 아홉째 해에 왕은 담당 장인들에게 내궁에 대전각 하나를 건립하라고 명하였다.

완공되자 왕은 그 전각을 ****프라 티낭 반용 랏따낫(พระที่นั่งบรรยงก์รัตนาศน์)****이라 이름 지었다. 이는 옛 전각의 이름을 따른 것으로, 그 전각들은 프라 티낭 위하라 솜뎃, 프라 티낭 산펫 쁘라삿, 프라 티낭 수리야마린이었다.




คือ 'พระที่นั่งบรรยงก์รัตนาสน์'—พระที่นั่งท้ายสระ หรือ '전각 타이 사'로도 불리는 아유타야 옛 왕궁의 전각입니다.
*왕궁 뒤편의 내전 구역에 자리하며, **연못 가운데 물로 둘러싸인 왕의 거처**였습니다. 프라펫라차 왕이 머물던 곳으로, 주변에는 물고기를 구경하는 높은 단과 수경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왕궁 유적의 일부로 터와 기단을 살펴보는 장소입니다*

왕은 반용 랏따낫 전각의 좌우에 연못을 파고, 대전각 곁의 연못 가장자리에 돌로 꾸민 수조와 산 모형을 만들게 하였다. 물이 수조 안으로 흘러들도록 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강가의 수조에 물레 장치를 만들어 관을 통해 물을 보내고, 연못 곁의 수조에서 솟아 나오게 하였다.

연못 뒤편에는 왕이 신하들을 접견할 **프라 티낭 송 쁜(**พระที่นั่งทรงปืน**)**을 세웠다. 이로써 이전에 후궁들이 있던 뒤편을 앞편으로 삼았다. 좌우에는 내궁의 재판 관리들이 머무는 살라 룩 쿤을 세웠다.

왕은 관리들이 프라 티낭 송 쁜에서 왕을 알현하도록 하였으며, 마하 포카라트 문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사카라트 1050 년(서기 1688 년·불기 2231 년), 용의 해, 십년 주기의 열째 해에 왼편 정비 끄롬 루앙 요타텝(กรมหลวงโยธาเทพ)이 임신 열 달을 채우고, 훌륭한 모습과 길한 특징을 갖춘 왕자를 낳았다.

왕족들은 왕자에게 **뜨랏 너이(ตรัสน้อย)**라는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부왕은 그를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렀다.

그 용의 해, 십 년 주기의 열째 해에 왕은 큰 배 한 척을 건조하게 하였다. 이어 사신에게 예물과 공물을 갖추어 프랑스로 가서 우호를 맺게 하였다. 이는 예전에 나라이 왕 때 짜오 프라야 꼬사 빤이 사신으로 갔던 것과 같았다.

뱀의 해, 십 년 주기의 첫째 해가 되자 사신들이 프랑스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프랑스 왕이 답례로 보낸 여러 가지 물품과 예물을 많이 가지고 와 왕에게 바쳤다.

왕은 옛 왕실 관례에 따라 사신을 **짜오 프라야 프라 클랑(เจ้าพระยาพระคลัง)**으로 임명하였다.

사카라트 1052 년(서기 1690 년·불기 2233 년), 말의 해, 십 년 주기의 둘째 해, 음력 6 월에 사완칼록의 관리들이 사무하 나욕에게 보고서를 보내왔다.

"나이 분이 사완칼록 지역의 숲에서 암컷 흰 코끼리를 생포하였습니다. 높이는 두 속 네 니우이며, 길한 특징을 모두 갖추고 아름답습니다."

이에 짜오 프라야 짜끄리는 흰 코끼리를 얻었다는 보고를 왕에게 올렸다. 왕은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왕은 코끼리 부서의 모든 관리에게 올라가 그 흰 코끼리를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그들은 큰 뗏목에 코끼리를 싣고 옛 관례에 따라 배의 행렬을 갖추어 아유타야로 내려왔다.

왕은 코끼리 우리에 뗏목을 대게 하고, 흰 코끼리를 내려 그곳의 축하용 우리에 머물게 하였다. 사흘 동안 공연을 마련하여 축하 의식을 열었다.

그 뒤 코끼리를 큰 뗏목에 다시 싣고, 배의 행렬로 호위하여 수도로 들어왔다. 왕궁의 꼭대기 지붕을 갖춘 코끼리 우리에 그 흰 코끼리를 모셨다.

왕은 코끼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름을 하사하였다.

พระอินทไอยราพต อชบดินทร์ วรินทรเลิศฟ้า 프라 인타 아이야라폿, 아차보딘, 와린타 럿 파.

그 코끼리를 생포한 나이 분에게는 **쿤 인타 꼿 쁘라싯(ขุนอินทคชประสิทธิ์)**이라는 벼슬을 내렸다. 또한 무게 세 땀릉의 금 그릇, 은화 한 창, 의복 세 벌을 하사하였다.

왕은 면세와 각종 부역을 면제하는 문서를 내리고, 그가 살던 지역에서 모든 시장세와 통행세 등의 징수를 면제하게 하였다. 이어 예전처럼 고향에서 생업을 이어 가도록 허락하였다.

앞서 뱀의 해에 왕은 왓 프라야 맨의 주지이자 자신의 스승이었던 승려의 은혜를 생각하였다. 그 승려는 왕이 장차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었다. 또한 왕이 그 사원에서 비구로 출가하여 머물 때, 스승은 정확하게 예언해 주었으며 승려로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었다. 그 은혜가 컸으므로 충분히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왕은 아침에 왕실 어선을 타고 왓 프라야 맨으로 갔다. 배가 선착장에 이르자 왕은 사원으로 올라가 스승에게 깊이 공경하며 예를 올렸다. 이어 사원을 이전보다 훌륭하게 중건하고 싶다는 뜻을 말하였다.

스승이 허락하자 왕은 왕궁으로 돌아와 주요 대신들에게 왓 프라야 맨을 중건할 장인들을 동원하라고 명하였다.

사원 공사는 두 해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양의 해, 십 년 주기의 셋째 해에 완성되었다. 왕은 사흘 동안 공연과 의례를 마련하여 완공을 축하하게 하였다. 가면극 공연도 있었다.

왕은 많은 승려에게 보시하고, 사원을 유지하도록 많은 백성을 사원에 배속하였다. 또한 관례에 따라 왕실의 토지를 사원에 하사하였다.

스승을 왓 프라야 맨의 주지로 임명하고, 마을 거주 승려의 왕실 승직인 **프라 시 삿차야뭇(พระศรีสัจญาณมุนี)**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그 승직의 지위에 맞는 승려의 생활용품도 빠짐없이 하사하였다.

사카라트 1053 년(서기 1691 년·불기 2234 년), 양의 해, 십 년 주기의 셋째 해, 음력 7 월 하현 5 일 월요일에 캄보디아를 다스리는 낙 솜뎃 짜오가 사신에게 서신을 맡겨 아유타야 수도의 주요 대신에게 보냈다.

그 서신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캄보디아의 코끼리 부대가 코끼리를 몰이하던 중, 높이 세 속 한 큽 한 니우의 암컷 흰 코끼리를 생포하였습니다. 그 코끼리는 길한 특징을 모두 갖추었으며 아름답습니다.

시 소톤 나콘 인타빠따 꾸룽 라차타니의 왕은 이 훌륭한 흰 코끼리를, 아유타야 대도시의 국왕 폐하께 왕실의 으뜸 탈것으로 바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폐하의 위엄과 권세에 의지하고자 하오니, 코끼리 부서의 관리들을 보내 받아 가시기를 청합니다."

사무하 나욕은 캄보디아 왕의 서신 내용을 왕에게 빠짐없이 아뢰었다. 왕은 이를 듣고 기뻐하며, 사신 한 사람마다 의복 한 벌씩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관리 세 명과 코끼리 부서의 관리들을 사신과 함께 보내, 흰 코끼리를 수도로 데려오게 하였다. 정해진 육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쉬어 갈 곳마다 머물게 하고, 지쳐 탈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관리 세 명과 코끼리 부서의 관리들은 왕에게 절하고 작별을 고한 뒤, 캄보디아 사신들과 함께 캄보디아 왕국으로 떠났다.

캄보디아에 도착하자 대신들이 아유타야의 관리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왕을 알현하였다. 왕은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좋은 것으로 하였다.

또한 왕의 관리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잘 돌보게 하고, 크메르의 프라야 세 사람에게 마중 나온 왕의 관리들과 함께 암컷 흰 코끼리를 인솔하도록 하였다.

왕의 관리 세 사람은 캄보디아 국왕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그런 다음 암컷 코끼리 싸웻꾼촌을 캄보디아 도성에서 데리고 나와, 크메르의 프라야 세 사람과 함께 길을 떠났다. 도중에 쉬어 가며 한 달하고 스무 날 동안 여행한 끝에 끄룽텝 마하나콘에 이르렀다.

이에 왕은 피아트 지역에 경축용 코끼리 우리를 짓게 하고, 암컷 흰 코끼리를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그리고 사흘 동안 성대한 경축 행사를 열게 하였다. 이어 왕실 의례에 따라 코끼리를 맞아들이는 행렬을 마련하고, 여러 배가 둘러서서 호위하며 도성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암컷 싸라뜨찬을 왕궁 안의 꼭대기 지붕이 있는 코끼리 우리에 들여놓게 하였다.

왕은 그 코끼리에게 이름을 내려 다음과 같이 부르게 하였다.

"프라 보롬 랏따나까깟 차띠 껜나린, 와레나타라 마한, 아난따꾸나 위분 르엇 파."

그런 다음 국왕은 싼펫 쁘라쌋 전각의 작은 무크에서 어전에 나아왔다. 군사와 민정 양쪽의 대신과 관리들은 직위에 따라 좌우의 팀답에 자리하여 알현하였다.

왕은 크메르의 프라야 세 사람을 불러 팀답 사이의 정자에서 배알하게 하였다. 왕실의 관례에 따라 문안의 말씀을 나누고, 크메르의 프라야 세 사람에게 각기 합당한 옷감과 상을 내렸다. 또한 캄보디아 국왕에게 답례로 보내는 여러 가지 생활 용품과 음식물을 많이 하사하였다. 크메르의 프라야 세 사람은 하직 인사를 올리고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사카라트 1054 년〔서기 1692 년·불기 2235 년〕, 원숭이해 넷째 해에, 동쪽 라오 지역에 살던 분꽝이라는 라오인 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주술에 능한 사람이었다. 스물여덟 명의 동조자를 모아 반란을 꾀하고, 자신을 복덕을 지닌 사람이라 칭하였다.

그는 동조자들을 데리고 나콘랏차시마 성문 밖의 한 정자에 와서 머물렀다. 주위에 휘장을 빈틈없이 둘러친 뒤, 사람을 보내 나콘랏차시마의 프라야와 모든 관리에게 나오도록 하였다.

나콘랏차시마의 프라야는 암코끼리 한 마리를 타고 하인과 부하들을 거느려 그곳을 살펴보러 갔다. 성 밖으로 나와 정자에 거의 이르렀을 때, 반역자 분꽝이 휘장 밖으로 나와 서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주술의 힘으로 나콘랏차시마의 프라야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는 코끼리를 돌려 하인들과 함께 성문 안으로 달아났다.

그 사악한 자와 동조자들이 뒤쫓아 성 안으로 들어오자, 백성과 관리들은 모두 그의 주술적 위력을 두려워하였다. 감히 그를 붙잡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 그 반역자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반역자 분꽝은 동조자들과 함께 관청에 자리 잡고, 코끼리와 말과 병사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나콘랏차시마의 프라야와 관리들은 함께 의논하였다.

"반역자가 우리 성 안에 나타났으나, 우리 모두의 힘으로도 그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는 주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달아난다면, 반역자에게 가담한 것처럼 되어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것입니다. 계책으로 그를 속여 롭부리에 내려가 진을 치게 해야 합니다. 왕의 위엄과 은덕이 미치는 곳 가까이로 데려간 뒤, 국왕의 위력을 빌려 우리를 보호받아야 그를 제대로 처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뜻을 같이하자, 함께 관청으로 가서 반역자에게 말하였다.

"저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끄룽텝 마하나콘으로 내려가 전쟁을 벌이는 일에 힘을 바치고자 합니다. 이 나콘랏차시마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롭부리로 내려가 진을 치며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모은 다음, 끄룽텝 마하나콘을 공격한다면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시고, 부디 죄로 여기지 마십시오."

반역자 분꽝은 이 말을 듣고 그것이 계략임을 알아채지 못하였다. 진실이라 여기고 믿었으며, 모든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는 성주와 관리들에게 명하여 나콘랏차시마의 병력 4,000 여 명, 장비를 갖춘 코끼리 84 마리, 말 100 여 마리를 징발하게 하였다. 모든 군수품을 빠짐없이 갖추자 나콘랏차시마를 떠나 부아춤과 차이바단을 향해 진군하였다. 많은 사람을 끌어모은 뒤 군대를 이끌고 롭부리로 가서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 진을 이루었다.

나콘랏차시마의 프라야와 관리들은 비밀 서신을 작성할 계책을 세웠다. 믿을 만한 쿤과 믄 관리를 보내 그 서신을 사무하나욕에게 전달하게 하고, 일어난 모든 일을 빠짐없이 왕에게 아뢰도록 하였다.

한편 사라부리와 부아춤, 차이바단의 관리들도 사무하나욕에게 서신을 보냈다. 나콘랏차시마가 반란을 일으켰으며, 지금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부아춤과 차이바단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고, 서쪽으로 지나갔으나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빠삭강 연안의 도시들에서 보낸 보고는 롭부리에서 보낸 보고보다 이틀 먼저 도착하였다. 짜오프라야 짜끄리는 두 보고를 함께 가지고 가서 두 분의 국왕에게 아뢰었다.

두 국왕은 이러한 사정을 듣고 크게 노하여 말씀하였다.

“반역자는 고작 스물여덟 명뿐이고, 나콘랏차시마 사람들은 수천 명이나 된다. 무기를 가지고 맞서 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마다 흙덩이 하나씩만 던져도 저들이 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자의 주술을 두려워하여 모두 반역자의 지배 아래 들어갔단 말인가.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일찍이 이런 일은 들어 보지 못하였다.”

이에 대신들에게 코끼리와 말과 병력을 모두 준비하도록 명령하였다. 프라야 수라세나를 총사령관으로 삼고, 여러 프라야와 관리들을 각 전방 부대와 후방 부대에 딸린 욕끄라밧과 끼악까이로 임명하였다. 병력은 장비를 갖춘 장정 5,000 명으로 하고, 각종 무기를 빠짐없이 갖추게 하였다. 이 군대를 보내 반역자를 붙잡게 하였다.

또한 나콘랏차시마의 프라야와 모든 관리에게 회답을 보내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그자를 두려워하여 붙잡지 못하겠거든, 먼저 에워싸 두되 그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라. 아유타야의 군대가 올라가 도착하면, 그때 그자를 붙잡아 왕도의 군대에 넘겨라.”

나콘랏차시마의 군사들에게 여러 물품을 내려보내고, 그 사악한 자에게도 물품을 주게 하였다. 또한 그에게 말을 건네며 잘 달래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알아채지 못하게 하였다. 그자가 눈치채면 일을 실행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출정하기에 길한 날이 되자, 프라야 수라세나와 모든 장수와 부대 지휘관은 하직 인사를 올리고 육군과 수군을 이끌어 롭부리로 올라갔다.

가까이 이르자 나콘랏차시마 군대에 비밀 서신을 보내, 공격할 날짜와 밤의 시간, 신호를 정하고 동시에 진군하여 포위하도록 하였다.

나콘랏차시마의 프라야와 관리들은 앞서 왕이 보내 준 물품으로 그 악한 무리를 달래어 의심하지 않도록 하였다. 약속한 날이 되자 군사들을 이끌고 안쪽에서 포위하였다. 왕도의 군대는 바깥쪽을 굳게 에워쌌다.

반역자 분꽝과 그 동조자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달아나려 해도 이미 늦었고, 맞서 싸우려 해도 힘이 부족하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나콘랏차시마의 군사들은 몰려들어 그 사악한 자와 스물여덟 명의 동조자들을 붙잡았다. 그들을 결박하여 왕도의 군대에 넘겨주고, 보고서를 내려보내 왕에게 아뢰게 하였다. 그런 다음 군대를 거두어 끄룽텝 마하나콘으로 돌아왔다.

이에 국왕은 그 사악한 자와 모든 동조자에게 사형을 내리도록 명령하였다.

그 뒤 왕은 사무하나욕에게 명하여 코끼리 부대와 기병, 전차 부대와 보병, 수군을 모두 점검하고 준비하게 하였다. 육로와 수로의 병력을 합하여 1 만 명으로 정하였다. 모든 경축 행사도 빠짐없이 준비하게 하였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왕실 관례에 따라, 수완나반폿산 위에 있는 부처님의 발자국에 올라가 예배하려는 것이었다.

길한 별자리와 좋은 날이 이르자, 밤 열한 번째 툼에 국왕은 승전의 왕실 행차에 쓰는 온갖 찬란한 장신구를 갖추고, 왕실 배 씨 싸맛타차이에 올랐다.

배 위에는 흰 층층 우산이 빛났고, 의장 깃발과 여러 줄의 깃발이 펼쳐졌다. 햇빛을 가리는 양산 아래에서는 짜마라가 흔들렸다. 왕실의 횃불은 줄지어 환하게 타올랐으며, 그 빛을 받은 비단 장막은 반짝였다. 그 광채가 하늘의 길을 밝히니 달빛이 비치는 하늘을 찬란히 비추었다. 호위하는 배들이 양쪽으로 늘어서고, 왕족과 대신, 여러 관리의 배들은 짝을 지어 차례대로 줄지어 갔다.

사람들의 소리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리와 승전의 북, 나팔과 소라, 몽차이와 큰 몽, 몽끄라때가 연주되어 천둥처럼 요란하게 울렸다.

앞뒤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수로를 따라 정연하게 나아갔다. 한 요차나를 가서 나콘루앙 왕실 거처에 이르렀다. 왕은 그곳에서 행렬을 쉬게 하고, 마음 편히 식사를 한 뒤 침실에 들었다.

아침 두 번째 시각이 되자 왕실 배에 내려가 타고, 수군 행렬을 차례대로 출발하게 하였다. 한 요차나를 가서 짜오싸눅 별궁에 이르렀다. 왕은 그곳에 올라 이틀 동안 머물렀다.

왕은 대신들에게 명하여 육로의 왕실 행차에 필요한 모든 호위 병력을 점검하고 준비하게 하였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왕실 관례에 따라, 육로의 대행렬을 빠짐없이 갖추도록 하였다.

좋은 시각과 승전의 길한 때가 이르자, 국왕은 왕실 장신구를 갖추고 왕의 코끼리 쑤리야압퐁을 탔다. 왕이 앉는 안장의 좌석 뒤에는 황금 지붕이 있었고, 온갖 황금 장식이 갖추어져 있었다. 여러 코끼리 부대가 함께 엄중히 호위하며 앞뒤로 번갈아 늘어섰다. 말 부대와 기병도 좌우와 앞뒤에 대형을 갖추어 줄지어 나아갔다.

그 뒤로 왕자와 왕손, 여러 왕족이 탄 코끼리와 수레들이 왕을 따라 찬란한 행렬을 이루었다. 높은 의장물과 흰 층층 우산, 승전의 깃발들이 짝을 지어 빛났다. 행렬을 호위하도록 징발된 보병들로 인해 더욱 장엄하였다.

수행 병사들이 나팔과 소라를 불고, 피팟 악단이 연주하며, 몽과 승전의 북을 울렸다. 그 소리가 요란하게 퍼지는 가운데 행렬은 숲길을 따라 나아갔다.

숲은 여러 종류의 나무로 가득하였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혀 눈길을 끌었다. 왕은 많은 수행 병력을 거느리고 육로를 따라 길을 갔다. 550 센을 지나 수완나반폿산 기슭에 이르렀다.

모든 호위 행렬을 멈추게 한 다음, 국왕은 왕의 코끼리 등 위에서 창을 세 차례 휘둘렀다. 왕실 관례에 따라 부처님의 발자국에 공양을 올린 뒤, 코끼리를 돌려 길을 따라 나아갔다.

50 센을 가서 탄까셈 왕실 거처에 이르렀다. 왕은 코끼리에서 내려 그 별궁에 들어가 머물렀다.

다음 날 국왕은 대신과 관리, 왕자와 왕손, 전방 궁과 내궁의 왕족, 왕실 여인과 모든 후궁을 거느리고, 아침저녁으로 찬란한 부처님의 발자국에 올라가 예배하였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였다. 왕은 정성을 다하여 공경스럽게 공양하고 예배하였다.

또한 산등성이로 올라가 보리수 가까이에 있는 돌자리 위에 앉았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왕실 관례에 따라, 모든 수행 병사에게 많은 금과 은을 내려주었다.

왕은 여러 종류의 공연을 열어 성대하게 경축하도록 하였다. 밤에는 여러 가지 불꽃을 쏘아 올리게 하였다. 여덟 개의 큰 불꽃 구조물에서 부처님의 발자국에 공양하는 불꽃이 타올라, 매우 장엄하였다. 승려들에게도 많은 보시물을 바쳤다.

그런 다음 국왕은 왕족과 대신, 여러 후궁과 시녀를 거느리고 타라텅 끝의 쏘까 별궁으로 나들이를 갔다.

왕은 숲과 산등성이, 바위산과 굴, 계곡과 깊은 협곡, 구멍과 바위틈을 둘러보았다. 광활한 경계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고 있었다. 잎과 가지가 무성한 모습과 여러 종류의 네발짐승과 두발짐승을 보며 마음을 즐겁게 하였다.

마음껏 즐긴 뒤 탄까셈 왕실 거처로 돌아왔다. 이레가 되자 부처님의 발자국에 하직의 예배를 올리고, 육로와 수로의 행렬을 따라 군대를 이끌어 끄룽씨아유타야로 돌아왔다.

사카라트 1057 년〔서기 1695 년·불기 2238 년〕, 돼지해 일곱째 해에,
씨쌋따나카나훗의 국왕은 쌘 쑤폿 마이뜨리를 국서 전달을 위한 사신으로 삼아 국서와 길한 왕실 예물을 맡겨 내려보냈다. 그 국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씨쌋따나카나훗의 국왕으로서, 동쪽에 있는 쌈마라 지역의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끄룽텝 마하나콘 보원 타와라와디 씨아유타야, 마하딜록폽 놉파랏 랏차타니 부리롬, 우돔 프라 랏차니웻 마하싸탄에서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국왕의 황금 연꽃과 같은 발아래 삼가 절하며 문안을 올립니다.

흰 코끼리를 왕의 탈것으로 두시어 도성의 영광을 이루시고, 위엄 있는 명성이 크고 작은 여러 나라와 왕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마치 대범천의 우산이 가려 주듯 서늘하고 평안한 행복을 이루시며, 뜨거운 고난을 겪는 모든 생명의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평화로운 때입니다.

신은 왕녀 프라 깨오 파, 나이 열다섯 살인 공주를 바치고자 합니다. 왕의 곁에서 시중드는 왕실 배우자가 되어 폐하의 발아래 봉사하게 하고, 폐하의 위엄을 의지할 곳과 안식처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에게는 왕의 적이 있습니다. 루앙프라방의 짜오파가 탐욕에 사로잡혀 부끄러움과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군사를 보내 씨쌋따나카나훗을 침범하고 괴롭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를 보내 씨쌋따나카나훗을 지켜 주시어 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저희는 대도성 씨아유타야에 예속된 신하로서 끝날까지 충성을 바치고자 합니다."

이에 짜오프라야 짜끄리는 씨쌋따나카나훗 국왕의 국서를 가져다가 모든 내용을 왕에게 아뢰었다.

국왕은 찬란한 왕실 장신구를 갖추고 싼펫 쁘라쌋 전각의 작은 무크에 나아왔다. 여러 대신과 관리, 군사와 민정 양쪽의 관원들은 직위에 따라 좌우의 굽은 팀답에 자리하여 왕을 알현하였다.

왕은 쌘 쑤폿 마이뜨리를 불러 팀답 사이의 정자에서 배알하게 하였다. 왕실 관례에 따라 문안의 말씀을 나누고, 그에게 합당한 옷감을 하사하였다.

그런 다음 사무하나욕에게 명하여 코끼리와 말, 각종 무기를 갖춘 군대를 징발하고 준비하게 하였다. 나콘랏차시마의 프라야를 총사령관으로, 프라 사라부리를 욕끄라밧으로, 프라야 나콘나욕을 끼악까이로, 프라 람캄행을 선봉장으로, 프라야 롭부리를 후방 부대장으로 삼았다.

장비를 갖춘 장정 1 만 명, 코끼리 300 마리, 말 400 마리와 크고 작은 여러 화기, 화약과 탄환을 빠짐없이 준비하였다. 씨쌋따나카나훗을 공격하러 온 루앙프라방의 군세에 맞서도록 이 군대를 보내게 하였다.

출정에 길한 날이 이르자, 모든 장수와 부대 지휘관은 왕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코끼리와 말과 병력을 이끌고 끄룽텝 마하나콘을 떠나, 사신 쌘 쑤폿 마이뜨리와 함께 나콘랏차시마를 거치는 길로 진군하였다.

씨쌋따나카나홋에 가까이 이르자 진영을 세우고 군대를 머물게 하였다. 장수들은 함께 의논하였다.

“지금 루앙프라방 사람들의 군대를 공격한다면 우호 관계를 해치게 되므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먼저 서신을 보내 루앙프라방 사람들에게 군대를 거두어 평화롭게 돌아가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맞서 싸우려 한다면, 그때 병사들을 보내 공격하고 격파하여 쫓아내도록 합시다. 잠깐이면 먼지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라오 군대는 우리 군사들에게 단번에 패할 것입니다.”

장수와 부대 지휘관들은 모두 이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에 서신을 작성하여 쿤과 믄 관리에게 맡기고, 루앙프라방의 라오군 사령관에게 보내게 하였다.

서신에는 우호적인 말로, 씨쌋따나카나홋과 예전처럼 화해하여 친선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서로 원한을 품거나 적대하지 말자는 뜻을 전하였다.

루앙프라방의 라오군 사령관 쌘타오 쎄나는 서신의 내용을 읽고, 끄룽텝 마하나콘의 군대가 씨쌋따나카나홋을 도우러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왕의 위엄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서신을 작성하여 신뢰할 만한 플리아 꽝에게 맡겨 타이군 사령관에게 전하게 하였다. 화해하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동의하며, 더 이상 씨쌋따나카나홋과 적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 다음 군대를 거두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에 나콘랏차시마의 프라야와 모든 장수, 부대 지휘관은 서신을 작성하였다. 쿤과 믄 관리에게 맡겨 끄룽텝 마하나콘으로 내려보내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왕에게 아뢰게 하였다.

또한 라오 대신들에게 보고하여 씨쌋따나카나홋 국왕을 알현하게 하였다. 국왕은 크게 기뻐하며 우호의 말씀을 나누었다. 군사들을 잘 먹이고 돌보아 배부르고 편안하게 지내게 하였으며, 모든 장수와 부대 지휘관에게 많은 상을 내렸다.

보고서를 가지고 간 사람들은 끄룽텝 마하나콘에 이르러 대신들에게 그 내용을 왕에게 아뢰게 하였다. 이에 왕은 군대를 왕도로 불러들이는 명령서를 보내도록 하였다.

모든 장수와 부대 지휘관은 명령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씨쌋따나카나홋 국왕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군대를 거두어 끄룽텝 마하나콘으로 돌아왔다.

한편 씨쌋따나카나홋 국왕은 왕녀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유모와 시녀, 남녀 종 각 100 명을 수행원으로 붙이고, 각종 생활 용품을 빠짐없이 갖추었다.

라오의 쌘타오 프라야 세 사람에게 병력 1,000 명과 합당한 수의 코끼리와 말을 맡겼다. 왕녀를 아름다운 황금 가마에 모시고 끄룽텝 마하나콘으로 내려가게 하였다. 길을 차례로 따라 나콘루앙 왕실 거처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끄룽텝 마하나콘으로 보고서를 내려보내 왕에게 아뢰게 하였다.

흰 코끼리의 주인이신 국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대신들에게 명하여 황금 장막을 갖춘 왕좌의 왕실 배와 여러 척의 배를 나콘루앙으로 올려보내, 씨쌋따나카나홋의 공주를 맞이하게 하였다. 공주를 모신 배들은 포리앙 운하를 따라 왕도로 내려왔다.

왓 끄라쫌에 이르러 운하 둑의 목책 쪽으로 방향을 돌리려 할 때, 마침 전방 궁의 국왕이 씨쌋따나카나홋의 왕녀를 맞아 전방 궁에 모셔 두라는 말씀을 내렸다.

그런 다음 전방 궁의 국왕은 본궁으로 내려가 국왕을 알현하고, 공주를 전방 궁에 두도록 허락해 달라고 아뢰었다. 이에 국왕은 자신의 뜻에 따라 그 공주를 왕자에게 내려주었다.

사카라트 1059 년〔서기 1697 년·불기 2240 년〕, 소해 아홉째 해에, 왕자 짜오파 프라콴의 나이가 열세 살이 되었다.

이에 왕은 대신들에게 명하여 싼펫 쁘라쌋 전각에서 상투를 자르는 왕실 의례를 준비하게 하였다. 안쪽 뜰에 목욕을 위한 건물과 벤짜 단을 세우고, 행렬이 지나갈 길을 따라 라차왓 울타리와 다섯 색의 층층 우산, 승전의 깃발과 빠따까 깃발을 간격을 두어 세우게 하였다 호위 병사들도 여러 겹으로 배치하였다.

미가씨라마싸월의 백분에 해당하는 날, 큰 경사의 길한 시각인 아침 세 번째 시각이 되자, 본궁의 국왕은 모든 왕실 장신구를 갖추었다. 금무늬 천으로 만든 푸사를 입고, 스납플라와 끝이 휘어진 신발을 신었다. 외국식 상의를 입고 허리에 천을 둘렀으며, 작은 왕관을 썼다. 왕실 검 깐얀을 꽂았고, 시종은 검 짜이펫을 받들었다.

그런 다음 왕은 왕실 가마에 올라탔다. 담당 관리들은 나팔과 소라를 울렸으며, 시종들은 좌우와 앞뒤에서 호위하며 행렬을 이루었다.

싼펫 쁘라쌋 전각에 이르자 왕은 올라가 휴식용 툇마루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한편 왕자는 의례용 복장을 갖추고 황금 가마에 올랐다. 짜오쩜 타오 한 사람이 함께 탔다.

가마 앞에서는 시종들이 짝을 지어 호위하였다. 그들은 흰 바탕에 가장자리가 늘어진 쏨빡을 입고 크루이 겉옷을 걸쳤으며, 목과 가슴에 흰 천을 둘렀다. 모두 열 쌍이었다.

그 뒤에는 귀족들의 아들 가운데 머리를 밀어 둔 아이들을 배치하였다. 흰 바탕에 무늬가 있는 천을 입히고 흰 크루이를 걸치게 하여, 열 쌍이 뒤따라 호위하였다.

그 뒤로 의례용 물품을 받든 여인 다섯 명과 부채를 든 여인 한 명이 따랐다.

그 다음에는 귀족들의 부인들을 배치하였다. 두 손을 모은 채 의례용 물품을 받든 여인들을 따라 네 줄로 걸었다. 한 줄에 스무 명씩 모두 여든 명이었다. 모두 흰 바탕에 가장자리가 늘어진 천을 입고, 금테를 두른 흰 천을 걸쳤다.

행렬이 휴식용 툇마루에 이르자, 왕자가 몽차이 앞면을 밟도록 하였다. 담당 여인이 물을 가져와 왕자의 발을 씻겨 주었는데, 두 사람이 그 일을 맡았다. 그런 다음 국왕은 왕자의 손을 잡고 대전각 안으로 들어갔다.

사흘 동안 승려들의 독경을 들었다. 넷째 날 새벽의 길한 시각이 되자, 왕자를 행렬로 모시고 목욕을 위한 건물로 갔다. 왕자는 벤짜 단에 올라갔다. 무르타피쎅 의례를 행하고, 불경을 외워 축원한 물과 오른쪽으로 감긴 소라에 담은 물로 목욕하였다. 브라만들은 축복의 말을 올렸고, 징과 북, 나팔과 소라, 여러 악기가 울려 퍼졌다. 그런 다음 의례용 복장을 갖추고 행렬을 따라 왕궁으로 돌아왔다.

아침 세 번째 시각이 되자, 왕자를 모시고 경축의 위안티안 의례를 행하였다. 호위하도록 징발된 사람들은 쏨빡을 입고 크루이를 걸쳤으며, 분홍색 천을 둘렀다. 부채를 받든 여인, 의례용 물품을 받든 여인, 왕자를 수행한 여인들은 모두 녹색 바탕에 가장자리가 늘어진 천을 입고, 금테를 두른 분홍색 천을 걸쳤다.

이 경축 의례는 사흘 동안 행하였으니, 앞서 독경을 듣던 사흘과 합하여 모두 엿새였다.

상투를 자르는 의례를 마친 뒤, 짜오파 프라콴은 날마다 짜끄라왓 전각 앞의 왕실 광장에 나와 말을 탔다.

음력 3 월이 되자, 본궁의 국왕은 병이 들어 약 보름 동안 앓았다. 병세는 점점 더 심해졌으며, 음식을 먹지도 못하여 승하가 가까워졌다. 왕족과 왕의 발아래 섬기는 크고 작은 모든 관리들은 모두 왕궁에 들어와 함께 밤을 지새웠다.

그때 전방 궁의 국왕은 짜오파 프라콴을 시기하고 있었다. 따르는 사람이 많고,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공경하므로, 앞으로 왕위를 다투는 적수가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에 두 왕자 짜오파 펫과 짜오파 폰하고만 비밀리에 일을 의논하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하였다.

본궁의 국왕이 하루 이틀 안에 승하할 것이 확실해 보이자, 전방 궁의 국왕은 두 왕자와 많은 관리를 거느리고 본궁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농와이 전각에 들어가 머물렀다.

그는 계략을 써서 시종에게 짜오파 프라콴을 모셔 오게 하였다.

“왕께서 알현하러 오라는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잠시 외국산 말을 타는 모습을 보고자 하십니다.”

짜오파 프라콴은 과일과 사탕을 먹던 중이었다. 부르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듣자 더 먹지 않고, 아직 먹지 않은 조각은 그릇에 담았다. 그런 다음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유모인 낙 프라싯티라차와 많은 하인들을 거느려 농와이 전각의 전방 궁 국왕에게 갔다.

짜오파 프라콴이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가 절하고 알현하자, 전방 궁의 국왕은 유모와 모든 하인이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담장 문을 닫게 하였다

인쇄 551 쪽
그런 다음 짜오파 프라콴을 붙잡아 농와이 전각 안에서 백단향 몽둥이로 처형하게 하였다.

처형을 마치자 시신을 자루에 넣고, 다시 큰 궤에 담았다. 왕의 관리들에게 이를 가져다가 왓 코프라야에 묻게 하였다. 그런 다음 전방 궁인 보원 싸탄 몽콘으로 돌아갔다.

유모 낙 프라싯티라차와 하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화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울며 돌아가 왕자의 어머니인 짜오파 끄롬루앙 요타팁에게 아뢰었다.

짜오파 끄롬루앙 요타팁은 왕자가 전방 궁의 국왕을 알현하러 갔을 때 잠자리에 들었으나, 아직 깊이 잠들지는 않았다. 막 잠이 들 무렵, 왕자가 와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신은 남겨 두고 온 과일과 사탕 조각을 마저 먹고자 합니다.”

그 말에 놀라 곧 잠에서 깨어났다. 마침 낙 프라싯티라차가 도착하여 울면서 모든 사정을 아뢰었다.

짜오파 끄롬루앙 요타팁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왕자를 생각하며 몹시 울었다. 그런 다음 병세가 위중한 본궁의 국왕을 찾아가 알현하였다. 슬피 울면서 모든 사정을 아뢰고 말하였다.

“신의 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방 궁의 국왕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본궁의 국왕은 이 말을 듣고 왕자를 애통하게 여겼다. 큰 슬픔과 고통에 잠겨 몹시 괴로워하였다. 또한 전방 궁의 국왕에게 크게 노하여 말씀하였다.

“나는 저 세 놈, 아비와 두 아들에게 왕위를 주지 않겠다.”

그런 다음 왕손 짜오파 피차이쑤린을 불러, 자신이 병을 앓으며 누워 있던 반용 랏따나쌋 전각으로 오게 하였다. 왕은 짜오파 피차이쑤린에게 왕위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 국왕은 승하하였다.

국왕은 즉위하던 때 쉰여섯 살이었고, 왕국을 다스린 지 열다섯 해가 되었다. 사카라트 1059 년〔서기 1697 년·불기 2240 년〕, 열 번째 달인 음력 4 월, 소해에 반용 랏따나쌋 대전각에서 승하하였으며, 나이는 일흔한 살이었다.

루앙 쏘라싹, 곧 프라 풋타짜오 쓰아라 불리는 왕의 치세

사카라트 1059 년〔서기 1697 년·불기 2240 년〕, 소해 아홉째 해에, 전방 궁 보원 싸탄 몽콘의 국왕은 왕손 짜오파 피차이쑤린에게 왕위를 맡긴다는 왕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고도 본궁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한편 짜오파 피차이쑤린은 그 왕위를 받을 수가 없었다 전방 궁의 국왕의 위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짜오파 피차이쑤린은 대왕에게 쓰이는 다섯 가지 왕실 표장을 가지고, 수많은 대신과 관리들과 함께 전방 궁으로 올라갔다. 대왕의 부왕을 알현하고 절을 올린 뒤, 왕위와 모든 왕실 표장을 바쳤다.

그러나 전방 궁의 국왕은 이를 받지 않았다. 그는 짜오파 피차이쑤린에게 말씀하였다.

“왕위를 너의 권리로 맡긴다는 왕명이 이미 있었으니, 네가 즉위하여 나라를 다스려라. 네가 왕위를 우리에게 바치려 하고, 우리가 그 왕위를 받는다면, 이는 왕명을 어기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짜오파 피차이쑤린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 여러 차례 간청하였으나 대왕의 부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짜오파 피차이쑤린은 머리를 숙여 왕의 발에 닿게 한 뒤, 애원하며 아뢰었다.

“신은 운명과 덕이 부족하고, 복덕과 힘도 적어 왕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신이 그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왕위와 나라에 위험이 생길 것이며, 승려와 브라만, 모든 백성도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흰 층층 우산은 크고 귀한 왕권의 영광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복덕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예전에 복덕을 쌓아 두지 못하였다면, 이를 지켜 낼 수 없습니다. 이는 사자왕의 기름과 같습니다. 그 성질은 매우 미세하고 섬세하여, 어떤 그릇을 가져다가 담더라도 담아 둘 수가 없고 모두 새어 나가 버립니다. 이를 담아 둘 수 있는 것은 오직 황금 그릇뿐입니다.

폐하께서는 왕의 위엄과 신통한 권능, 큰 복덕을 갖추셨으므로 타이 나라의 왕국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십니다. 마치 사자왕의 기름을 담아 두는 황금 그릇과 같습니다.

부디 정당하게 왕위를 받아 다스려 주십시오. 이는 나라에 큰 자비를 베푸시는 것과 같습니다. 승려와 브라만, 백성들이 폐하의 덕을 의지하여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폐하께서 왕위를 받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이는 나라에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나라에 위험이 닥치고 승려와 브라만, 백성이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또한 의지할 곳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폐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숲으로 들어가 숨어 지내다가 신의 업에 따라 죽고자 합니다.”

짜오파 피차이쑤린이 이처럼 간절히 아뢰고 있을 때 마침 본궁의 모든 관리가 뒤따라 올라와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국왕을 알현하고 절을 올린 뒤, 왕위를 받아 다스려 달라고 함께 간청하였다.

이에 짜오파 피차이쑤린은 국왕의 왕명을 받들었다. 두 왕자의 말씀도 받들었고, 모든 대신과 관리 또한 짜오파 피차이쑤린의 뜻에 따라 왕명과 말씀을 받들었다.

국왕은 모든 대신과 관리가 한데 모여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모든 관리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왕실 관례에 따라 충성을 맹세하는 물을 마시고 서약하도록 명령하였다.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마쳤다.

짜오파 피차이쑤린과 여러 대신과 관리, 승려와 브라만들은 국왕을 본궁으로 모셨다.

왕은 담당 관리들에게 선왕의 시신을 왕실 관에 모시도록 명령하였다. 관을 준비하여, 선왕이 승하한 반용 랏따나쌋 전각 안에 안치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프라 마하라차크루와 왕실 사제, 점성술사들에게 명하여 왕의 즉위 의례와 궁궐에서 행할 경축 의례를 준비하게 하였다.

크게 길한 날과 좋은 별자리의 시각이 이르자, 왕실의 대신과 관리, 크고 작은 군사와 민정 양쪽의 관원, 도성에 머무는 승려와 숲에 머무는 승려들의 고승, 브라만들이 모두 싼펫 쁘라쌋 전각에 모였다.

그들은 국왕을 모시고 즉위 의례를 거행하여, 지극히 높은 대왕으로 추대하였다. 왕은 싸깔라랏 씨마의 영토를 다스리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왕통을 이어 끄룽텝 마하나콘 보원 타와라와디, 씨아유타야 마하딜록폽 놉파랏 랏차타니 부리롬, 우돔 랏차니웻 마하싸탄에서 왕국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대왕에게 쓰이는 다섯 가지 왕실 표장을 바쳤다. 모든 왕실 의례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에 따라 빠짐없이 마쳤다.

국왕은 궁궐에 거처를 정하고 쑤리야마린 대전각에 머물렀다.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는 서른다섯 살이었다.

왕은 장남을 전방 궁 보원 싸탄 몽콘의 지위에 앉히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프라 반툰 너이라고 부르도록 하였다.

예전부터 섬기던 관리들 가운데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그 지위에 합당한 관직과 품계를 내렸다.

그런 다음 담당 장인들에게 큰 왕실 화장용 메루를 짓게 하였다. 너비는 일곱 와이고 두 쪽이며, 여러 방향의 메루와 부속 건물을 함께 갖추었다. 이 메루는 열한 달이 지나서야 완성되었다.

사카라트 1060 년〔서기 1698 년·불기 2241 년〕, 호랑이해 열째 해, 음력 4 월의 길한 날과 승전의 시각이 되자, 선왕의 관을 마하피차이라차롯 위에 모셨다. 예전의 관례에 따라 행렬을 이루어 화장용 메루로 갔다.

길을 따라 나무와 꽃을 세우고, 여러 종류의 공연을 빠짐없이 열었다. 밤에는 여러 가지 불꽃을 쏘아 올리게 하였으며, 열 개의 큰 불꽃 구조물을 마련하여 선왕의 시신에 공양하니 매우 장엄하였다.

승려 1 만 명에게 쌋따빠꼰 보시를 행하였다. 이레가 되자 화장을 거행하였다.

불이 꺼진 뒤에는 선왕의 유골을 펼쳐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고, 다시 승려 400 명에게 쌋따빠꼰 보시를 행하였다. 그런 다음 유골을 모아 작은 관에 담고, 왕실 가마에 모셔 행렬을 이루어 왕궁으로 돌아왔다.

선왕의 유골을 담은 관은 왓 프라 씨싼펫다람 대불전 뒤쪽의 짜라남에 봉안하였다.

사카라트 1060 년〔서기 1698 년·불기 2241 년〕, 토끼해 첫째 해에, 국왕은 자신의 출생지를 생각하였다. 그것은 왕이 아직 어렸을 때 왕대비가 알려 주었던 일이었다.

이 대목은 앞에서 '사카라트 1060 년, 호랑이해 열째 해'라고 기록한 뒤, 여기서는 같은 연도를 '토끼해 첫째 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연도와 간지는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인쇄 558 쪽

사카라트 1024 년〔서기 1662 년·불기 2205 년〕, 호랑이해 넷째 해, 나라이 왕의 치세에 국왕이 핏사눌록으로 올라가 프라 친나랏과 프라 친나씨 불상에 예배하였다. 왕은 사흘 동안 공연을 열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경축하도록 하였다.

그때 이제는 왕실 관에 모셔진 선왕이 왕대비를 데려가 임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호랑이해 넷째 해의 첫째 달에, 피칫 지역의 반 포쁘라탑창에서 지금의 국왕이 태어났다.

그런 다음 태를 은으로 된 합에 넣어, 그곳의 보리수와 우툼폰나무 사이에 묻었다. 이 일로 왕에게 마드아라는 이름을 붙였다.

국왕은 북쪽 지역에 있는 자신의 출생지가 매우 길하고 귀한 곳이므로, 그곳에 사찰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사무하나욕에게 명하여 사람들을 징발하고 반 포쁘라탑창에 올라가 사찰을 짓게 하였다. 우보솟과 위한, 마하탓, 체디, 정자, 설법당, 승려들의 거처를 빠짐없이 갖추었다. 이 사찰은 2 년이 조금 넘어서 완성되었다.

뱀해 셋째 해〔서기 1701 년·불기 2244 년〕에 국왕은 수군의 행렬을 갖추고 왕실 배를 타고 그 사찰이 있는 지역으로 올라가 반 포쁘라탑창에 이르렀다. 육로로 올라가 왕을 맞이하고 기다리던 대신과 관리들도 매우 많았다.

왕은 사찰의 낙성 경축 행사를 열고 사흘 동안 공연을 베풀게 하였다. 승려들에게 많은 보시물을 바쳤으며, 관례에 따라 사찰을 돌보고 유지하도록 논밭과 사람들을 봉헌하였다.

또한 프라크루 탐마루찌라무니라는 승려를 주지로 임명하여 사찰을 맡겼다. 고승의 품계에 합당한 승려의 용품을 내린 뒤, 끄룽텝 마하나콘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이 사찰은 오늘날까지 왓 포쁘라탑창이라 불린다.

사카라트 1062 년〔서기 1700 년·불기 2243 년〕, 용해 둘째 해에, 왓 쑤몽콘 보핏 사찰의 몬돕 꼭대기에 벼락이 떨어졌다. 불길이 솟아올라 지붕을 태웠으며, 무너져 내린 구조물이 불상의 머리를 쳤다. 머리는 목 부분에서 부러져 몬돕 바닥에 떨어졌다.

이에 왕은 담당 장인들에게 몬돕를 헐고 새로 지어, 크고 높은 대불전으로 바꾸도록 명령하였다. 길이는 1 센 남짓이었다. 공사는 말해 넷째 해〔서기 1702 년·불기 2245 년〕에 완성되었다.

왕은 낙성 경축 행사를 열고 사흘 동안 공연을 베풀게 하였다. 늘 하던 것처럼 승려들에게 많은 보시물을 바쳤다.

그때 왕실 관에 모셔진 선왕의 원래 정비이자 현 국왕의 양어머니는, 국왕이 어릴 때부터 돌보고 길러 온 사람이었다. 선왕이 승하하자 현 국왕에게 하직을 청하고, 왓 두씻 가까이에 거처를 마련하여 나갔다.

왓 두씻의 이 거처는 예전 나라이 왕의 치세부터 있던 곳이었다. 나라이 왕의 젖어머니이자 짜오프라야 꼬싸 렉과 꼬싸 빤의 어머니가 그곳에 살았다. 그 여인은 현 국왕이 루앙 쏘라싹이었을 때, 짜오프라야 위차옌을 때린 일에 대해 왕에게 올라가 용서를 청했던 사람이었다.

현 국왕의 치세가 되자 양어머니는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여 계속 살았다. 왕은 그녀에게 끄롬 프라 테파맛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한편 선왕의 좌우 두 정비인 끄롬루앙 요타팁과 끄롬루앙 요타텝도 국왕에게 하직을 청하였다. 당시 뜨랏 너이라 불리던 왕자를 데리고 나가 왓 풋타이싸완 가까이에 거처를 마련하였다.

용해 둘째 해〔서기 1700 년·불기 2243 년〕에 왕자 뜨랏 너이가 열세 살이 되었다. 어머니 끄롬루앙 요타텝은 왕자를 위한 길한 상투 자르기 의례를 행하게 하였다.

의례를 마친 뒤 왕자를 사미로 출가시켜, 고승 프라 풋타코싸짠의 문하에 머물게 하였다. 뜨랏 너이는 매우 총명하였으며, 청정한 수행 생활을 잘 지켰다. 프라 풋타코싸짠에게 삼장경의 가르침과 여러 주문, 얀 문양, 주술과 학문을 많이 배웠다.

다섯 해 동안 출가 생활을 하여 열여덟 살이 되자 환속하였다. 그 뒤 여러 곳을 다니며 코끼리와 말을 다루는 기술과 온갖 전투 기술을 많이 익혔다.

또한 켁과 프랑 문자를 비롯하여 크메르, 라오, 베트남, 몬 문자를 배우고 여러 언어를 알게 되었다. 많은 스승에게 왕정과 점성술에 관한 서책, 의학서를 배웠다. 여러 학문에 두루 능숙하여 마치 베다의 학문을 통달한 것 같았다.

수계를 받을 나이가 되자 비구로 출가하여 수행자의 가르침을 잘 닦았다.

그때 국왕은 후궁들에게서 두 왕녀를 얻었다. 한 사람은 프라옹짜오 깨오이고, 다른 한 사람은 프라옹짜오 탑팀이었다. 전방 궁의 왕자와 프라 반툰 너이, 짜오파 공주를

합하여 자녀는 모두 다섯 명이었다 짜오파 공주와 두 왕자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또한 왕실 관에 모셔진 선왕에게는 후궁들에게서 태어난 네 왕자가 있었다. 프라옹짜오 찐, 프라옹짜오 담, 프라옹짜오 깨오, 프라옹짜오 분낙이었다. 이 분낙 왕자는 짜오 프라깨우라고도 불렸다.

담 왕자는 국왕의 왕녀 프라옹짜오 깨오를 배우자로 맞았다. 전방 궁의 왕자는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복 여동생인 후궁의 딸 프라옹짜오 탑팀을 정비로 맞았다.

사카라트 1064 년〔서기 1702 년·불기 2245 년〕, 말해 넷째 해에, 반 깽의 코끼리 몰이꾼이 숲에서 코끼리 떼를 몰고 왔다. 그 떼에서 상서로운 수컷 코끼리 한 마리를 몰아내어 붙잡았다. 높이는 약 여섯 쏙하고 다섯 니우였으며, 온갖 아름답고 길한 특징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었다.

코끼리 떼를 피아트 우리로 몰아넣자, 프라 랏차왕 므앙이 이 귀한 코끼리에 관한 소식을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피아트로 가서 코끼리 떼를 몰아넣고 귀한 코끼리를 붙잡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다음 그 코끼리를 왕팟에 들여놓고 잘 달래며 길들여, 점차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그 뒤 피아트의 코끼리 우리로 옮겨 놓았다.

왕은 사흘 동안 공연을 열어 경축하게 하였다. 이어 코끼리를 배를 나란히 붙여 만든 뗏배에 태웠다. 여러 배가 호위하며 행렬을 이루어 도성으로 들어왔고, 왕궁 안의 꼭대기 지붕이 있는 코끼리 우리에 들여놓았다.

왕은 그 코끼리에게 프라 보롬 뜨라이짝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또한 코끼리를 몰아온 몰이꾼에게 합당한 상을 내렸다.

그 말해 넷째 해〔서기 1702 년·불기 2245 년〕에 왕은 부처님의 발자국을 모신 몬돕를 본뜬 모형을 만들도록 장인들에게 명령하였다. 다섯 개의 꼭대기를 두고, 겹겹의 지붕과 반랭, 테라스가 있는 모습이었다.

장인이 모형을 만들어 바치자, 왕은 그 모형에 따라 몬돕 지붕을 수리하도록 명령하였다. 그 뒤 예로부터 내려오는 왕실 관례에 따라 수로와 육로의 대행렬을 갖추고, 부처님의 발자국에 올라가 예배하였다.

왕은 담당 장인들에게 몬돕의 지붕을 들어 올려 새로 만드는 일을 맡겼다.

그때 승왕도 왕을 따라 올라가 공사를 감독하였다. 왕은 매우 기뻐하여 모든 일을 승왕에게 맡기고 끄룽텝 마하나콘으로 돌아왔다.

그 무렵 국왕은 도성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한 달쯤 머물기도 하고 보름쯤 머물기도 한 뒤, 왕실 배를 타고 많은 관리를 거느려 나들이를 갔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뭇쁘라깐까지 이르렀다.

왕은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잡았다. 예전 왕실 관례와 달리 부정하고 그릇된 일을 행하였다. 낚싯바늘과 그물을 써서 많은 물고기를 죽였다.

때로는 왕의 코끼리를 타고 많은 대신과 관리들의 코끼리에 둘러싸여 숲으로 나들이를 갔다. 코끼리끼리 싸우게 하였으며, 길들인 코끼리들을 보내 숲속의 야생 코끼리 떼를 몰아 에워싸게 하였다. 밧줄을 던져 야생 코끼리를 많이 붙잡았다.

한 번은 타롱 지역의 숲에서 야생 코끼리를 에워싸 붙잡았고, 또 한 번은 펫차부리의 숲에서 그렇게 하였다.

때로는 들판으로 나가 새를 쏘는 총으로 여러 짐승을 쏘았다. 무수한 새와 네발짐승이 많이 죽었다.

또 때로는 대행렬을 이끌고 부처님의 발자국에 올라가 예배하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왕실 관례에 따라 공덕을 쌓은 뒤 도성으로 돌아왔다.

한편 장인들은 부처님의 발자국을 모신 몬돕 지붕을 들어 올려 새로 만드는 작업을 마치고, 회반죽과 옻칠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금박을 입히고 거울 조각을 붙이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쇄 565 쪽

어느 날 국왕은 알현실에 나와 모든 관리에게 물었다.

“도성 밖 시골 지역에서는 어디에서 큰 공연이나 축제가 열리느냐?”

그때 한 관리가 아뢰었다.

“신이 듣기로는 위쎗차이찬 지역의 반 쁘라짠따촌나봇에서 내일 사찰의 낙성 경축 행사를 열며, 큰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왕은 말씀하였다.

“내가 왕이 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권투나 씨름을 해 본 적이 없다. 손이 근질근질하고 팔이 뻐근하니, 내일 가서 권투 선수와 겨루어 솜씨를 시험하고 잠시 즐겨야겠다.”

다음 날 왕은 왕실 배를 타고, 많은 관리의 배에 둘러싸여 수로를 따라 갔다. 반 딸랏끄루앗에 이르자 왕실 배를 멈추고 그곳에서 뭍으로 올라갔다.

왕은 모든 관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평민처럼 변장하였다. 의심을 사지 않도록, 신뢰하는 경호 관리와 시종, 예전부터 섬기던 관리 네댓 명만 데리고 몰래 갔다.

큰 사찰 낙성 축제가 열리는 마을에 이르자, 변장한 왕은 축제를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녔다. 마침 행사 주최자가 권투 시합의 상대를 정하게 하자, 왕은 관리를 보내 권투장의 책임자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지금 도성의 권투 선수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당신의 권투장에서 상대를 정하여 시합하고자 합니다.”

권투장 책임자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들어와서 상대를 정하도록 하시오.”

왕이 권투장 안으로 들어가자, 책임자는 솜씨가 좋은 권투 선수를 찾아 상대를 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왕의 관리들은 말렸다.

“더 찾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사람을 보았으니, 그 선수와 겨루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십시오.”

책임자는 두 사람에게 준비하도록 하고, 권투장 한가운데에서 시합하게 하였다.

국왕과 권투 선수는 서로 겨루었다. 두 사람 모두 솜씨가 좋고 공격과 방어가 서로 맞아떨어졌다. 어느 쪽도 빈틈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힘도 비슷하였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솜씨를 칭찬하며, 타격이 오갈 때마다 함성을 질렀다.

그러나 그 권투 선수는 복덕과 운명이 적었다. 큰 복덕을 지닌 대왕과 겨루고 있었으므로, 그 복덕의 힘이 그를 억눌렀다.

반 판가량 치르자 힘이 약해졌다. 결정적인 타격을 여러 차례 받아 몹시 아팠고, 그 판에서 왕의 복덕의 힘에 패하였다.

책임자는 시골의 관례에 따라 승자에게 1 바트, 패자에게 2 쌀룽을 상으로 주었다. 왕의 관리들이 상금을 받은 뒤, 왕은 관리에게 책임자에게 다른 상대를 찾아 달라고 말하게 하였다.

책임자가 다시 상대를 찾아오자 두 사람은 또 겨루었다. 그 권투 선수도 왕의 복덕을 당해 내지 못하여 반 판 만에 패하였다.

모든 사람은 왕의 솜씨를 칭찬하며, 이 도성의 권투 선수는 참으로 뛰어나다고 말하였다. 책임자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상을 주었다.

그런 다음 왕은 관리들을 데리고 왕실 배로 돌아왔다. 마음껏 즐긴 뒤 끄룽텝 마하나콘으로 돌아갔다.

그 말해 넷째 해〔서기 1702 년·불기 2245 년〕에 왕은 쑤리야마린 전각에 나아와, 숲에서 야생 코끼리를 에워싸 붙잡는 나들이를 가고 싶어 하였다.

왕은 사무하나욕에게 명하여 코끼리와 말, 병력과 수군을 모두 점검하고 준비하게 하였다.

정한 날이 되자 왕은 왕실 배 프라티낭 프라왕에 올랐다. 왕실 배 보롬 에까차이도 함께하였고, 대신과 군 지휘관들의 많은 배가 둘러싸고 왕을 수행하였다. 수군 행렬은 수로를 따라 차례로 나아갔다.

나콘싸완 지역의 나루에 이르자 왕은 뭍에 올라 반 후꽝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빠양껑텅에서 야생 코끼리 떼를 에워쌀 날개 모양의 울타리 진을 세우게 하였다.

야생 코끼리를 몰아넣을 튼튼한 우리를 만들고, 길들인 코끼리들이 야생 코끼리를 몰아 에워싸 우리 안으로 들이게 하였다.

그때는 우기여서 비가 내리고 물이 숲 전체에 넘쳤다. 울타리와 진을 만들던 사람들은 물속을 헤치며 밤낮으로 서둘러 일하였고, 마침내 발이 짓무르고 심한 고생과 고통을 겪었다. 몹시 병이 들거나 굶주려 야위었으며, 죽는 사람도 많았다.

또한 왕이 머무는 본진과 코끼리를 에워싼 진 사이에는 큰 늪이 가로막고 있었다. 왕이 야생 코끼리 떼를 몰아 튼튼한 우리 안에 가두는 모습을 보러 가려면, 진으로 곧장 이어지는 지름길이 이 큰 늪 옆을 지나야 했다. 늪을 피하여 다른 길로 돌아가면 매우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였다.

이에 왕은 두 왕자에게 명하여 감독관이 되게 하고, 본진의 사람들을 징발하여 큰 늪을 가로지르는 육로를 닦게 하였다.

“오늘 밤 안에 완성하라. 내일 아침에는 왕의 코끼리를 타고 건너갈 것이다. 정한 시각에 맞추어 서둘러 일을 마치도록 하라.”

두 왕자는 명령을 받들고, 본진의 사람 1 만여 명을 징발하였다. 사람들에게 맡을 일을 나누어 주고, 밤중부터 큰 늪을 가로지르는 길을 메웠다.

어떤 이들은 흙을 파고, 어떤 이들은 크고 작은 나무를 잘라 늪에 던져 넣었다. 그런 다음 코끼리를 내려보내 밟게 하여 단단히 다졌다. 모두 서둘러 길을 메우고 다듬어, 그날 밤 안에 건너편 기슭까지 완성하였다.

두 왕자는 돌아와 육로가 왕이 정한 시각에 맞추어 완성되었다고 아뢰었다.

정한 시각이 되자 국왕은 왕의 수컷 코끼리 쌍한캇씨를 타고 함께 왕자들이 타는 코끼리, 대신들의 코끼리, 그리고 모든 보병 부대가 대거 왕을 에워싸고 수행하였다. 왕은 코끼리를 타고 육로를 따라 늪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늪 한가운데에 이르니 그곳의 진흙이 몹시 깊어, 땅을 다져 놓은 길도 단단하지 않았다. 왕의 코끼리가 앞발을 디디자 길이 무너져 발이 빠졌다. 코끼리는 다시 발을 빼낼 수 있었으므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 나아갔다.

왕은 두 왕자에게 크게 노하였다. 왕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두 놈은 내가 늙었다고 여겨 서로 반역을 꾀하는구나. 길에 구덩이를 만들어 내가 타는 코끼리가 밟아 무너지게 하고, 그러고는 함께 나를 죽여 왕위를 빼앗으려는 것이다.”

왕은 이렇게 말한 뒤 코끼리를 몰아 늪을 가로지르는 길을 따라 둑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얼굴을 돌려 뒤쪽을 바라보았다. 두 왕자가 탄 코끼리가 왕의 코끼리 뒤를 따라오는 것을 보자 더욱 크게 노하였다.

왕은 몸을 돌려 창날이 달린 코끼리 갈고리를 들어, 끄롬 프라 랏차왕 보원 왕자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였다. 그러자 동생 왕자가 자신이 들고 있던 갈고리의 자루를 들어 재빨리 막아, 형의 몸에 닿지 않게 하였다. 동생 왕자는 검술과 봉술, 권투에 능숙하였으므로 민첩하고 익숙하게 몸을 움직였다. 이어 자신이 탄 코끼리를 형의 코끼리 앞으로 옮겨 가로막은 뒤, 두 왕자는 함께 코끼리를 몰아 달아났다.

왕은 더욱 격렬하게 노하여, 곧바로 자신이 탄 코끼리를 재촉하여 두 왕자의 코끼리를 뒤쫓았다.

왕의 코끼리 뒤쪽에 앉아 있던 조련사는, 두 왕자의 코끼리가 이대로는 달아나지 못하리라고 보았다. 이에 뒤쪽 갈고리로 왕의 코끼리 뒷부분을 걸어 붙잡고, 코끼리가 천천히 움직이도록 속도를 늦추었다.

두 왕자는 왕의 형벌이 두려워 온 힘을 다해 코끼리를 몰아 숲으로 달아났다. 왕의 코끼리는 끝내 따라잡지 못하였다.

왕은 모든 시종에게 큰 소리로 명하였다.

“그대들은 모두 함께 뒤쫓아 저 반역자 두 놈을 반드시 붙잡아 내게 데려오라!
그러고는 코끼리를 돌려 머물던 행궁으로 돌아갔다.

경비 관리들과 신하들은 뒤쫓아가 두 왕자를 찾아내고, 왕의 진영으로 모셔 왔다. 왕은 루앙 프라 랏차 아냐에게 두 왕자를 각각 서른 대씩 채찍질하고, 다섯 겹의 쇠사슬로 묶어 가두라고 명하였다.

또한 도성으로 돌아갈 때까지 날마다 아침에 한 차례, 저녁에 한 차례씩 빠짐없이 채찍질하라고 명하였다.

그때 왕실의 옛 시종 나이 폰이라는 사람이 형벌을 받고 갇혀 있는 두 왕자를 찾아뵈었다. 왕자는 그에게 말하였다.

"폰아, 지금 부왕께서는 노하시어, 도성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우리 두 사람을 채찍질하라고 명하셨다. 우리가 그 형벌을 견딜 수 있겠느냐? 그 전에 죽지 않겠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이 폰은 그 말을 듣고 위험에서 벗어날 방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한 가지 방도를 써도 되는지 아뢰었다.

이에 왕자는 경비 관리에게 명하여, 빠른 배를 타고 서둘러 내려가 왓 두싯 곁의 처소에 머물고 있는 왕의 조모 끄롬 프라 테파맛을 모셔 와, 함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왕은 틀림없이 자비를 베풀어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끄롬 프라 테파맛은 큰 은덕을 베푼 분으로, 부왕이 어렸을 때부터 돌보고 길러 주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 부왕은 거역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 밖의 다른 방도를 꾀해서는 형벌을 면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하였다.

두 왕자는 그 말을 듣고 옳다고 여겨 크게 기뻐하였다. 이에 루앙 까셋 락사에게 말하였다.

"빠른 배를 타고 서둘러 내려가, 조모 끄롬 프라 테파맛을 뵙고 모든 사정을 상세히 아뢰어라. 그리고 이렇게 전하여라.

'저희 두 형제는 조모님의 발아래 삼가 문안드립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속히 올라오셔서, 저희 두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두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해 주고 의지할 곳이 되어 줄 분은 조모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루앙 까셋 락사는 명을 받들고 빠른 배를 타고 도성으로 내려갔다. 사흘 만에 도착하여 왓 두싯 곁의 처소에서 끄롬 프라 테파맛을 뵙고, 왕자들이 전한 말을 빠짐없이 아뢰었다.

왕의 조모는 그 말을 듣고 놀라, 시녀들을 불러 어선을 준비하여 신속히 선착장에 대라고 명하였다. 그러고는 곧 어선에 올라, 노를 저어 서둘러 올라가게 하였다.

루앙 까셋 락사는 앞서 길을 안내하였다. 일행은 밤낮으로 서둘러 나아가, 곧 왕이 머무는 선착장에 이르렀다. 왕의 조모는 배에서 내려 행궁에 있는 왕을 찾아갔다.

왕은 자신을 길러 준 어머니인 끄롬 프라 테파맛이 올라온 것을 보고 맞이하였다. 함께 왕좌에 앉도록 청하고, 절을 올린 뒤 물었다.

"어르신께서는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올라오셨습니까?"

끄롬 프라 테파맛이 아뢰었다.

"두 왕자가 죄를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려고 애써 이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왕은 끄롬 프라 테파맛에게 그 일을 들려주었다.

"저 두 놈은 반역을 꾀하였습니다. 처음에 나는 저들을 늪을 가로지르는 길을 닦는 책임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일부러 길에 구덩이를 만들어, 내가 타는 코끼리가 밟아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나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끄롬 프라 테파맛이 아뢰었다.

"이 두 왕자는 예로부터 아버지와 고락을 함께해 온 아들들입니다. 아버지를 해치려고 반역을 꾀할 리가 없습니다."

끄롬 프라 테파맛은 거듭 간청하며 여러 차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왕은 자비를 베풀어 그 청을 받아들였다.

왕은 두 왕자를 끄롬 프라 테파맛에게 맡기며 말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저 두 놈을 데리고 내려가십시오. 나와 함께 이곳에 있게 하지 마십시오. 저들을 이곳에 나와 함께 두면, 틀림없이 다시 반역을 꾀하여 나를 죽일 것입니다."

끄롬 프라 테파맛은 왕의 말을 받들고 물러나, 형벌을 받고 있던 두 왕자를 풀어 주었다. 그러고는 왕에게 작별을 고하고 두 왕자를 어선에 태워, 끄룽텝 마하나콘으로 돌아갔다.

한편 왕은 코끼리를 타고 코끼리를 에워싸는 일을 보러 갔다. 야생 코끼리를 몰아 자신이 머무는 진영 안으로 들여보내게 하였는데 그때 야생 코끼리를 백여 마리나 잡았다. 그런 뒤 왕은 대도성 시 아유타야로 돌아왔다.

두 왕자는 예전과 같이 부왕을 알현하러 왔다. 부왕은 노여움을 거두고 왕자들에게 말씀하였으며, 도성의 정무도 평소처럼 명하여 처리하였다. 이는 앞서와는 달랐다.

그때 짜오프라야 밤르타뜨라는 왕족 출신의 대신이 있었다. 왕은 그를 매우 총애하였다. 그는 나라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지녔으며, 왕은 그를 가까이 두고 온갖 정무를 맡겨 처리하게 하였다.

짜오프라야 밤르타뜨라에게는 네 딸이 있었다. 한 명은 프라옹 랏따나, 한 명은 프라옹 이앙, 한 명은 프라옹 카오, 한 명은 프라옹 플랍이었다.

왕은 프라옹 랏따나를 궁중으로 들여 길러 으뜸 후궁으로 삼았다. 프라옹 이앙은 왕자인 끄롬 프라랏차왕 보원에게 내렸고, 프라옹 카오는 왕자인 프라 반툰 너이에게 내렸다. 막내인 프라옹 플랍은 아직 나이가 어려 머리를 깎는 의례를 치르지 않았다.

으뜸 후궁이 된 프라옹 랏따나는 왕의 깊은 사랑과 은총을 받았다. 그러나 뒤에 프라옹 랏따나는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왕에게 올바르고 정직하게 처신하지 않았다. 그릇된 일을 꾀하여 주술사를 불러 사랑의 주술을 행하게 하였다. 왕이 자신을 사랑하고 홀려, 다른 후궁과 시녀들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일은 비밀이었으나 상급 궁녀들에게 알려졌다. 궁녀들은 그 사실을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프라옹 랏따나를 데려와 심문하게 하고, 사건의 내막을 캐물어 주술을 행한 자도 붙잡아 오게 하였다.

사실임이 밝혀지자 프라옹 랏따나와 주술사,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인 짜오프라야 밤르타뜨라에게 왕명을 내려 모두 죽게 하였다.

그 뒤 내궁의 공주인 왕녀가 중한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왕은 왕실의 으뜸 자녀에게 행하는 예에 따라 왓 차이왓타나람의 왕실 화장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게 하였다. 또한 그 지위에 걸맞게 많은 승려에게 장례 공양물을 바쳤다.

그때 왕은 성정이 거칠고 잔혹하여 선한 행실을 잃었으며, 왕실의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악행을 삼가는 마음도 없었다. 마음은 사악하고 더러운 일로 기울었으며,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생각이 끊임없이 심성에 스며들었다.

왕은 늘 흰 술을 마셨다. 또한 아직 남편이 없는 어린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 일을 즐겼다 어느 여자가 힘써 견디어 내면, 그 여자에게 금은과 여러 종류의 비단을 많이 상으로 내렸다. 어느 여자가 견디지 못하면 노하여 서쪽으로 내려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런 다음 관을 가져다 그 여자의 시신을 넣고, 후궁 거처 뒤편의 왕궁 문을 통해 늘 밖으로 내보냈다. 그 문은 '쁘라뚜 피 옥', 곧 시신을 내보내는 문이라 불렸으며, 그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졌다.

그 뒤 어느 날 왕은 배를 타고 펫차부리로 유람하러 갔다. 왕은 큰 바다의 해안 가까이에 있는 따노뜨루앙의 왕실 거처에서 머물렀다.

그곳은 예전에 왕들이 바다를 유람할 때 머물던 거처로, 솜뎃 프라 나레쑤안 보롬랏차티랏 왕의 치세부터 있던 곳이었다.

왕은 프라티낭 마하나와 타이롯이라는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카오 삼러이욧까지 유람하였다. 낚싯줄을 드리워 상어와 다른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런 뒤 따노뜨루앙의 거처로 돌아왔다.

이처럼 약 보름 동안 유람한 뒤 대도성으로 돌아왔다.

사카라트 1066 년,*(서기 1704 년, 불기 2247 년)* 원숭이해 여섯째 해가 되었다. 왕은 프라티낭 에까차이 왕실 배를 타고 사콘부리의 하구로 낚시 유람을 가려 하였다.

인쇄 577 쪽
왕실 배가 콕캄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운하는 몹시 굽이져 있었다. 왕실 배의 키를 잡고 있던 판타이 노라싱은 제때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였다. 왕실 배의 뱃머리가 큰 나뭇가지에 부딪혀 부러지고 물속으로 떨어졌다.

판타이 노라싱은 이를 보고 놀라 왕실 배에서 뛰어내렸다. 강둑으로 올라가 왕에게 외쳐 아뢰었다.

"폐하, 왕법에 따라 소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바라건대 눈높이 정도의 높이에 사당을 세우게 하시고, 소신의 머리를 베어 물속에 떨어진 왕실 배의 부러진 뱃머리와 함께 이곳 사당에 올려 제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로부터 정해진 왕실 법령에 따라 주시옵소서."

왕은 이에 말씀하였다.

"판타이 노라싱아, 네 죄가 죽음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 죄를 용서하고 너를 벌하지 않겠다. 다시 배에 올라 나와 함께 가거라. 부러진 뱃머리는 새로 이어 붙이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판타이 노라싱이 아뢰었다.
"폐하께서 소신을 벌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니, 그 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왕실 법령에 정해진 관례가 무너집니다. 폐하께서 이처럼 나라의 법령을 버리시는 것은 참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비난하고 업신여길까 두렵습니다.

소신이 이 사형을 당하는 것을 가엾게 여기실 것이 아니라, 왕실의 관례를 아끼시어 그 관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는 편이 더 낫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왕실 법령에는 어느 판타이가 왕실 배의 키를 잡다가 그 배의 뱃머리를 부러뜨리면, 그 자는 사형에 처하여 머리를 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옛 왕실 법령에 따라 소신의 머리를 베어 주시옵소서."

왕은 모든 노잡이에게 명하여 흙을 빚어 판타이 노라싱의 형상을 만들게 하였다. 그런 뒤 그 흙 인형의 머리를 베고 말씀하였다.

"판타이 노라싱아, 네가 죽어야 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네 대신 처형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와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가거라."

판타이 노라싱은 이를 보고 몹시 부끄러워하였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왕실 법령과 관례가 무너질까 두려웠고, 사람들이 자기 임금인 왕을 비난하고 업신여길까 염려하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려 하였다.

이에 다시 아뢰었다.

"이번에 폐하께서 소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신 대신 흙 인형의 머리를 베는 것은 장난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참으로 소신의 머리를 베어 주시옵소서. 왕실 법령에 정해진 관례가 무너지게 하지 마시옵소서. 소신은 왕의 성스러운 권위 아래 삼가 아뢰옵니다"

"그런 뒤 소신은 삼가 절을 올리고, 앞서 아뢴 형벌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겠사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여러 차례 타일렀으나, 판타이 노라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은 판타이 노라싱을 크게 가엾게 여겨 눈물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러나 왕실 법령에 따라 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형 집행인에게 판타이 노라싱을 처형하도록 명하였다. 그런 다음 눈높이 정도의 높이로 사당을 세우고, 판타이 노라싱의 머리와 부러진 왕실 배의 뱃머리를 함께 그 사당 위에 올려 제사하게 하였다.

그 뒤 왕실 배를 띄워 사콘부리의 하구로 낚시 유람을 갔다가 대도성으로 돌아왔다. 콕캄에 있는 그 신령의 사당은 지금까지 전해진다.

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콕캄 운하는 몹시 굽이져 사람들이 배로 드나들기 어렵고, 멀리 돌아가야 하니 참으로 불편하다. 지름길을 파서 곧게 만드는 것이 마땅하겠다.

또한 죽은 판타이 노라싱은 참으로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내가 왕실의 관례를 무너뜨릴까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였다. 나는 그를 몹시 애석하게 여긴다. 예전부터 나를 섬기던 신하였기 때문이다. 판타이 노라싱처럼 임금을 사랑하고 충직하게 섬기는 사람을 찾기는 참으로 어렵다.”

왕은 판타이 노라싱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준비하고 화장하도록 명하였다. 그의 자녀와 아내에게는 금은과 물품을 많이 내렸다.

또한 사무하나욕에게 명하여 지방의 부역민 삼만 명을 징발해 콕캄 운하를 파게 하였다. 운하는 끝까지 곧게 파되, 깊이는 여섯 쏙, 입구의 너비는 여덟 와, 바닥의 너비는 다섯 와로 하게 하였다.

프라 랏차쏭크람을 공사 책임자로 삼아 모든 지방의 인부를 지휘하게 하였다. 운하는 왕이 정한 바에 따라 완공되었다.

그런 뒤 왕은 대신과 신하들에게 말씀하였다.
“사카라트 860 년, 말해 열째 해, 솜뎃 프라 라마티보디 왕의 치세에 쌈롱 운하 한 곳을 팠다.

사카라트 884 년, 용해 넷째 해, 솜뎃 프라 차이랏차티랏 왕의 치세에는 방꼭야이 운하 한 곳을 팠다.

사카라트 900 년, 개해 열째 해, 흰 코끼리의 왕인 솜뎃 프라 마하 차크라팟 왕의 치세에는 왓 철 곁의 방끄루아이에서 왓 물렉 곁으로 이어지는 운하 한 곳을 팠다.

사카라트 970 년(서기 1608 년·불기 2151 년), 원숭이해 열째 해, 솜뎃 프라 차오 쏭탐 왕의 치세에는 왓 까이 띠아 곁, 쌈콕 마을 뒤편에 지름길 운하 한 곳을 파게 하였다 ”

사카라트 998 년, 쥐해 여덟째 해, 솜뎃 프라 차오 쁘라쌋통 왕의 치세에는 논타부리의 운하 한 곳을 팠다. 그곳은 지금 딸랏깨오로 나오는 곳이다.

이번에는 우리가 콕캄 운하를 파서 그 명예가 세상이 다할 때까지 남도록 하겠다.”

짜오프라야 짜끄리는 논타부리, 톤부리, 나콘차이시, 사콘부리, 사뭇쏭크람, 펫차부리, 랏차부리, 사뭇쁘라깐에서 부역민을 징발하였다. 이들 지방에서 모인 인원은 삼만여 명이었다.

그들을 공사 책임자인 프라 랏차쏭크람에게 맡겼다. 프라 랏차쏭크람은 왕에게 절을 올리고 하직한 뒤, 모든 지방의 인부를 이끌고 콕캄 운하를 파러 갔다.

운하를 파서 사콘부리의 강으로 연결할 구간을 측량하니, 길이가 340 센이었다. 두루 살펴 곧은 길을 정한 다음, 작업을 부대와 조별로 나누어 진행하게 하였다.

각 사람에게 배정한 굴착 구간은 길이가 한 큽이었고, 너비와 깊이는 운하의 규격에 따르게 하였다. 이 운하 공사는 사카라트 1067 년 (서기 1705 년·불기 2248 년), 닭해 일곱째 해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상서로운 날의 슈클라빡, 곧 달이 차오르는 보름 동안에 이르자, 왕은 사무하나욕에게 명하여 왕실 행차를 위한 병력과 수행 인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수로와 육로의 행렬을 모두 갖추게 하였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왕실 관례에 따라 프라 풋타밧을 참배하러 가려는 것이었다.

길하고 상서로운 때가 되자 왕은 왕실의 위엄을 드러내는 장신구와 보석으로 된 화려한 치장을 갖추었다. 황금 관과 정교하게 만든 황금 목걸이를 착용하고, 왕실 전쟁 의식에 쓰는 승리의 보검을 지녔다.

왕은 흰 공작 깃털로 장식한 끄라이쏜 무크 피만 왕실 배에 올랐다. 배는 물결이 반짝이는 강물을 가르며 나아갔다. 왕실 차양과 여러 황금 장식 아래로 수많은 깃발이 줄지어 펄럭였다. 긴 깃발의 끝은 늘어져 물에 닿았다.

왕실 배와 대신, 왕족, 궁중 관리들의 배는 차례대로 정렬하였다. 선두와 후미의 왕실 행렬에 맞추어 제비뽑기로 짝을 지어 배치되었다. 군사들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나팔과 소라 나팔, 악기와 승리의 북이 함께 울려 온 땅을 진동하게 하였다. 행렬은 수로를 따라 움직였다.

왕은 프라 나콘루앙의 왕실 거처에 이르러 잠시 쉬며 음식을 들고 마음을 편안히 하였다. 그런 뒤 그곳의 침소에 들었다.

오후 세 시가 되자 왕실 배를 출발시키게 하였다. 왕실 배는 차례대로 나아가, 타 짜오 싸눅의 왕실 거처에 이르렀다.

왕은 팡 싸꼰껫 왕실 가마에 올랐고, 그 뒤에는 팡 보원 빠툼 가마가 따랐다. 용맹한 왕실 군사들이 육로 행렬의 진형에 맞추어 모두 집결하고 정렬하였다.

왕은 용맹한 군사들을 이끌고 육로를 따라 나아가 쑤완나 반폿 산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왕실 가마를 멈추고, 끝에 세 갈래로 갈라진 장식이 있는 갈고리 무기를 왕실 코끼리의 목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 뒤 왕실 관례에 따라 부처님의 발자국에 예배하였다.

의례를 마친 왕은 탄 까쎔의 왕실 거처로 향하여 그곳에 머물렀다. 왕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부처님의 발자국을 참배하였다.

군사들에게 사흘 동안 음악을 연주하여 축하 의식을 올리게 하였다. 밤에는 여러 종류의 불꽃을 터뜨리고, 여덟 개의 큰 불꽃 장치를 마련하여 부처님의 발자국에 성대한 예배를 올렸다.

그런 뒤 왕실 배와 모든 배를 도성으로 돌려보내게 하였다.

왕은 수많은 용맹한 군사들과 함께 예배를 올리고 하직한 뒤, 동쪽으로 나아가 빠쌕강을 건너 빠뜨위 산으로 갔다. 그곳에 올라 부처님의 그림자 자국에 예배하고 사흘 동안 머물렀다.

이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향하여 카오 파놈용에 이르렀다. 왕은 산 정상에 있는 체디에 올라 예배하고, 그곳에서 다시 사흘 동안 머물렀다.

그런 뒤 군사들을 이끌고, 밤에는 머물러 쉬며 유람을 계속하였다.

삼림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삼 일 동안 머물렀다. 왕은 숲에서 야생 코끼리를 몰아 잡는 유람을 하려 하였으나 병을 앓게 되었다. 이에 군사들을 이끌고 도성으로 돌아왔다.

왕의 병은 더욱 심해져 위중해졌다. 높고 낮은 모든 신하가 왕궁 안으로 들어왔다.

한편 운하를 파는 인부들을 지휘하던 프라 랏차쏭크람과 각 조·부대의 책임자들은 공사를 절반쯤 진행하였으나 아직 끝내지 못하였다. 왕이 병을 앓는다는 소식을 듣자 공사를 중단하고 도성으로 돌아왔다. 공사는 그대로 미완성 상태로 남았다.

왕은 쑤리야마린 왕좌의 전각에서 병을 앓고 있었다. 병세가 몹시 위중해져 죽음이 가까워지자, 왕자인 끄롬 프라랏차왕 보원 싸탄 몽콘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 그런 뒤 그 개해 여덟째 해의 음력 6 월에 승하하였다.

왕이 태어난 해는 사카라트 1024 년(서기 1662 년·불기 2205 년)이었다. 처음 즉위하여 대관식을 치르고 왕위를 이었을 때 나이는 서른여섯 살이었으며, 나라를 다스린 기간은 구 년 남짓이었다. 사카라트 1068 년, 개해 여덟째 해의 음력 6 월에 쑤리야 마린 왕좌의 전각에서 승하하였을 때 나이는 마흔다섯 살이었다.

프라 차오 유 후아 타이 싸의 치세

사카라트 1068 년에 두 왕자와 모든 왕족은 향기로운 물로 선왕의 시신을 씻기고, 왕실의 장례 치장을 모두 갖추었다.

그런 뒤 온갖 큰 보석으로 찬란하게 장식한 황금 장례 항아리에 왕의 시신을 모셔 쑤리야마린 왕좌의 전각에 안치하였다.

새 왕은 왕족과 대신, 모든 신하가 모인 대전으로 나왔다. 그들은 왕에게 절을 올리고 왕명을 받들었다.

왕은 왕족과 대신들을 비롯한 모든 신하에게 예로부터 내려오는 왕실 관례에 따라 충성의 맹세를 올리고 성수를 마시도록 명하였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왕은 프라 마하랏차크루, 프라 크루 보리쏫 프롬 프릇타짠에게 대관식과 왕실 거처의 경축 의례를 준비하도록 명하였다. 이어 길하고 상서로운 때가 되자, 대신과 관리, 궁중 신하와 왕족, 모든 승려와 브라만 사제들이 싸라펫 쁘라쌋 전각에 모였다.

그들은 왕실 대관식을 거행하여 왕을 받들어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왕은 왕실 관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왕통을 이어, 대도성 시 아유타야의 영토를 통치하게 되었다.

그런 뒤 위대한 왕에게 바치는 다섯 가지 왕권의 표장과 모든 왕실 기물을 올렸다. 왕은 왕궁 안으로 들어가 연못 뒤편의 반용 랏따나앗 전각에 머물렀다.

왕이 즉위하였을 때 나이는 스물여덟 살이었다. 왕은 아우를 끄롬 프라랏차왕 보원 싸탄 몽콘의 지위에 앉혔다. 또한 예전부터 자신을 섬기며 공을 세운 모든 신하에게, 각자의 신분과 공적에 알맞은 관직과 품계를 빠짐없이 내렸다.

그때 왕은 불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 또한 부왕과 마찬가지로 낚시 유람을 즐겼으며, 따피안 물고기를 즐겨 먹었다.

왕은 모든 사람이 왕에게 따피안 물고기를 하사받는 일을 엄금하는 법령을 세웠다. 어느 누구든 따피안 물고기를 가져다가 먹으면 은화 다섯 땀릉의 벌금을 물게 하였다.

그때 프라옹 짜오 담은 교만한 마음으로 거칠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였다. 왕실의 금지된 구역에 여러 차례 함부로 들어갔으며, 왕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왕은 아우인 끄롬 프라랏차왕 보원과 의논하였다. 두 사람은 프라옹 짜오 담의 죄가 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프라옹 짜오 담을 붙잡아 가두고, 왕족을 처형하는 예에 따라 짠나무 몽둥이로 처형하도록 명하였다. 시신은 왓 콕프라야에 묻었다.

프라옹 짜오 담의 왕비였던 프라옹 짜오 깨오는 과부가 되었다. 그녀는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고, 왕의 조모인 끄롬 프라 텝파맛과 함께 왓 두씻의 거처에서 지냈다.

사카라트 1069 년 (서기 1707 년·불기 2250 년), 돼지해 아홉째 해에 왕은 담당 장인들에게 큰 왕실 화장 건축물을 짓도록 명하였다. 주된 구조의 치수는 두 쏙, 높이는 두 센 열한 와 한 쏙 한 큽으로 하였다.

화장 건축물의 모든 공사는 열 달이 지나서야 완성되었다.

팔군월의 슈클라빡, 곧 달이 차오르는 보름 동안에 이르러 길한 날을 택하자, 왕과 부왕은 선왕의 장례 항아리를 프라 마하 피차이 랏차롯이라는 왕실 장례 수레에 모시게 하였다. 그런 뒤 행렬을 갖추어 왕실 울타리로 둘러싼 길을 따라 나아가, 예전의 관례대로 왕실 화장 건축물 안으로 들어갔다.

인쇄 588 쪽

그곳에서 깐라빠프륵 나무를 마련하여 보시물을 나누어 주고, 공연과 여러 종류의 불꽃놀이를 열었다. 승려 만 명에게 칠 일 동안 장례 공양물을 바친 뒤 화장을 거행하였다.

화장의 불길이 꺼지자 유해를 거두고, 승려 사백 명에게 다시 장례 공양물을 바쳤다. 그런 다음 유골을 작은 장례 항아리에 모셔 왕실 가마에 올리고, 행렬을 이루어 왕궁으로 돌아왔다.

왕의 유골이 담긴 장례 항아리는 왓 프라 시 싸라펫다람의 대불전 뒤편 짜라남에 봉안하였다.

사카라트 1070 년, 쥐해 열째 해에 왕은 유리 장인들에게 프라 풋타밧 몬돕의 벽에 큰 거울을 붙이게 하고, 그 위에 금박을 입히고 채색하게 하였다.

그런 뒤 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육로와 수로를 따라 프라 풋타밧으로 갔다. 왕은 예배와 공양을 올리고 많은 공덕을 쌓았다. 의례를 마친 뒤 부처님의 발자국에 절을 올리고 하직하여 자신의 도성으로 돌아왔다.

사카라트 1073 년, 토끼해 셋째 해에 왓 두씻 가까이에 살던 왕의 조모 끄롬 텝파맛이 세상을 떠났다. 왕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왕실 관례에 따라 여러 장례 절차를 마련하게 하였다.

그 앞선 용해 열째 해에 캄보디아의 통치자 낙 솜뎃, 곧 프라 탐마라차 왕 끄라단은 낙 깨오파 쏟과 다투어 서로 전쟁을 벌였다.

낙 깨오 파 쏫은 베트남으로 가서 몰래 병력을 요청하였다. 많은 베트남 군사를 얻어 돌아온 그는 캄보디아 도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낙 솜뎃과 프라옹 통은 자녀와 아내, 하인들을 데리고 대도성으로 달아나 왕에게 모든 사정을 아뢰었다. 왕은 이를 듣고 낙 솜뎃을 불러 알현하게 하였다. 그런 뒤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먹을 것을 내리고, 왓 캉카오 가까이에 집을 마련해 살게 하였다.

대도성의 왕은 낙 솜뎃이 캄보디아 도성을 되찾도록 하려 하였다. 이에 깔라홈의 관료들에게 명하여 이만여 명의 군사와 적절한 수의 코끼리와 말을 징발하게 하였다.

프라야 짜끄리 롱콩을 육군 총사령관으로 삼아 일만여 명의 정예병을 이끌게 하였다. 코끼리는 삼백여 마리, 말은 사백여 필이었으며, 여러 종류의 무기를 갖추었다.

프라야 피차이 론나릿은 선봉군 지휘관으로, 프라 위칫 론나롱은 군의 요끄라밧으로, 프라 피차이 쏭크람은 측면부대 지휘관으로, 프라 람 캄행은 후위군 지휘관으로 삼았다.

또한 중국계 프라야 꼬싸티보디를 수군 총사령관으로 삼았다. 그는 군사 일만 명과 백여 척의 배를 이끌었으며, 노잡이와 여러 종류의 장비도 갖추었다.

육군과 수군의 편성이 끝나자 캄보디아 도성을 반드시 함락하도록 출정시켰다. 두 군대의 장수와 지휘관들은 왕에게 절을 올리고 하직하였다.

길하고 승리에 유리한 때가 되자 용맹한 군사들은 육군과 수군으로 나뉘어 차례대로 출정하였다. 육군은 씨암랏 방면으로 갔고, 수군은 해안을 따라 풋타이맛 방면으로 갔다.

베트남 수군은 풋타이맛 하구에서 태국군과 마주쳤다. 북을 치고 대포를 쏘며 중국계 프라야 꼬싸티보디의 수군을 공격하였다.

태국 수군은 전투 준비를 마쳤다. 선봉군은 배를 세 곳으로 나누어 대포를 세 차례 발사하고, 고함을 지르며 승리를 기원하였다. 그런 뒤 노잡이들에게 배를 힘껏 몰아 들어가게 하여 베트남 군사들과 맞서 싸웠다.

양측의 배가 맞붙어 서로 힘껏 공격하였고, 많은 베트남 군사가 죽었다. 다른 베트남 군선들이 와서 크게 지원하였다.

총사령관인 중국계 프라야 꼬싸티보디는 전쟁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겁을 먹어 싸움에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고, 군사를 지원하거나 형세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배를 돌려 달아나 군사들을 버렸다.

베트남 군사들은 기회를 잡았다고 보고 태국군을 공격하여 꺾었다. 양측은 격렬하게 싸워 많은 군사가 죽었다.

태국군은 적의 공격이 너무 거세고 힘에 부친다고 판단하였다. 총사령관마저 달아났고 군사들의 손실도 컸으므로, 배를 돌려 퇴각하였다. 태국군은 베트남군에게 많은 군선과 병사, 크고 작은 대포를 빼앗겼다.

한편 짜오프라야 짜끄리 롱콩은 육군을 이끌고 캄보디아 도성에 이르렀다. 도성에서 약 팔십 센 또는 구십 센 떨어진 곳에 본진을 설치하고 머물렀다.

선봉군 지휘관 프라 피차이 론나릿은 삼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먼저 나아가, 여러 곳에서 크메르군과 베트남군을 상대로 싸웠다. 많은 크메르군과 베트남군이 죽었다.

태국군은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여 베트남군을 격파하고 흩어지게 하였다. 군사들에게 서둘러 추격하며 계속 공격하게 하여 크고 작은 여러 고을을 점령하였다.

본진에서는 각 부대의 병력을 신속히 보내 지원하고, 지름길을 따라 진격하도록 하였다. 적을 가로막고 저지하여 두려움에 떨게 하였으므로, 적은 맞서 싸우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

태국군은 싸울 때마다 승리하였다. 많은 사람과 코끼리, 말, 여러 종류의 무기를 얻었다. 크메르군과 베트남군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패하여 달아났다.

태국의 모든 부대는 계속 추격하여 캄보디아 도성에 진을 치고 포위하였다.

짜오프라야 짜끄리는 임무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한 방책을 생각하였다. 이에 서신을 작성하여 사신에게 주고, 낙 깨오 파에게 우호적인 뜻을 전하게 하였다.

낙 깨오 파는 서신의 내용을 알고, 이를 받아들이면 훗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도성에 금은 나무를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

짜오프라야 짜끄리는 이와 같은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자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었다고 보았다. 낙 깨오 파에게 약속대로 금은 나무를 바치도록 명한 뒤 군대를 거두어 대도성으로 돌아왔다.

왕은 이 일을 듣고 기뻐하였다. 짜오프라야 짜끄리와 여러 장수·지휘관에게 각자의 공에 알맞은 상을 많이 내렸다.

그러나 프라야 꼬싸에게는 노하여, 크고 작은 대포와 화약, 탄환, 군선의 손실을 모두 배상하게 하였다.

시 아유타야의 왕에게는 으뜸 왕비인 끄롬 루앙 랏차누락과의 사이에서 다섯 자녀가 있었다. 한 명은 짜오파 나렌톤, 한 명은 공주 짜오파 텝, 한 명은 공주 짜오파 빠툼, 한

명은 짜오파 아파이, 한 명은 짜오파 보라멧이었다. 그들의 어머니는 짜오타오라 불렸으며, 끄롬 루앙 랏차누락의 지위를 지녔다.

소해 첫째 해에 왕은 장인들에게 왓 마헤용을 보수하도록 명하였다. 왕은 자주 그곳에 가서 장인들의 작업을 살폈다. 때로는 왓 마헤용 곁의 왕실 거처에 한 달 또는 두 달씩 머물며 그곳에서 정무를 처리하였다.

삼 년 남짓이 지나서야 사찰의 보수 공사가 모두 끝났다.

왕의 아우인 끄롬 프라랏차왕 보원 싸탄 몽콘은 토끼해 셋째 해에 장인들에게 큰 왓 꾸디다오를 보수하도록 명하였다. 그는 형인 왕과 마찬가지로 그곳에 한 달 또는 두 달씩 머물며 사찰의 공사를 살폈다.

삼 년 남짓이 지나서야 그 사찰의 보수도 모두 끝났다.

왕은 여러 종류의 물고기와 크고 작은 물고기를 많이 죽이는 일을 즐겼다. 낚싯줄을 드리우고, 그물을 던지고, 작살을 꽂았으며, 둑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고 통발과 어망을 놓아 여러 동물을 죽였다.

또한 사냥 유람을 즐겨 덫과 올가미를 놓고, 코끼리를 몰아 포위하여 야생 코끼리를 많이 잡았다. 이처럼 여러 날을 보낸 뒤 대도성으로 돌아왔다.

뱀해 다섯째 해에 왕은 왓 마헤용의 보수 완공을 기념하는 의식을 열게 하였다. 왕은 깊은 신심으로 많은 공덕을 쌓았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왕실 관례에 따라 승려 천 명에게 여러 필수품과 보시물을 바쳤다.

칠 일 동안 축하 공연을 열어 사찰의 경축 의식을 모두 마쳤다.

말해 여섯째 해에 왕은 목수들에게 세 면으로 된 큰 배를 만들도록 명하였다. 길이는 열여덟 와 두 쏙, 입구의 너비는 여섯 와 두 쏙이었다. 그 큰 배를 왓 마헤용에서 건조하게 하였다.

다섯 달이 지나 배가 완성되자 머릿으로 보내게 하였다. 배에는 코끼리 삼십여 마리를 싣고, 저 멀리 외국에 가서 팔게 하였다.

사람들은 배에 올라 돛을 펼쳐 외국에 이르렀고, 코끼리를 팔아 많은 돈과 천을 얻었다. 그런 뒤 머릿으로 돌아오기까지 일 년 남짓이 걸렸다.

양해 일곱째 해에 마하 우빠랏은 왓 꾸디다오의 보수 완공을 기념하는 의식을 열게 하였다. 많은 보시와 예배를 올려 삼보에 공양하며 공덕을 쌓았다. 칠 일 동안 축하 공연을 열어 경축 의식을 모두 마쳤다.

그해 왕의 조모인 끄롬 루앙 요라텝이 왓 풋타이싸완 곁의 거처에서 세상을 떠났다.

왕은 목수들에게 화장 건축물을 만들도록 명하였다. 들보의 길이는 다섯 와 두 쏙, 높이는 열 와 두 쏙으로 하였다. 중앙의 화장 건축물은 금으로 꾸몄다.

모든 공사는 여섯 달 남짓이 지나서야 끝났다. 왕실 관례에 따라 황금 장례 항아리를 장례 수레에 올리고 많은 장식과 행렬을 갖추어 황금 화장 건축물로 옮겼다. 예배와 보시를 올리고 칠 일 동안 경축 의식을 거행하여 장례를 모두 마쳤다.

사카라트 1083 년 (서기 1721 년·불기 2264 년), 소해 셋째 해에 대도성의 왕은 타찐 하구로 낚시 유람을 갔다. 마하차이 운하에 이르러 보니 운하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낚시를 마치고 도성으로 돌아온 왕은 프라 랏차쏭크람을 공사 책임자로 삼고, 남부 여덟 고을에서 삼만여 명 또는 사만 명의 인부를 징발하여 마하차이 운하를 파도록 명하였다.

프라 랏차쏭크람은 인부를 징발하고 편성하여 삼만여 명을 모은 뒤, 왕에게 절을 올리고 하직하였다.

마하차이 운하에 이르자 서양식 망원경으로 운하 입구를 똑바로 살펴 측량하고, 말뚝을 박아 표시하였다. 그 구간의 길이는 340 센이었다.

앞서 파 놓은 구간은 육 센 남짓이었으며, 아직 끝내지 못한 구간은 340 센에 이르렀다. 운하는 예전과 같이 깊이 여섯 쏙, 너비 여덟 와로 파도록 하였다.

삼만여 명에게 작업 구간을 나누어 맡겼다. 두 달 남짓 동안 파서 공사를 마쳤다. 프라 랏차쏭크람은 돌아와 왕을 알현하고 모든 사정을 아뢰었다.

왕은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프라 랏차쏭크람을 프라야 랏차쏭크람으로 승진시키고, 금으로 된 장신구와 의복, 돈을 많이 내렸다. 그 운하는 지금까지 마하차이 운하라는 이름으로 전해진다.

호랑이해 넷째 해에 왕은 프라 톤부리를 공사 책임자로 삼아 남부 고을에서 일만여 명을 징발하도록 명하였다. 방부아통 운하 입구를 가로지르는 끄렛너이 운하는 몹시 굽이져 있었으므로, 지름길을 파서 곧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프라 톤부리는 왕명을 받고 절을 올린 뒤 하직하였다. 남부 여러 고을에서 일만여 명을 징발하여 끄렛너이 운하를 팠다. 깊이는 여섯 쏙, 너비는 여섯 와, 길이는 서른아홉 센이었다.

한 달 남짓이 지나 공사를 마쳤다. 프라 톤부리는 돌아와 왕에게 모든 사정을 아뢰었다.

토끼해 다섯째 해에 두 왕은 동쪽 나콘나욕의 숲으로 코끼리를 몰아 잡는 유람을 떠났다 그날 밤은 달이 밝았다. 왕이 야생 코끼리를 몰아 잡으러 나갔을 때 달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아우가 탄 코끼리가 달려가 왕이 탄 코끼리를 따라잡았다. 아우가 갈고리로 제때 붙잡지 못하자, 그의 코끼리가 왕의 코끼리 뒤쪽을 들이받고 찔렀다. 뒤에 타고 있던 조련사는 코끼리에서 튕겨 나와 떨어졌다.

왕의 코끼리는 심하게 다쳐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달려갔다. 왕은 그 코끼리를 몰아 승리의 임시 거처로 돌아왔다.

마하 우빠랏은 일부러 자신의 코끼리가 왕의 코끼리를 찌르게 한 것이 아니었다. 코끼리를 제때 갈고리로 붙잡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는 왕의 형벌이 두려워 놀라고 겁을 먹었다.

그는 승리의 임시 거처로 따라가 왕을 알현하고 아뢰었다.

“폐하, 소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사옵니다. 달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나무 그늘 아래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코끼리를 제때 갈고리로 붙잡지 못하였사옵니다. 바라건대 소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의심하지 않았으며, 아우에게 노하거나 불쾌해하지 않았다. 다친 코끼리를 치료하도록 의원에게 명한 뒤 도성으로 돌아왔다.

그 토끼해 음력 4 월, 달이 차오르는 보름 동안에 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프라 풋타밧으로 가서 공덕을 쌓았다. 수로를 따라 예전의 관례대로 왕실 행렬을 갖추어 나아갔다.

프라 풋타밧에 이르러 탄 까쎔에 머물며, 아우와 함께 부처님의 발자국에 올라 참배하고 예배하였다. 아우는 왕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바라건대 목숨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소신이 코끼리를 타고 폐하를 따라갔을 때, 소신의 코끼리가 폐하의 코끼리를 찔렀사옵니다. 그러나 소신이 일부러 그러하도록 한 것은 결코 아니옵니다. 이는 참된 사실이옵니다.

지금 이 프라 풋타밧 성소에서 폐하께 진실한 맹세를 올리고자 하옵니다.”

형인 왕은 말씀하였다.
“아우야, 나는 너를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맹세하지 말아라. 오히려 네게 화가 될 것이다.”

말씀을 마친 왕은 부처님의 발자국에 예배하고 많은 보시를 베풀어 공덕을 쌓았다. 칠일 동안 축하 공연을 열어 부처님의 발자국에 공양하였다. 의례를 마친 뒤 예배를 올리고 하직하여 대도성으로 돌아왔다.

사카라트 1087 년, 뱀해 일곱째 해에 왓 빠목의 주지가 프라야 랏차쏭크람에게 와서 알렸다.

"왓 빠목의 와불이 모셔진 곳은 강물이 둑을 깎아 무너뜨려, 침식이 이미 불전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해쯤 더 지나면 와불이 무너져 물속으로 떨어질 듯합니다."

프라야 랏차쏭크람은 이 말을 듣고 왕을 알현하여 와불의 사정을 모두 아뢰었다.

왕은 대신들을 비롯한 모든 신하와 의논하였다.

"와불을 해체하여 다른 곳에 새로 만드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온전한 채로 알맞은 곳에 옮겨 모시는 것이 좋겠는가?"

프라야 랏차쏭크람이 아뢰었다.
"소신이 먼저 나가 살펴보겠사옵니다."

그는 왕에게 절을 올리고 하직한 뒤 현장을 살펴보았다. 와불을 옮길 수 있을 듯하다고 판단하여 돌아와 아뢰었다.

"소신이 와불을 온전한 채로 적절한 새 장소까지 옮기는 일을 맡고자 하옵니다."
마하 우빠랏도 그곳에서 왕을 알현하고 있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찬성하지 않았다.

"그 와불은 너무 큽니다. 옮길 수 없을 듯하며, 부서지거나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이는 큰일이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런 손상이 없다면 좋겠지만, 만일 부서지고 무너지면 백성과 대신, 신하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왕의 명예가 손상되고 그 소문이 여러 나라에 널리 퍼질 것입니다.

차라리 해체하고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새로 만드는 편이 쉬울 듯합니다."
프라야 랏차쏭크람이 다시 아뢰었다.

"소신이 와불을 옮기는 일을 맡아,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알맞은 새 장소까지 온전하게 옮기겠사옵니다. 만일 손상이 생긴다면 소신의 목숨을 바치겠사옵니다."

왕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이에 고위 승려들을 청하여 모이게 하고 말씀하였다.

"존자들이여, 우리가 와불을 해체하여 알맞은 곳에 새로 만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아니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팔리 경전에는 이에 관하여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고위 승려가 대답하였다.

"불상이 부서지거나 무너지는 등 변형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라면 그러한 불상을 해체하여 새로 만드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프라야 랏차쏭크람에게 와불을 옮길 방책을 마련하여 실행하도록 명하였다.

사카라트 1088 년*서기 1726 년·불기 2269 년*, 말해 여덟째 해에 왕은 왓 빠목으로 가서 불전을 해체하도록 명하였다. 또한 왓 치빠카오 가까이에 승리의 임시 왕실 거처를 세우게 하였다.

왕은 아우와 함께 그곳에서 닷새 또는 칠 일씩 머물렀다. 두 사람은 오가며 사흘 또는 나흘 동안 작업하게 한 뒤 도성으로 돌아왔다.

프라야 랏차쏭크람은 관리들을 동원하여 길이 열네 와 또는 열다섯 와, 굵기 한 쏙 한 큽인 목재와, 길이 네댓 와에 굵기 한 쏙인 목재를 많이 베어 오게 하였다. 이를 운반용 썰매와 당김 장치로 만들고, 한 변의 치수가 한 쏙과 한 큽이 되도록 각재를 많이 켜게 하였다.

길이 세 와 또는 세 와 반의 목재 기둥은 둥글게 깎아 굴림목으로 만들었다. 두께 두 니우의 널빤지는 썰매를 끌고 갈 길에 깔도록 하였다.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다짐 도구로 두드려 고르게 하였다. 크고 작은 밧줄도 많이 꼬게 하였다.

그런 뒤 불상의 받침대를 파내어 너비 한 쏙, 깊이 한 쏙, 높이 한 큽의 구멍을 만들었다. 구멍 사이에는 엇갈리게 남겨 둔 부분을 두었다.

양쪽에서 썰매를 밀어 넣고, 당김 장치가 있는 쪽으로 가로 목재를 끼웠다. 두께 한 큽의 널빤지를 구멍마다 썰매 위에 통과시켜 넣었다.

이어 구멍 사이에 남아 있는 벽돌을 파내어 엇갈리게 남겨 두었던 부분을 제거하고, 두꺼운 널빤지를 모든 구멍에 빈틈없이 넣었다.

밧줄로 묶고 동여매며 양쪽에서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은 다섯 달 만에 모두 끝났다.

길하고 승리에 유리한 때가 되자, 와불을 실은 썰매를 끌어 새 불전을 세울 장소로 옮겼다. 작업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왕은 불전과 설법당, 우보솟, 체디, 승려의 거처, 정자, 담장과 경전 보관소를 짓게 하였다. 또한 회랑과 지붕을 기와로 덮은 왕실 거처 다섯 동, 측간, 다리와 계단도 만들게 하였다.

오 년 남짓이 지나서야 모두 완성되었으나, 아직 완공을 기념하는 의식은 열지 못하였다.

왕은 병세가 위중해지자 왕위를 짜오파 아파이에게 넘겨주었다. 당시 왕의 아우는 출가한 상태였고, 짜오파 나렌톤도 출가해 있었다.

마하 우빠랏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짜오파 아파이에게 왕위를 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짜오파 나렌톤에게 왕위를 준다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다.

짜오파 나렌톤은 끄롬 쿤 쑤렌타라 피탁의 지위를 가진 비구였다. 그는 왕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승려 생활을 그만두지 않았다.

한편 짜오파 아파이는 부왕이 허락하자 왕위를 받아들였다. 그는 마하 우빠랏과 전쟁을 벌이려 하였다.

이에 왕궁의 관리들에게 사람들을 편성하고 동원하여 진영을 세우고, 쁘라뚜 카오쁠르악 운하를 따라 여러 초소를 줄지어 배치하도록 명하였다 그 배치는 쁘라뚜찐까지 이어졌다. 또한 쿤 시 콩욧에게 쁘라뚜 카오쁠르악 운하 서쪽, 싸판창 다리 곁에 진을 치고 그곳을 지키도록 하였다

마하 우빠랏은 이 모든 사정을 알고 관리들에게 운하 동쪽에 진을 치고 지키도록 명하였다.

마하 우빠랏의 왕자가 진영을 살피러 나왔다가 쿤 시 콩욧의 진영 앞에 이르러 물었다.

“이 진영은 누구의 진영인가?”
“쿤 시 콩욧의 진영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자는 노하였다. 쿤 람에게 명하여 사람들을 거느리고 강가의 집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총을 쏘게 하였다. 쿤 시 콩욧은 총에 맞아 죽었다.

쿤 람은 돌아와 왕자에게 아뢰었다. 왕자가 먼저 총을 쏘게 한 까닭을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먼저 승리를 거두어 두고자 하였사옵니다.”

프라 차오 유 후아 보롬마꼿의 치세

사카라트 1094 년 *서기 1732 년·불기 2275 년*, 쥐해 넷째 해에 왕의 병세가 위중해졌다. 그는 음력 2 월, 달이 기우는 보름 동안에 자신의 업에 따라 세상을 떠났다.

시 아유타야의 왕은 양해에 태어났다. 열여덟 살에 왕위를 이었으며, 재위 기간은 이십오 년 남짓이었다.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이는 쉰네 살 남짓이었다.

"자비를 지녀 생명을 죽이지 않는 자는 오래 살고, 자비 없이 생명을 죽이는 자는 수명이 짧다."

인쇄 602 쪽

두 왕은 군사들에게 여러 날 동안 계속 싸우게 하였다.

어느 날 짜오파 아파이는 피차눌록의 부지사인 루앙 차이분에게 명하여, 백여 명의 군사와 여러 무기를 이끌게 하였다. 그는 쿤 경유를 돌아 우회한 뒤 왕나를 공격하도록 병력을 준비하여 보냈다.

왕나의 군사들은 이 소식을 알고 이백여 명을 거느리고 나왔다. 양측 군사들은 맞붙어 공격하고 저항하며, 총을 쏘고 무기로 찌르며 격렬하게 싸웠다.

왕나의 군사들은 유리한 형세를 잡아 돌격하였다. 왕궁 군사들을 포위하고 추격하며 많은 사람을 죽였다. 왕궁 군사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흩어져 달아났으며, 지휘관마저 버렸다.

왕나의 군사들은 함께 루앙 차이분을 포위하여 붙잡고, 그를 마하 우빠랏에게 데려갔다. 마하 우빠랏은 루앙 차이분을 다섯 차례 채찍질하게 하였다. 심문하여 모든 사정을 알아낸 뒤 가두게 하였다.

어느 날 왕나의 군사 약 오백 명이 빠키아오 길을 따라 감옥에 이르렀다. 그들은 감옥을 부수고 들어가 약 칠백 명의 죄수를 풀어 주어, 모두 감옥에서 나오게 하였다.

그때 프라 톤부리는 짜오파 아파이를 위해 싸우겠다고 자청하였다. 오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싸판창 운하를 건너 왕나의 진영을 공격하였다. 두세 곳의 진영을 무너뜨리며 격렬하게 싸웠다.

마하 우빠랏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 달아날 생각을 하였다. 그는 모든 관리와 의논하며 말씀하였다.

"우리 군사들은 적보다 약하여 진영을 지킬 수 없다. 적을 막아 내지 못할 듯하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쿤 참난이 아뢰었다.

“폐하,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직 달아나지 마시옵소서. 소신이 목숨을 바쳐 폐하보다 먼저 죽겠사옵니다.

지금 소신이 절을 올리고 하직한 뒤 나가 적과 싸우겠사옵니다. 빠른 말을 탄 사자를 보내 소신과 적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신이 전장에서 죽는 것을 보거든, 그 사자가 신속히 돌아와 폐하께 아뢰도록 하시옵소서. 소신이 죽었음을 아신 뒤에 달아나시옵소서. 소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먼저 달아나지 마시옵소서.”

말을 마친 그는 절을 올리고 하직한 뒤 나왔다. 삼백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프라 톤부리의 군대에 이르러, 군사들을 몰아 공격하였다. 돌격하며 베고 찌르고 맞서 싸우며 승리를 위한 고함을 질렀다.

큰 장수 쿤 참난은 멈추거나 물러서지 않고 적을 공격하였다. 방어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돌진하여 적을 베어 쓰러뜨렸다.

프라 톤부리의 군사들은 패하여 흩어지고 달아났다. 프라 톤부리는 달아나지 않고, 새 무장을 갖추고 큰 창을 쥐어 맞서 싸웠다.

큰 장수 쿤 참난은 돌진하여 프라 톤부리에게 칼을 휘둘렀다. 프라 톤부리는 창으로 찌르며 맞서 격렬하게 싸웠다.

쿤 참난은 두 손으로 칼을 단단히 쥐고 달려들어, 프라 톤부리를 힘껏 내리쳤다. 그의 목이 베어졌고, 그는 말 위에서 전사하였다.

부지런한 쿤 참난은 그 머리를 베어 가져와 바쳤다.

군사들은 왕궁의 병사들을 추격하여 공격하였다. 전투에서 붙잡힌 자도 있었고 죽은 자도 있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마하 우빠랏은 프라 톤부리의 머리를 보고 몹시 기뻐하였다. 왕궁을 공격하려고 많은 군사를 편성하도록 명하였다.

한편 두 왕자인 짜오파 아파이와 짜오파 보라멧쑤안은 군사들이 여러 차례 패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많은 왕실 재물을 거두어 같은 왕실 배에 싣고 빠목 방면으로 달아났다.

노잡이들은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아 도중에 물속으로 뛰어들어 달아났다. 두 왕자는 반렌에 이르러 배에서 내려 육로로 달아났다. 날이 밝아 올 무렵 반 엑까랏 가까운 갈대숲과 울창한 숲속에 숨어 머물렀다.

시종 나이 두앙 한 사람만 왕자들을 따라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 두 왕자를 먹여 살렸다. 닷새 또는 칠 일 동안 머무는 사이, 나이 두앙은 자신의 집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어느 날 왕자는 반지 하나를 나이 두앙에게 주어 마을에서 쌀을 사 오게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왕자의 반지임을 알아보고, 그들의 행방이 드러날까 두려워 관리들에게 알렸다.

관리들은 그날 밤 쿤 참난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나이 두앙을 붙잡게 하였다. 쿤 참난은 왕에게 아뢰어 그날 밤 모든 사정을 알렸다. 그런 뒤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배에 올라, 나이 두앙의 안내를 받아 반 엑까랏에 이르렀다. 모든 마을 사람을 동원하여 두 왕자가 숨어 있는 갈대숲을 단단히 포위하게 하였다.

큰 장수 쿤 참난은 뜻을 같이하는 군사 일곱 명과 함께 무장을 갖추었다. 부적과 구슬 장식을 몸에 지니고 양손에 칼을 들었다. 나이 두앙에게 길을 가리키게 하여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두 왕자는 흙을 빚어 장기 말을 만들고 서로 놀이를 하고 있었다. 쿤 참난은 가까이 다가가 앉았다. 왕실 칼 두 자루가 보였으므로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짜오파 아파이는 양손에 칼을 든 쿤 참난과 무장을 갖춘 일곱 명의 병사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는 짜오파 보라멧에게 말했다.

“프라야 맞쭈랏이 우리에게 왔구나.”
쿤 참난이 소리쳐 아뢰었다.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소신과 함께 가시옵소서. 목숨을 보전하실 수 있도록 돕겠사옵니다. 먼저 두 칼을 소신에게 주시옵소서.”

두 왕자는 쿤 참난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정신을 잃었구나”라고 말하며 두 자루의 칼을 쿤 참난에게 넘겼다.

쿤 참난은 여러 부드러운 말로 두 왕자를 달래어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그런 뒤 두 왕자를 숲에서 데리고 나와 배에 태웠다. 배에 있던 군사들은 주위를 에워싸고 함께 돌아왔다.

도성에 이르자 쿤 참난, 곧 참난 론나롱은 두 왕자를 마하 우빠랏에게 데려가 바쳤다.

마하 우빠랏은 모든 사정을 알고 두 왕자를 이삼 일 동안 가두도록 명하였다. 심문하여 사실을 밝혀낸 뒤, 예로부터 내려오는 왕실 관례에 따라 짠나무 몽둥이로 두 왕자를 처형하게 하였다.

두 왕자와 함께 갔던 그들의 누나 프라옹 깨오는, 노잡이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달아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져 돌아갈 생각을 하였다.

배에서 왕실 장신구를 가져와 뒤따라가려 하였으나, 두 왕자는 이미 앞서 떠났다. 그녀가 서둘러 뒤쫓으려 할 때는 서로 멀리 떨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에 되돌아 도성으로 달아나왔다.

그녀는 왕실 장신구를 마하 우빠랏에게 바치고, 여러 꾀를 부려 아뢰었다.

마하 우빠랏은 모든 사정을 알고 프라옹 깨오를 가두도록 명하였다. 그런 뒤 쿤 참난과 함께 비밀스러운 방책을 마련하였다.

두 왕자가 나이 두앙에게 주어 쌀을 사 오게 했던 반지를 찾아오게 하고, 한밤중에 프라옹 깨오의 집 곁에 있는 양나무 옆에 몰래 묻게 하였다.

그런 다음 믿을 만한 점쟁이 여인을 불렀다. 쿤 참난은 그 여인에게 비밀을 귓속말로 알려 주었다.

여인에게 신이 내린 것처럼 점을 치게 하여, 잃어버린 반지가 물속이나 땅 위 어디에 있으며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말하도록 하였다. 그 여인은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으나, 짐짓 신령이 내려와 몸에 깃든 것처럼 꾸미고, 머리를 쳐들어 주문을 읊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반지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다만 다른 사람이 큰 나무 아래에 가져다 숨겨 놓았다고 하였다.

묻는 사람이 그곳으로 안내할 수 있느냐고 하자, 안내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런 뒤 관리들을 데리고 양나무 옆으로 가서 땅을 파 반지를 찾아냈다.

관리들은 그 반지를 가져다가 바쳤다. 왕은 재판관들에게 프라옹 깨오의 죄를 심리하고 판결하도록 명하였다.

재판관들은 반지가 프라옹 깨오의 집에 있었다고 보고, 그녀가 반역을 저질렀으며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를 왕에게 아뢰자, 왕은 프라옹 깨오를 처형하도록 명하였다.

두 왕자와 함께 갔던 시종 나이 두앙에 대해서는 왕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 두앙은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은혜를 아는 자이다. 죽이지 말고 길러 앞으로도 관리로 일하게 하라.”

나이 쎔 프라야 피차이랏차와 나이 푼 프라야 욤마랏, 이 두 사람은 왕자들이 달아나자 함께 도망하여 쑤판부리 지역에서 비구가 되었다.

관리들은 뒤쫓아가 두 비구를 붙잡아 왔다. 그들을 왓 팡에 가두어 지키게 하였다.

나이 쌍 랏차반반은 반춤 지역의 사찰로 달아나 출가하였다. 관리들이 뒤쫓아가 붙잡아 온 뒤 승복을 벗기고, 처형장에서 머리를 베었다.

마하 우빠랏은 크메르인과 참족 사람들을 보내 왓 팡에 있던 두 비구를 찔러 죽이게 하였다 그들은 한밤중에 죽었다.

코끼리 담당 관청의 믄 랏차씻티깜은 흰옷의 수행자 짠펫의 아들이었다. 전투 중 그는 코끼리 우리 건물 위로 대포를 올려 왕나를 향해 쏘았고, 그 탄환은 쑤라씽 전각을 맞혀 파손하였다.

마하 우빠랏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노하였다. 믄 랏차씻티깜을 붙잡아 오게 하여 쉰 차례 채찍질하고 심문하였다. 그가 짠펫의 아들임이 밝혀지자, 짠펫을 불러오게 하였다.

왕은 예전부터 짠펫을 알고 있었다. 이에 물었다.

“그대의 아들 믄 랏차씻티깜이 이와 같은 일을 하였으니, 그 죄는 어떻게 되겠는가?”

짠펫이 아뢰었다.

“소신의 아들이 이처럼 반역을 저질렀으니, 법전에 따라 일곱 대의 혈족까지 사형에 해당하옵니다. 마땅한 처분은 폐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왕은 이 말을 듣고 칭찬하였다.

“짠펫은 정직한 어른으로서 사실대로 말하는구나. 그대는 믄 랏차씻티깜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지 않겠는가?”

짠펫이 아뢰었다.

“그릇된 생각으로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소신이 감히 용서를 청하지 않겠사옵니다. 마땅한 처분은 폐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왕은 말씀하였다.

“그렇다. 짠펫은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 옳으니 나도 동의한다. 짠펫을 생각하여 믄 랏차씻티깜의 목숨을 살려 주겠다.

그러나 그의 죄가 크니, 형벌을 모두 갚을 때까지 믄 랏차씻티깜을 일하게 하라.”
짠펫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절을 올리고 하직하였다.

사카라트 1095 년 *서기 1733 년·불기 2276 년*, 소해 다섯째 해의 음력 5 월에 대신들을 비롯한 모든 관리와 고위 승려들이 모였다.

길하고 승리에 유리한 날을 택하여, 마하 우빠랏 끄롬 프라랏차왕 보원 싸탄 몽콘이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을 왕나의 위만 랏따나 마하 쁘라쌋 전각에서 거행하였다.

모든 관리가 성수를 마시고 충성의 맹세를 올린 뒤, 예로부터 내려오는 왕실 관례에 따라 왕에게 절을 올렸다.

시 아유타야의 왕은 쿤 참난 찬나롱을 짜오프라야 참난 보리락으로 삼아 꼬싸티보디의 직무를 맡게 하였다. 루앙 짬 쌘냐꼰은 짜오프라야 짜끄리로 삼았다. 앞서 짜끄리의 직위를 지녔던 프라야 랏차쏭크람은 프라야 랏차나욕으로 삼아 깔라홈의 직무를 맡게 하였다.

예전부터 왕을 섬기며 공을 세운 모든 신하는 공의 크고 작음과 각자의 지위에 따라 짜오프라야, 프라야, 프라, 루앙, 쿤, 믄, 판, 타나이 등의 관직과 품계를 받았다. 또한 차례대로 돈과 의복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상으로 내렸다.

큰 왕비에게는 끄롬 루앙 아파이누칫의 지위를 내리고, 작은 왕비에게는 끄롬 루앙 피핏몬뜨리의 지위를 내렸다.

두 왕비는 롭부리의 루앙 쏭밧의 딸이었다. 이는 프라 나라이 왕 때부터 이어지는 가문이었다. 두 왕비의 어머니는 펫차부리 출신의 브라만 가문에 속하였다.

왕은 맏왕자 짜오파 탐마티벳에게 끄롬 쿤 쎄나 피탁의 지위를 내렸다. 작은 왕비의 아들 짜오파 에까탓에게는 끄롬 쿤 아누락몬뜨리의 지위를 내렸다.

프라옹 짜오 캑에게는 끄롬 믄 텝피핏, 프라옹 짜오 망쿳에게는 끄롬 믄 칫쑨톤, 프라옹 짜오 롯에게는 끄롬 믄 쑨톤텝, 프라옹 짜오 빤에게는 끄롬 믄 쎕파끄디의 지위를 내렸다.

그 뒤에 두 사람을 더 임명하였다. 왕의 조카 짜오파 나렌에게는 끄롬 쿤 쑤렌타라 피탁의 지위를, 왕자인 짜오파 독마드아에게는 끄롬 쿤 폰피닛의 지위를 내렸다.

왕은 형인 선왕에게 슬픔과 원한을 품고 있었다. 선왕의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물에 던져 버리겠다고 말씀하였다.

깔라홈의 직무를 맡은 프라야 랏차나욕이 여러 차례 간청하여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이에 왕은 작은 화장 건축물을 세우도록 명하였다. 들보의 길이는 다섯 와 두 쏙이었다. 선왕의 시신을 옮겨 왕실 관례에 따라 화장하였다.

이 왕은 심성과 행동이 부왕 및 형인 선왕과 달랐다. 그는 늘 살생을 삼가고 선하고 올바른 행실을 닦았다.

승려와 브라만, 백성들은 즐겁고 평안하게 지냈다. 왕은 신심으로 승려와 브라만에게 온갖 음식과 물품을 빠짐없이 보시하였다.

때로는 방빠인과 프라 나콘루앙의 왕실 거처를 둘러보러 갔다. 때로는 큰 왕실 배에 올라 돛을 펼치고 프라 쁘라땡 하구를 지나 바다와 물고기를 구경하였다.

벼를 타작하는 철에는 왕실 논인 퉁 한뜨라로 갔다. 벼를 수레에 싣고 왕자와 공주, 모든 궁녀에게 수레를 끌어 왕궁 안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그런 뒤 볏짚으로 큰 공양 용기를 만들어, 왕실 사찰에 머무는 고위 승려들에게 바쳤다. 해마다 거르지 않았다.

왕은 물소 달리기, 배 경주, 코끼리 싸움 등 여러 놀이를 싫증 내지 않고 즐겼으며, 늘 즐거운 놀이와 겨루기를 벌였다.

음력 6 월 초승 무렵에 왕실 끙 배를 타고 행렬을 갖추어 왓 빠목의 운하로 갔다. 치빠카오의 왕실 거처에서 머물며 승려 삼백 명에게 보시하였다. 그런 뒤 퉁 낭라에서 사흘 동안 공연을 열게 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코끼리 싸움을 열었다. 저녁 무렵 거센 폭풍이 불어오자 왕은 도성으로 돌아왔다.

호랑이해 여섯째 해의 음력 9 월, 달이 차오르는 보름 동안에 왕은 끄롬 믄 인타라파끄디와 짜오프라야 깔라홈에게 롭부리로 가서 코끼리를 몰아 포위하도록 명하였다.

음력 10 월에 왕도 롭부리로 갔다. 부대 지휘관들에게 명하여 동물들을 몰아 짜뚜밧 지역에서부터, 옛 포위장 동쪽의 타레춥쏜 진영으로 오게 하였다. 이는 프라 나라이 왕 때부터 있던 곳이었다.

왕은 높은 망루에 올랐다. 사수들은 총을 쏘고 북과 징을 울려 동물들을 몰아넣었다 가우르와 야생 물소, 사슴류를 비롯한 많은 숲속 동물이 놀라 흩어져 달려 나왔다.

야생 코끼리 떼도 달아났으나, 길들인 코끼리들이 둘러싸서 코끼리 포위장으로 몰아넣었다.

왕은 두 차례만 포획하도록 하여 코끼리 백팔십 마리를 얻었다. 약 삼백 마리가 남았으므로 포위장을 열어 모두 놓아주도록 명하였다.

음력 10 월 그믐 무렵, 대도성을 맡아 지키던 관리가 올라와 아뢰었다.

"중국인 약 삼백 명이 서로 공모하여 밤에 왕궁을 습격하였습니다. 소신들이 함께 공격하자 중국인들은 패하여 달아났습니다."

음력 11 월에 왕은 도성으로 돌아왔다. 사건을 조사하여 반란을 일으킨 중국인 이백여 명을 붙잡았다. 그중 주모자 사십 명은 처형하도록 명하였다.

또한 깔라홈에게 싸라펫 쁘라쌋 전각이 크게 낡고 파손되었으니, 해체하여 새로 짓도록 명하였다.

토끼해 일곱째 해의 음력 7 월에 왕이 병을 앓았다.
끄롬 쿤 쑤렌타라 피탁은 왓 콕쌩으로 와서 머물며 왕을 자주 문병하였다.

어느 날 저녁, 왕자인 끄롬 쿤 쎄나 피탁은 자신의 아들 프라옹 친과 프라옹 텟에게 명하여, 끄롬 쿤 쑤렌타라 피탁에게 나가 다음과 같이 전하게 하였다.

"왕께서 오시도록 청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끄롬 쿤 쑤렌타라 피탁은 그 말을 사실로 믿고 올라왔다. 승리의 궁정 앞을 지나 안쪽 문에 이르렀을 때, 끄롬 쿤 쎄나 피탁이 문 곁에 숨어 있었다. 그는 왕실 칼을 휘둘러 승복과 겉옷을 베었으나, 몸에는 상처를 입히지 못하였다. 끄롬 쿤 쎄나 피탁은 안쪽으로 달려 들어갔다.

끄롬 쿤 쑤렌타라 피탁은 병을 앓고 있는 왕에게로 가서 의지하였다. 왕은 그를 보고 물었다.

"어찌하여 승복과 겉옷이 찢어졌는가?"

끄롬 쿤 쑤렌타라 피탁이 답하였다.
"끄롬 쿤 쎄나 피탁이 장난을 하였사옵니다."

끄롬 쿤 쑤렌타라 피탁이 인사를 올리고 나오자, 끄롬 쿤 쎄나 피탁의 어머니인 끄롬 루앙 아파이누칫이 뒤따라가 애원하였다.

“그대가 돕지 않으면 아우가 죽게 될 것이오.”

끄롬 쿤 쑤렌타라 피탁은 이렇게 말하였다.
“도울 수 있는 길은 아라한의 승리의 깃발인 가사에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끄롬 루앙 아파이누칫은 정신을 차리고 가마에 올라갔다. 그녀는 끄롬 쿤 쎄나 피탁을 숨겨 데리고, 궁중의 은밀한 통로 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를 왓 콕쌩에서 출가시켜 끄롬 쿤 쑤렌타라 피탁과 함께 머물게 하였다.

왕은 사람을 보내 찾게 하였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프라옹 텟과 프라옹 친을 붙잡아 짠나무 몽둥이로 처형하게 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도성의 낙 깨오 파가 높이 세 쏙 일곱 니우의 흰 암코끼리를 바친다는 소식을 보내왔다.

코끼리가 도착하자 왕은 코끼리 담당 관청의 관리들을 보내 맞아들이게 하였다. 그런 뒤 ‘프라 위치안 핫싸딘 아마린 럭파’라는 이름을 내리고, 위한 솜뎃 왕실 코끼리 우리로 데려오게 하였다.

프라티낭 산펫 프라삿 전각을 공사하여 그달 말에 완공했다. 그전에는 지붕 양쪽 날개 부분만 덮고 금박은 입히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꼭대기에도 금박을 입히게 했다. 초파와 지붕 장식인 프랄리도 마쳤다. 프라티낭 반양랏나삿이 낡고 손상되어 새로 지었는데, 여섯 달 만에 완공했다. 이어 프라티낭 수리얏 아마린을 새로 지어 여덟 달 만에 마쳤다.

뱀의 해, 놉파섹 해에 크롬루앙 아파이누칫의 병세가 위중해졌다. 그가 크롬쿤 세나피탁 왕자에 대한 사면을 청하자, 왕은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크롬루앙 아파이누칫은 그 말을 듣고 안심했으며, 얼마 뒤 세상을 떠났다.

말의 해 여섯째 달에는 왓 나 트라의 봉헌식을 거행했다.

양의 해에는 프라풋타밧의 불족적을 참배하고 봉헌하는 의식에 참석하러 갔다.

그 뒤 열두째 달, 닭의 해에 핏사눌록으로 가서 프라 친나라트와 프라 친나시를 사흘 동안 참배했다. 이어 사왕부리로 가서 사리탑의 사리를 사흘 동안 참배하고 수도로 돌아왔다.

닭의 해 다섯째 달 어느 날, 프라 랏차코사(왓 라캉에 사는 이)가 아뢰었다.

“크롬쿤 세나피탁 왕자를 왕세자의 지위에 두시기를 청합니다.”

왕은 대신들과 의논하게 했고, 모두 뜻을 같이했다. 이에 왕은 크롬쿤 세나피탁 왕자가 관례에 따라 왕세자의 지위와 위계를 갖추도록 허락했다. 이어 왕궁의 크롬 프라랏차왕 보원사탄몽콘에게 명하여 왓 프라 시 산펫을 새로 보수하게 했다. 그 사원 본당은 몬돕식 지붕으로 만들지 말고, 다른 본당들처럼 지붕을 얹으라고 했다. 공사는 한 해가 조금 지나서야 끝났다.

프라티낭 솜뎃이 낡고 손상되자 왕궁에 명하여 헐고 다시 짓게 했으며, 열 달 만에 완공했다.

왓 프라람도 낡고 손상되어 한 해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보수한 뒤 완공했다.

개띠 해 찟와섹 해에, 부총리 대행인 프라야 깜팽뜨리가 세상을 떠났다. 왕은 프라야 랏차팍디를 차오프라야 랏차팍디로 승진시키고 부총리 대행을 맡겼다. 이어 프라시, 위셋차이찬의 지방 수령과 주민들을 비롯해 수판부리, 나콘차이시, 인부리, 프롬부리, 싱부리, 사미, 차이나트, 마노롬, 우타이, 나콘사완의 지방관과 주민들을 회유하고 다독였다.

나콘시탐마랏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프라빨랏의 하인이 코끼리를 잡으러 숲에 갔다가 상아가 짧은 수컷 코끼리 한 마리를 잡았다고 했다. 키는 다섯 쏙이고, 상아의 길이는 한 뼘에 다섯 손가락 너비였다. 꼬사티보디가 이를 아뢰자, 왕은 코끼리 담당 관청에 명하여 그 코끼리를 데려오게 했다. 왕은 그 코끼리에게 '프라 보롬나케 น'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차이야에서 또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니암(เนียม)' 코끼리였다. 이름을 프라 보롬위차이'라고 지었다. 나콘시탐마랏에서 데려온 또 한 마리는 '프라 보롬짝라팟'이라 이름 지었고, 펫차부리에서 데려온 코끼리 한 마리는 '프라 보롬꾼촌'이라 이름 지었다.

사카라트 1106 *서기 1744 년·불기 2287 년,* 쥐띠 찻와섹 해*에 버마의 머떠마 수령 망나라짱추와 다웨이 수령 낭랙왜소이동이 두 지방의 가족과 자녀, 아내들을 데리고 왔다. 그 수는 삼백여 명이었다. 이들은 세 왕의 영토를 거쳐 아유타야 왕의 보호를 받으러 왔다. 국경 관리인 쿤 나콘과 쿤 나라가 두 수령을 데리고 와 차오프라야 참난보리락에게 인계했고, 그는 두 사람을 수도로 보냈다.

왕은 크게 자비를 베풀어 생활용품과 식량을 내려 주고, 왓 몬티안 곁에 집을 지어 살게 했다. 또한 토지 보증과 보호를 뜻하는 인장을 내려 주고, 어째서 이곳에 왔는지 물으라고 명했다. 머떠마와 다웨이의 두 수령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사카라트 1097 년, *서기 1735 년·불기 2278 년,* 토끼띠 삽타섹 해*에 망 낭떠라는 천한 신분의 자가 프라야 떠라끄롬창과 모의해 아웅와 왕에게 반기를 들고 한타와디를 공격해 빼앗았습니다. 그는 승세를 타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프라야 떠라끄롬창은 망 낭떠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보고 자기 딸을 그와 혼인시켜 한타와디의 왕으로 앉혔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머떠마와 다웨이, 끌리옹의 몬족 군대를 모아 한타와디를 도와 아웅와 왕에게 바치려고 출정했습니다. 그러나 세 지방의 군대는 망 낭떠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도리어 그와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그들을 진압할 수 없었습니다. 아웅와로 달아나려 해도 막막했습니다. 반란군이 길을 막고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왕의 발아래 먼지까지 의지하며, 목숨이 다할 때까지 보호받고자 이곳으로 왔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다.

"그 망 낭떠라는 천하고 낮은 집안 출신이다. 한타와디를 차지한 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오만하기까지 하다. 왕실 서신을 보내와 마치 한 몸처럼 화친하자며 사오카*를 교환하자고 청했다. 저자가 과연 얼마나 더 버티겠는가?"

쥐띠 찻와섹 해 열두째 달 그믐 이틀 전에 보원사탄몽콘 왕궁에 불이 났다. 왕궁의 크롬은 그곳을 떠나 왕이 있는 궁으로 들어와 지냈다.

아웅와 왕은 머떠마와 다웨이의 수령이 아유타야로 달아났고, 아유타야 왕이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돌보았다는 보고를 들었다. 이를 기뻐하며 왕실 서신과 예물을 보냈다. 예물은 금 장식이 있는 금 쟁반 하나, 금 뚜껑이 달린 금 물병 하나, 금 빈랑 상자 하나, 금 쟁반 하나, 붉은 차크라 무늬의 왕실 예복 한 벌, 의례용 옷 한 벌, 큰 무늬가 서로 다른 천 여러 필, 왕실 배 한 척, 역청과 수정 붓, 석필 및 그 밖의 여러 물품이었다.

망 난타수와 망 난타탕을 각각 정사와 부사로 삼아 왕실 서신을 받들고 예물을 가지고 오게 했다.

사오카(สาวก)는 문맥상 교환 대상으로 제시된 사람이나 인질을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이 대목의 정확한 의미는 원문 표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왕실의 우호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였다. 사절단이 도착하자 왓 낭렁 곁에 외국 사절을 맞이할 숙소를 짓게 했다. 이어 왕실 서신을 서신 번역관으로 들여보냈다. 버마 사절과 부사는 대신들에게 예를 올리지 않았다. 대신들이 이를 문제 삼자, 사절과 부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아웅와 왕국의 예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따르지 마십시오. 왕실 서신을 받들고 우호를 청하러 어느 나라에 온 사절이든, 국왕을 알현하여 절하기 전에는 먼저 대신들에게 예를 올릴 수 없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사절의 말이 옳다"고 명했다.

옛날 아유타야의 예법도 이와 같았다. 왕이 마하랏에게 명하여 대신들을 살라룩쿤이나 다른 곳으로 불러 왕명을 전하게 하면, 마하랏은 왕의 말씀을 받들어 서둘러 나갔다.

대신들과 모든 관리들은 두 손을 모아 끝까지 명을 들은 뒤, 왕궁 쪽으로 몸을 돌려 왕에게 절했다. 그 뒤에야 마하랏도 자리에 앉아 서로 예를 나눌 수 있었다.

이제 이 일도 옛 예법에 따라 처리하게 했다. 그리고 사절과 부사가 왕이 정사를 보는 무대 앞에 나아가 알현하자, 왕은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떴다. 이어 사절단은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왕은 답례로 보낼 왕실 서신과 예물을 준비하게 했다.

예물은 은으로 연꽃잎 장식을 한 두 단짜리 금제 의례용 쟁반 한 개, 그리고 금으로 덮은 물병 하나, 금제 수판시리 한 점과 여러 가지 금 세공품, 벨벳과 용 무늬가 있는 비단을 많이 보냈다. 왕실 전용 긍선 한 척도 함께 보냈다.

왕실 서신은 금판에 써서 상아 상자에 넣고, 금실로 묶은 비단 주머니에 넣었다. 거기에 왕의 대인장을 찍었는데, 그 인장에는 가루다를 탄 나라야나가 새겨져 있었다. 서신 사본에는 왕실 사자 인장을 찍었다. 왕은 프라야 욤마랏을 정사로, 프라 탄을 부사로, 프라 수탐마마이트리를 제 3 사로 임명하여 예물과 함께 아유타야와 아웅와 사이의 우호를 다지러 보냈다.

그때 한타와디의 수령 스밍떠가 군대를 이끌고 아웅와를 공격하러 올라갔다. 버마 사절단은 숲길로 우회했다. 태국과 버마 사절단은 계책을 세워 키띠산을 시켜 몬족 군대에 "아유타야의 군대가 아웅와를 도우러 오고 있다"고 알렸다. 몬족 군대는 식량까지 떨어지자 철수했다.

왕실 서신을 전한 사절단은 아웅와에 도착해 왕을 알현했다. 아웅와 왕은 매우 기뻐하며 태국 사절에게 많은 상을 내렸다. 귀국길에 정사와 부사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제 3 사와 파라이만 돌아와 왕을 알현했다.

그해 왓 푸카오텅의 사리탑을 보수하여 여섯 달 만에 마쳤다.

호랑이띠 아타섹 해*에 왕은 롭부리로 행차했다. 롭부리에서 낙쏜총쌈푹콘이라는 자가 사람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왕은 이를 알고 관원 세 명과 병사 삼백 명을 보내 잡게 했고, 그를 수도로 압송해 감옥에 가두었다.

나콘시탐마랏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야생 수컷 코끼리 한 마리를 붙잡았는데, 눈과 발톱, 꼬리와 털이 흰 코끼리라고 했다. 왕은 루앙 랏차왕므앙에게 맡겨 능숙하게 길들인 뒤 데려오게 했다.

왕은 코끼리를 맞이하도록 왕실 사자 인장과 부아깨오 인장을 지닌 관원들을 내보냈다. 길목의 지방관들에게 코끼리를 맞을 건물을 짓게 하고, 초파와 장식이 있는 몬돕 형태로 세우게 했다. 그러나 지방관들은 그런 건물을 지어 본 적이 없어 의논한 끝에 수도에서 기술자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왕은 말했다.

"그 건물에서 하루나 이틀 묵을 뿐이다. 몬돕을 지어 무엇 하겠는가? 수도에 도착하면 그때 어떻게 맞이할지 정하면 된다. 이것이 백성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살피는 일이란 말인가?"

왕은 차오프라야 참난보리락에게 한 차례 책임을 묻고, 차오프라야 랏차팍디에게는 곤장 열 대를 치게 했다. 그러고는 루앙 랏차왕므앙이 코끼리를 데리고 수도에 도착하자 왕은 코끼리에게 **프라 보롬카츨락 악카센 수쁘라딧 수티신타야 마하몽콘 위몬릿파**라는 이름을 내렸다.
호랑이띠 아타섹 해는 사카라트 1108 년으로, 서기 1746 년·불기 2289 년에 해당합니다.

또 프라야 프라람과 프라야 끌랑므앙, 스밍떠의 무리가 다카 쪽으로 들어와 왕의 보호를 청했다. 그 수는 사백여 명이었다. 왕은 이들을 포삼톤에 정착하게 했다.

뒤에 쿠이부리의 수령이 편지를 보내, 방사판에서 사금을 발견했다며 사금 세 땀릉을 바쳤다. 토끼띠 넙섹 해 열두째 달에 왕은 주민 이천 명을 징발해 방사판에서 사금을 채취하게 했다.

용띠 쌈릿섹 해 *사카라트 1110 년으로, 서기 1748 년·불기 2291 년입,* 다섯째 달이 끝날 무렵, 금 아홉 창이 넘게 들어와 왕에게 바쳐졌다. 왕은 쿠이의 외국인을 프라 쿠이부리로 임명했다. 그리고 그 금으로 프라풋타밧 몬돕을 금으로 입히고, 꼭대기와 나가 장식까지 덮도록 했다.

말띠 토섹 해 *사카라트 1112 년으로, 서기 1750 년·불기 2293 년,* 다섯째 달에는 거지와 유랑민에게 한 사람당 1 밧씩 나누어 주었다. 모두 삼천 창이 넘게 들었다.

그해 여덟째 달 그믐 열흘, 왕의 병세가 위중해져 딸꾹질이 세 차례 이어졌다. 밤 열한 시 무렵에야 가라앉았다. 그 뒤 열두째 달 상순에 왕은 행렬을 갖추어 프라풋타밧으로 참배하러 갔다. 타짜오사눅 별궁에서 쉬고, 보쏙에서 더위를 피했다. 오후에는 타이치껀에 도착했다. 프라풋타밧 봉헌식을 이레 동안 거행한 뒤 왕은 아유타야 수도로 돌아왔다.

그 말띠 토섹 해에 한타와디의 수령 스밍떠가 숲으로 코끼리를 잡으러 나갔다. 프라야 탈라 끄롬창은 반란을 꾀하며 스밍떠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스밍떠는 다카 방면으로 달아났다. 왕은 그를 수도로 불러들여 왜 한타와디를 떠났는지 물었다.

스밍떠가 대답했다.

"제가 한타와디를 차지했을 때, 프라야 탈라 끄롬창이 말하기를, 제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강성해졌으니 이제 한타와디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왕 아래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 저는 검은 몸의 코끼리 한 마리를 얻어

‘라따나짠탄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세력이 커지자, 한타와디를 다스리던 왕의 친척에게 사절을 보내 그를 제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청했습니다. 그 왕은 받아들여 저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저는 왼쪽에 며느리, 난팡푸를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그 뒤 군대를 이끌고 아웅와를 포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국군이 돕기 위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태국군이 도우러 왔습니다. 게다가 식량도 떨어져서 군대를 물려 한타와디로 돌아갔습니다.”
‘라따나짠탄티’는 코끼리의 이름입니다. 고유명사는 원문의 태국어 음을 따라 옮겼습니다.

그 뒤 프라야 탈라 끄롬창은 제가 자신을 편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저를 모함하는 소문을 만들어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따웅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타와디 왕이 군대를 징발해 코끼리를 찾으러 보냈기에, 제가 병사들을 이끌고 숲을 돌아다니며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한타와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프라야 탈라 끄롬창이 성문을 닫고 저를 들이지 않아 여러 차례 싸웠습니다.

제 병력은 적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낭 텝윌라를 데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있는 치앙마이로 보낸 뒤, 다시 한타와디를 공격했지만 여러 차례 싸우고도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마침내 저는 왕의 발아래 먼지까지 의지하고자 이곳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왕은 그의 말을 듣고 일단 감옥에 가두라고 명했다. 다만 두 나라가 다시 화친하자는 왕실 서신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임시로 조치했다.

말띠 토쎅 해에 크롬므언 인타라팍디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와 화장은 왓 차이왓타나람에서 치르게 했다.

그해 네악 옹 온이 베트남 군대를 끌어들여 프라 라마티보디와 프라 시 차이쳇타를 공격했다. 패한 뒤에는 왕의 보호를 받으러 달아났다. 왕은 군사 만 명을 징발해 캄보디아를 공격하게 하고, 프라야 랏차수파와디를 총사령관으로 삼아 왓 프라 체디댕에 본진을 두게 했다.

프라야 프라람은 꾀를 내어 아크라마하세나보디에게 아뢰었다.

“병사 다섯 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서겠습니다. 다만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를 빠짐없이 지급받자, 포삼톤에 진영을 세울 때 가족을 데리고 달아났다. 왕은 병사들을 보내 그를 붙잡게 했다. 그는 퉁반리방깨오에서 붙잡혀 처형되었다.

프라야 랏차수파와디가 캄보디아로 출정했을 때, 네악 옹 잉은 평소처럼 순순히 복종했다. 프라야 랏차수파와디는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돌아왔다. 약 일 년 뒤 네악 옹 잉이 세상을 떠나자, 프라 라마티보디를 캄보디아의 통치자로 보냈다.

말띠 토쎅 해에 한타와디의 수령이 된 프라야 탈라 끄롬창은 스밍떠가 아유타야로 도망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왕실 서신을 보내 스밍떠를 넘겨 달라고 청했다. 서신에는 스밍떠가 신의 없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므로, 데려가 처형하게 해 달라고 적었다.

왕은 서신에 적힌 요청대로 스밍떠를 넘겨주지 않았다. 왕은 스밍떠가 훌륭하고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스밍떠가 베푸는 자비에 감동한 감옥의 관리 프라 탐롱도 그를 쇠사슬에 묶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보았다.

이 소식은 왕자 크롬므언 찟순톤에게 전해졌다. 왕자는 스밍떠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그를 후원하며 보살폈다. 그를 마치 예전보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처럼 대했다.

어느 날 기회가 생기자 왕자 크롬므언 찟순톤은 왕에게 스밍떠를 감옥에서 풀어 달라고 청했다. 왕은 이를 허락했다.

한타와디의 수령이 왕실 서신을 보내 스밍떠를 돌려 달라고 했을 때 왕이 거절한 것은 이런 생각 때문이었다. “스밍떠는 훌륭하고 학식 있는 사람이다. 내 아들도 그에게서 배워 제자가 되었다. 그를 돌려보내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수도에 계속 두면 내가 나쁜 사람과 어울린다는 비난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왕은 스밍떠를 배의 선장에게 맡겨 중국으로 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선장은 가는 길에 스밍떠를 풀어 주었다. 서쪽 해안에 도착한 스밍떠는 아내 낭 텝윌라를 찾아갔다. 그녀는 치앙마이 왕의 딸이었다. 스밍떠가 자신의 처지를 아내에게 이야기하자, 낭 텝윌라는 아버지인 치앙마이 왕에게 아유타야로 돌아가 한타와디를 공격하게 해 달라고 청했다. 치앙마이 왕이 허락하지 않자 스밍떠는 마음이 상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낭 텝윌라를 몰래 데리고 떠났다.

사카라트 1118 년 *서기 1756 년·불기 2299 년*, 쥐띠 아타쎅 해에 스밍떠가 길을 가던 중 버마군이 한타와디를 공격하러 내려왔다. 망러는 스밍떠를 붙잡아 아웅와의 감옥에 가두었다.

닭띠 벤짜쎅 해에 차오프라야 참난보리락이 병에 걸려 네 달 남짓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왕은 그에게 왕족의 장례 예우를 갖추고 화장하게 했다. 장례와 화장은 왓 차이왓타나람에서 치렀다..

개띠 찻와쎅 해 아홉째 달, 왕은 왕자 크롬므언 찟순톤과 크롬므언 순톤텝을 롭부리 지방으로 보내 코끼리를 잡게 했다. 그들은 탈레춥손에 진영을 세우고 코끼리를 몰아 잡았다.

열째 달 상순에 왕이 행차하며 사람들을 징발해 진영을 짓게 했다. 오후에 출발하여 카오칭차에 이르렀고, 사람들이 합류해 진영에 도착했다. 그달 스무이렛날 진영을 열었다.

왕은 타통 별궁에 올라 머물며 코끼리 사냥을 지켜보았다. 코끼리 사냥꾼들은 코끼리 서른 마리를 잡았지만, 아직 삼백여 마리는 잡지 못했다.

왕은 진영을 풀게 하고, 아홉째 달 그믐 무렵 왓 프라논짝시에서 와불을 참배했다. 하루를 머문 뒤 노이강을 따라 내려와 왓 쿤인프라문에서도 와불을 참배했다. 원숭이띠 삽타섹 해 여섯째 달에는 왓 프라야캄의 봉헌식을 거행했다.

한편 왕세자는 남성 질환에 걸렸고, 그 병이 쿠트타랏병으로 바뀌었다. 병세가 심해 삼 년이 넘도록 궁에 들어와 왕을 알현하지 못했다.

어느 날 왕명으로 각 관청의 책임자와 차장, 당직 관리와 당직 차장, 왕자 크롬므언 찟순톤과 크롬므언 순톤텝, 크롬므언 셉팍디를 불러들였다. 그들은 모두 직급보다 높은 관직을 맡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각각 열다섯 대 또는 스무 대씩 매질하도록 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사깨오 연못 문 근처로 몰래 와 엿보았다. 크롬므언 순톤텝은 자신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 밤에는 롱티압 곁의 숙소에서 자고, 낮에야 사깨오 별궁으로 갔다.

아홉 날에서 열흘쯤 지난 뒤, 크롬므언 순톤텝은 비밀리에 왕에게 상소했다. 왕세자 크롬 프라랏차왕 보원사탄몽콘이 차오파 상완과 함께 여러 차례 왕궁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왕은 궁중 관리들을 조사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에 왕자 차오파 상완과 차오파 수리야웡, 그리고 크롬 프라 끄래가 왕세자를 모셔 오라는 명을 받았다. 그러나 왕세자는 순순히 따라오지 않았다. 왕궁 문은 닫혀 있었고, 그는 배를 타고 강가의 나루에 머물렀다. 길거리 문도 닫혀 있었다.

왕세자는 왕실 배를 타고 내려왔다가 수차 옆의 다리로 올라가 교꾼이 들것에 태웠다. 씨삼란에 이르렀을 때, 살라룩쿤 뒤 연못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왕세자는 들것을 돌려 돌아가게 했다.

루앙 씨파왕이 아뢰었다.

“전하께서 들어가 알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왕세자는 타프답에 들어가 머물렀다. 왕은 마하랏들에게 명하여 왕세자를 두 개의 방이 있는 별궁으로 모셔 오게 했다 그리고 프라 마하텝에게 그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 심문을 받자 왕세자는 혐의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섯째 달 초하루 밤, 왕세자를 두 방 별궁 근처에서 열 대 매질했다. 크롬므언 순톤텝이 올라와 왕에게 아뢰자, 왕은 그 매질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그달 그믐 이틀에는 스무 대를 더 쳤고, 그믐 사흘에도 스무 대를 더 쳤다. 발바닥을 지지고 왕세자를 꾸짖게 했다.

왕은 왕세자에게 말했다.

“이놈아, 너는 어머니와도 간통했고, 내 아내와도 관계했다. 그 일로 어떤 자는 매질을 칠백 대나 당하고 죽었다. 그런데 너는 두 왕자의 아내와도 관계해 왕자를 세 명이나 낳았다. 그 가운데 둘은 차오 우타이다. 그 아이를 세 몫으로 나누어 두 몫은 버리고, 한 몫만 네 아내에게 주려 한다는 말이냐? 매질 이백삼십 대로 끝내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왕세자는 답했다.
“왕의 처분을 받겠습니다.”

크롬므언 텝피핏이 이 말을 왕에게 전했다. 왕이 지금까지 몇 대를 쳤느냐고 묻자, 그는 이미 예순 대를 집행했다고 답했다. 왕은 두 사람에게 각각 서른 대씩 더 쳐서 모두 이백삼십 대가 되게 하라고 명했다.

이어 관리들에게 죄목을 함께 검토하게 했다. 여러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며 전통에 따라 찬단나무 몽둥이로 처형하게 해 달라고 청했다. 왕은 왕세자의 목숨을 살려 주되, 이마를 지지게 했다. 차오파 상완은 매질 한 차례 서른, 열흘째였다. 사흘 뒤 세상을 떠났다.

왕궁의 왕자도 뒤이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이의 기간은 원문에 ‘백팔십’으로 적혀 있다. 두 사람의 시신은 왓 차이왓타나람에 묻었다.

음력 다섯째 달 그믐 열하루, 쥐해의 여덟 번째 해에 왕은 왓 프라논차크시의 와불을 참배하러 행차했다. 사흘 뒤 방콕으로 돌아왔다.

그때 프라야 랏차왕므앙은 나콘차이시리 지역의 타코에 코끼리 포획장을 설치했다. 키가 다섯 쏙인 니암 코끼리 한 마리를 잡았다는 보고를 올리자, 왕은 타코로 가서 직접 살펴보았다. 길들이기를 마친 뒤 그 코끼리를 왕궁 안의 우리에 들였다.

다섯째 달, 음력 날짜는 본문에 이어지는 연대 기록을 따랐다. 크롬믄 텝피핏은 차오프라야 아파이라차, 프라야 칼라홈, 프라야 프라클랑과 의논한 뒤 아뢰었다.

“크롬쿤 폰피닛 전하께 크롬 프라라차왕 보원사탄몽콘, 곧 부왕의 지위를 내리시기를 청합니다.”

크롬쿤 폰피닛 측에서도 이렇게 아뢰었다.
“형인 크롬쿤 아누락몬트리가 계시니, 그분께 왕궁의 지위를 내리시기를 청합니다.”

왕은 크롬쿤 아누락몬트리가 왕위를 보좌할 만큼 뜻을 굳게 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에게 우파랏의 지위를 주어 국정의 절반을 맡기면 나라에 변고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왕은 크롬쿤 폰피닛만이 총명하고 분별력이 있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여겼다.

왕은 크롬쿤 폰피닛에게 크롬 프라라차왕 보원사탄몽콘의 지위를 내리고, 왕짠카셈 궁 - 짠타라까셈 궁전(พระราชวังจันทรเกษม, Chantharakasem Palace)에 머물게 했다.
이 왕궁의 왕자는 바로 차오파 도크마두아였다. 왕이 왕비를 임신시켰을 때 꿈에 무화과꽃을 바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한다. 왕은 무화과꽃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것이라고 해몽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차오파 우툼폰라차쿠만'이라 이름 지었고, 백성들은 '차오파 도크마두아'라고 불렀다.

왕은 그가 뒤를 이어 왕위를 다스리기를 바라 크롬 프라라차왕 보원사탄몽콘에 임명했다.

일곱째 달, 크롬믄 짓순턴이 아뢰었다.

"왕실의 큰 코끼리가 상아를 내밀고 사납게 날뛰어, 우리를 무너뜨릴 듯합니다."

아홉째 달, 왕은 프라풋타밧을 참배하러 행차했다. 차오산삼완의 숙소에 머문 뒤 이른 아침 코끼리를 장식하고, 프라프롬차크라파의 코끼리를 타고 타라껫으로 갔다. 그곳에서 코끼리에게 왕의 발을 바치게 한 다음, 타라껫으로 보내고 방콕으로 돌아왔다.

이때 왕은 즉위한 지 스물여섯 해가 되었고, 나이는 일흔한 살이었다. 왕은 타이국의 큰 통치자였으므로 여러 기이한 징조가 나타났다.

음력 열두째 달 그믐 초이틀 밤, 쥐해의 열 번째 해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왓 포의 중심 탑이 무너졌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땅이 흔들렸으며, 별들이 달 둘레에 모인 듯 보였다. 코끼리의 꼬리도 이상하게 움직였다. 백성들은 놀라 두려워했다. 왕은 아유타야의 중심이었으므로 신들이 징조를 보인 것이라고 여겼다.

호랑이해, 10 년 주기의 열 번째 해 여섯째 달 초여드레, 밤 두 시 무렵 왕이 병들었다.
여섯째 달 그믐 초닷새 아침, 왕은 가마를 타고 총프라티낭 송픈으로 나왔다가 총프라티낭 반용랏타나삿으로 올라갔다. 오전 다섯 시 무렵 다시 총프라티낭 송픈으로 돌아와 누웠다. 정오가 지나 잠에서 깨었을 때 손으로 왕좌의 기둥을 잡으려 했으나 잘 잡지 못했다.

왕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크롬 프라라차왕 보원사탄몽콘에 있던 왕자를 불러 왕을 뵙게 했다. 왕은 장막을 조금 열어 그를 잠시 바라본 뒤 수안끄라따이 궁으로 갔다.
이 페이지는 왕의 병세와 임종 전 상황을 기록합니다. 날짜·시간 표기는 원문에 적힌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라 삭까랏 1120 년(서기 1758 년, 불기 2301 년), 호랑이해의 열 번째 해, 음력 여섯째 달 그믐 초닷새 수요일 밤 한 시 조금 지나 왕이 세상을 떠났다.
즉위했을 때 나이는 쉰한 살이었고, 스물여섯 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 일흔일곱 살에 붕어했다.

차오파 도크마두아의 치세

크롬쿤 폰피닛으로 봉해졌던 왕자

자라 삭까랏 1120 년, 크롬믄 텝피핏은 왕의 칼과 단검, 창을 가져와 크롬쿤 피핏락사에게 건네어 왕실의 수안끄라따이 궁으로 보냈다. 크롬믄 순턴텝과 크롬믄 솝팍디는 총프라티낭 반용랏타나삿의 무기를 가져다가 살랄루앗 궁으로 옮기라는 명을 받았다.

그 무렵 크롬믄 텝피핏과 크롬믄 짓순턴은 프라야 프라클랑과 프라야 아파이몬트리에게 왕궁의 문을 관례대로 닫으라고 명했다. 크롬쿤 아누락몬트리와 관련한 조치가 이어졌다. 크롬믄 텝피핏은 밖으로 불려 나갔고, 왕실 무기함은 무기고에서 수안끄라따이 궁으로 옮겨졌다.

크롬믄 짓순턴은 사태를 알아차리고 살랄루앗 궁으로 올라갔다. 해 질 무렵, 왕명으로 궁중 관리들이 상하 관료들을 불러 수안끄라따이 궁으로 오게 했다. 한편 쿤 아누락은 스라깨오 궁에서 사람들을 모았다. 왓 시산펫의 성벽과 마구간 쪽 성벽을 지키던 이들도 살랄루앗 궁으로 모였는데, 그 수가 백 명을 넘었다. 크롬믄 짓순턴의 부하 쿤 피핏끼띠는 사람들을 이끌고 무기고 앞문을 두드려 열고 들어가 무기를 여럿 가져갔다.

음력 그믐 초닷새는 불공을 드리는 날이었다. 프라풋타코사찬, 프라탐우돔, 프라탐쩨디, 프라텝까위가 설법을 준비하러 승려 숙소에 와 있었다. 저녁 무렵 왕명으로 그들을 수안끄라따이 궁에 초대했다. 왕은 세 왕자에게 가서 서로 화해하도록 권하라고 청했다. 밤 세 시 무렵 세 왕자가 왕을 찾아와 모두 맹세를 올렸다.

아침이 되자 왕은 총프라티낭 송픈으로 나아가 부왕의 시신을 씻겼다. 이어 시신을 왕실 관에 모셔 총프라티낭 반용랏타나삿 위에 안치했다. 장례 의식을 마친 뒤 세 왕자는 다시 각자의 거처로 돌아가 예전처럼 무기를 모을 궁리를 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왕에게 아뢰려 했다.

왕은 부왕의 뒤를 이어 왕궁의 지위를 맡고 있었다. 이에 크롬쿤 아누락몬트리와 의논하여 세 왕자를 관청인 탐낙뜩으로 불러들였다.

음력 그믐 열하루 오후, 크롬믄 짓순턴·크롬믄 순턴텝·크롬믄 솝팍디가 크롬쿤 아누락몬트리를 뵈러 탐낙뜩으로 갔다. 미리 사람을 배치해 두었다가 크롬믄 순턴텝을 붙잡아 호프라몬티엔탐에 가두고, 크롬믄 솝팍디는 프라클랑삿에 구금했다. 크롬믄 짓순턴도 붙잡아 특별 창고에 가두었다. 음력 그믐 열사흘, 세 사람을 모두 특별 창고에서 백단나무 곤봉으로 처형했다.

정적을 제거한 뒤 왕은 크롬쿤 아누락몬트리에게 왕위를 넘기려 했다. 그러나 그는 왕위를 받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부왕께서 아우에게 왕위를 맡겨 대를 이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명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왕궁의 지위를 맡았던 왕은 마침내 왕위를 이어받기로 했다.

일곱째 달 초엿새, 프라삿 산펫 궁전에서 즉위 의식을 거행했다. 크롬쿤 아누락몬트리는 총프라티낭 수리야마린에 머물렀다.

차오파 도크마두아의 치세

열두째 달, 텝파마랏이 세상을 떠났다. 왕은 그의 시신을 관에 모셔 총프라티낭 반용랏타나삿에 두 개의 관을 나란히 안치하게 했다.

다섯째 달 열하루, 자라 삭까랏 1121 년 토끼해 첫번째 해에 왕은 솜뎃 프라풋타차오루앙과 프라판빌루앙의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에는 왕실의 화장 행렬이 뒤따랐다. 두 왕비는 솜뎃 프라삐뜨라랏의 화장 때보다 더욱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 왕은 왓톰프라아람이라는 사원에 불을 밝혀 공양하게 하고, 큰 보시를 올렸다. 금박과 금실 장식이 된 두 단짜리 금제 의례용 쟁반도 함께 바쳤다.

왕은 정무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살폈으며, 이전 왕들처럼 정사를 돌보았다. 한때 왕은 이렇게 말했다.

“이 왕자는 왕위를 이을 만한 능력이 없다. 왕실의 대를 이을 사람은 형인 크롬쿤 아누락몬트리여야 한다.”

왕은 마침내 크롬쿤 아누락몬트리에게 왕위를 맡겼다. 왕위를 넘긴 뒤 왕실 보트 행렬을 타고 왓더믄으로 출가하러 갔으며, 이어 왓쁘라두에 머물렀다.

크롬쿤 아누락몬트리의 치세

크롬쿤 아누락몬트리는 프라삿 산펫 궁전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솜뎃 프라 보롬라차’라는 왕호를 받았다. 그는 왕실의 옛 관례에 따라 아유타야의 왕위에 올랐다.

왕에게는 정실 왕비가 두 명 있었지만, 두 사람은 당시 모두 크롬의 지위에 있었다. 한 왕비에게는 자녀가 둘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프라파 수리웡, 아들의 이름은 프라파이쿠마라였다. 다른 왕비에게도 자녀가 둘 있었으며, 딸은 우차테위, 아들은 수타사나쿠마라였다.

왕은 또 매마오라는 여인을 왕비로 세웠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이름은 시짠타라테위였다. 왕은 이 왕비들에게 모두 같은 지위와 명예를 주었다. 다른 궁녀들에게서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다.

왕위에 오른 지 일주일 남짓 지나자 크롬믄 텝피핏은 왕에게 하직하고 왓끄라촘에서 출가했다. 그러나 왕궁 앞에 있는 왕세자 측과 친밀하게 지내려 하지 않았다. 프라야 아파이라차, 프라야 펫차부리, 믄팁세나, 나이쭈이, 나이팽짠은 크롬믄 텝피핏과 함께 일을 도모하려 했으나, 그가 왓끄라촘을 떠나 반나릉 쪽으로 가자 뒤따라가 그를 붙잡았다.

프라야 아파이라차, 프라야 펫차부리, 나이쭈이 세 사람은 왕명을 받아 목이 베였다. 믄팁세나와 나이팽짠은 달아나 붙잡히지 않았다.

한편 푸껫의 수호신을 모시는 브라만들이 왕궁에 들어왔다. 왕은 크롬믄 텝피핏을 나이깜반에게 맡겨 섬으로 보내 풀어 주게 했다. 왕은 불교를 장려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했다. 사원 두 곳에 옷과 음식을 공양하고, 승려들을 초대해 큰 공양을 올렸다. 일곱 날 동안 성대한 행사를 치른 뒤 왕궁으로 돌아왔다.

아웡와 쪽에서는 아웅제야, 곧 무크소보 마을의 우두머리가 왕위에 올랐다. 자라 삭까랏 1122 년 서기 1759 년, 불기 2302 년 에 왕호를 받았다.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장남은 나이사까에 따라 각기 다른 지역을 맡았다. 망롱은 빼예잉을 다스리고, 망라는 빠쿠를, 망오는 안미엥을, 망웽은 빠둥을 맡았다. 망주는 빠단을, 포치앙은 빼떼와 프라짜를 다스렸다.

망롱왕은 8 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아유타야에서 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아유타야를 공격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 이런 보고가 올라왔다. 아웡와 쪽의 외국 상선 한 척이 돛을 펼쳐 타나오시리의 푸껫으로 갔는데, 그 배의 선장 아라마니를 아유타야 관리들이 붙잡아 두었다는 내용이었다.

망롱왕은 이 일을 알게 되었다. 아유타야 쪽에서 상선을 붙잡아 둔 까닭이 무엇인지 살피게 하고, 군사를 동원해 전쟁을 준비했다. 병력은 코끼리 2 백 마리와 군사 1 만 1 천 명이었다. 준비를 마친 뒤 아웡와를 떠나 망라 방면으로 진군했다. 선봉은 마리드로 향했고, 타나오시리와 주변 지역에도 군대를 보냈다.

타나오시리에서 보고가 올라오자 왕은 급히 사람을 보내 상황을 살피게 했다. 보고자는 이렇게 아뢰었다.

“버마군이 마리드 방면으로 오고 있습니다. 다른 군대는 따와이와 치앙마이 쪽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버마군은 마리드 쪽 한 경로로만 진군하고 있었다. 왕은 확실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놀랐다. 왕은 프라야 핏차이송크람, 나이쯔어프라뿟, 프라쭈파, 루앙시차이, 루앙랏피몬, 쿤스리워라낫에게 군사 5 천 명을 거느리고 먼저 마리드 방면으로 가서 방어하라고 명했다.

인쇄 639 쪽
군사를 나누어 각자 천 명씩 거느리게 했다. 프라야 아파이라차(Phraya Abhai Racha)에게는 지휘권을 주어 치앙마이 방면으로 가게 했다.

이어서 팁세나(Thip Sena), 라차맛(Racha Mat), 팁락사(Thip Raksa), 라차반(Racha Ban), 위숫티요타맛(Wisutthi Yothamat), 라차요타텝(Racha Yothathep), 루앙삭(Luang Sak), 루앙싯(Luang Sit), 루앙릿(Luang Rit), 루앙껫(Luang Ket)에게도 각각 천 명씩 맡겼다. 프라야 아파이몬트리(Phraya Abhai Montri)는 큰 부대를 이끌고 타끄라단 방면으로 출정했다.

버마군이 마리드 쪽에서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프라야 욤마랏(Phraya Yommarat)을 군사 2 천 명의 선봉장으로 세웠다. 프라야 탐마라차(Phraya Thammaracha)에게는 3 천 명을 맡겨 깐짜나부리(Kanchanaburi)에 진을 치게 했다.

버마군은 프라야 욤마랏의 군대가 주둔한 깽동땍으로 진격했다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빠뜨랏수로 향했다. 탐마라차는 제때 욤마랏을 지원하지 못했다. 군사 5 백 명을 보내 합류시키려 했지만, 양군은 며칠 동안 맞서 싸우다 태국군이 무너져 달아났다.

아웅와왕(King of Ava)은 군대를 이끌고 꾸이부리(Kui Buri)와 쁘란부리(Pran Buri) 지역으로 들어왔다. 버마의 정찰병들은 반보 마을의 태국 주민 세 명을 붙잡아 왕에게 데려갔다. 그들은 적군이 적고 숲속에 진을 쳐 쉽게 포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물었다.

"정말 그러한가? 그곳에 있는 군대가 모두 약하다는 말인가?"
한 사람이 아뢰었다.

"왕의 군대가 강성하여 적들이 감히 맞서지 못합니다. 정찰을 보내 살펴보았지만, 왕군과 맞설 만한 병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달아나 숨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전한 예언에는 자라 삭까랏 1122 년 년은 서기 1760 년, 불기 2303 년 용해 둘째 해에 큰 왕이 나타나 아유타야의 왕좌에 올라 강한 위세를 떨칠 것이라고 했다. 아웅와왕은 꾸이부리를 지나 쁘란부리로 진군하고, 이어 펫차부리(Phetchaburi)와 랏차부리(Ratchaburi)를 차례로 공격했다.

그때 솜뎃 프라 아누차티랏(Somdet Phra Anuchathirat)은 승려 생활을 마치고 나와 국정에 관해 왕에게 아뢰었다. 그는 프라야 아파이라차(Phraya Abhai Racha), 프라야 욤마랏(Phraya Yommarat), 프라야 펫차부리(Phraya Phetchaburi)를 구금에서 풀어 주라고 청했다. 왕은 그들을 석방하고 군사를 다시 모집하도록 명했다.

병사들을 성벽 위와 성곽 주변의 방어선에 배치했다. 왕궁 앞쪽의 성벽은 허물고, 통나무를 가져와 수문과 육지 쪽 성문을 모두 막게 했다. 프라야 칼라홈(Phraya Kalahom),

프라야 랏타나티벳(Phraya Rattanathibet), 프라야 랏차방산(Phraya Ratchabansan)은 군대를 이끌고 반딸란에 진을 쳤다.

프라야 랏차몬트리(Phraya Ratchamontri)와 차오믄 시수락(Chao Muen Sisurak)을 구금하고, 궁 안의 사람들과 사통했는지 심문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자 두 사람에게 왕실 형벌을 내리고 사흘 동안 가두었다. 프라야 랏차몬트리는 죽었고, 시신은 쁘라투차이 문 앞에 꿰어 걸었다.

반딸란에 있던 태국군 선봉대는 버마군의 공격을 받고 무너져 달아났다. 프라야 칼라홈은 퇴각하다 버마 기병에게 따라잡혀 창에 찔려 죽었다. 프라야 욤마랏은 여러 군데 창을 맞고 성 안으로 도망쳐 왔지만, 아홉에서 열흘쯤 뒤에 죽었다.

프라야 랏차방산은 프라야 랏타나티벳을 향해 총을 쏘았다. 군대가 무너져 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온 뒤, 왕은 관련자들을 찾아내 왕실 형벌을 내렸다. 한 사람은 태형을 받고 구금되었다가 여드레쯤 뒤에 죽었고, 시신은 쁘라투차이에 걸었다.

아웅와왕의 군대는 방꿈 들판과 반끄라등에 진을 쳤으며, 선봉은 포삼톤(Wat Pho Sam Ton)에 자리 잡았다. 루앙 아파이피팟(Luang Abhai Phiphat)은 병사 2 천 명을 이끌고 진을 치러 나갔다.

버마군은 포삼톤 앞의 강을 건너 공격했다. 중국군은 무너져 강물로 뛰어들었고, 버마군은 이를 보고 추격해 쁘락왓타레에 이르렀다. 믄팁세나(Muen Thip Sena)의 부대도 그곳에 있었지만, 버마군이 강을 건너오자 함께 무너졌다. 많은 사람이 강에서 죽었다. 버마군은 페니앗과 왓쩨디댕(Wat Chedi Daeng)에 진을 쳤다.

용해 둘째 해 다섯째 달 그믐 초여드레, 버마군은 해자의 양쪽 끝을 공격했다. 그곳에 있던 남녀와 가족들을 붙잡아 묶고 죽였다. 시신이 무더기로 쌓였고, 강물에는 시신이 떠다녔다. 버마군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동안 배들이 가라앉아 큰 배와 작은 배가 모두 손실되었다.

다섯째 달 그믐 열흘, 버마군은 큰 대포를 **왓랏차플리(Wat Ratchaphli)와 왓까사트라(Wat Kasatra)**에 설치하고 수도를 향해 쏘았다.





왕은 천 명의 병사를 태운 코끼리를 타고 나가 상황을 살폈다. 왕은 왓수안루앙(Wat Suan Luang), 왓삽사완(Wat Sap Sawan), 폼마하차이(Pom Mahachai)에 군대를 배치했다.

저녁 무렵 버마군은 왓카우텅(Wat Khao Thong) 근처로 이동했다. 여섯째 달 초하루 아침에는 큰 대포를 왓나프라메루(Wat Na Phra Meru)에 설치해 왕궁과 총프라티낭 수리야마린(Phra Thi Nang Suriyamarin)을 밤낮으로 포격했다. 아웅와왕이 전황을 살피러 오자 군대를 북쪽으로 물리게 했다.

아직 아랑까부니(Alang Kabuni)라는 상선 선장이 있었다. 그는 사자 한 마리와 타조 한 마리를 왕에게 바쳤다. 왕은 기뻐하며 충성을 다한 아랑까부니에게 포상을 내렸다.

한편, 몽족은 망롱왕(Mang Long)이 한따와디(Hanthawaddy)를 차지하자 마르타반(Martaban)에서 피신해 따와이(Dawei)로 들어왔다. 그 수가 천 명 남짓이었다. 왕은 이들을 수도에 받아들였다. 용해 둘째 해 다섯째 달, 몽족은 카오낭부앗(Khao Nang Buat)에 모여 반란을 모의하고 나콘나욕(Nakhon Nayok)을 공격했다. 왕은 프라 시랏차데초(Phraya Si Ratchadetcho)를 군사 2 천 명의 지휘관으로 삼아 출정시켰다. 몽족은 무기가 없어 몽둥이만 던졌고, 프라 시랏차데초의 군대는 패해 물러났다.

왕은 프라야 욤마랏(Phraya Yommarat)을 군사 2 천 명의 지휘관으로, 프라야 펫차부리(Phraya Phetchaburi)를 천 명의 선봉장으로 임명해 다시 출정시켰다. 몽족은 롬싹(Lom Sak) 방면으로 달아나 탁꿋래(La Takkut Rae)에 진을 쳤다.

뱀해 셋째 해에는 왕이 몽몽랏차부트(Mong Mong Ratchabut)에게 퐁카(Pong Kha) 방면을 지나 치앙마이(Chiang Mai)로 진격하라고 명했다. 람푼(Lamphun)의 통치자와 피신해 온 사람들은 아유타야로 와서 왕의 보호를 받았다.

왕은 북쪽 지방의 병력을 모으고, 프라야 프라핏나록(Phraya Phiphit Naroek)을 군사 5 천 명의 지휘관으로 삼아 라행(Raeng) 방면으로 보냈다. 치앙마이가 이미 버마에 함락되었고 버마군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아웅와왕(Ava King)이 행차 중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자라 삭까랏 1127 년, 왕위에 오른 지 3 년 만이었다. *원문에 적힌 연도 1127 년은 서기 1765 년, 불기 2308 년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 망라(Mangra)라는 왕자가 아웅와의 왕위에 올라 왕통을 이었다.

왕은 떠돌던 크롬믄 텝피핏(Krom Muen Thepphiphit)을 랑카섬에서 돌아오게 했다. 그는 외국 여러 지역을 떠돌다가 아유타야가 망롱왕에게 함락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외국 상선을 타고 마리드(Myeik)로 왔다. 왕은 그를 타나오시리(Tanintharyi)에 머물게 하고 관리들을 보내 살피게 했다.

여덟째 달, 북쪽에서 내려온 물이 다시 불어 붉은 흙탕물처럼 되었다. 이틀 동안 그러다가 다시 평상시 물빛으로 돌아왔다.

왕은 여덟째 달 그믐 사흘 동안 길을 떠나 프라풋타밧을 참배했다. 일주일 뒤 방콕으로 돌아왔다. 왕은 위숫티요타맛(Wisutthi Yothamat)에게 배를 많이 만들도록 명했다. 배의 앞쪽에는 나무를 세워 방벽처럼 만들고, 포를 설치해 적을 향해 쏘게 하려는 것이었다.

열두째 달, 왕은 망마하나라타(Mang Mahanaratha), 마끄라맛(Makra Mat), 망이세(Mang Yi Se), 쑷까마니(Sut Khamani), 얭따야(Yaeng Taya)에게 군대를 이끌고 따와이를 공격하게 했다. 따나오시리의 관리들이 버마군이 다가온다고 보고하자, 주민들은 짐을 꾸려 춤폰(Chumphon)으로 피신했다. 버마군은 뒤쫓아 춤폰을 점령한 뒤 따와이로 향했다.

왕은 크롬믄 텝피핏을 찬타부리(Chanthaburi)로 보내고, 프라 피렌토라텝(Phraya Phirenthorathep)을 지휘관으로 임명해 깐짜나부리(Kanchanaburi) 방면에 주둔하게 했다.

아웅와에서는 회의를 열어 따와이를 공격하기로 했다. 군대는 모든 무기를 갖추고 펫차부리(Phetchaburi), 랏차부리(Ratchaburi), 깐짜나부리(Kanchanaburi)로 진격했다.

왕은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휘관들을 불러 대책을 의논했다. 외국 상선이 머무는 곳을 공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왕은 프라야 라차차크리(Phraya Ratcha Chakri)를 군사 1 만 5 천 명의 지휘관으로 삼아 랏차부리에 보내고, 펫차부리에는 천 명을 보냈다. 프라야 칼라홈(Phraya Kalahom)은 군사 7 천 명을 이끌고 타끄라단(Tha Kradan)에 진을 쳤다. 버마군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프라야 마하세나(Phraya Maha Sena)는 군사 1 만 2 천 명을 이끌고 나콘사완(Nakhon Sawan)에, 프라야 암맛(Phraya Ammat)은 군사 1 만 5 천 명을 이끌고 **차이나트(Chainat)**에 주둔했다. 버마군은 사방에서 진격해 왔다.





차이나트는 현재 태국 중부의 '차이낫(ชัยนาท, Chai Nat)'입니다. *같은 이름의 주와 주도 도시가 있으며, 도시는* ***짜오프라야강변****에 자리합니다.*

랏차부리의 태국군은 며칠 동안 맞서 싸웠으나 병력이 줄어들었다. 어느 날, 군사들은 코끼리를 이용해 버마군을 속이려 했다. 그곳에는 상선들이 많이 정박해 있었고, 버마군은 물가에서 배들을 공격해 많은 사람을 붙잡았다. 버마군은 또 따꼬암(Ta Ko Om)과 농차오 운하 근처에 진을 쳤다.

사태를 알게 된 왕은 여러 방면에 군대를 배치했다. 프라야 피핏나록(Phraya Phiphit Naroek)을 북부군 지휘관으로 삼고 군사 5 천 명을 맡겨 라행으로 보냈다. 치앙마이가 버마에 함락되었으며 버마군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아웅와왕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라 삭까랏 1127 년, 왕위에 오른 지 3 년 만이었다. 망라왕(Mangra)이 아웅와의 왕위를 이어받았다.

한편, 왕은 크롬믄 텝피핏이 랑카섬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외국 여러 지역을 떠돌다가 아유타야가 망롱왕에게 함락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외국 상선을 타고 마리드로 왔다. 왕은 그를 타나오시리에 받아들이고 관리들을 보내 감독하게 했다.

프라야 프라핏나록(Phraya Phiphit Naroek)의 은과 금을 모두 빼앗았다. 그의 아내는 간신히 빠져나와 도망쳤다.

프라야 프라핏나록은 피찟(Pichit) 뒤편에 군사를 숨겨 두고 병력을 모았다. 사람을 많이 모은 뒤 프라핏나록 성의 뒤쪽에 진을 치고 차오파찟(Chao Pha Chit)의 군대와 여러 차례 맞섰다. 차오파찟은 성에서 달아났지만 붙잡혀 우리에 갇힌 채 타이웅삭렉으로 압송되었다. 호송하던 사람들이 버마군이 반꼽에 진을 쳤다는 사실을 알고는 차오파찟을 데리고 다시 피찟으로 올라갔다. 프라야 프라핏나록은 배를 타고 와 차오파찟을 받아 프라핏나록으로 데려갔다.

그 무렵 람푼(Lamphun)의 주민들은 방랑(Bang Lang)에 살도록 옮겨졌다. 라오족 가족들은 동북쪽으로 달아났다.

열째 달, 버마군이 배를 타고 와 방밤루의 진을 무너뜨리고 논타부리(Nonthaburi)를 공격해 점령했다. 사흘 동안 머문 뒤 군대를 거두어 따꼬암으로 물러났다.

한 영국 상선이 방콕에 옷감을 싣고 와 팔았다. 왕은 사신을 보내 버마군이 논타부리를 공격하면 선장이 도울 수 있는지 물었다. 선장은 돕겠다고 답했지만, 먼저 옷감을 내려놓게 해 달라고 청했다. 옷감은 방콕야이에 내렸다.

일곱째 달, 버마군은 따꼬암에서 논타부리로 진격했다. 큰 대포를 위차이엔 요새에 설치해 버마군과 저녁까지 포격을 주고받았다. 선장은 배를 강 상류로 띄워 물러났다.

논타부리에 있던 프라야 욤마랏(Phraya Yommarat)의 군대도 물러났다. 버마군은 논타부리에 머물며 병력을 나누어 왓카마와 왓딸랏깨오 양쪽에 진을 쳤다.

밤이 되자 영국 상선 선장은 작은 배를 내어 달라고 요청해 상선을 강 아래로 끌고 갔다. 날이 밝은 뒤에는 배를 딸랏콴에 정박시켰다.

버마군이 논타부리에 진을 치자, 영국 상선들은 저녁에 강을 내려가 배 양쪽에 설치한 포를 쏘아 버마군 진영을 공격했다. 버마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달아났다. 다음 날 아침 영국 선장은 다시 배로 물러났다.

버마군은 논타부리에 다시 진을 쳤다. 영국 상선들이 저녁에 강을 내려가 포격하자 버마군은 진영 밖으로 달아나 숨었다. 영국인과 태국인들은 배를 타고 진영으로 들어가 물건을 거두었다. 버마군은 돌아와 진영 안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의 목을 베었다. 영국 선장은 탄환을 실은 배를 요청해 버마군 진영을 공격했다.

영국군과 태국군이 배를 타고 과일을 거두러 간 사이, 영국인들은 상선에 올라탔다. 저녁이 되자 태국인 두 명이 버마군에게 붙잡혀 심문을 받았다.

버마군은 방사이(บางไทร, Bang Sai) 와 시꾹(สีกุก, Si Kuk) 에 진을 쳤다. 그때 왓방라짠(Wat Bang Rachan)의 승려와 위쎗차이찬(Wiset Chai Chan), 쑤판부리(Suphan Buri), 씽부리(Sing Buri), 싼부리(San Buri)에서 온 주민들이 그 승려에게 의지하려고 모여들었다.




*아유타야 **남쪽의 강 합류 지대**. 역사 기록에는 버마 수군이 **방사이·왕실 검문소·왓 쁘롯삿(วัดโปรดสัตว์)** 일대에 주둔, 아유타야 **서쪽, 매남너이강변**. 옛 군영은 현재 **왓 시꾹(วัดสีกุก)** 일대로 설명됩니다.*

버마군은 방라짠의 진영을 공격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 바깥에 진을 치고, 참호를 파고, 대나무를 엮어 방어 시설을 만들었다. 병사들은 밤낮으로 경계를 섰다. 버마군이 기병을 앞세워 강을 건너 큰 진영을 공격하자, 마을 사람들은 적군을 밀어내고 버마군을 무너뜨렸다. 날이 저물자 버마군은 군대를 거두었다.

방라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큰 대포 두 문을 가져와 버마군을 향해 쏘았다. 마을의 군대가 버마군에 밀리면 대포를 쏘아 구원하기로 했다. 버마군은 반쿤록에 진을 쳤다. 나이찬누엇키아오(Nai Chan Nuat Khiao)는 병사들을 이끌고 버마군 진영을 공격했지만, 약 5 백 명이 죽었다.

수도 안의 태국군은 빠깐쁘라쌉에 진을 치고 있었다. 버마군은 군대를 보내 태국군을 성벽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양쪽 군대는 서로 유인하며 싸웠다. 프라야 랏타나티벳(Phraya

Rattanathibet)은 퇴각해 탁롱에 진을 크게 세웠다. 버마군은 다시 방라짠으로 진격해 마을의 진영을 무너뜨렸다.

크롬믄 텝피핏(Krom Muen Thepphiphit)은 당시 쁘라찐부리(Prachin Buri)에 머물렀고, 여러 승려와 주민들도 그곳으로 피신해 있었다. 버마군이 배를 타고 쁘라찐부리를 공격하자, 크롬믄 텝피핏과 프라야 랏타나티벳은 나콘랏차시마(Nakhon Ratchasima)로 달아났다.

그곳에서 매탑시꾹(Mae Thap Si Kuk)은 열병으로 죽었다. 빠깐쁘라쌉 방면의 군대는 수적으로 우세하고 병력이 온전했다. 버마군은 포삼톤(Wat Pho Sam Ton)에 진을 치고, 이어 반봄에 진을 세웠다.

버마군은 왓타까롱(Wat Tha Karon)에 진을 쳤고, 여러 곳에 높은 보루를 쌓았다. 수도 안의 태국군도 왓타까롱에 맞서 진을 꾸렸다. 버마군은 포격을 계속했지만, 한 장수가 배 앞에서 총을 맞고 물에 빠지자 군대를 물렸다.

버마군은 왓푸카오텅(Wat Phu Khao Thong)에 진을 쳤다. 프라 시수리야팟(Phraya Si Suriyaphat)은 버마군의 후방을 지키던 장수였다. 그는 왕의 명을 받아 대포 두 문을 설치하고 계속 포격했다. 밤이 되자 한 사람이 버마군의 대포에 맞았다고 보고했다. 버마군은 왓까차이(Wat Kachai), 왓프랍플라차이(Wat Phlap Phla Chai), 왓타오(Wat Thao), 왓순턴(Wat Sunthon), 왓댕(Wat Daeng)에 진을 쳤다.

열두째 달, 왕은 프라야 딱(Phraya Tak), 프라야 펫차부리(Phraya Phetchaburi), 루앙 수라세니(Luang Suraseni)에게 큰 배들을 이끌고 출정하게 했다. 이들은 왓야이(Wat Yai)로 가서 버마군이 강을 건너기를 기다렸다. 버마군도 방타이래씨와 왓쁘롯사따에 진을 치고, 보병을 앞세워 들판으로 나왔다.

프라야 펫차부리는 왓상카왓(Wat Sangkhawat)에서 전사했다. 프라야 딱과 루앙 수라세니는 달아나 왓피차이(Wat Phichai)에 진을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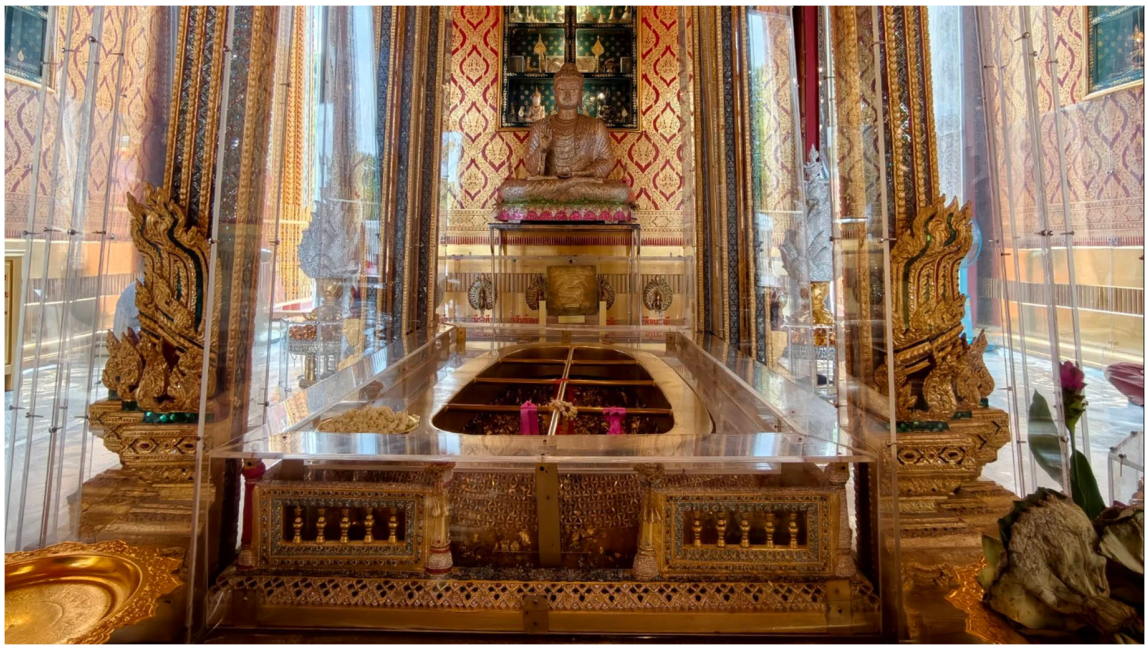
수도 안에서는 **왓차이왓타나람(Wat Chaiwatthanaram)**에 진을 만들고, 중국군은 클롱수안플루(Khlong Suan Phlu)에 진을 쳤다. 아홉째 달이 되자 군대는 패전한 쪽을 지원하도록 배치되었고, 포삼톤 부근의 강가에도 진영을 세웠다.



프래의 군대가 프라풋타밧(Phra Phutthabat) 쪽으로 달아났다. 그곳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왕께서 자비와 덕을 갖추신 분이므로 자신들을 받아들여 보호해 주실 것이라 여겨 버마군과 함께 있었다고 했다.

개해 2 월 저녁, 타사이(Tha Sai)에 불이 났다. 불길은 코끼리 다리를 놓은 곳을 지나 코코넛 숲과 오이밭, 사탕수수밭, 등나무밭, 금밭, 논, 왓라차부라나(Wat Ratchaburana), 프라 마하탓 사원(Phra Mahathat)까지 번져 닿는 곳마다 태워 버렸다.

한편 클롱 수안플루 군영의 중국인 400 여 명이 서로 모의하여 프라풋타밧으로 올라가 성소를 훼손하고, 바닥에 깔린 은과 작은 몬돕을 감싼 금을 모두 벗겨 가져왔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군영 지휘관에게 명하여 **프라풋타밧**의 은과 금을 찾아 보내도록 하였다.



그때 버마군은 프라틴낭 페니앗(Phra Thinang Peniat)을 불태우고 페니앗과 왓삼피한(Wat Sam Piharn), 왓몬톱(Wat Monthop)에 진을 친 뒤 도시를 포위했다.

도성 안에는 도둑이 들끓어 물건을 훔치고 약탈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버마 진영으로 달아났다. 버마군은 타논보라오(Thanon Borao)에 다리를 놓고, 성벽을 뚫으려고 도랑을 파고, 왓낭쁠림(Wat Nang Pluem) 앞에 포대를 세웠다. 큰 대포를 설치한 뒤 왓시포(Wat Si Pho)에 진을 쳤다.

도성 안에서는 큰 대포를 성벽 위로 끌어 올려 타사이의 버마 진영을 향해 쏘았다. 첫 포탄은 너무 낮게 떨어져 빗나갔다. 포탄을 더 높이 쏘아 왓시포를 향하게 한 뒤, 프라야 깔라홈(Phraya Kalahom)과 고위 관리들이 버마군 진영으로 가서 협상을 벌였다.

그들이 페니앗 진영에서 버마군에게 물었다.
"아유타야와 아웅와(Ava)는 예로부터 우호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군대를 이끌고 와 우리 땅을 불태우며 침략하는 것입니까?"

버마군은 대답했다.
"우리는 옛 관례에 따라 조공을 받으러 왔다. 아유타야는 예로부터 아웅와에 조공을 바쳐 왔다. 그런데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다."

버마군은 도성을 포위한 채 2 년 넘게 머물렀다. 도성 안팎의 귀족과 백성, 승려들이 군대를 모아 성을 에워싼 버마군과 맞서 싸웠다.
중국인과 카크족, 프랑스인, 몬족, 라오족, 도적들까지 자원해 전투에 나섰다. 여러 차례 싸웠으나 버마군은 계속 병력을 보충해 다시 공격했다.

아유타야 왕국의 운명이 다해 가는 무렵,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다**. 왓 파난층 워라위한(วัดพนัญเชิงวรวิหาร, Wat Phanan Choeng) 의 주불상**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배꼽까지 닿았고,





아유타야의 '왓 파난층 워라위한(วัดพนัญเชิงวรวิหาร, Wat Phanan Choeng) '프라짜오낭'사원-
연대기 연구에는 '왓 프라짜오 파낭층'의 주불상에서 눈물이 배꼽까지 흘렀다고 나온다.
위치는 아유타야 역사섬 남동쪽 강 건너편, 빠삭강과 짜오프라야강이 합류하는 부근이다.

그날 왓프라시산펫(Wat Phra Si Sanphet)에서는 **프라보롬트라이로카낫(Phra Borom Trai Lokanat)**의 가슴이 갈라지고, 눈이 무릎 위로 떨어지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왓라차부라나의 탑 꼭대기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죽었다.





궁 안 무기고에 있던 나레수안 왕(King Naresuan)의 상이 발을 굴렀는데, 그 소리가 사방으로 퍼졌다. 하늘도 온통 변괴를 보여 도성이 무너질 징조를 드러냈다.

돼지해 놉파쏙(Nopphasok), 음력 9 월 초아흐레 화요일 오후 세 시 무렵, 버마군은 대포를 쏘고 성벽 밑에 장작을 쌓아 불을 붙였다. 성벽이 무너지자 버마군은 도성 안으로 들어와 왕궁과 왓프라시산펫을 불태웠다.

버마군은 **왓차이왓타나람(Wat Chaiwatthanaram)**을 아홉 밤 동안 포위한 끝에 함락했다. 이어 클롱수안플루(Khlong Suan Phlu)의 중국인 진영도 사흘 만에 점령했다.




왕은 왕위에 오른 지 9 년째였다. 버마군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왕과 왕족, 관리들을 사로잡아 갔다.

쭐라삭까랏(Chula Sakarat) 1125 년, 돼지해 놉파쏙(Nophasok) (서기 1763 년, 불기

2306 년), 에까탓 국왕은 홀로 왕궁을 빠져나왔다. 고난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 극락으로 갔다. 백성들이 왕의 시신을 거두어 묻었다.

쭐라삭까랏 **1129 년, 서기 1767 년은 불기 2310 년** 아유타야 왕국은 함락 되었다

마지막 왕 에까탓(Ekathat)의 **묘 나 탑으로 확정된 유적은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연대기와 후대 기록에는 왕의 시신을 몽콘보핏(Mongkhon Bophit) 사원 앞의 코크프라메루(Khok Phra Meru)라는 언덕에 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탁신 왕이 그 유해를 거두어 왕실 화장 의식을 치르게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



****건국 연도 서기 1351 년, 멸망은 1767 년, 417 년간의 아유타야 연대기를 마치며 당대의 화려한 왕궁은 초토화 되었고 그시대를 살아간 민중들은 흙먼지로 사라졌다 그들의 삶에 위로와 그들의명복을 빈다.*** -Won Cub Life-*

**** 살아남은 왕족들이 버마와 톤부리로 흩어지면서 여러 갈래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 ***버마로 끌려간 왕족:*** *왕족과 신하들이 포로가 되어 버마의 아와(Ava)로 옮겨졌습니다. 에까탓 왕의 동생이자 아유타야의 마지막 전왕이었던 우툼폰(Uthumphon)은 승려 신분으로 지내다 1796 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 ***탁신 왕이 거둔 왕족들:*** *버마군이 아유타야를 함락한 뒤 포삼톤(Pho Sam Ton)에 억류돼 있던 왕족 가운데 보롬꼿(Borommakot) 왕의 딸들과 왕손들이 있었습니다. 탁신 왕은 이들을 풀어 톤부리로 데려와 돌보게 했고, 아유타야 왕실의 공주들 가운데 일부는 탁신 왕의 왕비나 후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옛 왕실의 혈통 일부가 톤부리 왕실과 혼인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 ***왕위를 되찾으려 한 왕족들:*** *보롬꼿 왕의 아들 텝피핏(Thepphiphit)은 아유타야 멸망 뒤에도 왕권을 주장하며 여러 세력을 규합했지만, 탁신 왕에게 패해 처형됐습니다. 시상(Si Sang)과 추이(Chui) 왕자는 캄보디아로 피신했고, 두 사람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보낸 서한이 오늘날 인도네시아 국립기록원에 남아 있습니다.*

- *미얀마에는 1767 년 아유타야 함락 뒤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 공동체인 '요디아'(Yodia)가 남아 있습니다. 2026 년에는 그 후손들이 아유타야를 찾아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조상을 기리는 의례를 치렀습니다. 방문단에는 반 플루 루앙 왕가의 직계 후손도 포함됐다고 보도됐습니다.*

- *태국에는 왕족의 후손을 잇는 여러* ***라차사꾼****(Ratchasakun, 왕족 계통 가문)이 있고, 성 뒤에 붙는 "나 아유타야"(Na Ayutthaya)라는 표기도 쓰입니다.*

- *아유타야 왕가의 공주들은 탁신 왕의 왕비와 후궁이 되었고, 탁신의 자녀들도 짜끄리 왕조가 들어선 뒤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마 1 세는 탁신의 장례를 예를 갖춰 치르고 자녀들을 돌보아 관직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탁신의 후손 가운데는 짜끄리 왕족과 혼인해 이어진 가문들이 있고, 일부 계보는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กรมศิลปากร
หอสมุดแห่งชาติรัชมังคลาภิเษก กาญจนบุรี

